

# 조선후기 왜관연구의 새로운 방향

- 일시 2016.11.18(금) 09:00~18:00
- 장소 동북아역사재단 중회의실







## 목 차

- 17~18세기 대마도의 사기번조 요청과 조선의 대응 ..... 09
- 17~18世紀対馬による沙器燔造の要請と朝鮮の対応 ..... 29  
발표 : 이승민 (동국대)
  
- 근세 왜관에서서의 쓰시마번의 외교 활동 ..... 51
- 近世倭館における対馬藩の外交活動 ..... 69  
발표 : 야마구치 카요 (山口華代, 長崎県 教育廳)
  
- 게이오 연간에 이정암윤번제의 폐지와 조일간 외교문서왕복체제의 재편 ..... 89
- 慶応年間における以酌庵輪番制の廃止と日朝間外交文書往復体制の再編 ..... 103  
발표 : 후지모토 켄타로 (藤本健太郎, 長崎市役所 長崎学研究所)
  
- 대마도인 퇴거 이전 조일교섭 ..... 121
- 對馬島人退去以前の日朝交渉 ..... 143  
발표 : 김강일 (강원대학)
  
- 고종의 親政과 조일 교린관계의 재개 노력 ..... 169
- 高宗の親政と日朝交隣関係の再開に向けた取り組み ..... 193  
발표 : 장순순 (가천대)



---

17~18세기 대마도의 사기번조 요청과 조선의 대응  
17~18世紀対馬による沙器燔造の要請と朝鮮の対応

---

발표 : 이승민 (동국대)



# 17~18세기 대마도의 사기번조 요청과 조선의 대응

이승민 (동국대)

1. 머리말
2. 대마도의 도자교역 요청 및 그 실태
  - 1) 沙器燔造 및 陶土의 요청
  - 2) 倭館窯의 건설과 대마도의 陶工 파견
3. 도자교역을 둘러싼 폐단 발생과 조선의 대응
  - 1) 陶土 조달상의 부담
  - 2) 서계문제로 인한 외교적 갈등과 조선의 대응
4. 맺음말

## 1. 머리말

조선후기 대일관계에서 도자류는 공·사무역 등의 일반무역에서는 취급되지 않았고 통신사행이나 문위행이 가져가는 공·사예단품 안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며, 오직 ‘求買’를 통해서만 거래되고 있었다.<sup>1)</sup> 구무는 막부로부터 대조선외교와 무역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대

1) 조선시대에는 실록이나 각종 자료에서 도자류를 가리킬 때 沙器·磁器(瓷器) 등으로 주로 표현하고 있었고, 해당 장인도 沙器匠·磁器匠이라고 부르고 있어서 용어 사용에 일정한 규칙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다(김영원, 『조선시대 도자기』, 서울대학교출판부, 2003, 7쪽). 일반적으로 도기와 자기를 합쳐 도자기라고 일컫는데, 기술적인 면에서 도기와 자기는 구분된다. 도기는 대개 유약을 입혀 900~1,000도 내외에서 燒成한 것이며, 자기는 黏力이 있는 순도 높은 胎土로 器物을 만들고 그 위에 長石質의 유약을 발라 1,250도 내외에서 燒成해서 그 조직이 매우 치밀한 것을 가리킨다(정양모, 『한국의 도자기』, 문예출판사, 1991, 58~59쪽). 즉 보통 가마에서 어느 정도의 온도로 구워내느냐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16세기 후반까지 일본의 도자기 제작기술은 1,000도 정도에서 燒成되는 도기 수준에 머물러 있었고, 조선은 1,200도 이상에서 燒成되는 자기를 생산할 수 있었으며 당시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2번째로 자기를 생산할 수 있었다고 한다. 한편 본고에서는 『倭人求請謄錄』과 『分類紀事大綱』을 기본으로 해당 사료에서 주로 ‘沙器’와 ‘茶碗’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에 의거해 이에 따르도록 하겠다.

마도가 필요한 물품을 구해달라고 요청하면, 조선에서 사안에 따라 심의해서 교역을 허가하는 것을 말한다.<sup>2)</sup> 그 중에는 일반무역에서 구하기 힘들거나 거래되지 않는 것들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도자류 역시 그 중 하나였던 것이다.

대마도는 막부 측의 지시와 의뢰에 따라서 혹은 막부에 진상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등, 대일교역에서 도자는 경제적 의미 뿐 아니라 정치적 의미도 강하게 띠고 있었다. 또한 대마도에서 도자를 요청하고 있었던 상황과 조선에서 이에 대응하는 과정을 살펴보게 되면 그 과정에서 적지 않은 폐단과 외교상의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었다. 따라서 조선 후기 조·일 도자교역을 살펴보는 작업은 조일 양국의 교역실태를 밝히는 것 뿐 아니라 나아가 양국 외교의 성격 및 그 의미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다.

임진왜란 직후 조선에서는 일본으로 납치당한 조선인들을 송환하고 國交를 재개하기 위한 차원에서 1607년(선조 40) 回答兼刷還使를 일본에 파견했고 이후 1609년(광해군 1) 己酉約條가 체결되면서 양국 국교는 정상화되었다. 국교재개 후 양국 교역에서 도자류가 처음 등장한 것은 1611년의 일로, 이후 1717년까지 약 1세기 이상 양국 도자 교역은 지속되었다. 일본에서는 무로마치(室町) 시대부터 차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고 에도시대로 들어가면 소위 와비차(わび茶)라는 것이 크게 융성하게 되면서 이에 따라 茶碗의 수요가 크게 증가했다.<sup>3)</sup> 당시 일본에서는 조선다완의 인기가 높았고 각 지방의 교역에서도 부가가치가 가장 높은 상품 중의 하나였다고 한다. 그런데 임진왜란의 발발로 조선다완의 수입이 일시적으로 단절되자 그 가치는 더욱 올라가게 되었고, 이러한 이유로 국교재개 직후부터 대마도에서는 조선다완의 구무를 행하게 된 것이었다. 그리고 다완의 요청이 도자기를 만드는 데 필요한 흙과 조선인 도공과 인부, 각종 물품의 요청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이제는 완성된 다완 자체를 수입해가는 것이 아니라 왜관 내에서 직접 만들어서 조달하게 하는 倭館窯가 건설되기에 이르렀다.

임진왜란 이후 지속된 양국 도자교역의 상황에 대해서는 일본 측에서 먼저 연구가 시작되었고, 한국에서는 주로 미술사 분야에서 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sup>4)</sup>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주로 문헌이나 수용자의 문제, 해당 다완이 지니는 미술사적 가치, 일본 도자와의 연관성 및 일

2) 『春官志』卷3, 求請; 求貿의 개념과 실태에 대해서는 이승민, 「조선 후기 對馬島 求貿의 개념 및 실태」, 『한일관계사연구』 36, 한일관계사학회, 2010 참조.  
 3) 泉澄一, 「對馬藩の高麗鷹進上にみる幕藩體制」, 『關西大學文學論集』 50-1, 2000, 1쪽. 와비차(わび茶)란 손님을 초대해 차를 즐기는 모임 혹은 그러한 예법인 茶道에 관계된 것으로, 센노리큐(千利休)에 의해 집대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4) 淺川伯教, 『釜山窯と對州窯』, 東京彩漆會, 1930; 澄泉一, 『釜山窯の史的研究』, 關西大學出版部, 1986; 赤沼多佳, 『高麗茶碗』, 至文堂, 2001; 高麗茶碗研究會編, 『高麗茶碗 - 論考と資料』, 河原書店, 2003; 방병선, 「17~18세기 동아시아 도자교류사 연구」, 『미술사학연구』 232, 한국미술사학회, 2001; 방병선, 『왕조실록을 통해 본 조선도자사』, 고려대학교출판부, 2005; 한국미술사학회 편, 『조선 후반기 미술의 대외교섭』, 예경, 2007; 성현주, 「기장지역 도자기의 제작기법과 도자사적 성격」, 『한국민족문화』 33,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09; 이종봉, 「조선시대 기장지역의 도자기 생산과 의미」, 『한국민족문화』 33,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09; 가타야마 마비(片山まび), 「임진왜란 이후 일본 주문 茶碗에 대한 고찰 - 吳器茶碗을 중심으로 -」, 『미술사연구』 24, 미술사연구회, 2010 등 다수.

본 도자 발달에 끼친 영향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서술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조일관계에서의 도자에 대해서는 주로 임진왜란기를 중심으로 당시에 납치된 조선인 도공의 상황, 이후 일본 도자 발전에 끼친 영향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서술되어 있어,<sup>5)</sup> 이후의 상황이나 자세한 교역실태에 대해서는 연구가 미진한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임진왜란 이후 교역이 재개된 1611년부터 종식된 1717년까지 약 100여년의 시기를 대상으로 우선 대마도에 의해 이루어진 사기번조 요청과 흙을 비롯한 각종 물품의 요청 실태,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왜관요의 건설과 陶工의 파견 상황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대마도의 요청에 조선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폐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러한 사실들을 바탕으로 도자를 주제로 한 조일교역의 구체적인 실태와 조선후기 한일관계의 성격과 의미를 이해하는 하나의 단서를 마련해보고자 한다.

## 2. 대마도의 도자교역 요청 및 그 실태

조선전기의 경우 일본 사신이 가져와 조선국왕에게 진상하는 물품은 주로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생산되는 것이 주를 이루고 있었는데 그 외에 靑磁器를 비롯한 일본 국내공예품이 포함되어 있었고, 사무역을 통해서는 磁盆·染盆·菓子盆과 같은 도자류도 일부이긴 하지만 조선으로 수입되고 있었다.<sup>6)</sup> 그러나 이와 반대로 도자가 일본으로 수출되었다는 공식적인 기록은 찾아볼 수 없다. 하지만 당시 삼포왜관 인근에 窯址가 있었던 관계로 그곳에서 제작된 도자가 일본으로 건너갔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유추해볼 수 있다. 조선전기 제포왜관 인근에는 두동리 요지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생산된 분청사기가 일본 井戶茶盥과 양식상 매우 유사한 것으로부터 미루어 현재 그것을 두동리 요지에서 생산된 자기로 보고 있다. 두동리 요지와 제포왜관이 지리적으로 가까워서 두동리 요지에서 생산된 도자가 제포왜관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또 기장지역의 장안리 요지 역시 인근에 염포왜관이 있어서 여기에서 생산되던 도자가 일본으로 수출되었을 가능성도 있었다

5) 김의환, 『朝鮮通信使의 발자취』, 정음문화사, 1985; 구태훈, 「일본에서 꽃핀 조선의 도자기 문화 - 임진왜란 당시 납치된 조선인 도공 이야기-」, 『역사비평』 85, 역사문제연구소, 2008; 변광석, 「임진왜란 직후 기장지역의 상황과 피로인 사기장」, 『한국민족문화』 33,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09.

6) 김옥근, 『朝鮮前期의 釜山經濟』, 『釜山經濟史』, 1989, 117쪽·124쪽.

고 할 수 있다.<sup>7)</sup>

임진왜란 이후 조선후기가 되면 도자가 공식적으로 일본으로 수출되기 시작했다.<sup>8)</sup> 우선 교역 방식은 조일무역의 한 종류였던 求貿를 통하는 것이었다. 중국과의 경우에는 사행 사신들이 청 황제에게 받는 회사품과 사행 노정 중 사적으로 구매하는 경우 외에 開市를 통해 淸의 도자가 유입되기도 했고, 中江開市에서는 조선 자기가 청과 교역하는 데 이용되기도 하고 혹은 밀무역을 통해 도자가 거래되기도 했다.<sup>9)</sup> 그러나 대일교역에서는 사실상 대청교역처럼 開市, 즉 일반무역의 방식으로 자기가 거래되거나 하지는 못했다. 도자 제작과 생산에 관련된 人力과 物力은 司饗院 分院에서 관장하고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정부에서 필요로 하는 도자를 전문적으로 제작하고 있었다. 그런데 분원이 누리는 혜택 중 하나로 서울 및 경기지역 시장독점권이 있었고 시장판매는 주로 시전의 器商이나 경기지역 器商을 통해 판매되었으며, 1883년 분원의 민영화가 이루어지기 전부터 도자를 독점 공급하고 있었다.<sup>10)</sup> 그러나 서울과 경기 이외 지역에서는 도자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器商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고 開市 때 왜관을 출입하며 대마도 상인과 물품을 거래하고 있던 조선상인 중에도 도자를 취급하는 상인은 없었다. 따라서 대마도가 사무역을 통해 조선과 도자를 거래했다고는 보기 힘들다. 또한 1639년 왜관요가 건설된 이후 대마도가 조선의 인력과 물력을 이용해 왜관 안에서 도자를 스스로 제작하기 위해서는 조선정부의 절대적 도움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즉, 주로 막부 측에서 요청해온 도자를 만들기 위해 대마도에서는 필요한 각종 물품을 원활히 공급받는 방식으로 구무의 방법을 활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 1) 沙器燔造 및 陶土의 요청

대마도에서는 1611년부터 1713년까지 약 1세기 동안 대략 40여 차례에 걸쳐 도자 혹은 도자를 만드는 데 필요한 각종 물품과 匠人을 요청해왔다. 이에 조선에서는 몇 차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경우 교역을 허락했다. 요청이 들어와 실제로 교역이 이루어진 시기는 일정하지 않다. 하지만 1630년대 1건, 1640년대 6건, 1650년대 3건, 1660년대 4건, 1670년대 3건,

7) 이종봉, 「조선시대 기장지역의 도자기 생산과 의미」, 『한국민족문화』 33,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09, 29~30쪽.

8) 조선후기에 일본 도자가 수입된 경우도 있었는데, 일본 큐슈(九州)의 아리타(有田)를 중심으로 한 히젠(肥前)의 도자기와 대마도의 도자기가 그것이었다. 17세기 후반에는 대마도에서 조선에 보내는 進上品이었고 18세기 초반부터는 조선에서 주문·생산되어 거래되었는데, 지금까지 10여점이 東萊府 인근 지역에서 출토되었다. 18세기 중반 이후부터는 왜관을 경유해서 일본의 도자기 수입과 주문이 이루어졌다고 한다. 家田淳一, 「第2章 江戸中・後期伊万里の朝鮮貿易」, 原直史·大橋康二編 『日本海域歴史大系』 第5卷 近世編 II, 靑文堂, 2006, 37~60쪽(양홍숙, 「조선후기 東萊 지역과 지역민 동향 -倭館 교류를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09, 159~160쪽에서 재인용).

9) 방병선, 「조선 후반기 도자의 대외교섭」, 『朝鮮 後半期 美術의 對外交渉』, 예경, 2009, 267쪽.

10) 박희진, 「19세기 司饗院 分院의 운영과 그 몰락」, 『조선후기 재정과 시장 - 경제체제론의 접근 -』(이헌창 엮음),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0, 330쪽.

1680년대 7건, 1690년대 4건, 1700년대 7건, 1713년 2건으로, 약간의 편차는 있지만 1611년 처음 교역이 시작된 이래 매 10년 단위로 꾸준히 요청이 들어오고 있었으며, 요청횟수 자체는 그리 많은 편이 아니더라도 한번 요청해 제작해가는 도자의 양은 꽤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대마도에서 요청해오는 도자는 沙器였다. 조선에 사기번조를 요청하고 교역하는 주체는 대마도였지만, 실제로 사기가 대마도 내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사안이 명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대마도에서 조선에 사기번조를 요청했던 것은 자의로 막부 측에 진상하기 위한 경우와 막부 측의 의뢰를 받은 경우의 2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대마도에서 막부의 유력층에게 진상하기 위한 용도이다. 이는 대마도주가 정기적으로 참근교대를 위해 막부가 있는 에도에 가야 하는 상황에서 조선의 사기를 가지고 가서 바친다거나,<sup>11)</sup> 통신사를 수행해서 에도에서 대마도까지 왔다가 다시 에도로 돌아갈 때 쇼군에게 조선사기를 진상해서 생색을 내기 위한 것이라거나<sup>12)</sup> 하는 등의 표현에서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막부 측의 의뢰나 지시를 받은 경우로, 대마도주 스스로 진상하기 위한 것보다 더 많이 요청되었다. 주로 막부의 執政이나 奉行 등 유력층에게 의뢰받아 이를 다시 조선에 요청한 것이었다.

대마도는 일본본토에서 멀리 떨어진 변방의 작은 섬에 불과했지만, 막부로부터 대조선의 교와 무역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고 있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대마도는 일본 내에서는 잘 생산되지 않거나 구하기 힘든 물품들을 조선으로부터 수입해서 막부 측에 진상하거나 혹은 그들의 의뢰를 직접 행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였다. 그 때문에 대마도주는 그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대마도주 자신과 섬을 보호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으로 삼고자 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것은 일본의 근세 봉건제 시스템 속에서 귀한 물품을 진상하는 행위를 통해 대마도주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려 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sup>13)</sup>

대마도에서는 처음에는 완성된 茶器와 瓦器를 요청했다. 1609년 己酉約條가 체결되어 조선과 일본의 國交가 재개된 이후인 1611년(광해군 3) 3월의 일로, 해당물품을 요청하는 서계를 동래부사 앞으로 보내왔고 조선에서는 이를 받아들여 김해의 장인을 불러 다기 몇 개를 제

11) 『倭人求講錄』 1冊, 仁祖 22년(1644) 5월 23일.

12) 『倭人求講錄』 2冊, 孝宗 6년(1655) 7월 5일.

13) 도자류 뿐 아니라 말과 매의 교역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데, 말과 매 역시 일반무역으로는 구할 수 없는 물품이었다. 대마도주는 자신에게 주어진 대조선외교와 무역의 특권을 이용해 이러한 물품을 얻을 수 있었으며 이를 쇼군을 비롯한 막부 유력층에게 진상했다는 것은, 이러한 특수 물품의 교역이 경제적 의미 뿐 아니라 정치적 의미 또한 강했다는 점을 짐작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조선과 대마도의 말·매 교역에 관해서는 이승민의 논문(『조선 후기 對馬島와의 말[馬] 교역과 그 의미』, 『사학연구』 107, 한국사학회, 2012 ; 『조선 후기 일본과의 매[鷹] 교역과 그 의미』, 『한일관계사연구』 45, 한일관계사학회, 2013) 참고.

작해주게 했다.<sup>14)</sup> 이것이 조선후기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도자류 교역 기록이다. 茶器甫兒는 찻그릇보시기라고 해서 茶碗을 일컫는 말이고, 밥사발보다 조금 작은 그릇들을 甫兒라고 한다. 그리고 장인을 招致한 김해는 인근의 동래, 양산·기장 지역 등과 함께 임진왜란 당시 일본군의 초기 진격로로 이용된 곳인데, 이곳에서 많은 민간인들과 각종 기술자들이 납치되어 갔고 그 중에는 다수의 沙器匠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후 한동안 기록이 보이지 않다가 1639년 8월이 되어 대마도로부터 다시 茶器 제조 요청이 들어왔다. 그런데 이때부터는 교역 양상이 변화하기 시작한다. 즉, 1611년의 경우처럼 완제품을 요청해서 수입해간 것이 아니라 대마도에서 직접 見樣을 가져와 조선의 匠人과 白土, 빨감 등을 조선에서 공급해주면 왜관 안에서 직접 만들어가겠다고 한 것이었다. 이 見樣은 당시 참근교대로 에도에 가 있던 대마도주 소 요시나리(宗義成)가 쇼군의 명령을 받아 다시 대마도로 보낸 견본을 말하는 것으로, 조선에서는 요청을 받아들여 순찰사에게 분부해서 하동과 진주의 沙器匠을 보내 왜관 밖의 窯에서 이를 만들어주기로 했다.<sup>15)</sup>

그리고 이후 대마도에서는 완제품이 아닌, 조선의 物力과 人力을 사용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형태의 도자를 만들어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제작에 필요한 각종 흙을 함께 조선에 요청했는데, 그 현황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 1〉 대마도의 陶土 요청 현황<sup>16)</sup>

날짜	白土	기타 흙	비고
1644년 5월 23일	白土 80섬	藥土 10섬 黃土 50섬	
1681년 3월 2일	白土 610섬	藥土 70섬	5말=1섬 500섬만 허락
1687년 7월 2일	경주·진주·곤양·하동 白土 각 45섬씩 총 180섬	울산 藥土 90섬 김해 赤紺土 90섬	5말=1섬
1688년 11월 8일	경주·김해·곤양 白土 각 30섬씩 총 90섬		방색
1689년 3월 5일	白土 30섬		

14) 『邊例集要』 卷12 求賈.

15) 『倭人求請騰錄』 1冊, 1639년(인조 17) 8월 16일. 일반적으로 이것을 '왜관요'의 시초로 보는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서술하도록 하겠다.

16) 『倭人求請騰錄』, 『邊例集要』, 『釜山窯と對州窯』; 흙은 그 수량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을 때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1690년 5월 26일	곤양 白土 22섬 하동 白土 13섬 진주 白土 22섬 경주 白土 44섬씩 총 101섬	울산 藥白土 55섬 김해 甕土 15섬 柿色土 62섬	10말=15섬*
1692년 10월 7일	경주 白土 100섬 하동 白土 40섬 진주 白土 40섬 곤양 白土 40섬씩 총 220섬	김해 赤紺色土 120섬 김해 甕土 30섬	5말=1섬 ※『邊例集要』 (各色土 120섬)
1696년 7월 11일	경주 白土 100섬 하동 白土 40섬 곤양 白土 40섬 진주 白土 40섬씩 총 220섬	울산 藥白土 100섬 김해 赤紺色土 120섬 김해 甕土 30섬	5말=1섬 조선에 흥년이 들어 운반상의 어려움으로 방색
1698년 8월 4일 8월 29일	경주 白土 30섬 진주 白土 20섬 곤양 白土 20섬 하동 白土 10섬씩 총 80섬	울산 藥白土 6섬 김해 甕土 10섬	10말=1섬

질 좋은 도자를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주재료가 되는 흙이다. 대마도에서 요청한 흙은 白土·赤紺土·黃土·甕土·藥土 등 색깔별·용도별로 구분되는데 그 중 백토의 요청건수 및 수량이 가장 많았다. 조선후기 사용원에서 도자를 굽는 데 사용되는 백토는 경주·진주를 비롯해서 전국 각지에서 채취되었는데,<sup>17)</sup> 대마도에서 요청한 것은 경주·진주·곤양·하동 등 네 곳에서 생산되던 백토였다. 이는 倭館과 같은 경상도 내에 있는 지역이었는데, 특히 진주와 곤양에서 생산되는 白土는 광주·양구의 백토와 함께 품질이 우수하기도 유명했다.<sup>18)</sup> 대일무역에 필요한 물품을 마련할 때는 왜관이 위치한 경상도 내에서 조달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었기 때문에 대마도에서는 위 네 곳의 흙을 요청하고 조선에서도 이를 조달·공급해준 것이다. 다만 주요 생산지 중 왜관과 더 가까웠음에도 울산과 김해의 경우에는 백토 대신 藥土<sup>19)</sup>와 김해의 적감토·옹토를 요청해서 사용했다. 흙을 요청했을 때 지역을

17) 『備邊司謄錄』 肅宗 16년 10월 28일. 진주·경주·곤양·울산·김해·하동·서산·충주·양구·원주·이천·여주·광주·가평·선천·봉산 등 북으로는 선천에서 남으로는 경주·진주에 이르기까지 전국에 걸쳐 백토가 생산되고 있었다고 한다(방병선, 『조선후기 백자 연구』, 일지사, 2000, 59쪽).

18) 『司囊院播造磁器 一年二次春秋進上 廣州楊口晉州昆陽最宜播土處掘取船運』(『續大典』 工典 雜令條).

19) 藥土는 낙엽 같은 것이 섞여서 이루어진 흙으로, 腐葉土·腐植土를 가리키는 것이다. 주로 산의 계곡·시냇가·저수지·논 등에서 채취하는데, 낙엽이 부식해서 생기는 무기질이 검정·노랑·초록 등 다양한 색깔을 만들어낸다고 한다. 도기와 옹기의 유약 원료로 사용되며, 낮은 온도에서 녹아내리기 때문에 단독으로 자기에 사용하기는 어렵고 다른 원료와 혼합해서 사용한다(방병선, 『순백으로 빛어낸 조선의 마음, 백자』, 돌베개, 2002, 219쪽; 국사편찬위원회 편, 『한반도의 흙, 도자기로 태어나다』, 국사편찬위원회, 2010, 333쪽).

명시하고 있는 것을 보면, 대마도에서도 이미 조선의 주요 흙 생산지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대마도에서 요청한 白土의 총수량은 1,531섬인데, 1681년에는 요청한 610섬 중 500섬만 지급되었고 1688년에는 전량 방색되었으므로, 조선에서 실제로 지급한 白土는 1,331섬이 된다. 藥土는 321섬, 赤紺色土는 330섬, 柿色土 62섬, 甕土 85섬이 요청되어 전량 지급되었다. 따라서 白土와 各色土를 합쳐 대마도에서 요청한 胎土의 총량은 2,329섬이며, 조선에서 지급한 실제수량은 2,129섬이다. 그런데 대마도에서 白土나 기타 흙을 요청했던 시기에 따라 섬을 계산하는 방식에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다. 원래 용량의 한 단위인 섬[斛子]은 쌀 등의 곡물이나 사료 등을 갈무리하는 데에 쓰이는데, 조선에서 일본에 公作米 등의 쌀을 지급할 때는 小斛이라 해서 15말을 1섬으로 계산해서 주었다.<sup>20)</sup> 白土 역시 쌀을 담는 섬으로 계산해서 주었는데, 일반적으로 흙의 양은 10말을 1섬으로 한다고도 하기도 하고,<sup>21)</sup> 『倭人求請謄錄』을 보면 10말이 아니라 15말을 보통 1섬으로 계산했던 것 같다.

그런데 대마도에서 흙을 요청해올 때 보통은 5말을 1섬으로 계산했고, 10말을 1섬으로 계산한 적도 있었다. 10말이나 15말을 1섬으로 계산하는 것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적게 준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꼭 그렇지만도 않았다. 만약에 조선 방식대로 15말을 1섬으로 하게 되면 그 수량이 지나치게 많아지기 때문이다.<sup>22)</sup> 그런데 대마도의 요청대로 5말을 1섬으로 계산하게 되면 실제 수량은 그보다 적어지게 된다. 그러나 지급하는 실제 수량이 적어졌다고 해서 그 흙의 절대량이 적었다고 말하기는 힘들다. 대마도에서 요청한 흙은 한 번에 적게는 수십 섬에서부터 많게는 수백 섬에 이르기까지 실제로는 엄청난 분량이었다. 대마도에서는 조선에서 공급해 주는 흙을 가리켜 ‘御馳走土’라고 부르기도 했는데, 이는 送使의 접대비 대신 이 흙을 받기 원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대마도에서는 조선으로부터 공급받은 흙을 다기 제작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도 있었다고 하며, 그것을 왜관 내에서만 사용하지 않고 일부를 일본으로 가져가 큐슈(九州) 혹은 다른 藩의 官窯로 유통한 것으로 추측되기도 한다.<sup>23)</sup>

한편 대마도에서는 사기를 만드는 데 필요한 찧감 역시 조선에 요청해서 구하고자 했다. 사기는 초벌구이를 한 후 유약을 입히고 다시 높은 온도로 장시간 구워내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찧감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흙과 달리 당시 사기 제작에 어느 정도의 찧감이 소용

20) 田代和生, 『對馬藩의 조선쌀 수입과 倭館升』, 『한일문화교류사』, 민문고, 1991.

21) 淺川伯教, 『釜山窯と對州窯』, 東京彩壺會, 1930.

22) 『倭人求請謄錄』 6冊, 肅宗 18년(1692) 10월 7일.

23) 일본 아리타(有田)에서도 대마도로부터 자기 제작에 필요한 흙을 구입하는 관습이 예전부터 있었다고 전해진다. 淺川伯教, 『釜山窯に就て』, 『釜山窯と對州窯』, 東京彩壺會, 1930.

되었는지, 조선에서는 그 땀감을 어떻게 공급해주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어서 정확히 알 수 없다. 다만 조선에서는 왜관 내 대마도인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땀감과 숯[柴炭]을 경상좌우도의 각 鎭에서 공급받아 釜山鎭에서 이를 지급하게 했는데<sup>24)</sup>, 사기 제작에 필요한 땀감 역시 비슷한 방법으로 조달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 2) 倭館窯의 건설과 대마도의 陶工 파견

한편, 대마도의 사기변조 요청과 관련해서 주목되는 사실로 왜관요의 존재와 대마도로부터의 도공(燔師) 파견을 들 수 있다.

왜관요는 1639년에 왜관 안에 만들어져 1717년 폐쇄될 때까지 약 80년간 존속하며 대마도 측에서 필요로 하는 각종 사기를 제작해간 곳이었다. 그런데 현재 학계에서는 ‘倭館窯’대신 ‘釜山窯’라는 이름이 사용되고 있다.<sup>25)</sup> 부산요라는 이름을 공식적으로 가장 먼저 사용하기 시작한 사람은 일제강점기에 한반도의 도자기를 연구하며 『釜山窯と對州窯』라는 책을 저술한 아사카와 노리타카(淺川伯教)<sup>26)</sup>이다. 이후 이 이름이 굳어지게 되면서 지금도 일반적으로 부산요로 불리고 있는데, 이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기에는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일반적으로窯의 이름은 그窯가 위치한 지역명을 따라 붙여지기 마련인데, 아사카와 노리타카 역시 왜관이 위치했던 부산의 이름을 붙여 부산요라는 이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실 부산요라는 이름은窯가 존재하고 있던 그 當代에 사용되던 용어는 아니었으며, 또한 대마도종가문서나 실록 등의 당대 사료를 살펴봐도 부산요라는 이름은 등장하지 않는다. 다만 ‘왜관에 설치된 요’라는 의미에서 ‘倭館窯’혹은 ‘和館窯’<sup>27)</sup> 등으로 기록되어 있거나, 단순히 ‘窯’라는 명칭만이 사용되고 있다. 아사카와 노리타카가 이름을 붙인 부산요는 왜관, 즉 두모포왜관 시기나 초량왜관 시기나 왜관 안에 설치된窯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대일교역을 위한 도자만을 전문적으로 생산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료에 근거해 ‘왜관요’라고 부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24) 땀감은 絶影島에서 베거나 柴炭 보관 장소인 營纏 근처 산에서 마련했고, 숯은 돈으로 조달하기도 했다고 한다. 1630년(인조 8)에는 각 鎭浦의 防軍價布 중 매년 73동 30필을 부산진에 획급해 주어 왜관으로의 入給을 전담하게 했다(『增正交隣志』卷4, 柴炭支給).

25) 釜山窯라는 이름은 일본 국어사전에도 등재되어 다음과 같이 소개되고 있다. “에도시대 대마번이 조선 부산의 왜관에 세운 도자기 가마. 寛永 16년(1639)에서 享保(1716~1736) 초기에 걸쳐 御本茶碗(일본에서 주문한 찻잔) 등을 구웠다.”

26) 아사카와 노리타카(1884~1964)는 메이지(明治)~쇼와(昭和) 시대의 조각가이자 조선도자기 연구가로, 아사카와 타쿠미(淺川巧)의 형이기도 하다. 1911년 조선에 건너와 조선도자기의 발굴과 古窯의 연구에 힘썼으며, 1924년 야나기 무네요시(柳宗悦) 등과 함께 경성에 조선민족미술관을 세웠다(朝日新聞社, 『朝日日本歴史人物事典』, 朝日新聞社, 1994).

27) 대마도종가문서 등의 사료에서는 보통 왜관을 가리키는 일본식 명칭인 ‘和館’을 사용해 ‘和館窯’라고 쓰기도 한다. 다만 본 논문에서는 조선식 명칭인 왜관을 사용해 왜관요로 통일하도록 하겠다.

왜관요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었는지는 두모포왜관 시기에는 명확하지는 않지만, 초량왜관 시기에는 館內 東館 쪽에 가마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오다 쇼고(小田省吾)에 따르면, 일제강점기 부산 本町 1丁目과 2丁目に 술집과 두부집이 있었고 2丁目과 3丁目에는 고지도에 ‘御茶碗造所’로 기록되어 있는 도자기 제조소가 있었는데 이곳이 바로 대마도에서 도공을 보내 도자기를 굽도록 했던 곳이다.<sup>28)</sup> 이 곳에 1908년 부산부립병원이 건립되었고 현재는 광복동 로얄호텔 자리에 해당한다.

왜관요는 1639년 대마도주 소 요시나리(宗義成)가 쇼군 도쿠가와 이에미쓰(德川家光)의 명령을 받아 조선정부에 의뢰해 부산에 도자를 제작·생산하기 위해서 만든 가마로, 대마도에서 요청해온 도자는 거의 대부분 사기, 특히 다완이었다. 조선 사기를 높게 평가하고 있던 일본인들은 대마도를 통해 이를 구하고자 했고 점점 그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서 조선으로부터 완성된 다완을 구하는 데 한계에 부딪히자, 왜관 내에서 직접 다기를 생산할 수 있는窯를 만들어 직접 이를 조달하고자 한 것이었다.<sup>29)</sup> 여기에서 만들어진 다기는 위로는 쇼군 등 막부 측에 바쳐졌고, 일부는 오사카(大坂)와 사카이(堺) 상인에게까지 판매되었는데 조선풍과 일본풍이 혼합되어 매우 인기가 많았다고 한다.<sup>30)</sup>

왜관요가 만들어진 후 대마도에서는 다음과 같이 대마도의 도공을 왜관에 파견해서 조선의 도공과 함께 조선의 흙과 각종 물품을 이용해서 대규모로 다완을 만들기 시작했다.

〈표 2〉 왜관요 존속시 대마도에서 파견한 도공[燔師]<sup>31)</sup>

파견시기		도공
서기(조선)	일본연호	
1644년(인조 22)	正保 元	橋倉忠助
1647년(인조 25)	正保 4	渡邊傳次郎
1650년(효종 1)	慶安 3	大浦臨齋
1651년(효종 2)	慶安 4	渡邊傳治
1654년(효종 5)	承應 3	古賀判太夫·藏田彌三右衛門
1655년(효종 6)	承應 4	宮川道安

28) 小田省吾, 『釜山の倭館變遷と遺址』, 朝鮮史學同考會 編, 1925.

29) 淺川伯教, 『釜山窯と對州窯』, 東京彩壺會, 1930; 澄泉一, 『釜山窯の史的研究』, 關西大學出版部, 1986.

30) 田井友季子, 『對馬物語』, 光言社, 1994, 161쪽.

31) □陶工被差渡候一件□(□分類紀事大綱□ 1기 편찬본, 日本國立國會圖書館 所藏, 韓國國史編纂委員會 MF0003039); 淺川伯教, □釜山窯と對州窯□, 東京彩壺會, 1930.

1662년(현종 3)	寬文 2	中山意三
1663년(현종 4)	寬文 3	船橋玄悅
1665년(현종 6)	寬文 5	阿比留茂山
1669년(현종 10)	寬文 9	青木善右衛門·阿比留茂山
1672년(현종 13)	寬文 12	中庭茂山(阿比留로 개명)
1676년(숙종 2)	延寶 4	中庭茂山·波多野重右衛門 長留藤左衛門·國分知齋
1678년(숙종 4)	延寶 6	中庭茂山·青木善右衛門
1681년(숙종 7)	延寶 9	中庭茂山·入江武左衛門 松村軍右衛門·長留藤左衛門·藤川茂兵衛
1685년(숙종 11)	貞享 2	中庭茂山·宮川道二·藤川茂兵衛
1687년(숙종 13)	貞享 4	宮川道二·藤川茂兵衛
1690년(숙종 16)	元祿 3	松村彌平太
1693년(숙종 19)	元祿 6	長留藤左衛門
1695년(숙종 21)	元祿 8	松村彌平太
1698년(숙종 24)	元祿 11	松村彌平太
1702년(숙종 28)	元祿 15	松村彌平太
1713년(숙종 39)	正德 3	宮川道二
1717년(숙종 43)	享保 2	平山意春

대마도에서 파견되는 도공은 단순히 다완을 만드는 일에만 종사한 것이 아니라 제작 전반에 관한 일을 진두지휘했던 것으로 보인다. 기록에 따르면 왜관요가 설치된 직후인 1644년 하시쿠라 츠스케(橋倉忠助)를 시작으로 폐지된 시기인 1717년 히라야마 이순(平山意春)에 이르기까지 총 19명의 도공이 대마도에서 왜관으로 파견되었다. 횡수로는 아비류 시게야마(阿比留茂山)<sup>32)</sup>가 7회로 가장 많고 마츠무라 야헤이타(松村彌平太)<sup>33)</sup>가 4회, 후지카와 젠에몽(藤川善右衛門)과 미야카와 도지(宮川道二)가 각각 3회씩 파견되었다. 그리고 다완의 成形을

32) 阿比留茂山과 中庭茂山은 동일인물이다. 소 요시나리(宗義成)과 소 요시자네(宗義眞) 시대에 활약한 도공으로, 후에 나카니와(中庭)이라는 성을 부여받았다(朝日新聞社, 『朝日日本歴史人物事典』, 朝日新聞社, 1994). 淺川伯教의 『釜山窯と對州窯』에는 中庭茂山이 阿比留茂山으로 개명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淺川伯教, 『釜山窯と對州窯』, 東京彩壺會, 1930), 이는 사실과 다르다. 성을 부여받은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지만, 1655년과 1665년에는 阿比留라는 성으로, 이후 1672년부터는 中庭이라는 성으로 건너간 것으로 보아 1665년과 1672년 사이에 새로운 성을 부여받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陶工被差渡候一件』에는 그의 이름이 茂山이 아닌 茂三으로 기록되어 있기도 하다(『陶工被差渡候一件』, 『分類紀事大綱』 1집, 日本國立國會圖書館 所藏, 韓國國史編纂委員會 MF0003039).

33) 마츠무라 야헤이타는 對州御本·白手彌平太라 불린 다완을 만든 것으로도 유명하다(朝日新聞社, 『朝日日本歴史人物事典』, 朝日新聞社, 1994).

담당하는 工匠倭, 그림을 그리는 畵工倭, 조각을 담당하는 彫刻倭 등이 이들 도공과 함께 파견되어 제작에 참여했다.

도공 중 주목되는 인물인 마츠무라 야헤이타는 1687년에 파견되었던 미야카와 도지와 교대해서 1690년에 처음 왜관으로 왔다.<sup>34)</sup> 그런데 그때 그가 가져온 書契는 전례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었고 흠을 여러 차례 과도하게 요구하면서 문제가 되어 조선에서는 역관으로 하여금 방색하게 했다.<sup>35)</sup> 이에 시마오 하치자에몽(嶋雄八左衛門)이 新館守로 부임하면서 서계를 고쳐서 다시 가져왔는데, 첫 면에 ‘東萊釜山兩令公大人閣下’라고 쓰는 부분에 ‘令公’ 두 자를 써넣지 않아 이 역시 다시 돌려보내졌다.<sup>36)</sup> 또한 마츠무라 야헤이타는 이후 1703년 사기번조 요청이 있어서 동래부사와 관수가 만나 논쟁을 벌일 당시에도 참석했는데 그 과정에서 불손한 태도로 일관하면서 조선 측에 부정적인 인상을 심어주기도 했다.<sup>37)</sup> 결국 이러한 일련의 사건을 거치면서 1713년과 1717년 2차례를 마지막으로 대마도의 사기번조 요청은 끝을 맺게 되고 결국 1717년 왜관요는 폐지되었다.<sup>38)</sup> 이후 왜관요에서 기술을 습득한 도공들은 대마도로 돌아가 對州窯(對馬窯)를 만들어 사기번조를 이어나갔다.

왜관을 통해 도자가 교역되고 대마도가 왜관요를 만들어 조선에서 직접 도자를 제작해갔다는 것은 동시기 다른 대일무역품과는 다른 독특한 특징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대마도에서 교역을 원하는 물품은 조선에서 생산되는 것이거나 혹은 조선에서 제작되어 이미 하나의 완전한 형태를 지니고 있는 것이었다. 그에 비해 도자의 경우에는 대마도에서 견본을 직접 가져와 조선의 흙과 땀감 등의 물품, 그리고 제작에 필요한 조선의 인력 등을 이용해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만들어서 가져가는 등, 조선과 일본의 힘이 모두 들어간 특이한 형태를 띠고 있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4) 『陶工被差渡候一件』, 『分類紀事大綱』 171 편찬본, 日本國立國會圖書館 所藏, 韓國國史編纂委員會 MF0003039.

35) 『倭人求請謄錄』 6冊, 肅宗 16년(1690) 5월 26일.

36) 『倭人求請謄錄』 6冊, 肅宗 16년(1690) 9월 27일. 『釜山窯と對州窯』에는 글을 수정해서 일이 수습되고 4개월여 만에 흠을 지급받았다고 되어 있지만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이후의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기 힘들다.

37) 『倭人求請謄錄』 7冊, 肅宗 29년(1703) 12월 16일.

38) 淺川伯教는 마츠무라 야헤이타를 가리켜서 성격이 거칠어 자주 말썽을 일으켰고 결국 왜관요 폐지의 등기를 만든 인물로 평가했다(淺川伯教, 『釜山窯と對州窯』, 東京:彩畫會, 1930).

### 3. 도자교역을 둘러싼 폐단과 조선의 대응

#### 1) 陶土 조달상의 부담

대마도에서 사기번조 요청이 들어오면 조선에서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를 허락해서 필요한 흙과 관련 물품들을 제공해 주었다. 그것은 처음 요청을 받고 들어준 이래 그것이 前例처럼 되어 버려 특별한 명분이 없는 한 무작정 방색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sup>39)</sup> 이러한 사실은 사기번조 요청 외에 다른 물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조선에서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전례의 有無와 해당 물품이 易得之物인지 難得之物인지의 여부였으며,<sup>40)</sup> 사실 전례가 있다고는 해도 그것은 交隣의 도리로 여겨 한때 대마도의 사정을 참작해서 허락해준 것이었다. 그러나 대마도에서는 그것을 하나의 約條처럼 여겨서 요청하면 조선에서 당연히 이를 들어주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했고,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동래부사 앞에서 관수가 할복을 하겠다는 말을 하기도 하는 등 온갖 회유와 협박의 말을 일삼기도 했다.<sup>41)</sup>

또 다른 문제는 요청하는 흙의 수량이 지나치게 많고 이를 요청에 알맞게 채취하거나 혹은 그것을 왜관까지 운반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데 있었다. 흙의 공급은 기본적으로 조선 백성의 賦役으로 이루어졌다. 보통 사용원 분원에서 필요로 하는 흙은 조선 백성의 賦役을 통해 공급 되었는데, 해당 지역의 백성들에게 부역을 가하고 役價를 지급하는 방식이었다. 그런데 흙을 캐는 것이 쉽지 않은 작업인데다 수많은 인원이 동원되었으며<sup>42)</sup> 그 과정에서 작업을 감독하는 관원이 役價를 중간에서 빼돌리는 등의 문제도 발생하면서,<sup>43)</sup> 조선 백성들에게 적지 않은 고통을 주었던 것이다.<sup>44)</sup> 이러한 상황은 대마도에서 한 번에 요청하는 백토의 양이 많은 상황에서 이를 왜관에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경상도 일대의 생산지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채취한 흙을 왜관까지 운반해야 하는데 경주·진주·하동·울산 등의 지역이 왜관에서 거리상으로도 제법 떨어져 있었고, 대마도에서 흙을 요청한 시기가 주로 여름과 가을 무렵에 집중되어 있어 농번기에 이를 운반하는 데에도 역시 많은 어려움이 뒤따랐다. 이러한 상황에서 흙의 조달이 계속 지체되자 왜관에서는 독촉을 계속하는 한편, 만약 끝

39) 『倭人求請謄錄』 5冊, 肅宗 11년(1685) 7월 27일

40) 이승민, 「조선후기 對馬島 求賣의 개념과 실태」, 『한일관계사연구』 36, 한일관계사학회, 2010, 100쪽.

41) 『倭人求請謄錄』 7冊, 肅宗 29년(1703) 1월 10일.

42) 『備邊司謄錄』, 孝宗 4년(1653) 11월 30일 ; 『承政院日記』, 孝宗 4년(1653) 11월 30일.

43) 『備邊司謄錄』, 孝宗 7년(1656) 7월 20일 ; 『承政院日記』, 孝宗 7년(1656) 7월 20일.

44) 해당 지역의 백성들에게 부역을 부과하는 방식에 대한 폐단이 증가하고 민원도 늘어나게 되면서 1716년에는 농한기에 샅군을 사서 흙을 파내고 낭청이 내려 품질검사를 한 후 운송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備邊司謄錄』, 肅宗 43년(1717) 12월 27일).

내 조달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조선 譯官을 통해 은밀히 조달하고자 하는 시도를 하기도 했다. 1691년 2월 朴同知가 왜관 측에 자신이 몰래 흙을 사서 가능한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을 건넸고 그해 8월 실제로 박동지는 많은 양은 아니었지만 어느 정도의 흙을 마련해서 왜관으로 이를 몰래 들여보냈다고 한다.<sup>45)</sup>

그렇다면 조선에서 이러한 사기번조에 필요한 흙과 땀감 등을 왜관에 공급해주고 그에 대한 결제는 어떠한 방식으로 처리하게 했을까. 사실 그에 관한 정확한 기록은 없다. 하지만 1698년 사기번조 요청에 대해 各色土의 무역을 허락하면서 이미 전례가 있다고 이야기했고 또한 그냥 주는 것이 아니므로 경상도에 명해 수량에 맞추어 이를 허락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sup>46)</sup> 無償으로 지급한 것은 결코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구무로 교역이 이루어지는 물품은 기본적으로 有償이 원칙이었다. 宰臣 용어 사용이 문제가 되었던 1703년의 경우를 보더라도 이 사실은 확실해진다.

좌의정 李畬가 말하기를 “예조의 등록을 가져다보니 기사년(1689) 동래부사의 장계에 ‘求買’, ‘許買’라는 말이 있으니 이로 미루어본다면 이는 交易인 듯 한데, 그 전후로는 ‘許給’ 혹은 ‘入給’이라고 했기에 倭譯 등을 불러 물어보니 말하기를, ‘이전부터 그냥 주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이 과연 어떠한지 모르겠지만, 교역이라면 이전부터 이미 허락한 일이라.’고 하니 한결같이 방색할 필요는 없고 비록 곧바로 준다고 하더라도 그 청하는 것이 과연 간절하고 긴급한 데서 나왔다면 재량해서 허락해주는 것도 불가할 것이 없습니다. 다만 그 서계의 뜻이 전혀 성실하지 못하고 서식이 또한 매우 외람되니, 이 서계로 말미암아 지급을 허락하는 것은 불가합니다.”라고 했다.<sup>47)</sup>

라고 해서, 무역을 허가한다는 뜻의 ‘許買’를 사용해서 求買와 같은 개념으로 보고 있었던 것이다. 즉, 왜관으로 흙 등의 물품을 공급해주면서 그에 관한 값을 치르게 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다. 하지만 어떠한 방식으로 결제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기록이 없다. 다만 구무를 통한 일반적인 대일무역품의 결제가 公木이나 公作米 등에서 해당 물품의 가격만큼 제하고 주는 방식, 혹은 별도로 그 값만큼을 치르게 하는 방식이었던 것을 생각하면, 사기번조에 필요한 각종 물품의 결제 역시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45) 『陶工被差渡候一件』, 『分類紀事大綱』 17기 편찬본, 日本國立國會圖書館 所藏, 韓國國史編纂委員會 MF0003039.

46) 『倭人求請謄錄』 7册, 肅宗 24년(1698) 8월 29일.

47) 『倭人求請謄錄』 7册, 肅宗 29년(1703) 12월 28일.

## 2) 서계문제로 인한 외교적 갈등과 조선의 대응

한편, 교역상 논란이 되었던 또 다른 문제로 도자 제작에 필요한 白土와 沙器匠 등을 요청 하면서 대마도에서 조선으로 보낸 書契를 들 수 있다. 서계는 예조참의와 대마도주 간에 오고 가던 외교문서로, 본래는 중국 書簡文에 바탕을 둔 書式 외교문서이지만 양국의 통교관계를 규정하는 것인 만큼 사용 字句·그것의 기재위치·날인 장소에 이르기까지 양국 간에 합의된 양식이 존재했고,<sup>48)</sup> 본문의 文言 및 文體까지를 포함해서 違式書契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었다. 또한 서계식으로 규정되지 않는 것이라도 前例가 없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敬意가 결여되어 있거나 대등의 원칙을 벗어난 것으로 國體를 손상시키는 것으로까지 받아들여졌다.<sup>49)</sup>

대마도에서 도자 관련 뿐 아니라 각종 물품을 요청하면서 그에 관한 내용을 담은 서계를 조선에 보낼 때는 반드시 대마도주 명의로 된 것을 보내야만 했다. 그런데 사기번호 요청을 하면서 이러한 격식을 지키지 않아 외교상에 문제가 발생했던 것이다. 대마도의 구무 요청 문서와 관련해서는 물론 다른 물품의 경우에도 대마도가 조선에 문서를 보냈다는 기록은 존재한다. 하지만 문서의 형식이나 내용에 문제가 있어서 실제로 교역과정에서 갈등이 생겨났다는 등의 기록은 오직 도자 교역에만 등장하고 있다.

사실 서계는 외교문서이기 때문에, 외교상의 문제가 아닌 무역과 관계된 일로 인해서 서계가 오고간 적은 없었다.<sup>50)</sup> 그런데 기록을 보면 대마도에서 조선 측에 구무를 요청할 때는 서계를 지참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사무역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서계가 구무 과정에서 왕래했다는 것은 구무가 지닌 특징을 설명해주는 단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즉 구무는 사무역에서 보 수 있는 단순한 경제 교류를 넘어서서 외교적 성격까지 동시에 지니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처음 문제가 발생한 것은 1678년의 일이었다. 에도의 執政 등의 의뢰와 대마도 내에서 사용할 사기를 번조할 필요가 생기자 대마도에서는 각종 色土를 요청했는데 이때 대마도 奉行의 명의로 서계를 보내왔다. 조선에서는 대마도주가 서계와 路引을 만들어 보내는 것 외에 평소에 奉行 등이 서찰을 보내는 규정은 없다고 하면서 이것은 規外의 일이므로 접수할 수 없다

48) 서계는 기본적으로 10가지 항목으로 이루어진다. ①발신인의 號名 ②문서를 보낸다는 뜻의 字句 ③수신인의 職名(他稱) ④發語 ⑤본문 ⑥結語 ⑦年紀 ⑧ 발신인의 職名 ⑨圖書 ⑩進上物目を 기록한 別幅進上. 이러한 방식은 조선전기에 대부분 확립된 것인데, 조선후기의 서계양식 역시 이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이훈, 「조선후기 違式書契를 통해서 본 朝日交涉의 특징」, 『한일관계사연구』 1, 한일관계사학회, 1993, 49~50쪽; 장순순, 「조선후기 日本의 書契 違式實態와 조선의 대응 -『邊例集要』를 중심으로-」, 『한일관계사연구』 1, 한일관계사학회, 1993, 83~84쪽).

49) 이훈, 위의 논문, 1993, 49~50쪽.

50) 田代和生 著, 정성일 譯, 『왜관 - 조선은 왜 일본사람들을 가두었을까?』, 논형, 2005, 143쪽.

고 했다. 이에 대마도에서는 이전에 사기를 구울 때 흙과 땀감을 운반하는 것이 지연되었을 뿐 아니라 흙의 품질이 좋지 않아 사기 굽는 일이 지연되었다고 하면서 신속히 일을 마무리 짓기 위한 것일 뿐 별다른 의도는 없다고 했다. 하지만 서계를 보낸 당시는 대마도주가 참근 교대로 섬을 비웠을 때도 아니어서 이는 외교격식에 분명히 어긋나는 일이었기 때문에, 조선에서는 이를 문제 삼아 서계의 접수를 거부했다.<sup>51)</sup>

1688년에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때는 ‘宰臣’이라는 용어 사용이 문제가 되었다. 같은 해 5월 茶禮 때 다완을 만드는데 필요한 조선의 흙과 細工人 등을 요청하면서 宰臣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던 것이다. 동래부사는 이 용어가 격식에 맞지 않아 서계를 접수해서 조정에 보고를 올릴 수 없으며 그렇게 해서는 일이 해결될 수 없다며 宰臣이라는 말을 빼고 家臣이라고 하거나 도주 명의로 다시 작성한 서계를 요구했다. 그러나 대마도 측에서는 이는 前例가 있는 일이라고 하며 오히려 東萊府 측의 기록을 찾아보라고 하거나 宰臣과 家臣이라고 하는 말이 큰 차이가 없다며 이를 거부하기도 했다.<sup>52)</sup>

1690년에는 서계 첫 면에 들어가는 ‘東萊釜山兩令公大人閣下’의 문구 중 ‘令公’이 빠져 문제가 되었고,<sup>53)</sup> 1696년에도 도주가 대마도에 있는데도 奉行 등이 사사로이 서계를 보내오는 등 외교격식에 어긋나는 일들이 되풀이되면서 서계 접수가 거부되기도 하는 등<sup>54)</sup>의 문제가 계속 일어났다.

宰臣 용어 사용이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은 1703년의 일이었다. 1703년 10월에 작성되어 그해 말 보내온 서계 역시 도주 명의를 아니라 그 신하 등이 宰臣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사기번조를 요청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日本國 對馬州 宰臣 平方直 등이 朝鮮國 東萊 釜山 兩令公 大人 閣下에게 받들어 올린. 때는 初寒인데 여러분께서는 편안하시어 위로되는 마음 그치지 않습니다. 이에 고하오니 지난해 요청한 도기를 만들려고 기술자 몇 사람을 보냈는데 생각건대 먼저 아시고 흙과 장작 일로 매우 고생할 것이나, 이웃에게 잘하도록 주선하시는 데 감사할 뿐 아니라 하물며 또한 고맙게도 백성의 힘을 수고롭게 하시니, 誠信의 독실함이 아니면 어찌 이렇게까지 하겠습니까. 감히 바라오니 더욱 더 돌보아 주시어 지

51) 『倭人求請謄錄』 4冊, 肅宗 4년(1678) 8월 22일

52) 『陶工被差渡候一件』, 『分類紀事大綱』 171 편찬본, 日本國立國會圖書館 所藏, 韓國國史編纂委員會 所藏, MF00030339.

53) 『倭人求請謄錄』 6冊, 肅宗 16년(1690) 9월 27일.

54) 『倭人求請謄錄』 7冊, 肅宗 22년(1696) 7월 11일. 이때 조선에서는 기근이 들어 사기번조에 필요한 물품을 구하거나 운반하는 것이 힘들다고 판단했는데, 만약 도주 명의로 서계가 다시 온다면 이를 거절하기 힘들 것이라고 판단해 訓導와 別差로 하여금 왜관 측에 미리 말을 건네 도주의 서계가 오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했다.

금 와서 예전 규정을 어기지 않고 급히 지시해 주기를 바라오니, 감사하는 마음 어찌 그침이 있겠습니까. 다만 해를 보내고 흠을 가리는 것은 이전의 오던 것과는 이미 다른지라 이런 까닭에 그릇 굽는 것이 누차 어긋나는 폐단이 있으니, 바라건대 예전 사례를 준수해서 특별히 수고로이 타일러 도공들로 하여금 그릇을 빚어 만드는 데 삼가지 못한 책임을 면하게 하신다면 미혹함과 다행함이 어찌 천번 만번에 그치겠습니까. 고을 수령이 마침 東都에 직무가 있기에 저희들이 감히 이 뜻을 알리면서 간절하게 바라는 마음 들 데 없어 다만 높이 살피주시기를 바라오며 이만 삼가 퍼지 못합니다. 元祿 癸未 10월 일 對馬州 宰臣 平方直 平眞長 平眞賢 平眞連 平眞弘, 이름에 그 도장을 찍었음.<sup>55)</sup>

이 서계는 대마도주의 家臣 平方直 · 平眞長 · 平眞賢 · 平眞連 · 平眞弘 5명이 連名해서 보낸 것이다. 이에 대해 조선에서는 일개 대마도주의 家臣이 宰臣이라고 칭하는 것이 서계의 격식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서계의 접수를 거부했다. 보통 서계는 대마도 使者가 이를 지참하고 왜관으로 건너오면 조선에서 바로 접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동래부사가 訓導 · 別差가 가져온 手本의 내용을 검토해서 서계를 접수하고 이후 경상감사와 예조에 이를 전달하고 예조에서 다시 조정에 올리는 형식을 취한다. 그러면 조정에서는 국왕 참석 하에 서계의 내용을 검토해서 수용 여부를 결정한 후 예조에 그 결과를 알리고 承文院에서 대마도 사자에 대한 예조의 답서와 동래부사 · 부산첨사의 초고를 작성해서 부산에 내려 보내는 것이다.

즉 대마도 측에서 동래부사와 부산첨사 앞으로 보내오면 이를 수령 · 검토해서 이를 수령하고 예조참의에게 올리는 것이 관례인데, 위 서계에서 역시 ‘東萊 · 釜山 兩令公 大人 閣下’라고 해서 서계의 수령자가 동래부사와 부산첨사임이 명기되어 있다. 그런데 조선 후기 대일 외교에서 동래부사의 외교상대는 관수가 아니라 대마도주이다.<sup>56)</sup> 따라서 일반적으로 왕의 신하를 가리키는 宰臣이라는 명칭을 대마도주의 家臣이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다. 조선에서는 이에 대해 대마도주의 신하가 家臣이라 칭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멋대로 宰臣을 자칭하는 것은 매우 외람되고 조정의 체면에도 해가 되는 일이라고 해서 서계의 접수를 거부했다. 그러자 대마도에서는 해당 사기를 번조하는 것이 대마도 내의 所用에 따른 것이 아니라 참근교대로 예도에 가 있는 대마도주가 막부의 명령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사정이 매우 급박하고, 奉行이 전후로 올린 서찰에 간혹 家臣이라 쓰기도 하고 宰臣이라 쓴 적이 여러 번 있었는데 호

55) 『倭人求請謄錄』 7冊, 肅宗 29년(1703) 12월 16일.

56) 이와 관련해서는 양흥숙, 「조선 후기 東萊 지역과 지역민 동향 -倭館 교류를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09, 42~62쪽; 김강일, 「東萊府使와 대일외교」, 『동북아역사논총』 33, 동북아역사재단, 2012, 305~308쪽을 참고.

칭을 문제 삼는 것은 사정에 맞지 않는다고 하면서 서계를 접수해줄 것을 다시 이야기해왔다. 그러나 조선의 입장은 단호했다. 대마도 측의 사정이 급박하긴 하지만 대마도주는 분명히 쇼군의 신하인데 도주의 家臣을 宰臣이라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을뿐더러, 대마도주의 외교상대는 동래부사·부산첨사이기 때문에 도주의 신하는 당연히 이들보다 낮은 위치에 있게 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을 고수했던 것이다. 그러나 대마도 측에서 서계의 접수를 계속 독촉하자 훈도·별차는 동래부사에게 결국 이 서계를 받아 올렸는데, 동래부사가 독단으로 이 서계를 접수해서 보낸 것에 대한 죄를 물어 당시 부사 李壘가 推考를 당하기도 했다.<sup>57)</sup>

보고를 받은 조선정부에서는 만약 서계 중에 家臣이라 하고 사죄하는 말을 전해오면 허락하겠다고 한발 양보하는 입장을 취했고,<sup>58)</sup> 결국 이 宰臣이라고 쓴 서계가 문제가 되자 다음해인 1704년 대마도에서는 이를 고쳐 대마도주가 직접 작성한 서계를 다시 보내왔다.

日本國 對馬州 太守 拾遺 平義方 啓書. 朝鮮國 東萊 釜山 兩令公 閣下. 가을 더위가 가시지 않았는데 영공의 평소 침식은 어떠하신지요. 전년에 陶師 수 명을 보냈는데 오로지 陶工 및 건물과 흙과 땀감 등을 전례에 따라 장만해서 지체되거나 막히지 않도록 곡진하게 지휘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흙을 반죽하고 구워 만드는 일에 시종 백성의 힘을 많이 쓰시니 진실로 예로부터 이웃나라와 사귀는 화목함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시겠습니까. 바라건대 그 일을 일찍 마쳐 우리가 필요한 바를 이루어주시기를 바라며, 다만 잠깐 사이에 문득 물러지고 비풀어지는 폐단이 있으니 다시금 특별히 신칙해서 예전에 같게 해 주시어 陶師들이 일을 잘못했다는 책망을 받지 아니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며, 양찰해 주시면 다행이겠습니다. 펴지 못합니다. 寶永 갑신 7월 일 對馬州 太守 拾遺 平義方.<sup>59)</sup>

대마도주 소 요시미치(平義方; 宗義方) 명의로 개찬된 서계를 접수한 조선에서는 이를 비변사에서 확인한 뒤 곧바로 承文院에 보내 대마도 측에 회답을 지어 보내도록 했다.

이상과 같이 사기번호와 白土 등 관련 물품의 빈번한 요청, 잘못된 서계 양식으로 발생한 외교상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적지 않은 폐단이 발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에서는 마지막에 가서는 교역을 허락하면서도 요청 시기가 적당하지 못하다거나 서계의 양식이 규정에 맞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교섭을 지연시키기도 했다. 결국 그러한 상황이 반복되면서 왜관

57) 『倭人求請謄錄』 7冊, 肅宗 29년(1703) 12월 28일.

58) 『倭人求請謄錄』 7冊, 肅宗 29년(1703) 12월 28일.

59) 『倭人求請謄錄』 7冊, 肅宗 30년(1704) 10월 17일.

요가 폐지된 1717년 더 이상의 사기번조 요청은 들어오지 않고 이와 관련된 조선후기 도자교역은 끝을 맺게 되었다.

#### 4. 맺음말

임진왜란으로 다수의 조선인 도공이 피랍되어 일본 도자 발전에 큰 영향을 준 것을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데 이와는 별도로 일본에서 대마도를 통해 임진왜란 직후부터 조선의 흙과 땀감을 비롯한 각종 물품 및 도공 등을 요청해 부산 왜관에서 사기 등의 도자를 제작한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국교 재개 직후인 1611년 도자 제작 요청이 시작된 이래 대마도에서는 1717년까지 白土 등을 비롯한 陶土와 기타 필요한 각종 물품 등을 꾸준히 요청해왔고, 왜관 안에 왜관요를 만들어 그곳에서 직접 조선의 物力과 人力을 사용해서 원하는 도자를 만들어가기도 했다. 이러한 요청과 교역의 주체는 대마도였지만, 실제로 이 도자가 사용되는 곳은 대마도가 아닌 막부 측이었다. 대마도에서는 막부 유력층에 진상하기 위한 용도로, 혹은 참근교대 때나 별도로 막부 측의 지시를 받아 조선에 사기번조를 요청했다. 대마도는 쇼군으로부터 대조선외교와 무역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고, 따라서 조선의 도자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였다고 할 수 있다. 조선에서도 이것이 御用, 즉 대마도의 필요가 아닌 막부 측의 所用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교역을 허락하고 해당 물품을 왜관으로 공급해서 도자가 제작될 수 있도록 했다. 즉 대일교역에서 도자는 막부 측의 지시와 필요에 의하거나 대마도가 막부에 진상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등 경제적 의미 뿐 아니라 정치적 의미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빈번한 사기번조 및 과도한 흙의 요청,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일어난 각종 폐단 등으로 인해 조선에서는 대마도의 요청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일이 늘어났고, 결국 1717년을 마지막으로 양국의 도자교역은 막을 내리게 되었다.

그러나 왜관을 통해서 도자가 교역되거나 왜관요를 만들어 조선에서 직접 도자를 제작해 갔다는 것은 동시기 다른 대일교역품과는 다른 특징을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대마도에서 원하는 조선의 물품은 조선에서 생산되는 것이거나 혹은 조선에서 제작되어 이미 하나의 완전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었다. 그에 비해 도자의 경우에는 필요한 견본을 직접 가져와 조

선의 흙 등과 딸감의 물품, 제작에 필요한 조선의 인력 등을 이용해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만들어서 가져가는 등, 조선과 일본의 힘이 모두 들어간 특이한 형태를 띠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 17~18世紀対馬による沙器燔造の要請と朝鮮の対応

李・スンミン（東国大学校）

- 1.はじめに
2. 対馬による陶磁交易の要請及びその実態
  - 1) 沙器燔造及び陶土の要請
  - 2) 倭館窯の建設と対馬の陶工派遣
3. 陶磁交易を巡る弊害の発生と朝鮮の対応
  - 1) 陶土調達商の負担
  - 2) 書契問題による外交的葛藤と朝鮮の対応
4. おわりに

## 1.はじめに

朝鮮後期の対日関係において、陶磁類は公・私貿易などの一般貿易では取り扱われず、通信使行や問慰行の公・私礼単の中にも含まれていなく、ただ「求質」を通してのみ取引されていた<sup>1)</sup>。求質とは、幕府から対朝鮮外交と貿易に関する権限を委任された対馬から必要なものについて要請があった場合、朝鮮側が事案によって審議を行い

---

1) 朝鮮時代においては、実録や各種の資料で陶磁類を指す際に、主に沙器・磁器（瓷器）などとの表現が使われ、職人を指す時も沙器匠・磁器匠と呼んでおり、用語の使い方に一定の規則は見られない。（김영원, 『조선시대 도자기』, 서울대학교출판부, 2003, 7頁）一般に陶器と磁器は区別される。通常、陶器は釉薬をかけて900~1,000度前後で焼成したものであり、磁器は粘力のある純度の高い胎土で器物を作り、その上に長石質の釉薬をかけて1,250度前後で焼成した、組織の緻密なものを指す（정양모, 『한국의 도자기』, 문예출판사, 1991, 58~59頁）。つまり窯でどれほど高い温度で焼きだすかによって分類している。16世紀後半まで日本における陶磁制作の技術は1,000度程度で焼成する水準にとどまっていたが、朝鮮は1,200度以上で焼成される磁器を生産できていたため、当時としては中国に次ぐ世界2位の磁器生産国であったという。一方、本稿では『倭人求請臚録』と『分類紀事大綱』を基に、当該史料で主に「沙器」や「茶碗」という用語を使っているところ、これに従うこととする。

交易を許可していたことを言う<sup>2)</sup>。その中には一般の貿易では得られにくいか、取引されていないものも含まれていたが、陶磁類もその一つであった。

対馬は幕府側の指示と依頼により、あるいは幕府に献ずるなどのために陶磁類を要請しており、対日交易において陶磁は経済だけでなく、政治的にも大きな意味を持っていた。また対馬が陶磁を要請していた状況と、朝鮮がそれに対応する過程を見てみると、その過程において少くない弊害と外交上の問題まで発生していた。したがって朝鮮後期における日・朝陶磁交易を探る作業は、日朝両国の交易の実態を明らかにするだけでなく、両国の外交の性格やその意味を理解する上で、大事な手がかりとなるだろう。

文禄・慶長の役の直後、朝鮮は日本に拉致された朝鮮人らを送還し国交を再開するため、1607年(宣祖40)に回答兼刷還使を日本に派遣し、その後、1609年(光海君1)に己酉約条が締結され、両国は国交を回復した。国交を取り戻してから両国の交易において陶磁類が初めて登場したのは1611年のことで、その後1717年までのおよそ1世紀以上の間、両国の陶磁交易は続いた。日本では室町時代からお茶の需要が伸びていた上、江戸時代に入るといわゆる「わび茶」が興隆し、これによって茶碗の需要が大きく増加していた<sup>3)</sup>。当時の日本では朝鮮茶碗の人気が高く、各地方の交易においても朝鮮茶碗が付加価値の最も高い商品の一つであったという。そこで文禄・慶長の役の勃発により朝鮮茶碗の輸入が一時中止されると、その価値はさらに跳ね上がり、こうした背景で国交再開の直後から対馬で朝鮮茶碗の求買が行われるようになったのである。また茶碗の要請が陶磁を作るために必要な土、朝鮮人陶工や人夫、各種の物品の要請に繋がり、もはや完成品の茶碗を輸入するのではなく、倭館内で作って調達できる倭館窯が建てられることに至った。

文禄・慶長の役の後から続いていた両国の陶磁交易の状況については、日本が韓国より先に研究を始めており、韓国では主に美術史の分野において研究が行われた<sup>4)</sup>。

2) 『春官志』巻3、求請；求買の概念と実態については、李・スンミン「조선 후기 對馬島 求買의 개념 및 실태」(『한일관계사연구』 36, 한일관계사학회, 2010)を参照されたい。

3) 泉澄一「対馬藩の高麗鷹進上にみる幕藩体制」『関西大学文学論集』50-1, 2000, 1頁。わび茶とは客を招待して御茶を楽しむ会、あるいはそのための礼法の茶道に関係するもので、千利休によりまとめられたと知られている。

4) 浅川伯教『釜山窯と対州窯』東京：彩壺会、1930；澄泉一『釜山窯の史的研究』関西大学出版部、1986；赤沼多桂『高麗茶碗』至文堂、2001；高麗茶碗研究会編『高麗茶碗 - 論考と資料』河原書店、2003；방병선, 「17~18세기 동아시아 도자교류사 연구」, 『미술사학연구』 232, 한국미술사학회, 2001; 방병선, 『왕조실록을 통해 본 조선도자사』, 고려대학교출판부, 2005; 한국미술사학회 편, 『조선 후반기 미술의 대외교섭』, 예경, 2007; 성현주, 「기장지역 도자기의 제작기법과 도자사적 성격」, 『한국민족문화』 33,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09; 이종봉, 『조선시대 기장지역의 도자기 생산과 의미』, 『한국민족문화』 33,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09; 가타야마 마비(片山まび), 「임진왜란 이후 일본 주문 茶碗에 대한 고찰 - 吳器茶碗을 중심으로 -」, 『미술사연구』 24, 미술사연구회, 2010など多数。

しかしほとんどの場合、文献や強制連行の問題、茶碗が持つ美術史的価値、日本の陶磁との関連性及び日本の陶磁発達への影響などを中心に議論が行われているのも事実であろう。また日朝関係における陶磁については、主に文禄・慶長の役の時期に注目し、当時に拉致された朝鮮人陶工の状況、その後の日本の陶磁発展に及ぼした影響などを中心に議論がなされており<sup>5)</sup>、その後の状況や詳しい交易の実態についての研究が足りない状況である。

本論文では、文禄・慶長の役の後、交易が再開された1611年から中止される1717年までの約100年間を対象に、まず対馬による沙器燔造の要請や、陶土をはじめとする各種物品の要請の実態、その過程で行われた倭館窯の建設と陶工の派遣状況について見ていきたい。それからこのような対馬の要請に朝鮮がどう対応したか、またその過程で発生した弊害について見てみたい。このような事実をもとに、陶磁をテーマにした日朝交易の具体的な様子と、朝鮮の後期における日韓関係の性格や意味を理解する一つの端緒を掴みたい。

## 2. 対馬による陶磁交易の要請及びその実態

朝鮮前期に日本の使者が朝鮮の王に献じた物品は、主に東南アジア地域から生産されたものであり、ほかにも青磁器をはじめとする日本の工芸品が含まれており、私貿易を通して磁盆、染盆、菓子盆のような陶磁類も一部ではあるものの、朝鮮に輸入されていた<sup>6)</sup>。その反面、逆に陶磁が韓国から日本に輸出されたという公式の記録は見当たらない。しかし当時、三浦倭館の近くに窯址が位置していたことから、そこで作られた陶磁が日本に渡った可能性は考えられる。朝鮮前期、薺浦倭館の近くに頭洞里窯址が位置していたが、そこで生産された粉青沙器が日本の井戸茶盃と様式の上で大変類似していることから、今やこれが頭洞里窯址で作られたものと見ている。頭洞里窯址と薺浦倭館は地理的に近く、頭洞里窯址で生産された陶磁器が薺浦倭館を通して日

5) 김의환, 『朝鮮通信使의 발자취』, 정음문화사, 1985; 구태훈, 「일본에서 꽃핀 조선의 도자기 문화 - 임진왜란 당시 납치된 조선인 도공 이야기 -」, 『역사비평』 85, 역사문제연구소, 2008; 변광석, 「임진왜란 직후 기장지역의 상황과 피로인 사기장」, 『한국민족문화』 33,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09.

6) 김옥근, 「朝鮮前期의釜山經濟」, 『釜山經濟史』, 1989, 117頁・124頁.

本に輸出された可能性があるとしているのである。また機張地域に位置する長安里窯址も、同じく近くに塩浦倭館があったため、ここで生産された陶磁が日本に渡った可能性があると言える<sup>7)</sup>。

文禄・慶長の役を経て朝鮮後期になると、陶磁が公式的に日本に輸出されるようになった<sup>8)</sup>。まず、交易の方式としては、日朝貿易の方式の一つである求貿がある。中国との間では使行に出る使者らが清の皇帝からもらった回賜品と、使行の路程で私的に購入するほか、開市を通して清の陶磁が流入されることもあり、また中江開市では朝鮮の磁器が清との交易に用いられったり、あるいは密貿易を通して取引されたりもしていた<sup>9)</sup>。しかし対日交易では事実上、対清交易のように開市、つまり一般の貿易の方式により取引されたことはない。陶磁の制作と生産に関わるヒトやモノについては司饗院の分院が担当していたが、ここでは政府が必要とする陶磁を専門的に制作していた。しかし分院が享受していた恩典の一つとしては、ソウル及び京畿地域に対する市場独占権があつて、市場での販売は主に市塵の器商や京畿の器商を通して販売されており、1883年に分院の民営化が行われる前から陶磁を独占的に供給していた<sup>10)</sup>。しかしソウルと京畿以外の地域では陶磁を専門的に取り扱う器商の存在は確認されず、開市するとき、倭館に出入りしながら対馬の商人と取引をしていた朝鮮商人の中でも陶磁を取り扱う商人はいなかった。したがって対馬が私貿易を通して朝鮮と陶磁を取引したとは思われない。また1639年、倭館窯が建てられてから対馬が朝鮮のヒトとモノを使って、倭館の中で陶磁を生産するためには朝鮮政府の絶対的な支援が必須であった。つまり、対馬は、主に幕府が要請した陶磁を作るために必要な各種の物品を柔軟に供給する上で、求貿という方法を活用をしていたものと見える。

## 1) 沙器燔造及び陶土の要請

7) 이종봉, 「조선시대 기장지역의 도자기 생산과 의미」, 『한국민족문화』 33,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09, 29~30頁.

8) 朝鮮後期に日本の陶磁が輸入されたこともあるが、九州の有田を中心とする肥前の陶磁器と対馬の陶磁器である。17世紀後半になると、これが対馬から朝鮮に送る進上品となり、18世紀の初めから朝鮮からの注文・生産で取引されたが、今まで10点あまりが東萊府の近くで出土している。18世紀半ばになると日本の陶磁器の輸入と注文は倭館を経由して行われたという。家田淳一, 「第2章 江戸中・後期「伊万里の朝鮮貿易」」, 原直史・大橋康二編, 『日本海域歴史大系』 第5巻 近世編 II, 青文堂, 2006, 37~60頁(양홍숙, 「조선후기 東萊 지역과 지역민 동향-倭館 교류를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09, 159~160頁より再引用).

9) 방병선, 「조선 후반기 도자의 대외교섭」, 『朝鮮 後半期 美術의 對外交渉』, 예경, 2009, 267頁.

10) 박희진, 「19세기 司饗院 分院의 운영과 그 몰락」, 『조선후기 재정과 시장 - 경제체제론의 접근』 (이헌창 엮음),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0, 330頁.

対馬は、1611年から1713年までの約1世紀の間、おおよそ40回にかけて陶磁、あるいは陶磁を作るために必要な各種の物品と職人を朝鮮に要請した。これに対して朝鮮は何回かを除いてのほとんどの場合、交易を許している。要請があつてから実際に交易が行われるまでの時間は一定していない。しかし1630年代に1件、1640年代に6件、1650年代に3件、1660年代に4件、1670年代に3件、1680年代に7件、1690年代に4件、1700年代に7件、1713年に2件で、若干の差はあるものの、1611年に初めて交易が始まって以来、10年単位で着実に要請があり、要請の回数そのものはあまり多くなくとも、一回の要請で制作して調達した陶磁の量はかなり多かつたものと見える。

対馬が要請していた陶磁は沙器であつた。しかし朝鮮に沙器燔造を要請したり交易を行う主体は対馬であつたものの、沙器が実際に対馬島内で使われたことはあまりなかつたとされる。事柄が明確に記録されていない場合を除き、対馬が朝鮮に沙器燔造を要請したのは、自らの意思で幕府に献上するための場合と、幕府の依頼を受けた場合の二つに分けてみることができる。

前者はつまり、対馬が幕府の有力者らに献上するための目的であつた。これは、対馬島主が参勤交代のため、定期的に幕府の位置する江戸に行かなければならず、そのときに朝鮮の沙器を献上したとか<sup>11)</sup>、通信使とともに江戸から対馬に来てから再び江戸に帰るとき、朝鮮の沙器を将軍に献上して面目を立てようとした<sup>12)</sup>という表現などからも容易に推測できる。後者は、幕府側の依頼か指示を受けた場合で、対馬島主が進んで献上する場合より多かつた。主に幕府の執政や奉行など有力者らから依頼を受け、それを朝鮮に要請した場合である。

対馬は日本本土から遠く離れた辺境の小島に過ぎなかつたが、幕府から対朝鮮外交と貿易に関する権限を委任されていた。こうした状況から、対馬は日本内ではあまり生産していないか手に得られないものを、朝鮮から輸入して幕府に献上したり、あるいは彼らの依頼を受けて直接行動がとれる唯一な存在であつた。そのため対馬島主は、このような機会をより積極的に活用することで、対馬島主である自分と島を保護できる一つの手段にしようとしたとされる。これはまた、日本近世の封建制のシステムの中で、珍しい品物を献上する行為を通して、対馬島主自らの政治的立地を固めよ

11) 『倭人求請臚録』1冊, 仁祖 22年(1644) 5월 23일.

12) 『倭人求請臚録』2冊, 孝宗 6년(1655) 7월 5일.

うとしたものと見える<sup>13)</sup>。

最初に対馬は完成品の茶器と瓦器を要請してきた。1609年に己酉約条が締結され、朝鮮と日本の中で国交が再開されて以来の1611年(光海君3)3月、対馬島主から物品を求める書契が東萊府使宛てに来ており、朝鮮はこの要請を受け容れ、金海の職人にして茶器を幾つかを作らせた<sup>14)</sup>。これが朝鮮後期になって初めて登場する陶磁類についての交易記録である。茶器甫兒とは茶碗を指す言葉であるが、茶碗より少し小さい器を甫兒という。また職人を招致した金海は近くの東萊、梁山、機張のような地域とともに、文禄・慶長の役の当時に日本軍の初期進撃路として使われた地域であり、ここから多くの一般の人と各種の技術者が日本に拉致されているが、そのうち多数の沙器職人も含まれていた。

その後のしばらくの間、陶磁交易は記録から見えなかったが、1639年8月になると対馬から再度茶器制作の要請が来た。しかしこの時から交易の様相が変わり始めた。つまり日本は、1611年のように完成品を要請して輸入する形ではなく、対馬から「見様」を持ってきて、朝鮮からは職人と白土、焚き木などを提供してもらい、倭館で直接作りたいたと要請してきたのである。この見様とは当時に参勤交代で江戸に行っていた対馬島主の宗義成が將軍の命令をもって対馬に送り返した見本を意味するが、朝鮮はこの要請を受け、巡察使に河東と晋州の沙器職人を送るように言いつけ、倭館の外に位置する窯でこれを作ってあげることにした<sup>15)</sup>。

それ以来、対馬は完成品を要請するのではなく、朝鮮のヒトとモノを使って、彼たちの望む形の陶磁を作りはじめた。またそのための制作に必要な各種の土を朝鮮に要請しているが、その現況は次の表のとおりである。

### <表1>対馬の陶土要請の現況<sup>16)</sup>

13) 陶磁類だけでなく、馬や鷹の交易もまた同じような脈絡から理解できるが、これらも一般の貿易では手配できない品目であった。対馬島主は、彼に与えられた対朝鮮外交と貿易という特権を使って、このようなものを手に入れることができたが、これを將軍をはじめとする幕府の有力者らに献じていたということは、これらの特殊物品の交易が経済だけでなく、政治的にも大きな意味を持っていたことを示している。朝鮮と対馬の馬・鷹の交易については、李・スンミンの論文(『조선후기 對馬島와의 말[馬] 교역과 그 의미』, 『사학연구』 107, 한국사학회, 2012; 『조선후기 일본과의 매[鷹] 교역과 그 의미』, 『한일관계사연구』 45, 한일관계사학회, 2013)を参照されたい。

14) 『邊例集要』巻12, 求賢。

15) 『倭人求請臚録』1冊, 1639年(인조 17) 8월 16일. 一般にこれを「倭館窯」の始まりであると見ているが、これについては次の章で述べたい。

16) 『倭人求請臚録』, 『邊例集要』, 『釜山窯と対州窯』; 土はその数量が明確に記録されている時を基準にしている。

日付	白土	その他の土	備考
1644年5月 23日	白土 80俵	薬土 10俵 黄土 50俵	
1681年3月 2日	白土 610俵	薬土 70俵	5升=1俵 500俵のみ承諾
1687年7月 2日	慶州・晋州・昆陽・河東の白土 各45俵宛 総180俵	蔚山の薬土 90俵 金海の赤紺土 90俵	5升=1俵
1688年11月 8日	慶州・金海・昆陽の白土 各30俵 宛 総90俵		防塞
1689年3月 5日	白土 30俵		
1690年5月 26日	昆陽の白土 22俵 河東の白土 13俵 晋州の白土 22俵 慶州の白土 44俵 総101俵	蔚山の薬土 55俵 金海の甕土 15俵 柿色土 62俵	10升=15俵*
1692年10月 7日	慶州の白土 100俵 河東の白土 40俵 晋州の白土 40俵 昆陽の白土 40俵 総220俵	金海の赤紺色土 120俵 金海の甕土 30俵	5升=1俵 ※『邊例集要』 (各色土 120俵)
1696年7月 11日	慶州の白土 100俵 河東の白土 40俵 昆陽の白土 40俵 晋州の白土 40俵 総220俵	蔚山の薬白土 100俵 金海の赤紺色土 120俵 金海の甕土 30俵	5升=1俵 朝鮮が不作のため、 調達の難航より防塞
1698年8月 4日 8月 29日	慶州の白土 30俵 晋州の白土 20俵 昆陽の白土 20俵 河東の白土 10俵 総80俵	蔚山の薬白土 6俵 金海の甕土 10俵	10升=1俵

質の良い陶磁を作るために最も重要な要素は、主材料となる土である。対馬が要請した土は白土・赤紺土・黄土・甕土・薬土など色別・用途別に分けられるが、そのうち、白土の要請の件数及び数量が最も多かった。朝鮮後期の司饗院で陶磁の制作に使われた白土は、慶州・晋州をはじめとする朝鮮全土から採取されていたが<sup>17)</sup>、対馬が要請したのは慶州・晋州・昆陽・河東の4つの地域で生産されていた白土であった。これらの地域は、倭館と同じく、慶尚道に位置し、特に晋州と昆陽で生産されていた白土

17) 『備邊司謄録』 肅宗 16年10月 28日. 晋州・慶州・昆陽・蔚山・金海・河東・瑞山・忠州・楊口・原州・利川・驪州・広州・加平・宣川・鳳山など北は宣川、南は慶州・晋州に至るまで朝鮮全土にかけて白土が生産されていたという。(방병선, 『조선후기 백자 연구』, 일지사, 2000, 59頁).

は、広州・楊口の白土とともに質の良いものとして知られていた<sup>18)</sup>。対日貿易に必要なものを用意する際は、倭館が位置する慶尚道内で調達するのが一般的な原則であったため、対馬は上のような4地域の土を要請し、朝鮮もこれらを調達・供給していたのである。ただ、倭館は、蔚山と金海の白土の主な生産地が近かったにも、これらの地域から白土の代わりに、蔚山からは薬土<sup>19)</sup>、金海からは赤紺色土や甕土の調達を要請している。このように土の要請に際して、生産地域を明示していることから、対馬はあらかじめ朝鮮の主要な土生産地を把握していたものと見える。

対馬が要請した白土の総数量は1,531俵であるが、1681年に要請している610俵に対しては500俵のみが支給され、1688年は全量防塞となったので、朝鮮が実際に支給した白土は1,331俵になる。また、薬土321俵、赤紺色土330俵、柿色土62俵、甕土85俵について要請があり、これらは全量支給された。したがって白土と各色土を合わせて対馬が要請した胎土の総量は、2,329俵であり、朝鮮が支給した実際の数量は2,129となる。一方、対馬が要請した白土やその他の土については、その要請の時期によって俵を計算する方法に相違点が見られる。本来、体積の単位の一つであった俵 [斛子] は米などの穀物を数えるために用いられるが、朝鮮では日本に公作米などを支給する際に小斛と言って15升を1俵に数えていた<sup>20)</sup>。白土についても、同じく米穀の単位の俵を用いて数えていたが、一般に土の量は10升を1俵にするともし<sup>21)</sup>、また『倭人求請訟臈録』を見ると10升ではない15升を1俵に計算していたところも見られる。

しかし対馬が土を要請してくる際は、通常、5升を1俵に計算しており、また10升を1俵に数えているケースもある。10升や15升を1俵に計算する場合に比べては、相対的に少なく見えるかも知れないが、実際は必ずしもそうとも言えない。仮に朝鮮の計算方法を用いて15升を1俵に数えると、その数量はあまりにも多くなるためである<sup>22)</sup>。一方、対馬の要請のように5升を1俵に計算すれば、その数は減少する。しかし支給する実際の数量が減少したとしても、その土の絶対的な量が少なかったとは言い難い。対馬が要請している土は、少なくとも一度に数十俵から多いときは数百俵に至ってお

18) “司糞院播造磁器一年二次春秋進上広州楊口晋州昆陽最宜燻土処掘取船運”(『續大典』工典 雜令條)。

19) 薬土は落ち葉などが腐って混ざった土で、腐葉土・腐植土を指す。主に山の溪谷・小川・貯水池・水田などから採取できるが、落ち葉が腐食する際に作られる無機質が黒・黄・緑など多様な色を作り出せるという。陶器と甕器の釉薬の原料としても使われ、低い温度でも溶けてしまうため、単独で磁器に使うのはできず、他の原料と混合して使われる。(방병선, 『순백으로 빛어낸 조선의 마음, 백자』, 돌베개, 2002, 219頁; 국사편찬위원회 편, 『한반도의 흙, 도자기로 태어나다』, 국사편찬위원회, 2010, 333頁)。

20) 田代和生, 「対馬藩の 조선쌀 수입과 倭館升」, 『한일문화교류사』, 민문고, 1991.

21) 浅川白教, 『釜山窯と対州窯』, 東京彩壺会, 1930.

22) 『倭人求請臈録』6冊, 肅宗 18년(1692) 10월 7일.

り、実に莫大な量であった。対馬では朝鮮が供給してくれる土を「御馳走土」とも呼ばれていたが、その理由は送使への接待費に代わってこの土の供給を求めていたためであるという。対馬が朝鮮から供給してもらった土を茶器の制作以外にほかの用途で使ったこともあったといわれるが、その場合、土を倭館内で使ったのではなく、その一部を日本に持ちいって、九州、あるいはほかの藩の官窯に融通したものと推測される<sup>23)</sup>。

一方、対馬は沙器を焼くために必要な焚き木をも朝鮮に要請して手配しようとした。沙器はまず素焼きした後で、釉薬をかけて高温で長時間焼成するため、ものすごい量の焚き木を必要とする。しかし土とは違って、当時の沙器制作にどれほどの焚き木が使われたか、また朝鮮がその焚き木をどのような方法で供給していたかについては記録が無く、正確に知ることができない。ただ朝鮮は、倭館内に住む対馬から来た人々の日常生活に必要な焚き木と柴炭を慶尚左右道の各鎮に供給してもらい、釜山鎮がこれを支給するようにしていたため<sup>24)</sup>、沙器制作に必要な焚き木もやはり類似した方法で調達していたとされる。

## 2) 倭館窯の建設と対馬の陶工派遣

一方、対馬による沙器燔造の要請において注目される事実として、倭館窯の存在と対馬からの陶工（燔師）派遣が挙げられる。

倭館窯は1639年に倭館内に建てられ1717年閉鎖されるまで、約80年間存続し、対馬側が必要とする各種の沙器を制作した場所である。しかし現在、学会では「倭館窯」の代わりに「釜山窯」という名称が使われている<sup>25)</sup>。釜山窯という言葉は初めて公に使った人物は、日本植民地時代において朝鮮半島の陶磁器を研究し『釜山窯と対州窯』との書籍を著述した浅川伯教<sup>26)</sup>である。後でこの名称が一般に定着し、今も広く使われているが、この釜山窯という言葉をつかうのは少々問題があると思う。

23) 日本の有田にも対馬から磁器制作に必要な土を調達する習慣が昔からあったと伝わる。浅川伯教「釜山窯に就て」、『釜山窯と対州窯』、東京彩壺会、1930。

24) 焚き木は絶景島から持ってきたり、柴炭保管書である営繕近くの山で採取しており、炭は金で調達することもあったという。1630年（仁祖8）には各鎮浦の防軍価布のうち毎年73同30疋を釜山陣に供給することにし、倭館への支給を専担させた。

25) 釜山窯という名は日本の国語辞典にも掲載されているが、次のように紹介されている。「江戸時代対馬藩が朝鮮釜山の倭館に建てた陶磁器窯。宝永16年（1639）から享保（1716～1736）初期に掛けて御本茶碗（日本が注文した茶碗）などを焼いた」。

26) 浅川伯教（1884～1964）は明治～昭和時代の彫刻家・朝鮮陶磁器研究家であり、浅川巧の兄でもある。1911年朝鮮に渡ってきて、朝鮮陶磁器の発掘と古窯の研究に努め、1924年柳宗悦などとともに関東に朝鮮民族美術館を建てた。（朝日新聞社、『朝日日本歴史人物事典』朝日新聞社、1994）

通常、窯の名はその窯が位置する地域名をとって付けられていたため、浅川伯教も倭館が位置していた釜山の名にちなんで釜山窯という言葉を使ったものと見られる。しかし釜山窯とは、その窯が存在していた当代に使われた名称ではなく、対馬宗家文書や実録などの当代の史料を探しても釜山窯という名は記されていない。ただし「倭館に設けられた窯」との意味から「倭館窯」あるいは「和館窯」などと記されていたり、または単に「窯」という名称だけで使われている。浅川伯教が名づけた「釜山窯」は倭館、つまり豆毛浦倭館時代や草梁倭館時代の両方に同じく倭館内に設けられた窯を指しており、対日交易のために陶磁のみを専門に生産していたため、史料に基づき「倭館窯」<sup>27)</sup>と呼ぶのが妥当であるとされる。

倭館窯がどこに位置していたかは豆毛浦倭館時代において明らかではないが、草梁倭館時代は館内の東館の傍に窯があったと言われている。小田省吾によると、日本植民地時代、釜山本町1丁目や2丁目に居酒屋と豆腐屋があり、2丁目と3丁目には古地図に「御茶碗造所」と記されている陶磁製作所があったが、これがまさに対馬が陶工を派遣し陶磁器を焼かせた場所である<sup>28)</sup>。ここには1908年釜山府立病院が建てられ、現在は釜山光復洞ロイヤルホテルが位置している。

倭館窯は1639年対馬主の宗義成が将軍の徳川家光の命を受けて朝鮮政府に依頼し、釜山で陶磁を制作・生産するために作った窯であり、対馬から要請してきた陶磁はそのほとんどが沙器で、中でも特に茶碗が多かった。朝鮮の沙器を高く評価していた日本は対馬を通してこれを調達しようとしたが、その需要はますます増加し、朝鮮から完成品の茶碗を調達するには限界があったため、倭館内に直接茶器を生産できる窯を設け、自ら調達しようとしたのである<sup>29)</sup>。ここで作られた茶器は、将軍など幕府側に捧げられ、また一部は大阪と堺の商人に販売されていたものの、朝鮮風と和風が混ざったもので大変人気があったといわれる<sup>30)</sup>。

倭館窯が作られてから、対馬は次のように対馬島の陶工を倭館に派遣し、朝鮮の陶工とともに朝鮮の土や各種の物品を使って大規模で茶碗を制作しはじめた。

---

27) 対馬宗家文書などの史料では通常、倭館を指す日本語表現の「和館」を使っており「和館窯」とも記されている。ただ本論文では朝鮮側の名称である倭館と倭館窯に統一する。

28) 小田省吾,「釜山の倭館変遷と遺址」,朝鮮史学会編,1925.

29) 浅川伯教,『釜山窯と対州窯』,東京彩壺会,1930;澄泉一,『釜山窯の史的研究』,関西大学出版部,1986.

30) 田井友季子,『対馬物語』,光言社,1994,161頁.

<表2>倭館窯の存続していた時期に対馬が派遣した陶工燔師<sup>31)</sup>

派遣時期		陶工
西紀(朝鮮)	日本の元号	
1644年(仁祖22)	正保元年	橋倉忠助
1647年(仁祖25)	正保4年	渡邊傳次郎
1650年(孝宗1)	慶安3年	大浦臨齋
1651年(孝宗2)	慶安4年	渡邊傳治
1654年(孝宗5)	承應3年	古賀判太夫・蔵田弥三右衛門
1655年(孝宗6)	承応4年	宮川道安
1662年(顯宗3)	寛文2年	中山意三
1663年(顯宗4)	寛文3年	船橋玄悦
1665年(顯宗6)	寛文5年	阿比留茂山
1669年(顯宗10)	寛文9年	青木善右衛門・阿比留茂山
1672年(顯宗13)	寛文12年	中庭茂山(阿比留に改名)
1676年(肅宗2)	延宝4年	中庭茂山・波多野重右衛門 長留藤左衛門・国分知齋
1678年(肅宗4)	延宝6年	中庭茂山・青木善右衛門
1681年(肅宗7)	延宝9年	中庭茂山・入江武左衛門 松村軍右衛門・長留藤左衛門・藤川茂兵衛
1685年(肅宗11)	貞享2年	中庭茂山・宮川道二・藤川茂兵衛
1687年(肅宗13)	貞享4年	宮川道二・藤川茂兵衛
1690年(肅宗16)	元禄3年	松村弥平太
1693年(肅宗19)	元禄6年	長留藤左衛門
1695年(肅宗21)	元禄8年	松村弥平太
1698年(肅宗24)	元禄11年	松村弥平太
1702年(肅宗28)	元禄15年	松村弥平太
1713年(肅宗39)	正徳3年	宮川道二
1717年(肅宗43)	享保2年	平山意春

対馬から派遣された陶工は、単に茶碗を作る仕事にのみ従事していたのではなく、制作の全般において指揮を執っていたものと見られる。記録によると、倭館窯が設置された直後の1644年の橋倉忠助をはじめとし、廃止となる1717年の平山意春に至るま

31) 「陶工被差渡候一件」(『分類紀事大綱』 171 편찬본, 日本国立国会図書館 所蔵, 韓国国史編纂委員会 MF0003039); 浅川伯教, 『釜山窯と対州窯』, 東京彩壺会, 1930.

で合わせて19人の陶工が対馬から倭館に派遣された。回数としては阿比留茂山<sup>32)</sup>が7回で最も多く、松村弥平太<sup>33)</sup>が4回、藤川善右衛門と宮川道二が、それぞれ3回ずつ派遣されている。また茶碗の成型を担当する工匠倭、絵を描く画工倭、彫刻を担当する彫刻倭などがこれらの陶工とともに派遣され、制作に参加していた。

陶工の中で注目される人物は松村弥平太であるが、1687年に派遣された宮川道二と交代する形で1690年にはじめて倭館に入ってきた<sup>34)</sup>。しかしそのときに彼が持ってきた書契は前例に反する部分があった上で、土を数回にわたって過度に要求したことが問題となり、朝鮮の役官はこの要請を防塞した<sup>35)</sup>。そのため、嶋雄八左衛門が新しい館守に赴任する際、書契を直して持ってきたが、最初の頁の「東萊釜山両令公大人閣下」と書くべきところに「令公」の二文字が記入されていなかったため、これもやはり拒否された<sup>36)</sup>。また松村弥平太は、その後の1703年、沙器燔造の要請に際して東萊府使と館守が論争を繰り広げていた場にも出席していたが、その過程において一貫して不遜な態度をとり、朝鮮側に否定的な印象を与えた<sup>37)</sup>。結局、このような一連の出来事により、1713年と1717年の2回を最後に対馬による沙器燔造の要請は終わり、やがて1717年に倭館窯は廃止となった<sup>38)</sup>。その後、倭館窯で陶磁技術を身につけていた陶工らは対馬に復帰し、対州窯（対馬窯）を建てて沙器燔造を続けた。

倭館を通して陶磁が交易されはじめ、その後に対馬が倭館窯を建てて朝鮮で自ら陶磁を制作したという一連の過程は、同時代の他の対日貿易品とは異なる、独特の特徴を見せている。一般に対馬が交易を求めてくる物品は朝鮮で生産しているものか、あるいは朝鮮で作られて既に一つの完全な形態を持っているものであった。それに比べ、陶磁の場合は、対馬が見本を直接持ってきて朝鮮の土と焚き木などのモノ、そし

32) 阿比留茂山と中庭茂山は同一人物である。宗義成と宗義真の時代に活躍した陶工で、後で中庭という姓を与えられた。(朝日新聞社、『朝日日本歴史人物事典』,朝日新聞社,1994) 浅川伯教の『釜山窯と対州窯』には中庭茂山が阿比留茂山に名前を替えたことになっているが、これは事実ではない。(浅川伯教,『釜山窯と対州窯』,東京彩壺会,1930) 姓を与えられた時期は確かではないが、1655年と1665年には阿比留という姓で、1672年からは中庭という姓で朝鮮に渡っており、1665年から1672年の間に新しい姓を与えられたものとみられる。一方『陶工被差渡候一件』には彼の名が茂山ではない、茂三に記載されている。(『陶工被差渡候一件』,『分類紀事大綱』1冊,日本国立国会図書館所蔵,韓国国史編纂委員会 MF0003039)

33) 松村弥平太は、対州御本・白手弥平太と呼ばれる茶碗を作ったことで知られている。(朝日新聞社、『朝日日本歴史人物事典』,朝日新聞社,1994) .

34) 『陶工被差渡候一件』,『分類紀事大綱』1冊 편찬본,日本国立国会図書館所蔵,韓国国史編纂委員会 MF0003039.

35) 『倭人求請謄録』6冊,肅宗 16年(1690) 5월 26일.

36) 『倭人求請謄録』6冊,肅宗 16年(1690) 9월 27일. 『釜山窯と対州窯』には、文章を修正して事が収まり、4ヶ月ぶりに土を支給されたことと記されているが、これについては記録が残っていないため、その後の事情は分かり難い。

37) 『倭人求請謄録』7冊,肅宗 29年(1703) 12월 16일.

38) 浅川伯教は松村弥平太について、性格が荒くてよく悶着を起こし、結局倭館窯廃止の理由を作った人物であると評している。(浅川伯教,『釜山窯と対州窯』,東京彩壺会,1930)

て制作に必要な朝鮮のヒトなどを使い、彼らの望む形の陶磁を作るなど、朝鮮と日本の力が融合していた特別なものであったと言えるだろう。

### 3. 陶磁交易を巡る弊害の発生と朝鮮の対応

#### 1) 陶土調達商の負担

対馬から沙器燔造の要請がくると、朝鮮はほとんどの場合にこれを受け容れ、必要な土や関連物品を提供した。しかしそれが最初の要請を受け容れて以来、まるで前例のようになってしまい、特別な理由がない限り、むやみに防塞することは難しくなっていた<sup>39)</sup>。これは沙器燔造の要請のみならず、ほかの物品についても同様であった。朝鮮が最も大事に考えていたのは、前例の有無と、その物品が易得之物であるか、それとも難得之物であるかであり<sup>40)</sup>、現に前例があったとはいえ、実はそれが交隣の道理であるように思われ、一時対馬の事情も考えて受け容れていたのである。しかし対馬はそれを一つの条約のように思い、朝鮮がそれらの要請を当然受け容れなければならないと思っていたため、受け容れない場合は東萊府使の前で館守が腹を切ると言うなどあらゆる懐柔と脅迫を繰り返した<sup>41)</sup>。

もう一つの問題は、対馬側が求めてくる土の量があまりに多すぎて、要請に応じて土を採取したり、あるいはそれを倭館まで運搬するのも容易でなかったことにあった。土の供給は、基本的に朝鮮の民草の賦役より行われていた。通常、司饗院の分院で使われる土は、朝鮮の民草の賦役で供給されていたものの、その地域の民に賦役を課して役価を払うというやり方を取っていた。しかし土を採取するのは遣りやすすくない作業である上、多数の人々が動員されたため<sup>42)42)</sup>、作業を監督する館員が途中で役価を削り取るなどの問題も起こり<sup>43)43)</sup>、朝鮮の人々に少なくない苦痛を与えてい

39) 『倭人求請謄録』5冊, 肅宗 11年(1685) 7월 27일.

40) 이승민, 「조선후기 對馬島 求買의 개념과 실태」, 『한일관계사연구』 36, 한일관계사학회, 2010, 100頁.

41) 『倭人求請謄録』7冊, 肅宗 29年(1703) 1월 10일.

42) 『備邊司謄録』, 孝宗 4年(1653) 11월 30일; 『承政院日記』 孝宗 4年(1653) 11월 30일.

43) 『備邊司謄録』, 孝宗 7年(1656) 7월 20일; 『承政院日記』 孝宗 7年(1656) 7월 20일.

た<sup>44)</sup>。このような状況は、対馬が一度に求めてくる白土の量が多すぎたことを背景に、それを倭館に安定的に供給し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慶尚道一帯の生産地において同じく見られたとされる。また、採取した土は倭館まで運搬する必要があったものの、慶州・晋州・河東・蔚山などの地域は倭館からかなり離れており、さらに対馬が土を要請した時期も主に夏と秋に集中していたため、農繁期にこれを運搬するのは大変難しいことであった。このような背景の下で土の調達が遅れると、倭館は催促を促す一方、結局調達できない場合に備えて朝鮮の訳官を通して闇の調達を試みたりもしていた。1691年2月、朴同知は密かに土を買い取り、できる限りは用意するとの話を倭館側に伝え、多くの量ではなかったとは言え、その年の8月には実際に、ある程度の土を用意して倭館にこっそり渡したという<sup>45)</sup>。

それでは朝鮮は、沙器燔造に必要な土と焚き木などを倭館に供給し、それに対する決済はどんな方式で処理していたのだろうか。これについては詳しい記録が残っていない。しかし1698年の沙器燔造の要請の際に各色土の貿易を許す過程で、すでに前例があるとの話が出ており、ただで提供するものではないとし、慶尚道に命じて数をそろえるように話していたことから<sup>46)</sup>、無償で支給していたとはまったく思えない。求買を通して遣り取りされる物品は基本的に有償であった。これは、宰相という言葉の遣い方が問題となった1703年の例を見ても明らかである。

左議政李ヨが言ったが「礼曹の謄録を見たら、己巳年（1689）東萊府使の状啓に「求買」「許買」という話があり、思ってみれば、これは交易のようであり、その前後に「許給」あるいは「入給」と書いてあるが、和訳などを呼び出し聞いてみたら「以前よりただで提供したというのは事実であるか分からないが、交易なら以前から許している」と話し、ひたすら防塞する必要はなく直ぐに提供するとしても、その願い方が切実であり、急を要している故、裁量で許すのも不可能ではない。ただ、その書契の言葉が誠実に及ばず、書式も大変差し出がましいようで、この書契により支給を許すのは不可である」と述べた<sup>47)</sup>。

44) この地域の民に賦役を課する方式により弊害が増え、苦情も増加したため、1716年には農閑期に人手を買って土を掘り、郎庁が品質検査をした後で輸送する方式に変わった。(『備邊司謄録』 肅宗 43年(1717) 12월 27일)

45) 「陶工被差渡候一件」、『分類紀事大綱』 1기 편찬본, 日本国立国会図書館 所蔵, 韓国国史編纂委員会 MF0003039.

46) 『倭人求請謄録』 7冊, 肅宗 24年(1698) 8월 29일.

47) 『倭人求請謄録』 7冊, 肅宗 29年(1703) 12월 28일.

このように貿易を許すとの意味で「許貿」という言葉をつかっているが、ここでは求貿と同じような意味に考えていたと見られる。つまり倭館に土などのモノを供給する代わりに、その代価を支払わせていたことは明らかである。しかしどのような方式で決済していたかについては記録が残っていない。ただ、求貿を通して行われていた一般的な対日貿易品の決済が、公木や公作米などから、供給した物品の価格の分を引いて支給する方式、あるいは別途でその価格の分を支払わせる方式であったことを考慮すれば、沙器燔造に必要な各種物品の決済もこれと類似した方式で行われていたと推測できる。

## 2) 書契問題による外交的葛藤と朝鮮の対応

一方、交易をする上で議論を呼んだもう一つの問題としては、陶磁制作に必要な白土と沙器職人などを養成する過程で対馬が朝鮮に送った書契が挙げられる。書契は礼曹参議と対馬島主の間で交わされていた外交文書であり、本来は中国の書簡文に学んだ書式を持っているが、両国の通交関係を規定するものであるだけに、使用字句、その記載位置、捺印をするところまで両国の間で合意されている様式が存在していたため<sup>48)</sup>、本文の文言及び文体までを含め、違式書契を判断する基準になっていた。また、書契の様式が規定されてはいなくとも、前例のない用語を使う場合は相手に対する敬意が欠如されていたり、対等の原則から外れたものとみなし、国体を損傷する行為にまで思われていた<sup>49)</sup>。

対馬は、陶磁に関してのみでなく各種の物品を要請するために、その内容が盛り込まれている書契を朝鮮に送る際は、必ずしも対馬島主の名義で送ら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それにも拘わらず沙器燔造の要請をしたとき、こうした儀礼を守らなく、外交上の問題が起きることに至った。対馬が求貿を要請した文書としては、他の物品について対馬から朝鮮に文書を送ったとの記録ももちろん存在するが、文書の形式や内容に問題があって、実際に交易の過程で葛藤が生じたという記録は陶磁交易にのみ見られる。

48) 書契は基本的に10項目から成っている。①差出人の署名、②文書を送るという意味の字句、③受取人の職名(他称)、④発語、⑤本文、⑥結語、⑦年紀、⑧差出人の職名、⑨図書、⑩進上物目を記した別幅進上。このような様式は、そのほとんどが朝鮮前期において確立しているが、朝鮮後期の書契様式もこの範囲からあまり脱していない。(이훈, 「조선 후기 違式書契를 통해서 본 朝日交渉의 특징」, 『한일관계사연구』 1, 한일관계사학회, 1993, 49~50頁; 장순순, 「조선 후기 日本의 書契 違式実態와 조선의 대응 - 『邊例集要』를 중심으로 -」, 『한일관계사연구』 1, 한일관계사학회, 1993, 83~84頁)

49) 이훈, 上掲書, 1993, 49~50頁.

もっとも書契は外交文書であるため、外交上の問題ではない貿易に関わることで書契を遣り取りすることはなかった<sup>50)</sup>。しかし記録を見ると、対馬が朝鮮側に求質を要請するときに書契を持参するのが慣例のようにになっているとの内容を確認できる。私貿易では使われていない書契が、求質の過程で交わされていたということは、求質の持つ特徴を説明してくれる手がかりになるだろう。言い換えれば、求質が私貿易で見られる単なる経済交流を超えて、外交的性格も同時に持っていたとのことを見せてくれる例とも言える。

最初に問題が発生したのは1678年のことである。江戸の執政などの依頼と対馬島内での使用といった沙器燔造の必要性が生じ、対馬は各種の色土を要請してきたが、このときに対馬の奉行の名義で書契を送ってきた。朝鮮は、対馬島主が書契と路引を作成しておくこと以外に、奉行などから書簡をもらうとの規定はないとし、これは規定外のことであるため受付できないとした。これに対して対馬は、沙器を焼くに必要な土や焚き木の運搬が遅れている上、土の品質が良くないため沙器の焼き作業がさらに遅延しているとし、書契は沙器制作を速く終わらせるためのものであり、ほかに特別な意味はなかったと言っている。しかし書契を送ってきた当時は、対馬島主が参勤交代で席を外していた時でもなかったため、これは外交上の儀礼から明らかに外れている行為であり、朝鮮はこれを理由に書契の受付を拒否した<sup>51)</sup>。

また、1688年にも類似した問題が発生しているが、このときは「宰臣」という言葉の遣い方が問題となった。同じ年の5月は、茶礼のための茶碗を作るに必要な朝鮮の土と細工職人などを要請する過程で、宰臣という言葉をつかったのである。東萊府使は、これが儀礼に反するものであるため、書契を受け付けて朝廷に報告することはできないとし、これでは問題を解決できないので、宰臣という言葉は抜いて家臣に直すか、島主の名義で改めて作成して送るように求めている。しかし対馬側は、これにも前例があると言い出し、逆に東萊府側の記録を探してみるよう求めたり、宰臣や家臣という言葉は大きく違わないとして朝鮮の要求を拒否したりもしている<sup>52)</sup>。

1690年には書契の最初の頁に入れるべき「東萊釜山両令公大人閣下」という文章のうち「令公」が漏れていたことが問題となり<sup>53)</sup>、1696年も島主が対馬島にいるにも奉

50) 田代和生 著, 정성일 訳, 『왜관 - 조선은 왜 일본사람들을 가두었을까?』, 논형, 2005, 143頁.

51) 『倭人求請曆録』 4冊, 肅宗 4年(1678) 8월 22일.

52) 「陶工被差渡候一件」, 『分類紀事大綱』 1기 편찬본, 日本国立国会図書館 所蔵, 韓國国史編纂委員會 所蔵 MF0003039.

53) 『倭人求請曆録』 6冊, 肅宗 16年(1690) 9월 27일.

行などが私的に書契を送ってくるなど外交の儀礼に反することが繰り返され、書契の受付が拒否されるなど<sup>54)</sup>問題は継続して起きた。

宰臣という言葉遣いが問題となったのは1703年のことであった。1703年10月に作成され年末に送ってきた書契は島主の名義ではなく、そこにはその臣下などが宰臣という言葉を使いながら沙器燔造を要請する内容が盛り込まれていた。

日本国 対馬州 宰臣 平方直などが朝鮮国 東萊 釜山 両令公 大人閣下に奉呈。時は初寒であります、皆様の御平安で何より慰労されます。告げるところ、昨年要請した陶器を作るために技術者を何人か送りましたが、思うに土と焚き木のことでご苦勞と存じますが、隣国に善を為すことに感謝する限りです。また民の手を煩わせているところ、誠信の篤実さが無ければ、如何ここまでなさってくださいたのでしょうか。願わくは、さらに目に掛けてくださり、以前の規定に反しない限り、支持を下さることを願います。只、年を経て土について話すのは、以前に来ていたものとはそれが違う訳で陶器の焼き作業が上手く行かず、願わくは、以前のような土を送るように特別に言い聞かせえてくださり、陶工らが陶器を作ることに於いて叱責を受けないようにしていただければ幸いです。島主があいにく東都に職務で行っている故、私達でこのことを申し上げ、切に願うところ、ご憫察を賜りたく願ひあげます。元禄 癸未 10月 日 対馬州 宰臣 平方直 平真張 平真賢 平真連 平真弘。その名に捺印する<sup>55)</sup>。

この書契は対馬島主の家臣、平方直・平真長・平真賢・平真連・平真弘の5人が彼らの名を連ねて送ってきたものである。これに対して朝鮮では、対馬島主の一家臣が宰臣と称するのは書契の儀礼に反するものであると、書契の受付を拒否した。通常、対馬島の使者が書契を持参して倭館に入ってくると、朝鮮ではその場で書契を受付するのではなく東萊府使が訓導・別差を通して書契の手本を受け取り、その内容を検討してから受付を行った。その後慶尚監査と礼曹にこれを送ると、礼曹から朝廷に上げる形式を取っていた。一方、朝廷では国王の出席の下で書契の内容を検討してから受

54) 『倭人求請臚録』7冊, 肅宗 22年(1696) 7月 11日。この時、朝鮮は不作で沙器燔造に必要な材料を手配したり運搬するのは難しいと判断しているが、もし島主名義の書類が来るとそれは断り難いと思ひ、訓導や別差をして倭館側に予め話しておき、島主名義の書契が来ないように手を打っている。

55) 『倭人求請臚録』7冊, 肅宗 29年(1703) 12月 16日。

け容れの可否を決め、礼曹にその結果を知らせると、その次に、承文院で対馬の使者に送る礼曹の返信と東萊府使・釜山僉使の草稿を作成して釜山に送るようになっていた。

つまり対馬から東萊府使・釜山僉使の宛てに書契を送ってくると、これを検討して受付を行い、礼曹参議に上げるのが慣例であったが、上の書契にも「東萊・釜山両令公大人閣下」と記されており、書契の宛名は東萊府使・釜山僉使であることが明記されていた。しかし朝鮮後期の対日外交においては、東萊府使の外交の相手が館守ではない対馬島主になる<sup>56)</sup>。したがって一般に王の臣下を指す宰臣という名称を対馬島主の家臣が使うことにはいかない。朝鮮では、これについて対馬島主の臣下は家臣と称するのが当たり前であるにも、勝手なことに宰臣と称するのは大変差し出がましい行為で、朝廷の面子を潰すことであると思ひ、書契の受付を拒否したのである。そうすると対馬側は、当該沙器燔造は対馬内で使うためではなく、参勤交代で江戸に行っている対馬島主が、幕府からの命令を受けてから要請しているものであると、そのため事は急を要しており、奉行がその以前に出した書札にも、時には家臣と書いたり、たまには宰臣と書いたことも数回あったのに、それを問題として挙げているのは筋が合わないと、書契の受付を言い張ってきた。しかし朝鮮の態度は明らかであった。対馬側の事情で急がれているものの、対馬島主は明らかに將軍の臣下であるにも、島主の家臣を宰臣と称するのは理に適っていない上、対馬島主の外交の相手は東萊府使・釜山僉使であって、島主の臣下は当然、彼らより下であるという立場を堅持したのである。しかしそれにも拘わらず、対馬側は書契の受付を催促し、結局、訓導・別差は東萊府使にこの書契を送っているものの、東萊府使が同書契を独断で受付したことについて罪が問われ、当時、府使の李壘が調査を受けたりもしている<sup>57)</sup>。

報告を受けた朝鮮の政府は、書契では家臣という名称を使うこと、そして謝罪の言葉をすれば受け容れると一步譲っているが<sup>58)</sup>、結局この宰臣と書いた書契が問題となり、翌年の1704年に対馬はこれを直し、また対馬島主が自ら作成した書契を送ってきた。

56) これについては、양홍숙, 「조선후기 東萊지역과 지역민 동향-倭館 교류를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09, 42~62頁; 김강일, 「東萊府使와 대일외교」, 『동북아역사논총』 38, 동북아역사재단, 2012, 305~308頁を参照されたい。

57) 『倭人求請臚録』 7冊, 肅宗 29년(1703) 12월 28일.

58) 『倭人求請臚録』 7冊, 肅宗 29년(1703) 12월 28일.

日本国 对馬州 太守 拾遺 平義方 啓書。朝鮮国 東萊 釜山 両令公 閣下。秋の残暑がまだ残っていますが、令公平素の寝食は如何でしょうか。昨年は陶師を数人送りましたが、陶工及び建物、土、焚き木などを前例に従って調達し、遅滞したり止まることのないよう、曲尽して指揮をとってくださることを願い、土を練って焼き固めることには、終始民の力を使わせてもらっており、これは真にかつてから隣国との付きあってきた和合が無かったのであれば、如何ここまでなさってくださったのでしょうか。願わくは、この仕事が早期に終わり、私どもの望みを叶えることを願い、只、短い時間にも拘わらず、ものが緩んだり歪むような弊害が生じている故、改めてこれを特別に警告し前のように整うことで、陶師らが事を誤ったという叱責を受けないよう了察してくだされば幸いです。宝永 甲申7月 日 对馬州太守 拾遺 平義方<sup>59)</sup>。

对馬島主(平義方；宗義方)の名義に書き直されている書契を受付した朝鮮は、今度はこれを備邊司で確定して直接承文院に送り、对馬側に返信している。

以上、沙器燔造について、白土など関連物品に対する頻繁な要請、間違った書契の様式より発生した外交上の問題に至るまで少くない弊害があったことは間違いない。朝鮮は最後になるにつれ、交易は許しつつも、要請の時期が適していないとか書契の様式が規定に合わないとの理由で交渉を遅延させたりもしている。結局、このような状況が繰り返されると、倭館窯が廃止となる1717年は沙器燔造の要請がなく、それに伴っていた朝鮮後期の陶磁交易も幕を下ろした。

#### 4. おわりに

文禄・慶長の役により多数の朝鮮人陶工が日本に拉致され、日本の陶磁発展に大きな影響を与えたことはすでに広く知られている事実であろう。しかしこれとは別に、日本が对馬を通して文禄・慶長の役の直後から朝鮮の土と焚き木をはじめとする各種

59) 『倭人求請臚録』7冊, 肅宗 30年(1704) 10월 17일.

の物品や陶工などを要請し、釜山倭館で沙器などの陶磁を制作していた事例も容易に見られる。

国交を再開した直後の1611年に陶磁制作の要請が始まって以来、対馬は1717年まで白土などをはじめとする陶土やそのほかの必要な各種物品を継続して要請しており、倭館内に倭館窯を建てて、そこで朝鮮のヒトとモノを使って彼らの望む形の陶磁を制作している。このような要請と交易の主体は対馬であったが、実際にこの陶磁を使ったのは対馬ではない幕府側であった。対馬は、幕府の有力層に献ずる用途として、あるいは参勤交代の時期や別途で幕府からの指示があったときに、朝鮮に沙器燔造を要請していた。対馬は将軍より対朝鮮外交と貿易に関する権限を委任されており、朝鮮の陶磁を調達できる唯一な存在であったと言える。朝鮮もこうした沙器燔造の要請が「御用」つまり対馬の必要によるものではなく、幕府の必要によるものであるとこのことをよく知っていたため、ほとんどの場合は交易を許し、必要な物品を倭館に供給することで陶磁が制作できるようにした。つまり対日交易における陶磁は、幕府の指示と必要によって、あるいは対馬が幕府に献ずるために使われ、経済的な意味だけではなく政治的意味も持っていた。しかし時間が経つにつれ、頻繁な沙器の燔造及び過度な土の要請、そしてその過程で起きた各種の弊害により、朝鮮が対馬の要請を拒否したり遅延させることが増え、結局1717年を最後に両国の陶磁交易は幕を下ろした。

しかし倭館を通して陶磁を交易したり、倭館窯の設置より朝鮮で直接陶磁を制作していた様子は、同時期のその他の対日交易品とは異なる特徴を示している。一般に対馬が求めていた朝鮮の品は、朝鮮で生産されているか、あるいは朝鮮で作られ、すでに一つの完全な形態を持っているものであった。それに比べると陶磁の場合は、必要な手本を持ってきて土や焚き木など朝鮮のモノ、そして制作に必要な朝鮮のヒトを使って、彼らが求める形の陶磁を作り日本に持っていくなど朝鮮と日本の力が両方とも入った特別な形態であったと言える。

---

근세 왜관에서의 쓰시마번의 외교 활동  
近世倭館における対馬藩の外交活動

---

발표 : 야마구치 카요 (山口華代, 長崎県 教育廳)



# 근세 왜관에서서의 쓰시마번의 외교 활동

야마구치 카요 (山口華代, 長崎県 教育廳)

## 1. 머리말

나가사키현립 쓰시마역사민속자료관이 보관 중인 對馬宗家文書(대마종가문서)에는 100여 통의 한글 서간류(이하 편의상 “한글서간”이라 한다)가 존재한다. 1811년(분카[文化]8·순조 11)에 쓰시마에서 거행된 조신통신사 이른바 역지빙례(易地聘禮)를 위한 사전교섭 중 교환한 서간이다. 자료관에서는 2013~2014년도 2년간에 걸쳐 내용 해독을 목적으로 조사를 실시해, 그 성과를 『대마종가문고사료 조선역관발급 한글서간조사보고서(對馬宗家文庫史料 朝鮮 訳官發給ハングル書簡調査報告書)』(나가사키현교육위원회, 2015년 3월)에 담아 발표했다.

빙례 장소를 에도(江戸)에서 쓰시마로 변경하는 통신사의 역지빙례안은 접대 비용의 절약과 국가정보의 누출을 우려한 대외 의식의 고양 등, 국내외 제반 정세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책으로 일본 측에서 내놓은 것이었다. 하지만 이례적인 제안이었던 탓에 조선정부는 일절 수용하지 않고 오랜 세월을 걸친 지난한 교섭 끝에 마침내 쓰시마에서 빙례가 실현된 것은 널리 알려져 있다. 교섭의 경위에 대해서는 선행연구<sup>1)</sup>에 양보하겠으나, 실질적으로 교섭에 참여한 왜학역관(倭學譯官)(훈도, 별차)과 쓰시마번의 조선어통사 사이에 주고 받은 것이 한글 서간이었다.

최근에는 왜관의 조선어통사를 다룬 저작을 허지은 씨가 발표하는 등, 통사에 대한 학술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許2012, 2014]. 그러나 藩의 공문서에는 통사에 의한 교섭 기록이나 서간이 남아 있지 않아 연구가 좀처럼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에 본고에서는 쓰시마역사민속자료관이 보관 중인 宗家文書한글서간을 소재로 조일교

1) 일본의 대표적 연구로는 [田保橋1940][三宅1986]등을 들 수 있다.

섭의 최전선에서 활약했던 조선어통사의 구체적인 활동 실태를 소개하겠다. 이는 근세를 통틀어 대조선외교를 실질적으로 담당한 쓰시마번이 왜관에서 어떠한 외교 활동을 전개했는지를 탐색하기 위한 기초 작업이다.

## 1) 宗家文書 한글서간의 개요

### (1)서간의 발급 연대

해독 대상인 사료의 총수는 역지빙례 관련 99통(사료1~사료99), 역지빙례 이외의 내용 또는 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변정기록에 지송 등으로 첩한 서간이나 풀이 벗겨져 탈락한 부찰(付札) 및 사계부타[下札]류) 등 13통(참고1~참고13), 총 112통이다. (【조선역관발급서간일람】참조) 아래에서는 전자인 99통의 서간에 초점을 맞춰 개요를 설명하겠다.

서간의 발급 연대는 1795년(간세이[寬政]7·정조19)부터 1808년(분카5·순조8)까지의 기간에 집중된다. 宗家文書 한글서간의 일부를 최초로 학계에 소개한 오사 마사노리[長正統]씨도 지적한 바와 같이, 이 서간들은 1811년(분카11·순조14)에 쓰시마에서 거행된 통신사의 빙례 이른바 역지빙례와 관련한 교섭 중에 주고 받은 것이다[長 1978].

### (2)서간의 발급자

역지빙례 관련 한글사료99통 중 부분이나 초안 등 사본이 아닌 서간 원본으로 추정되는 것은 82통에 달한다(「조선역관발급한글서간일람」참조). 이 중 사료18(戊午11月初吉日付景和朴主簿書簡)을 제외한 81통 서간의 모든 용지에서는 한반도에서 뜬 종이의 특징을 찾아볼 수 있다. 사료18에 한지의 특징이 인정되는 이유는 불분명하나, 발급자의 인장이 날인되고, 하시우라가키[端裏書]에 「午十二月朔日景和下来之書狀」이라고 적혀 있는 점에서 서간 원본으로 분류했다. 서간 82통을 발급자별로 분류하면【표1】과 같다.

〈표1〉 한글서간발급자별 일람

성명(호)	사료 번호	계
박준한(士正)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10
박치겸(景和)	17 · 18 · 26 · 31	4
최경(伯玉)	20 · 22 · 23 · 25 · 28 · 40	6
최국정(華彦)	21 · 35 · 36 · 37 · 39	5
현식(陽元)	24 · 27 · 29 · 30 · 33 · 38 · 42 · 45 · 46 · 47 · 48 · 49 · 50 · 52 · 53 · 55 · 58 · 59 · 62 · 63 · 64 · 65 · 72 · 74 · 75 · 77 · 78 · 79 · 97 ?	29
현의순(敬天)	34 · 43 · 44 · 47 · 48 · 49 · 50 · 51 · 52 · 53 · 54 · 55 · 56 · 57 · 58 · 59 · 60 · 61 · 64 · 65 · 66 · 72 · 73 · 75 · 76 · 77 · 78 · 80 · 81 · 82 · 83 · 84 · 85 · 86 · 87 · 88 · 89 · 91	38
최석(明遠)	78 · 88 · 90 · 92	4
기타	41	1
불명	98 · 99	2

연명으로 발급한 서간도 있어 실제 서간수보다 합계수가 많으나, 모두 왜학역관인 훈도 및 별차로 일했던 자 또는 역지빙례 교섭을 담당한 강정역관(講定譯官)으로 임명된 자들이다.

### (3) 서간의 발급

한글서간의 수취인으로 이름이 거론된 이들은 오다 이쿠고로[小田幾五郎]와 牛田善兵衛라는 두 명의 조선어통사(朝鮮語通詞)이다. 이 중 전기간에 걸쳐 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 이는 오다[小田]로, 牛田는 단독이 아닌 오다와의 연명으로만 이름이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오다가 역지빙례를 둘러싼 조일교섭의 쓰시마번 측 창구였음을 알 수 있다.

오다 이쿠고로는 호레키[宝曆]4년(1754) 출생으로, 휘는 致久, 호는 三姜. 메이와[明和] 4년(1767)에 조선어 교육을 받기 위해 왜관으로 건너가, 안에이[安永] 5년(1776)에는 오인통사(五人通詞)로, 안에이 8년에는 계고통사(稽古通詞)로 승진했다. 그리고 간세이 원년(1789)에는 본통사(本通詞), 간세이 7년에는 대통사(大通詞)에까지 오르게 된다. 분카5년(1808)에 대통사를 퇴임하고, 사계고지남역두(詞稽古指南役頭)가 된다. 그 밖에 『상서기문(象胥紀聞)』, 『초량화집(草梁話集)』, 『북경노정기(北京路程記)』 등 다수의 저작을 남겼다[田代2007].

오다 이쿠고로의 생애를 보면, 한 가지 눈에 띄는 부분이 있다. 한글서간의 잔존 연대와 오다의 경력의 관련성이다. 앞 항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한글서간은 1795년부터 1808년까지 발

급되었다. 이는 오다가 간세이7년에 대통사에 취임하고 분카5년에 퇴임하기까지의 시기와 정확하게 일치한다. 우연히 연대가 일치한다고는 생각하기 어려우며, 또한 서간의 받는 이도 오다 이쿠고로인 만큼, 오다가 13년 동안 관여한 역지빙례 교섭 당시 받은 서간류가 전해졌다고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듯 하다.

이상의 점에서 宗家文庫史料의 한글서간은 역지빙례교섭에 관한 사료라는 기존의 평가에 더해, 쓰시마번의 대통사를 역임한 오다 이쿠고로가 수취한 서간이라는 새로운 일면을 지적할 수 있다.

## 2) 쓰시마번의 대조선외교체제

### (1) 쓰시마번청의 조선외교체제

조선 왕조와의 통교 관계가 인정되던 쓰시마번에는 외교와 무역을 위한 체제가 형성되어 있었다. 여기서는 논의를 단순화하기 위해 쓰시마번청(본국)과 조선외교·무역의 거점인 초량왜관(草梁倭館)이라는 2곳으로 좁혀 어떠한 인물들이 조선통교에 종사했는지를 살펴 보겠다.

쓰시마번의 정치 조직은 최종 의사결정권을 가진 쓰시마번주를 정점으로 번주의 정치적 판단을 보좌하는 복수의 도시요리[年壽]<sup>2)</sup>를 두고 있었고, 그 아래에 각 관청이 배치되어 있었다. 번의 권력의 원천은 번주이나, 실질적으로 번정 운영을 맡은 이들은 가로(家老)들이었다. 가로들 앞으로는 쓰시마 안팎에서 정치, 경제, 산업 등에 관한 다양한 문서와 정보가 집중되었고, 그것들을 파악하고 분석해 정치적 판단을 내렸다.

17세기 중엽부터는 재정을 담당하는 갓테가타지배(勝手方支配)와 농정을 담당하는 고오리가타지배(郡方支配)등, 번정 사무별로 각각의 가로가 담당하는 분장제가 채택되고 있다. 조선 관련 업무도 특정 가로가 ‘朝鮮御用支配’로서 전담하게 되면서, 정보의 집약을 피하는 동시에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 효율적인 정치 판단을 실현했다. 가로의 분장제는 번정 조직의 확립에 수반한 업무 확대와 그에 따른 가로의 전권 업무의 증가에 대한 조직적인 대응책으로 볼 수 있다.

朝鮮御用支配 가로들이 직속된 곳이 조선방(朝鮮方)이다. 교호[享保] 3년(1718)에 설치된 조선방은 조선 관련 기록 및 문서의 관리 업무 그리고 문안의 작성 등이 주요 업무였다. 이미 조선으로 건너간 관수(館守)나 재판(裁判) 등의 외교 사절들은 공무 차원의 기록을 철저하게

2) 17세기 초엽에 이미 스기우래[杉村], 후루카와[古川], 히라타[平田]와 같이 훗날 문벌층을 형성하는 가로의 존재를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작성했으나, 조직적으로 조선 정보를 집약하고 정리하는 부서는 없었다. 조선방의 신설은 그러한 번의 기록 체제의 미비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이다. 과거의 선례와 습관 등이 중시되는 조선외교 현장에서 목적에 부응해, 신속하게 필요한 정보에 접근<sup>3)</sup>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정비된 셈이다. 또 조선방의 사무 분장 중 하나가 조선어통사를 관리하는 것이었다. 이는 번에 고용된 통사들(“통사중”이라 총칭)의 인원 배치 등 인적 파악 업무였다.

## (2) 초량왜관의 조선 외교 체제

외교와 무역을 추진하는데 활동 거점이 된 곳이 왜관<sup>4)</sup>이다. 쓰시마에서는 다수의 번사들이 파견되었고, 또한 무역 실무를 위해 상인들이 활발하게 왕래하고 있어, 400~500명이 상주하고 있었다고 전해진다. 한성에서 파견된 사신이나 동래부사, 훈도 및 별차와 같은 조선역관 등과 직접적으로 대화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교섭의 최전선이었다.

왜관 전체를 통괄하던 관수는 상급무사[御馬廻]들 중에서 뽑혀, 2~3년의 임기로 파견되었다. 관수에게는 정례적 업무를 수행하는 것 이상으로 멀리 떨어진 현지에서 번청의 명령이나 지시를 착실하게 수행하는 업무 수행 능력이 요구되었다. 역지빙례교섭과 같은 곤란한 외교 과제가 발생한 상황에서는 특히 그 역할에서 중시되어, 도다 다노모[戸田頼母]가 4차례나 관수를 역임하는 이례적인 인사 조치가 단행되었다[長1968, 田代2011, 許2012]. 교섭 능력이 탁월했던 도다 같은 인재 없이는 역지빙례의 실현도 있을 수 없었던 셈이다.

왜관에서 조선측 관리와 직접적으로 대치한 이는 조선어통사이다. 다시로 가즈이[田代和生] 씨와 요네타니 히토시[米谷均] 씨의 쓰시마번통사에 대한 선구적인 업적에 의하면, 그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본래 쓰시마에 전문 통사(通詞)는 없었으며, 조선 무역 실무에 종사하던 상인층에서 조선어를 잘하는 자를 뽑아 통사를 맡겼다. 요네타니 씨에 의하면, 17세기경까지 쓰시마의 조선어통사 사정은 六十人이라 불리는 특권 상인이 통사를 맡았다고 한다. 그 실력은 “조선인으로 오해를 살 정도로 말을 잘한다. (朝鮮人ニ聞まかひ候ほどの上手”<sup>5)</sup>와 같이 원어민 수준이었다[米谷1991, 田代2007].

이처럼 쓰시마번의 통사 사정은 상인의 자율적인 조선어 습득에 의존하고 있었다. 그때 통사의 능력 제고를 요구하고 나선 이가 번유인 아메노모리 호슈[雨森芳洲, 1668~1755]이다. 독학으로 조선어를 습득해 실제 외교 교섭에도 종사했던 호슈는 번이 직접 조선어통사를 양

3) 과거의 외교사례를 계통적으로 정리한 『분류기서대강(分類紀事大綱)』의 편찬은 조직 내 정보 공유화의 도모를 목적으로 한 두드러진 사례라고 말할 수 있다.

4) 근세의 왜관은 1607년에 신설된 두모포왜관(豆毛浦倭館)에서 1678년에 초량왜관으로 이전했다. 본고는 18~19세기의 한글서간을 소재로 하고 있으므로 특히 후자를 가리킨다.

5) 『詞稽古之者仕立記録』(泉澄一編 『芳洲外交關係資料・書翰集』, 関西大出版部, 1982年).

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호슈의 진언이 받아들여져 교호12년(1727)에 통사양성조직이 설립되자, 쓰시마번의 조선어통사 능력은 비약적으로 향상된다.

그런데 조선어통사는 상인을 모체로 하고 있었다. 무사를 최상층으로 하는 근세 일본의 신분제도에서 상인은 신분적 지위가 맨 아래였다. 통사양성기관도 마찬가지로 전문 능력을 습득해도 신분의 속박 탓에 자유인이 될 수 없었다. 그런 탓인지 통사에 대해서는 번정문서로서의 기록 보존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통사와 관련한 계통적인 기록이 일절 전해지지 않는다.

宗家文書 중 예를 들어 표류민 관련 기록에서는 통사의 구체적인 활동을 엿볼 수 있다. 근세, 조일 양국 사이에는 해난사고 등으로 의도치 않게 표류 및 표착하는 사람들을 상호 보호하고 안전하게 본국으로 송환하는 시스템이 형성되어 있었다. 표착한 조선인들의 이름과 신분, 적재 내용물과 표착 경위 등, 조선인과의 대화는 물론 번에 제출하는 서류의 일본어 번역[和解] 등 통사의 활동은 필수불가결한 것이었다. 기록에서는 조선어를 토대로 상호 의사 소통을 꾀하는 첫 번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통사들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 3) 한글서간으로 보는 오다 이쿠고로의 외교활동

한글서간의 잔존 연대를 볼 때, 서간은 오다 이쿠고로가 대통사이던 시기에 받은 것으로 추측된다고 앞서 설명했는데 오다의 활동을 파악할 수 있는 실마리는 한글서간 이외에도 존재한다. 「御用書物控」이라는 표제가 붙은 일련의 일기 형식 기록으로, 그 날의 행동이나 면담한 조선역관과의 교섭 내용, 수취한 서간까지가 기록되어 있다.<sup>6)</sup> 이것을 보면 왜관에서의 오다의 동향을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다.

서간의 하시우라가키(서간의 끝 등에 수신자가 비망을 위해 기록한 메모) 정보를 해독해보면, 오다 이쿠고로 개인 이름으로 받은 서간임에도 관수에게 제출하고 있다.<sup>7)</sup> 단, 모든 서간을 뒷사람에게 제출할 의무는 없고 중요도가 높다고 판단한 것만을 선별해 제출했던 듯하다. 서간을 제출하면 수중에는 아무 것도 남지 않으므로, 서간 사본을 작성하거나 또는 「御用書物控」에 서간을 일본어로 번역[和解]하여 내용의 기록화를 꾀하고 있다. 참고로 관수에게 제출한 한글서간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불분명하다. 정보 전달이라는 관점에서 일본어 번역만 있으면 한글서간 원본은 불필요해진다. 따라서 대부분 폐기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선행연구에서는 조선의 왜학역관(훈도 및 별차)과 오다 이쿠고로를 비롯한 조선어통사가

6) 쓰시마역사민속자료관이 보관 중인 宗家文書에 포함되어 있는 일련의 기록서. 「보고서」에서는 1795년(간세이7)~1804년(분카 원년)까지의 기록을 사용했다.

7) 사료2의 하시우라가키「本書館守へ差出候扣」, 사료5의 하시우라가키「此本書館守様へ和解共ニ差出」 등.

역지빙례 교섭의 실질적인 담당자였다고 보인다[田保橋, 1940]. 그 점을 시사하듯이 「御用書物控」에는 빈번하게 면담을 반복하는 조일 양국의 통역관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다. 왜관에 체류 중이던 일본인들은 엄격한 관리 하에서 자유로운 출입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었다. 하지만 통사들은 조선 측의 교섭 담당자인 훈도 및 별차가 거주하고 근무하는 임소(任所) (쓰시마 측 사료에서는 ‘사카노시타[坂下]’)에 매일 드나들면서 구체적인 교섭과 중앙정부의 내정 등 유익한 정보를 수집하는데 힘썼다. 한편 훈도 및 별차도 왜관을 찾고 있다(서간에서는 ‘下來’ ‘下往’으로 표현). 면담을 반복하고 서로의 주장을 전달함으로써, 교섭의 쟁점이 보다 명확해지는 동시에 통역관간의 신뢰관계 구축으로도 이어졌을 것으로 유추된다. 통사라는 본래의 직능을 초월해 조선 측과 면밀하게 연락하고 주체적으로 행동하는 오다 이쿠고로의 모습이 선명하게 부각된다.

왜관과 임소를 거점으로 조일 간에 직접 대화를 이어가는 사이에 주고 받은 서간은 어떤 것이었을까. 전달되는 정보의 내용이나 질에 주목하면서 몇 가지 사례를 살펴 보겠다.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종류의 서간은 면담 일정과 시간 등을 조율하는 사무 연락이다.

내일은 (동래) 읍내의 점열(점호) 탓에 교통 사정이 좋지 않아 못 가겠습니다. 모래는 비바람이 쳐도 왜관에 갈 작정이오니 그렇게 알아 두십시오.

(병인 2월 21일자 敬天同知書簡 · 사료44)

「御用書物控」을 보면, 많을 때는 하루에 여러 번 면담을 하기도 했다. 서로 면밀하게 연락을 주고 받지 않으면, 효율적으로 교섭을 진행하기란 불가능했다.

일상적인 사무연락뿐만 아니라 다음의 서간은 조선 측의 인사이동을 알려주는 첫 알림판 역할도 하고 있다.

이번 달 3일에 강정관(講定官)으로 ‘景和(박준한) 님’이 임명되었으며, 출발은 이번 달 16일, 17일 양일 중으로 확정된다고 하니 이번 달 내에 (동래) 읍내까지 문제 없이 하래(下來)할 것입니다.

(12일 아침자 永好堂書簡 · 사료25)

이는 역지빙례 교섭을 담당하는 강정역관으로 ‘경화 님(박준한)’으로 결정된 점, 서울에서 출발하는 날과 동래부 도착 시기를 알려주고 있다. 쓰시마번에 있어 누가 조선정부의 대표로

역지빙례 교섭 담당관으로서 동래부로 내려올지는 향후 교섭의 흐름을 좌우하는 중요한 정보였다. 이러한 인사 정보가 훈도·별차가 보낸 서간을 통해 미리 도착하기도 했던 듯 하다.

서간은 주로 왜관 주변의 비교적 근거리에서 교환되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멀리 떨어진 장소와의 통신도 가능했던 듯 하다. 계해(癸亥) 2월 초 6일자 景和朴僉知書簡(사료26)의 하 시우라가키[端裏書]를 보면, 쓰시마 측이 ‘별비각(別飛脚)’을 고용해 한성에 있던 경화 박준한과 서간을 주고 받은 사례를<sup>8)</sup> 확인할 수 있다.

어쨌든 조선 국내에 거점이 있었다고 하나, 왜관 주변의 극히 한정된 공간에서만 활동할 수 있었던 쓰시마번에 있어 훈도·별차 등의 왜학역관은 중요한 정보원이었다. 하지만 모든 사안에 걸쳐 면담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교섭 상대의 사정이나 용무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는 등 물리적으로 면담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간을 활용해 통신하여 상호 의사소통을 꾀했던 셈이다.

#### 4) 조일외교에서 ‘覺書’의 기능적 역할

앞 장에서는 조일 통역간에 주고 받은 서간을 중심으로 설명했다. 그런데 『보고서』에서 한글서간으로 조사한 것 중에는 엄밀한 의미에서 서간으로 분류되지 않는 것들도 포함되어 있다. 고문서학적으로도 그리고 조선어통사의 역할을 고찰할 때도 흥미로운 사례이므로 이어서 소개하겠다.

을묘(1795년) 9월 21일부터 같은 달 28일까지의 7일 동안 작성된 일련의 ‘覺書’이다(사료 1~7).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 해(1795·간세이7) 3월에 쓰시마번은 조선으로부터 받은 ‘역지빙례거부서계’를 에도 막부에 제출했다. 이에 막부는 정식으로 통신사 내빙의 연기를 표명한다. 사실상 양국 정부는 통신사의 역지빙례를 단념한 형국이었다. 그러나 왜관 주변의 교섭 현장에서 돌연 역지빙례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났고 그때 위 覺書가 교환된다.

이 覺書는 오다가 훈도·박준한을 설득해 교섭 내용의 문서화를 요구한 것이다.<sup>9)</sup> 9월 24일자 진문(眞文, 한자)으로 쓰인 훈도·박준한 명의의 覺書 3통이 발신된다. 그 내용을 보면, 박준한 자신이 동래 부임 시 이미 조정의 뜻을 받고 왔으며, 사절 인원과 예단삼(통신사 증답용 인삼)의 감액 등 통신사 ‘성폐(省弊)’ 방책이 강구된다면, 염원하는 역지빙례도 실현 가능

8) 서간의 하 시우라가키에 『景和朴僉知下來方不審及遲滯候二付. 態々賃銀を呉れ別飛脚内々遣し 都方返書相達候事』라고 적혀 있다(사료26).

9) 「是迄私へ御咄被成候事之節々其外之咄等迄一ツ書ニシテ, 則景和公与御連名ニ而私右介兩人へ御当被差出置度御座候」(『御用書物控』寛政7年9月21日条).

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련의 한글覺書는 9월 24일자 진문 覺書와 거의 동일한 내용이므로, 진문 覺書를 교환하기 전에 내용을 확인할 요량으로 보낸 것으로 보인다. 즉 교섭 단계에서는 한글 覺書로 내용 부분을 서로 좁히고, 최종안은 진문 覺書로 교환한 셈이다.

覺書를 작성한 이유는 오다 이쿠고로가 조선 측에 교섭 내용을 문서화하자고 요청했기 때문이다. 쓰시마번에 있어 이러한 覺書들은 수신자야말로 오다 이쿠고로라는 개인이나, 실제로는 관수 도다 다노모에게, 경우에 따라서는 그 윗사람인 쓰시마번의 도시요리들에의 보고를 전제하고 있었다. 여기서 주고 받은 覺書는 통역간의 개인적 교환이라는 틀을 넘어서 그들이 현장에서 주고받은 교섭 내용을 증명하는 이른바 약식 외교문서라고도 할 수 있다. 9월 24일자 覺書 이후, 박준한을 수반으로 하는 조선역관과 쓰시마번 사이에 중앙정부 또는 쓰시마번에 대한 설득과 성폐 조건을 둘러싸고 구체적인 협의가 전개되기 시작한다.

조일 통교 현장에서 교환된 覺書에 대해 한국사적 입장의 견해를 소개하겠다. 조일 간의 현장 차원에서 주고 받은 문서 형식을 종합적으로 고찰한 이훈 씨는 『분류기사대강(分類紀事大綱)』 등에 모사된 사례를 토대로 覺書를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즉 覺書는 역관이 개인 자격으로 작성한 것으로, 윗사람인 동래 부사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 않았으며, 정보 전달이라는 기본 기능에 더해 원활한 교섭을 추진하기 위한 문서 형식으로 활용되었다는 것이다[李薰2011]. 전근대의 일본사회에서 신문을 불문하고 널리 활용되던 覺書<sup>10)</sup>과의 기능적 차이는 분명하며, 조일 통교 현장에서 사용된 문서 형식의 변천과 특질 등에 대해 추가 고찰이 필요하다.

양국 정부가 역지빙례를 단념한 가운데, 조직의 말단에 위치한 통역들이 역지빙례의 길을 모색하려는 혁신적인 움직임은 보였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 당시 조일 양국은 조선통신사에 의한 경제적 부담이 막대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실무자이기에 양국 정부의 숨은 본심을 정확하게 간파하고 통신사의 ‘성폐’라는 점에서 교섭의 타협점을 도출했다고 말할 수 있다. 교섭을 담당한 조일 양국의 통역들이 어학능력은 물론 교섭 능력에도 뛰어났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으나, 여기서는 실무자로서의 대담하면서도 냉정한 모습을 볼 수 있다.

10) 『보고서』(134쪽(주1))에서는 “일의적으로는 내용을 잊지 않기 위해 메모해 두는 행위, 또는 그 문서를 가리킨다. 그 중 제3자에게 전달하는 서간과 같은 기능도 가지게 되었다”고 일본의 일반적인 覺書 설명만을 게재했다. 이훈 씨의 견해도 함께 재고할 필요가 있을 듯하다.

## 2. 마치며

12만점이 넘는 宗家文書 중 한글서간은 고작 100점 정도밖에 남아 있지 않다. 한글서간은 발신자가 수신자에게 적은 내용이 전달된 시점에서 그 임무를 끝내고 쓸모 없는 문서 취급을 받았을 것이다. 하지만 역지빙례 교섭이라는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엽에 걸친 최대의 외교 과제와 관련된 내용인 점 그리고 쓰시마번 불세출의 통사인 오다 이쿠고로가 교섭을 담당했다는 점 등, 통상 찾아볼 수 없는 다양한 요인들이 겹치면서 宗家文書로서 오늘날에 전해지게 되었다.

본고에서는 조선어통사의 활동 실태를 밝히기 위한 시도로, 오다 이쿠고로가 남긴 것으로 보이는 「御用書物控」과 한글서간을 극히 간단하게나마 분석해 보았다. 그곳에서 부각되는 오다의 활동은 조선어 통역이라는 본래의 역할을 뛰어넘어 비교적 자유롭게 왜관과 임소를 왕래하면서 조선 측 담당자인 훈도·별차와 면담을 거듭하는 외교관적 성격이 강했다.

그리고 특히 한글서간 중 覺書에 대해 검토했다. 정보 전달을 주요 목적으로 일상적으로 주고 받은 서간과는 달리, 조일 통역관간 외교교섭의 내용을 문서화한 것이다. 수취인이 오다 이쿠고로였지만 그 내용은 윗사람인 관수나 쓰시마번청의 도시요리에게 전달되었다고 생각된다. 覺書에 대해서는 한국사 측에서도 지적되고 있듯이, 조일교섭 현장에서 교환된 覺書는 공문서, 사문서와 같이 간단하게 분류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서간에는 외교교섭에 관한 내용만이 담겨 있지 않다. 때로는 서로의 안부를 묻기도 하고, 때로는 일본의 '미소'의 율통을 바라고 또 조선산 '명란젓'이나 '가루'를 선물하는 등의 서간도 보인다(사료48). 한글서간에서는 나라와 입장을 초월해 같은 외교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간의 신뢰관계와 서로에 대한 존경심을 엿볼 수 있다.

### 【참고문헌】

- 荒野泰典 1979 「朝鮮通信使の終末」 『歴史評論』 355  
荒野泰典 1988 『近世日本と東アジア』 東京大学出版会  
池内敏 1998 『近世日本と朝鮮漂流民』 臨川書店  
長 正統 1968 「日鮮関係における記録の時代」 『東洋学報』 50-4  
長 正統 1978 「倭学訳官書簡よりみた易地行聘交渉」 『史淵』 115  
糟谷憲一 1979 「なぜ朝鮮通信使は廃止されたか—朝鮮史料を中心に」 『歴史評論』 355

金 東哲 (吉田光男訳) 2001 『朝鮮近世の御用商人』 法政大学出版局  
 田代和生1981 『近世日朝通交貿易史の研究』、創文社  
 田代和生2002 『倭館—鎖国時代の日本人町』 文藝春秋社  
 田代和生2007 『日朝交易と対馬藩』 創文社  
 田代和生2011 『新・倭館—鎖国時代の日本人町』 ゆまに書房  
 立花氏清撰・鈴木棠三編1975 『宗氏家譜略』 村田書店  
 田保橋潔1940 『近代日鮮関係の研究』 朝鮮総督府中枢院  
 鶴田 啓 2006 『対馬からみた日朝関係』 山川出版社  
 中村栄孝1969 『日鮮関係史の研究』 下、吉川弘文館  
 三宅英利 1986 『近世日朝関係史の研究』 文献出版  
 米谷 均 1991 「対馬藩の朝鮮通詞と雨森芳洲」 『海事史研究』 48  
 尹 裕淑 2011 『近世日朝通交と倭館』 岩田書院

#### 【韓国語文献】

李 薰2011 『外交文書にみる朝鮮と日本の意思疎通』 景仁文化社  
 許芝銀2012 『倭館の朝鮮語通詞と情報流通』 景仁文化社  
 許芝銀 2014 「近世倭館館守の役割と戸田頼母」 『韓日関係史研究』 48

#### 【부기】

본고는 『대마중가문고사료 조선역관발급 한글서간조사보고서(對馬宗家文庫史料 朝鮮訳官發給ハングル書簡調査報告書)』에 게재된 줄고 「해제—조선역관발급한글서간의 개요와 그 특징(解題—朝鮮訳官發給ハングル書簡の概要とその特徴)」 및 2015년 9월 11일에 한국 국립한글박물관에서 개최된 <대마도중가문고한글서간> 국제학술대회의 보고 원고인 「조선어통사의 활동과 그 역할(朝鮮語通詞의 활동とその役割)」을 재구성한 것이다.

史料 番号	表題	西暦	年月日	發給 (発信者)	受給 (受信者)	形態	頁数	紙数	法量	料紙	備考	宗室文庫一紙物 管理番号
史料1	覚	(1795)	9月	訓導土正朴正・景和朴 主簿	小田幾五郎・吉松右助	綴紙	1通	9紙	24.8×221.0	楮紙	(端裏書)「乙卯年九月廿八日/土正 が謄文にて差出候事」	815-6-6
史料2	覚(草案)	(1795)	乙卯9月21日	訓導土正朴正・景和朴 主簿	小田幾五郎・吉松右助	綴紙	1通	4紙	24.1×65.3	楮紙	(端裏書)「乙卯起り 本書館守へ差 出候由」	1689
史料3	[覚](草案)	1795	乙卯9月24日	訓導土正朴正	小田幾五郎	綴紙	1通	4紙	24.4×87.5	楮紙		815-6-7
史料4	覚(草案)	1795	乙卯9月	訓導土正朴正・景和朴 主簿	小田幾五郎・吉松右助	綴紙	1通	3紙	24.1×83.0	楮紙	(端裏書)「乙卯九月謄文書付之写 し」	815-6-13
史料5	覚(草案)	(1795)	9月	訓導土正朴正	小田幾五郎	綴紙	1通	2紙	24.1×42.9	楮紙	(端裏書)「土正方方/此本書 館守 様へ和解共ニ差出」	1123-157
史料6	覚(草案)	(1795)	9月日	訓導土正朴正	小田幾五郎	綴紙	1通	3紙	24.7×97.1	楮紙	(端裏書)「乙卯起り之分 本書館守 様へ有之」	1692
史料7	書簡	(1795)	10月18日	土正	幾五郎	切紙	1通	3紙	24.3×49.1	楮紙(朝鮮紙)		41-6
史料8	書簡	1796	丙辰6月28日	土正朴僉知(印)	小田幾五郎	綴紙	1通	2紙	28.9×99.6	楮紙(朝鮮紙)	(端裏書)「土正」	1123-139
史料9	書簡	1796	丙辰6月29日	土正朴僉知(印)	幾五郎	切紙	1通	2紙	28.7×38.2	楮紙(朝鮮紙)		41-13
史料10	書簡	1796	丙辰7月23日	土正朴僉知(印)	小田幾五郎	切紙	1通	1紙	23.0×37.3	楮紙(朝鮮紙)		41-3
史料11	書簡	1797	丁巳4月11日	土正朴僉知(印)	小田幾五郎	綴紙	1通	3紙	25.2×91.9	楮紙(朝鮮紙)		41-1
史料12	書簡	1797	丁巳閏6月28日	土正朴僉知(印)	大通官	切紙	1通	1紙	25.1×47.6	楮紙(朝鮮紙)	(端裏書)「土正分」	1123-143
史料13	書簡	1798	戊午5月初5日	土正朴僉知(印)	大通官	切紙	1通	1紙	20.0×36.8	楮紙(朝鮮紙)	(端裏書)「土正之分」	54-4-3
史料14	書簡	(1798)	5月24日	土正朴僉知(印)	大通官	綴紙	1通	2紙	24.5×38.0	楮紙(朝鮮紙)		54-4-2
史料15	書簡	1798	戊午7月21日	土正朴僉知(印)	小田幾五郎	綴紙	1通	2紙	25.0×32.2	楮紙(朝鮮紙)		54-4-4
史料16	書簡	1798	戊午11月19日	土正朴僉知(印)	小田幾五郎	綴紙	1通	2紙	26.4×47.8	楮紙(朝鮮紙)	(端裏書)「土正分」	54-4-1
史料17	書簡	(1798)	30日	訓導(印)		切紙	1通	1紙	21.1×37.4	楮紙(朝鮮紙)		41-17
史料18	書簡	1798	戊午11月初吉日	景和朴主簿(印)	小田幾五郎	切紙	1通	1紙	16.7×42.3	楮紙	(端裏書)「午十二月朔日景和下来之 書状」	54-5-2
史料19	書簡(控)	1800	庚申9月初10日	訓導印	大通官・吉松右助	綴紙	1通	2紙	15.9×42.2	楮紙	包紙(1046-11-52-2-1)あり(包 紙)「別段秘密書」、袖に蓋書「本書 館守ニ有之」	1046-11-52-2-1 1046-11-52-2-2
史料20	書簡	1800	申10月24日	伯玉崔僉正(印)	大通官	切紙	1通	2紙	(1紙) 24.7× 48.7、 (2紙) 25.4× 54.7	楮紙(朝鮮紙)		1123-159 1123-161

史料 番号	表題	西暦	年月日	發給 (発信者)	受給 (受信者)	形態	頁數	紙數	法量	料紙	備考	宗家文庫一紙物 管理番号
史料21	書簡	1800	庚申10月24日	華彦崔命知(印)	(小田幾五郎)	切紙 1通	1紙	24.8×42.4		楮紙(朝鮮紙)	封筒(1123-151-1)あり、(封筒)小田幾五郎公前入納、「応封」、 「都米状」華彦は冥筆、封筒に2箇所 ある封印影は崔王向のもの、受給情報 は封筒より採取	1123-151-1 1123-151-2
史料22	書簡	1801	辛酉3月初7日	訓導(印)	(大通官)	切紙 1通	1紙	22.4×39.3		楮紙(朝鮮紙)	封紙(41-12-1)あり、(封紙)「大 通官」公前入納、「應封」、包紙に 封印あり、封印の印影は誰のものか不 明、受給情報は包紙より採取	41-12-1 41-12-2
史料23	書簡	1802	壬戌11月23日	永好堂主人	大通官	切紙 1通	1紙	23.6×38.3		楮紙(朝鮮紙)	(端裏書)「用之分」	821-3
史料24	書簡	1802	壬戌12月22日	賜元玄判官(印)	大通官	綴紙 1通	2紙	23.2×25.5		楮紙(朝鮮紙)		54-2-5
史料25	書簡	(1803)	12朝	永好堂	三伝語官	切紙 1通	1紙	23.5×35.6		楮紙(朝鮮紙)	(端裏書)「正月十三日達 伯」	1123-146
史料26	書簡	1803	癸亥2月初6日	景和朴命知(印)		切紙 1通	1紙	33.5×45.6		楮紙(朝鮮紙)	(端裏書)「景和朴命知下米方不審及 運滯候ニ付/應々賃銀を兵別飛脚内 々遣し/都方返書相達候事」	1123-154
史料27	書簡	1803	癸亥2月18日	賜元玄判官(印)	小田幾五郎・牛田善兵衛	綴紙 1通	2紙	23.6×38.3		楮紙(朝鮮紙)	(端裏書)「正月十九日之分/賜元 お」	54-2-8
史料28	書簡	1803	癸亥2月24日	伯玉崔同知	小田幾五郎	切紙 1通	1紙	21.2×46.0		楮紙(朝鮮紙)	(端裏書)「伯玉公私之事」	1123-145
史料29	書簡	1803	癸亥2月26日	賜元玄判官(印)	小田幾五郎・牛田善兵衛	切紙 1通	1紙	23.3×38.9		楮紙(朝鮮紙)	(端裏書)「閏正月廿六日達 賜元 お」	54-2-4
史料30	書簡	1803	亥12月27日	賜元玄判官(印)		切紙 1通	1紙	28.1×27.6		楮紙(朝鮮紙)		41-8
史料31	書簡	1803	癸亥2月28日	景和朴命知(印)	小田幾五郎	切紙 1通	1紙	27.5×22.2		楮紙(朝鮮紙)	(端裏書)「景和返事」	41-16
史料32	覽(控)	(1803)	年月			切紙 1通	1紙	25.2×12.4		楮紙		42-19
史料33	書簡	1804	甲子4月26日	訓導(印)	小田幾五郎・牛田善兵衛	綴紙 1通	2紙	23.4×37.6		楮紙(朝鮮紙)	(端裏書)「賜元」	54-2-7
史料34	書簡	(1804)	(甲子)5月18日	玄判官敬天(印)	小田幾五郎	切紙 1通	1紙	23.2×17.5		楮紙(朝鮮紙)		41-18
史料35	書簡	1804	甲子7月初3日	華彦崔命知(印)		切紙 1通	1紙	22.4×41.5		楮紙(朝鮮紙)	(端裏書)「華彦 藍蓋官ニ付無應相 候/其尺罷登候書状」	1123-150
史料36	書簡	1804	甲子11月18日	華彦崔同知(印)	小田幾五郎	綴紙 1通	2紙	24.5×38.7		楮紙(朝鮮紙)	(端裏書)「華彦/取替之筋」	1123-156
史料37	書簡	1805	乙丑2月13日	華彦崔同知(印)	小田幾五郎・牛田善兵衛	切紙 1通	1紙	22.3×32.3		楮紙(朝鮮紙)		41-20
史料38	書簡	1805	乙丑3月16日	訓導	小田幾五郎・牛田善兵衛	綴紙 1通	2紙	22.9×37.2		楮紙(朝鮮紙)		48-13

史料 番号	表題	西曆	年月日	發給 (発信者)	受給 (受信者)	形態	頁數	紙數	法量	料紙	備考	宗家文庫一紙物 管理番号
史料39	書簡	(1805)	(乙丑) 3月16日	華彦(印)		切紙	1通	1紙	21.2×41.2	楮紙(朝鮮紙)	封筒(48-16-1)あり、(封筒)「西公前回上」	48-16-1 48-16-2
史料40	書簡	1805	乙丑6月22日	無名氏	小田幾五郎	綴紙	1通	1紙	24.2×32.4	楮紙(朝鮮紙)	書簡文面は「一」から「十二」と墨書のある12枚に裁断された細長い紙片に書かれており、それを順番通りに並べ1枚の台紙に貼り付ける	61
史料41	書簡	1805	乙丑9月20日	脈血臈別將朴聖章(印)・李裨哥	内田茂右衛門	切紙	1通	1紙	37.5×46.7	楮紙(朝鮮紙)	書簡の袖にも印あり	1123-158
史料42	書簡	1805	乙丑12月初4日	訓導(印)	伝語官	綴紙	1通	2紙	22.7×48.8	楮紙(朝鮮紙)		48-6
史料43	書簡	1806	丙寅2月初2日	講定官	尙伝語官	切紙	1通	1紙	23.7×13.7	楮紙(朝鮮紙)		48-8
史料44	書簡	1806	丙寅2月21日	敬天玄同知(印)	伝語官	綴紙	1通	2紙	27.9×23.1	楮紙(朝鮮紙)		48-12
史料45	書簡	1806	丙寅2月21日	訓導	小田幾五郎・牛田善兵衛	切紙	1通	1紙	23.7×25.7	楮紙(朝鮮紙)		48-2
史料46	書簡	(1806)	3月初2日	訓導	伝語官	切紙	1通	1紙	23.4×16.7	楮紙(朝鮮紙)		48-7
史料47	書簡	1806	丙寅3月初4日	講定官・訓導		綴紙	1通	2紙	23.4×30.0	楮紙(朝鮮紙)		48-14
史料48	書簡	1806	丙寅3月初5日	講定官・訓導	小田幾五郎・牛田善兵衛	綴紙	1通	2紙	23.5×38.5	楮紙(朝鮮紙)		48-15
史料49	書簡	1806	丙寅3月初6日	敬天玄同知・賜元玄判官	小田幾五郎・牛田善兵衛	綴紙	1通	2紙	27.9×38.7	楮紙(朝鮮紙)		48-5
史料50	書簡	1806	丙寅3月14日	敬天玄同知・賜元玄判官	小田幾五郎・牛田善兵衛	綴紙	1通	2紙	27.9×48.8	楮紙(朝鮮紙)		48-3
史料51	書簡	(1806)	3月17日	敬天玄同知	小田幾五郎・牛田善兵衛	綴紙	1通	2紙	27.7×50.5	楮紙(朝鮮紙)		48-4
史料52	書簡	1806	丙寅3月17日	講定官・訓導	尙伝語	綴紙	1通	2紙	23.7×17.6	楮紙(朝鮮紙)		48-9
史料53	書簡	1806	丙寅3月23日	敬天玄同知・賜元玄判官	小田幾五郎・牛田善兵衛	綴紙	1通	2紙	23.4×44.4	楮紙(朝鮮紙)		48-1
史料54	書簡	(1806)	3月24日	玄同知	小田幾五郎・牛田善兵衛	切紙	1通	1紙	27.7×20.9	楮紙(朝鮮紙)		48-10
史料55	書簡	(1806)	3月27日	講定官・訓導	尙公	切紙	1通	1紙	20.0×31.0	楮紙(朝鮮紙)		54-2-3
史料56	書簡	(1806)	丙3月28日	敬天玄同知	尙公	切紙	1通	1紙	27.8×29.9	楮紙(朝鮮紙)		41-2
史料57	書簡	(1806)	丙3月28日	敬天玄同知	尙公	切紙	1通	1紙	22.0×40.3	楮紙(朝鮮紙)		41-10
史料58	書簡	(1806)	4月初1日	講定官・訓導		綴紙	1通	2紙	27.7×28.2	楮紙(朝鮮紙)	(端裏書)「敬天陽元」	54-2-6
史料59	書簡	(1806)	4月初1日	講定官・訓導		綴紙	1通	2紙	29.4×37.7	楮紙(朝鮮紙)		41-19

史料 番号	表題	西暦	年月日	発給 (受信者)	受給 (受信者)	形態	員数	紙数	法量	料紙	備考	宗家文庫一紙物 管理番号
史料60	書簡	(1806)	4月初4日	敬天玄同知	阿公	切紙 1通	1紙	1紙	27.7×31.0	楮紙(朝鮮紙)	包紙(41-28)あり、(包紙)「阿公 前回納」	41-28 41-5
史料61	書簡	(1806)	4月初4日	敬天玄同知	阿公	綴紙 1通	2紙	2紙	27.7×40.7	楮紙(朝鮮紙)		54-2-2
史料62	書簡	(1806)	初4日	訓導		切紙 1通	1紙	1紙	22.1×40.5	楮紙(朝鮮紙)		54-2-1
史料63	書簡	1806	丙寅4月14日	訓導	小田幾五郎	切紙 1通	1紙	1紙	29.1×28.5	楮紙(朝鮮紙)		48-11
史料64	書簡	1806	丙寅4月21日	講定官・訓導	伝語官	切紙 1通	1紙	1紙	29.2×17.9	楮紙(朝鮮紙)	(こより)「接慰官下米方往復書状 也」	54-5-1
史料65	書簡	1806	丙寅4月25日	講定官・訓導	小田幾五郎・牛田善兵衛	切紙 1通	1紙	1紙	29.2×29.2	楮紙(朝鮮紙)		54-5-4
史料66	書簡	1806	丙寅4月28日	講定官	小田幾五郎	切紙 1通	1紙	1紙	29.2×20.3	楮紙(朝鮮紙)		54-5-3
史料67	傳言(草案)	(1806)				綴紙 1通	4紙	4紙	24.3×103.8	楮紙	(端裏書)「下書/都船主方心得二い たし居候様ニト」	1688
史料68	【傳言】(控)	1806	丙寅6月			綴紙 1通	4紙	4紙	30.7×167.2	楮紙	(端裏書)「寅六月御掛合」	1691
史料69	【傳言】(控)	(1806)				綴紙 1通	12紙	12紙	24.2×303.2	楮紙	(端裏書、朱書)「初発書立之分」	54-1-7
史料70	口陳(控)	1806	丙寅8月19日			綴紙 1通	1紙	10紙	24.1×284.0	楮紙	(端裏書)「控」、(端裏書、朱書) 「八月十九日之分」、管理番号823-28 ・819-14は一連の文書	823-28 819-14
史料71	口陳(草案)	(1806)				綴紙 1通	8紙	8紙	24.9×251.6	楮紙	朱書きで加筆修正	1684
史料72	書簡	1806	丙寅10月初8日	講定官・訓導	小田・牛田	切紙 1通	1紙	1紙	24.3×31.3	楮紙(朝鮮紙)		54-3-6
史料73	書簡	(1806)	11月初7日	講定官	小田・牛田	綴紙 1通	2紙	2紙	25.8×37.5	楮紙(朝鮮紙)		815-8-9
史料74	書簡	1806	丙寅至月21日	訓導	小田・牛田	切紙 1通	1紙	1紙	26.0×28.0	楮紙(朝鮮紙)		54-3-7
史料75	書簡	(1806)	至月24日	講定官・訓導	阿伝語官	切紙 1通	1紙	1紙	28.8×12.3	楮紙(朝鮮紙)		54-3-5
史料76	書簡	1806	丙寅11月30日	玄同知	阿伝語官	綴紙 1通	2紙	2紙	25.7×14.6	楮紙(朝鮮紙)	包紙(54-3-1)あり、(包紙)「小田 大通信官前」、「こより」 「寅十月より十二月迄之分」	54-3-1 54-3-2
史料77	書簡	1806	丙寅12月初5日	講定官・訓導	阿伝語官	切紙 1通	1紙	1紙	25.7×24.8	楮紙(朝鮮紙)		54-3-8
史料78	書簡	1806	丙寅12月初7日	講定官・訓導	阿伝語官	綴紙 1通	2紙	2紙	25.0×29.7	楮紙(朝鮮紙)		54-3-4
史料79	書簡	1806	丙寅12月18日	講定官・訓導・別差 鶴元玄判官(印)	小田幾五郎	綴紙 1通	2紙	2紙	23.0×52.6	楮紙(朝鮮紙)		54-3-3
史料80	書簡	1807	丁卯正月27日	訓導	小田幾五郎	綴紙 1通	2紙	2紙	22.5×18.0	楮紙(朝鮮紙)		815-8-10

史料 番号	表題	西暦	年月日	発給 (発信者)	受給 (受信者)	形態	頁数	紙数	法量	料紙	備考	宗家文庫一紙物 管理番号
史料81	書簡	1807	丁卯元月29日	講定官	阿大通官	切紙	1通	2紙	22.3×19.7	楮紙(朝鮮紙)		41-9
史料82	書簡	1807	丁卯正月29日	訓導	阿大通官	綴紙	1通	2紙	22.5×32.0	楮紙(朝鮮紙)		815-8-8
史料83	書簡	1807	丁卯元月晦日	講定官	阿大通官	綴紙	1通	2紙	22.4×29.4	楮紙(朝鮮紙)		815-8-6
史料84	書簡	1807	丁卯正月30日	訓導	阿大通官	綴紙	1通	2紙	22.5×24.7	楮紙(朝鮮紙)		815-8-7
史料85	書簡	1807	丁卯2月初9日	講定官	阿大通官	綴紙	1通	2紙	22.5×22.8	楮紙(朝鮮紙)		815-8-5
史料86	書簡	1807	丁卯2月15日朝	講定官(印)	阿公	切紙	1通	1紙	22.5×20.0	楮紙(朝鮮紙)	815-8-3~8-10袋・紙縫にて一拵、 (袋815-8-1)「謄文書付入 小田幾 五郎」、(紙縫815-8-2)「卯正月よ り」	815-8-3
史料87	書簡	1807	丁卯2月15日	講定官(印)	阿公	綴紙	1通	2紙	22.5×30.7	楮紙(朝鮮紙)		815-8-4
史料88	書簡	1807	丁卯5月初1日	訓別		綴紙	1通	2紙	26.0×34.4	楮紙(朝鮮紙)	(端裏書)「敬天明達」	1123-155
史料89	書簡	1807	丁卯5月初1日	訓導	阿大通官	切紙	1通	1紙	26.1×25.1	楮紙(朝鮮紙)	(端裏書)「外状」[当時 入用無之 分]	41-7
史料90	書簡	1807	丁卯5月21日	別差		切紙	1通	1紙	19.5×31.5	楮紙(朝鮮紙)		41-21
史料91	書簡	(1807)	6月初1日	訓導	阿公	切紙	1通	2紙	17.5×36.3	楮紙(朝鮮紙)		41-14
史料92	書簡	(1807)		即 別差		切紙	1通	1紙	24.5×16.6	楮紙(朝鮮紙)	(端裏書)「明達」	1123-140
史料93	[傳言] (草案)	(1807)				綴紙	1通	3紙	25.2×72.4	楮紙	(端裏書)「六月十三日御掛合」	1687
史料94	[傳言] (草案)	(1807)				綴紙	1通	4紙	28.0×110.8	楮紙	(端裏書)「御掛合之節謄文にて任言 へ為御見被成候旨之下書」	1685
史料95	書簡(控)	(1808)	2月22日	訓導	久光甲次郎	切紙	1通	1紙	25.1×18.5	楮紙		812-19-3
史料96	書簡(控)	1808	辰2月22日	訓導	小田	綴紙	1通	2紙	25.3×49.5	楮紙	(端裏書)「辰二月廿二日夕達候事」	812-19-4
史料97	書簡	年代不明	2月16日	訓導	(大通官)	切紙	1通	1紙	22.3×20.2	楮紙(朝鮮紙)	綴り封にして墨書「大通官公」あり	46-17
史料98	書簡	年代不明				切紙	1通	1紙	26.4×35.1	楮紙(朝鮮紙)		1123-162
史料99	書簡	年代不明		即旋 別差		切紙	1通	1紙	20.5×26.0	楮紙(朝鮮紙)		41-15
参考1	覚	1760	庚辰4月17日	訓導崔金正(印)・別 差李僉正(印)	裁判(吉村橋左衛門)	綴紙	1通	2紙	36.3×163.6	楮紙(朝鮮紙)		1096-6
参考2	覚(控)	1760	庚辰4月17日	訓導崔金正印・別差李 僉正印	裁判	綴紙	1通	4紙	27.9×138.0	楮紙	管理番号1096-6の控	1123-152
参考3	書簡	1761	辛巳2月初7日	來儀崔判官(印)		切紙	1通	1紙	34.8×52.5	楮紙(朝鮮紙)		995-33

史料番号	表題	西暦	年月日	発給(発行者)	受給(受給者)	形態	員数	紙数	法量	料紙	備考	宗家文庫一紙物管理番号
参考4	書簡	1802	壬戌9月初3日	訓導(印)	(大通官)	切紙	1通	1紙	29.3×42.0	楮紙(朝鮮紙)	宗家文書・記録類3・朝鮮関係・B16の挿入文書、封筒あり、(封筒)「大通官公前即納 謹封」、封印あり	挿入文書1
参考5	書簡	1803	癸亥4月初2日	訓導(印)	小田幾五郎	切紙	1通	1紙	29.3×17.4	楮紙(朝鮮紙)	宗家文書・記録類3・朝鮮関係・B65の挿入文書(元こよりにて綴じ込み)	挿入文書2
参考6	[覽]	(1803)				切紙	1通	1紙	25.3×5.0	楮紙	宗家文書・記録類3・朝鮮関係・B7の挿入文書、元付紙か	挿入文書3
参考7	覽	1803	癸亥6月初7日	三伝語言		綴紙	1通	2紙	24.3×49.2	楮紙	宗家文書・記録類3・朝鮮関係・B7の挿入文書	挿入文書4
参考8	覽	1803	癸亥6月日	三伝語言		切紙	1通	1紙	25.2×25.0	楮紙	宗家文書・記録類3・朝鮮関係・B7の挿入文書	挿入文書5
参考9	[覽]	(1803)				切紙	1通	1紙	25.1×7.9	楮紙	宗家文書・記録類3・朝鮮関係・B7の挿入文書、元付紙か	挿入文書6
参考10	覽	(1803)	年月			切紙	1通	1紙	25.0×14.0	楮紙	宗家文書・記録類3・朝鮮関係・B7の挿入文書	挿入文書7
参考11	書簡(控)	1818	(文政元年5月19日)	(朝鮮語通詞広瀬与市)	(濰海政言玄義温)	綴紙	1通	2紙	39.7×106.3	楮紙		998-6
参考12	[口上書]	1823				切紙	1通	1紙	25.2×34.5	楮紙	包紙あり、844-9-2~3包紙一括、(包紙)「漂民死骸居棺二而送来付於長崎 漂民より断書差出和解共」	844-9-1 844-9-3
参考13	[願]	1831	辛卯5月日	朝鮮国全羅道海浦6名	伝語言	切紙	1通	1紙	24.0×16.0	楮紙	包紙あり、989-48-2の和解とともに包紙(989-48-1)一括	989-48-1 989-48-3



# 近世倭館における対馬藩の外交活動

主任学芸員 山口 華代（長崎県教育庁学芸文化課）

## 1. はじめに

長崎県立対馬歴史民俗資料館が保管する対馬宗家文書には、100通余りのハングル文字で書かれた書簡類（以下、便宜上「ハングル書簡」とする）が存在する。1811年（文化8・純祖11）に対馬で挙行された朝鮮通信使、いわゆる易地聘礼の事前交渉のなかで授受された書簡である。資料館では2013～14年度の2年間で内容解読を目的とした調査を実施し、その成果を『対馬宗家文庫史料 朝鮮訳官発給ハングル書簡調査報告書』（長崎県教育委員会、2015年3月）にまとめた。

聘礼場所を江戸から対馬へ変えるという通信使の易地聘礼案は、接待費用の節減や国家情報の漏洩を危惧する対外意識の高まりなど国内外の諸事情への具体的対応策として日本側から発案されたものである。しかし異例の提案であったために朝鮮政府からはまったく受け入れられず、長年にわたる困難な交渉を経て、対馬での聘礼が実現したことはよく知られている。交渉の経緯については先行研究<sup>1)</sup>に譲るが、実質的に交渉にあたった倭学訳官（訓導・別差）と対馬藩の朝鮮語通詞とのあいだで授受されたのがハングル書簡であった。

近年では倭館での朝鮮語通詞を取り上げた著作が許芝銀氏より提示されるなど、通詞への学術的関心が高まっている〔許2012,2014〕。しかし藩の公文書には通詞による交渉記録や書簡は残されていないため、なかなか研究の進展が見られないのも実情

---

1) 日本の代表的研究では〔田保橋1940〕〔三宅1986〕などがあげられる。

である。

そこで本報告では、対馬歴史民俗資料館が保管する宗家文書ハングル書簡を素材に、日朝交渉の最前線にあった朝鮮語通詞の具体的な活動実態を紹介する。近世を通じて対朝鮮外交を実質的に担当していた対馬藩が、倭館においてどのような外交活動を展開していたのかを探るための基礎作業とするものである。

## 1) 宗家文書ハングル書簡の概要

### (1) 書簡の発給年代

解読の対象とした史料総数は、易地聘礼関連のもの99通(史料1～史料99)、易地聘礼以外の内容のもの、あるいは書簡と認められないもの(藩政記録にこより等で綴じられた書簡や糊がはずれ脱落した付札・下札のたぐい)など13通(参考1～参考13)、あわせて112通となる。【朝鮮訳官発給書簡一覧】参照)以下、前者99通の書簡に焦点をあて概要を説明する。

書簡の発給年代は1795年(寛政7・正祖19)から1808年(文化5・純祖8)までに集中する。宗家文書ハングル書簡の一部を初めて学界に紹介した長正統氏も指摘しているように、これら書簡は1811年(文化11・純祖14)に対馬で挙行された通信使の聘礼いわゆる易地聘礼に関連する交渉のさなかに授受されたものである[長1978]。

### (2) 書簡の発給者

易地聘礼関連のハングル史料99通のうち控や草案など写本ではなく、書簡原本と考えられるものは82通にのぼる(「朝鮮訳官発給ハングル書簡一覧」参照)。このうち史料18(戊午11月初吉日付景和朴主簿書簡)を除いた81通すべての書簡料紙には、朝鮮半島で漉かれた紙の特徴がみられる。史料18に朝鮮紙の特徴が認められない理由については不明だが、発給者の印章が捺印され、端裏書きに「午十二月朔日景和下来之書状」とあることから書簡原本とした。書簡82通を発給者別に分類すると【表1】のとおりである。

【表1】ハンゲル書簡発給者別一覧

氏名(号)	史料番号	計
朴俊漢 (士正)	7・8・9・10・11・12・13・14・15・16	10
朴致儉 (景和)	17・18・26・31	4
崔王岡 (伯玉)	20・22・23・25・28・40	6
崔国禎 (華彦)	21・35・36・37・39	5
玄斌 (陽元)	24・27・29・30・33・38・42・45・46・47・48・49・50・52・53・55・58・59・62・63・64・65・72・74・75・77・78・79・97?	29
玄義洵 (敬天)	34・43・44・47・48・49・50・51・52・53・54・55・56・57・58・59・60・61・64・65・66・72・73・75・76・77・78・80・81・82・83・84・85・86・87・88・89・91	38
崔昔 (明遠)	78・88・90・92	4
その他	41	1
不明	98・99	2

連名で発給した書簡もあるため実際の書簡数よりも合計が多くなっているが、いずれも倭学訳官の訓導・別差を勤めた者か、あるいは易地聘礼交渉を担当した講定官に任命された者である。

### (3) 書簡の受給

ハンゲル書簡の受け取り手として、名前があがっているのは小田幾五郎と牛田善兵衛の二人の朝鮮語通詞である。このうち全期間にわたって名前が確認できるのは小田であり、牛田は単独ではなく小田との連名でしか名前が出てこない。このことから小田が易地聘礼に関する日朝交渉の対馬藩側の窓口であったことがわかる。

小田幾五郎は、宝暦4年(1754)生まれ。諱・致久、号・三姜。明和4年(1767)に朝鮮詞稽古のため倭館に渡り、安永5年(1776)には五人通詞に、同8年には稽古通詞に昇格した。寛政元年(1789)には本通詞、同7年に大通詞にまでのぼりつめた。文化5年(1808)大通詞を退役、詞稽古指南役頭となる。そのほか『象胥紀聞』『草梁話集』『北京旅程記』など多くの著作がある〔田代2007〕。

小田幾五郎の生涯をみて、ひとつ気が付くことがある。ハンゲル書簡の残存年代と

小田の経歴との関連性である。前項で指摘したようにハングル書簡は1795年から1808年までに発給されたものであった。これは小田が寛政7年に大通詞に就任し文化5年に退任するまでの時期とぴたりと重なっている。偶然に年代が一致したとは考えにくく、また書簡の宛名も小田幾五郎であることから、小田が13年間にわたってたずさわった易地聘礼交渉時に受信した書簡類が伝来したと考えるのが自然であろう。

以上のことから、宗家文庫史料のハングル書簡は易地聘礼交渉に関する史料であるという従来の評価にくわえ、対馬藩の大通詞を勤めた小田幾五郎が受給した書簡という新たな一面を指摘することができる。

## 2) 対馬藩の対朝鮮外交体制

### (1) 対馬藩庁における朝鮮外交体制

朝鮮王朝との通交関係が認められていた対馬藩には、外交・貿易のための体制がとられていた。ここでは議論を単純化するために、対馬藩庁(国元)と朝鮮外交・貿易の拠点である草梁倭館の二ヶ所に限定して、どのような人々が朝鮮通交にたずさわっていたのかをみていく。

対馬藩の政治組織は、最終の意思決定権を有する対馬藩主を頂点に、藩主の政治的判断を補佐する複数の年寄<sup>2)</sup>が置かれ、その下に各役所が配置されていた。藩権力の源泉は藩主であるが、実質的に藩政運営に当たっていたのは家老たちである。家老たちのもとには対馬内外から政治・経済・産業などに係る様々な文書や情報が集まり、それらを把握・分析して政治的判断を下していた。

17世紀中頃からは財政を担当する勝手方支配や農政を担当する郡方支配など、藩政事務ごとにそれぞれの家老が担当する分掌制がとられるようになる。朝鮮関係業務についても特定の家老が「朝鮮御用支配」として専任するようになり、情報の集約が図られるとともに責任の所在が明確化され効率的な政治判断が可能となった。家老の分掌制は、藩政組織の確立にともなう業務の拡大とそれにともなう家老の専権業務の増加への組織的な対応策と考えられる。

朝鮮御用支配家老に直属したのが朝鮮方である。享保3年(1718)に設置された朝

---

2) 17世紀初頭にはすでに杉村・古川・平田といった後に門閥層を形成していく家老の存在が資料から確認できる。

鮮方は朝鮮関係記録および文書の管理業務や文書案の作成などを主たる業務としていた。すでに朝鮮へ渡海する館守や裁判などの外交使節など役職レベルでの記録作成は徹底されていたものの、組織として朝鮮情報を集約・整理する部署は存在していなかった。朝鮮方の新設は、そうした藩の記録体制の不備を補うための措置である。過去の先例や慣習などが重要視される朝鮮外交の現場で、目的に応じ速やかに必要な情報にアクセス<sup>3)</sup>できる仕組みが整備されたのである。なお、朝鮮方の事務分掌のひとつに朝鮮語通詞の管理がある。これは藩に雇用された通詞たち(「通詞中」と総称)の人員配置などの人的把握を任されていた。

## (2) 草梁倭館における朝鮮外交体制

外交・貿易を推し進めるうえでの活動拠点となっていたのが倭館<sup>4)</sup>である。対馬からは多数の藩士が派遣され、また貿易実務のため商人たちが活発に往来しており、400～500名が常駐していたとされている。漢城から派遣されてくる使者や東萊府使、訓導・別差といった朝鮮訳官などと、直接的に対話する機会を持つことができる交渉の最前線であった。

倭館全体を統括していた館守は、上級武士(御馬廻)から選ばれ、2～3年の任期で派遣された。館守には定例的な業務をこなす以上に、遠く離れた現地で藩庁からの命令や指示を着実に遂行する業務遂行能力が求められた。易地聘礼交渉のような困難な外交課題が生じていた状況のもとでは、とくにその役割が重視され、戸田頼母が四度にわたって館守を務めるという異例の人事措置がとられている[長1968、田代2011、許2012]。戸田という交渉能力に優れた人材なくして易地聘礼の実現なかったのである。

倭館での朝鮮側役人と直接的に対峙したのが朝鮮語通詞である。田代和生氏や米谷均氏による対馬藩通詞の先駆的業績によれば、その特徴は次のとおりにまとめることができる。もともと対馬に通詞を専門とする者は存在せず、朝鮮貿易の実務にたずさわっていた商人層から朝鮮語に長けた者を選び出し通詞としていた。米谷氏によると17世紀頃までの対馬の朝鮮語通詞事情は、六十人と称される特権商人が通詞を勤めるというものである。その実力は「朝鮮人二聞まかひ候ほとの上手」<sup>5)</sup>(朝鮮人に聞き間

3) 過去の外交事例を系統的に整理した『分類紀事大綱』の編纂は、組織内の情報共有化を図ることを目的とした最たる事例といえる。

4) 近世の倭館は1607年に新設された豆毛浦倭館から1678年に草梁倭館に移転した。本報告は18～19世紀のハンゲル書簡を題材にしていることから、とくに後者を指す。

5) 「詞稽古之者仕立記録」(泉澄一編『芳洲外交関係史料・書翰集』関西大学出版部、1982年)。

達するほど言葉が巧み) というようにネイティブな水準にあった [米谷1991、田代2007]。

このように対馬藩の通詞事情は、商人の自主的な朝鮮語習得に依存したものであった。そこで通詞の能力向上を求めたのが藩儒の雨森芳洲(1668~1755)である。独学で朝鮮語を習得し実際に外交交渉にも従事した芳洲は、朝鮮語通詞を藩で養成することの必要性を主張した。芳洲の進言を受け享保12年(1727)に通詞養成機関が創設されると、対馬藩の朝鮮語通詞の能力は飛躍的に向上した。

ところで、朝鮮語通詞は商人を母体とするものであった。武士を最上層とする近世日本の身分制社会のなかでは商人は最も身分的地位が低い。通詞養成機関もまたそうであったように、専門能力を身につけていても身分制的な縛りから自由にはなりえなかった。そのためか、通詞については藩政文書としての記録保存が義務付けられず、系統的な通詞関連の記録がまったく伝来していない。

宗家文書のうち、たとえば漂流民関係記録からは通詞の具体的な活動を垣間見ることができる。近世の日朝両国間は、海難事故等で思いがけず漂流・漂着した人々を相互に保護し、安全に本国へ送還するシステムが形成されていた。漂着朝鮮人の氏名や身分、積荷内容や漂着の経緯など、朝鮮人との対話はもちろん藩へ提出する書類の日本語翻訳(和解)など通詞の活動は欠かすことのできないものであった。記録からは、朝鮮語をもとに相互の意思疎通を図るという第一義的な役割を忠実に果たす通詞たちの姿をみてとることができる。

### 3) ハングル書簡にみる小田幾五郎の外交活動

ハングル書簡の残存年代から、書簡は小田幾五郎が大通詞であった時期に受信したものと考えられることは先に述べたが、小田の活動を知る手掛かりはハングル書簡以外にもある。「御用書物控」と表題のある一連の日記形式の記録で、その日の行動や面談した朝鮮訳官との交渉内容、受け取った書簡までもが記載されている<sup>6)</sup>。これをみると倭館における小田の動向を詳細に把握することができる。

書簡の端裏書き(書簡の端などに受信者が備忘のために記したメモ書き)の情報を読

6) 対馬歴史民俗資料館保管宗家文書のなかに含まれている一連の記録類。『報告書』では1795年(寛政7)~1804年(文化元)までの記録を用いた。

み取ると、小田幾五郎個人に宛てられた書簡あっても館守へ提出されるものがある7)。ただしすべての書簡を上位者に提出する義務はなく、重要度が高いと判断したものだけを選別して提出していたようである。書簡を提出すると手許には何も残らないので、書簡写本を作成しまたは「御用書物控」に書簡や和解（日本語訳）をするなどして内容の記録化を図っている。なお、館守へ提出されたハングル書簡がどうなったのかについては不明である。情報伝達という観点からは、日本語訳さえあればハングル書簡原本は必要がなくなる。そのため、その多くは廃棄されていたと考えられる。

先行研究では、朝鮮の倭学訳官（訓導・別差）と小田幾五郎をはじめとする朝鮮語通詞とが易地聘礼交渉の実質的な担い手であったとされる〔田保橋1940〕。そのことを示すように「御用書物控」には、頻繁に面会を繰り返す日朝両国の通訳たちの姿が記録されている。倭館駐在の日本人たちは厳しい管理下におかれ、自由な出入りは原則として禁じられていた。しかし通詞たちは朝鮮側の交渉担当者である訓導・別差が居住し勤務する任所（対馬側史料では「坂ノ下」）に日参し、具体的な交渉や中央政府の内情など有益な情報の収集に努めた。一方、訓導・別差も倭館へ出向いている（書簡では「下来」「下往」と表現）。面談を繰り返し互いの主張を伝え合うことで交渉の争点がより明確化するとともに、通訳同士の信頼関係を醸成することにもつながったものと想像される。通詞という本来的な職能を越え、朝鮮側と綿密な連絡をとる主体的に行動する小田幾五郎の姿が浮かびあがってくる。

倭館と任所とを拠点に日朝間で直接対話が続いていくなかで、相互に授受された書簡はどのようなものだったのだろうか。伝達される情報の内容や質に注目しながら、いくつかの事例をみていきたい。

最もよくみられる種類の書簡が、面会する日程や時間などの調整といった事務連絡である。

明日は（東萊） 邑内の點閱（点呼）のため人馬の都合がつかないので行けません。あさっては風雨にかかわらず倭館へ行くつもりですので、かようお心てください

（丙寅2月21日付敬天同知書簡・史料44）

7) 史料2の端裏書き「本書館守へ差出候扣」、史料5の端裏書き「此本書館守様へ和解共二差出」など。

「御用書物控」をみると、多いときは1日に複数回の面会をすることもあった。双方に綿密な連絡を取り合わなければ、効率的に交渉を進めることは不可能であった。

日常的な事務連絡ばかりではなく、次にあげる書簡では、朝鮮側の人事情報の第一報が伝えられている。

今月の三日に講定官は景和様をして任命され、出発は今月の16日、17日の  
両日中と確定したとのことで、今月内には（東萊）邑内まで気遣いなく下来す  
るでしょう

（12日朝付永好堂書簡・史料25）

易地聘礼交渉を担当する講定官が「景和様（朴俊漢）」に決定したこと、ソウルからの出発の日と東萊府到着時期に関する情報である。対馬藩にとって、誰が朝鮮政府の代表として易地聘礼交渉の担当官として東萊府へ下ってくるのかは、今後の交渉の成り行きを左右する重要な情報であった。こうした人事情報が、訓導・別差からの書簡を通して事前に届くこともあったようである。

書簡は倭館周辺の比較的近距離でのやりとりが主であるが、場合によっては遠く離れた場所との通信も可能であったようである。癸亥2月初6日付景和朴僉知書簡（史料26）の端裏書きからは、対馬側が「別飛脚」を雇い、漢城にいた景和朴俊漢との書簡のやりとりを行っている事例<sup>8)</sup>を確認することができる。

いずれにしても、朝鮮国内に拠点があったとはいえ倭館周辺のごく限られた空間でしか活動できなかった対馬藩にとって、訓導・別差などの倭学訳官は重要な情報源であった。

しかし、すべての事案にわたって面談の機会を持てるわけではない。交渉相手の都合や用務のため遠く離れているなど物理的に面談が叶わない場合に、書簡を用いて通信することで相互に意思疎通を図っていたのである。

---

8) 書簡の端裏書きに「景和朴僉知下来方不審及遲滯候二付、態々賃銀を呉れ別飛脚内々遣し都府返書相達候事」とある（史料26）。

#### 4) 日朝外交上における「覚書」の機能的役割

前章では日朝の通訳同士で授受された書簡を中心にとりあげてきた。ところが『報告書』でハングル書簡として調査したなかには、厳密な意味で書簡には分類されないものも含まれている。古文書学的にも、また朝鮮語通詞の役割を考察する上でも興味深い事例なので次に紹介したい。

乙卯(1795年)9月21日から同28日までの7日間に作成された一連の「覚書」である(史料1~7)。<sup>おぼえがき</sup>

詳しく説明すると、この年(1795・寛政7)3月に対馬藩は朝鮮からの“易地聘礼拒否の書契”を江戸幕府へ提出した。これをうけて幕府は正式に通信使来聘の延期を表明する。事実上、両国政府は通信使の易地聘礼を断念したかたちとなった。ところが倭館周辺の交渉の現場から、突如として易地聘礼を推進しようとする動きが起こり、そこで交わされたのが上記の覚書である。

この覚書は小田が訓導・朴俊漢へはたらきかけて、交渉内容の文書化を要求したものである<sup>9)</sup>。9月24日付で真文(漢字)の訓導・朴俊漢名義の覚書3通が発信された。その内容をあげると、朴俊漢自身が東萊赴任の際にすでに朝廷の意向をうけており、使節人員や礼单蔘(通信使贈答用の人蔘)の減額など通信使「省弊」の方策がとられるのであれば、念願の易地聘礼も実現可能とする内容のものであった。一連のハングル覚書は9月24日付の真文覚書とほぼ同じ内容なので、真文覚書を交わす前に内容確認がなされた際のものであると考えられる。すなわち、交渉段階ではハングル覚書で内容的な部分を相互に詰めて、最終案として真文覚書が交わされたのである。

覚書が作成されたのは、小田幾五郎から朝鮮側へ交渉内容を文書化するように要請があったからである。対馬藩にとって、これらの覚書は受信者こそ小田幾五郎という個人ではあるが、実際には館守戸田頼母へ、場合によっては更に上位者である対馬藩年寄たちへ報告されることを前提としたものであった。ここで授受された覚書は、通訳同士の個人的なやりとりという枠を超えて、彼らが現場で取り交わした交渉内容を証明する、いわば略式の外交文書ともいえよう。9月24日付の覚書以後、朴俊漢を首班とする朝鮮訳官と対馬藩とのあいだで中央政府あるいは国元への働きかけや省弊条件

9) 「是迄私へ御咄被成候事之節々其外之咄等迄一ツ書ニシテ、則景和公と御連名ニ而私右介兩人へ御当被差出置度御座候」(『御用書物控』寛政7年9月21日条)。

の具体的な協議が繰り広げられていく。

日朝通交の現場で授受された覚書について、韓国史学的立場からの見解を紹介しておく。日朝間の現場レベルでやりとりされた文書形式について総合的に考察した李薫氏は、『分類紀事大綱』などに書き写された事例をもとに、覚書を次のように分析した。すなわち覚書は訳官個人の資格で作成されたもので、上位者である東萊府使の具体的な指示は受けなかったとし、情報伝達という基本機能にくわえて円滑に交渉を進めるための文書形式として活用されていたというものである〔李薫2011〕。前近代の日本社会で身分を問わず広く活用されていた覚書<sup>10)</sup>との機能的違いは明らかであり、日朝通交の現場で使用されるようになった文書形式の変遷や特質などについてさらに考察していく必要がある。

両国政府が易地聘礼を断念するなか、組織の末端に位置する通訳たちから易地聘礼の道を探ろうとする革新的な動きが生じたことをどのように評価すべきだろうか。当時の日朝両国は朝鮮通信使による経済的負担が甚大であることを認識していた。実務者であるからこそ、両国政府に隠された本心を正確に見抜き、通信使の「省弊」という点に交渉の妥結点を見出していたといえる。交渉にあたった日朝両国の通訳たちが語学力はもちろん交渉能力にも秀でていた者であったことは言うまでもないが、そこには実務者たちの大胆かつ冷静な姿をみることができる。

## 2. おわりに

12万点を超える宗家文書のなかでわずか100点ほどのハングル書簡しか残されていない。ハングル書簡は発信者から受信者へ書かれた内容が伝わった時点でその役目を終え不用文書となっていたと考えられる。しかし、易地聘礼交渉という18世紀末から19世紀初頭にかけての最大の外交課題に係る内容であること、さらには対馬藩不世出の通詞である小田幾五郎が交渉にあっていたことなど通常時にはない様々な要因が

---

10) 『報告書』(134頁(註1))では、「一義的には内容を忘れないように書き留めておくこと、また、その文書を指す。そのうち第三者に伝える書簡のような機能をも持つようにな」ったと日本の一般的な覚書の説明のみを掲載した。李薫氏の見解とあわせて再考が必要だろう。

重なり、宗家文書として今に伝わることとなった。

本報告では、朝鮮語通詞の活動実態を明らかにする試みとして、小田幾五郎が残したと考えられる「御用書物控」やハングル書簡をごく簡単にではあるが分析した。そこにあらわれた小田の活動は、朝鮮語の通訳という本来的な役割を越えて、比較的自由に倭館や任所を往来しながら、朝鮮側の担当者である訓導・別差と面会を繰り返す外交官的性格の強いものであった。

また、とくにハングル書簡のうち、とくに覚書についてとりあげた。情報伝達を主目的として日常的に授受されていた書簡とは異なり、日朝の通訳官同士での外交交渉の内容を文書化したものである。宛名が小田幾五郎であっても、その内容は上位者である館守や対馬藩庁の年寄へ伝達されるものであったと考えられる。覚書については韓国史側からも検討がなされているように、日朝交渉の現場で取り交わされていた覚書が、公文書・私文書といった単純な色分けはできないということが分かった。

ところで書簡のやりとりは外交交渉に関する内容ばかりではない。時には互いの体調を気かけ、時には日本の「味噌」の融通を願うとともに朝鮮産の「明太子」や「粉」を贈答するといったものもみえる(史料48)。ハングル書簡からは、国や立場を超え、同じ外交問題に取り組む者同士としての信頼関係や互いへの尊敬の念がみてとれる。

### 【参考文献】

- 荒野泰典1979「朝鮮通信使の終末」『歴史評論』355  
荒野泰典1988『近世日本と東アジア』東京大学出版会  
池内敏1998『近世日本と朝鮮漂流民』臨川書店  
長 正統 1968「日鮮関係における記録の時代」『東洋学報』50-4  
長 正統 1978「倭学訳官書簡よりみた易地行聘交渉」『史淵』115  
糟谷憲一1979「なぜ朝鮮通信使は廃止されたか—朝鮮史料を中心に」『歴史評論』355  
金 東哲(吉田光男訳)2001『朝鮮近世の御用商人』法政大学出版局  
田代和生1981『近世日朝通交貿易史の研究』、創文社  
田代和生2002『倭館—鎖国時代の日本人町』文藝春秋社  
田代和生2007『日朝交易と対馬藩』創文社  
田代和生2011『新・倭館—鎖国時代の日本人町』ゆまに書房

立花氏清撰・鈴木棠三編1975『宗氏家譜略』村田書店  
田保橋潔1940『近代日鮮関係の研究』朝鮮総督府中枢院  
鶴田 啓 2006『対馬からみた日朝関係』山川出版社  
中村栄孝1969『日鮮関係史の研究』下、吉川弘文館  
三宅英利1986『近世日朝関係史の研究』文献出版  
米谷 均1991「対馬藩の朝鮮通詞と雨森芳洲」『海事史研究』48  
尹 裕淑2011『近世日朝通交と倭館』岩田書院

### 【韓国語文献】

李 薫2011『外交文書にみる朝鮮と日本の意思疎通』景仁文化社  
許芝銀2012『倭館の朝鮮語通詞と情報流通』景仁文化社  
許芝銀 2014「近世倭館館守の役割と戸田頼母」『韓日関係史研究』48

### 【付記】

本報告原稿は『対馬宗家文庫史料 朝鮮訳官発給ハングル書簡調査報告書』掲載の拙稿「解題—朝鮮訳官発給ハングル書簡の概要とその特徴」及び2015年9月11日に韓国・国立ハングル博物館で開催された対馬島宗家文庫ハングル書簡国際学術大会においての報告原稿「朝鮮語通詞の活動とその役割」を再構成したものである。

史料 番号	表題	西暦	年月日	発給 (発信者)	受給 (受信者)	形態	頁数	紙数	法量	料紙	備考	宗室文庫一紙物 管理番号
史料1	覚	(1795)	9月	訓導土正朴正・泉和朴 主簿	小田幾五郎・吉松右助	綴紙	1通	9紙	24.8×221.0	楮紙	(端裏書)「乙卯年九月廿八日/土正 が謄文にて差出候事」	815-6-6
史料2	覚(草案)	(1795)	乙卯9月21日	訓導土正朴正・泉和朴 主簿	小田幾五郎・吉松右助	綴紙	1通	4紙	24.1×65.3	楮紙	(端裏書)「乙卯起り 本書館守へ差 出候由」	1689
史料3	[覚](草案)	1795	乙卯9月24日	訓導土正朴正	小田幾五郎	綴紙	1通	4紙	24.4×87.5	楮紙		815-6-7
史料4	覚(草案)	1795	乙卯9月	訓導土正朴正・泉和朴 主簿	小田幾五郎・吉松右助	綴紙	1通	3紙	24.1×83.0	楮紙	(端裏書)「乙卯九月謄文書付之写 し」	815-6-13
史料5	覚(草案)	(1795)	9月	訓導土正朴正	小田幾五郎	綴紙	1通	2紙	24.1×42.9	楮紙	(端裏書)「土正方方/此本書 館守 様へ和解共ニ差出」	1123-157
史料6	覚(草案)	(1795)	9月日	訓導土正朴正	小田幾五郎	綴紙	1通	3紙	24.7×97.1	楮紙	(端裏書)「乙卯起り之分 本書館守 様へ有之」	1692
史料7	書簡	(1795)	10月18日	土正	幾五郎	切紙	1通	3紙	24.3×49.1	楮紙(朝鮮紙)		41-6
史料8	書簡	1796	丙辰6月28日	土正朴僉知(印)	小田幾五郎	綴紙	1通	2紙	28.9×99.6	楮紙(朝鮮紙)	(端裏書)「土正」	1123-139
史料9	書簡	1796	丙辰6月29日	土正朴僉知(印)	幾五郎	切紙	1通	2紙	28.7×38.2	楮紙(朝鮮紙)		41-13
史料10	書簡	1796	丙辰7月23日	土正朴僉知(印)	小田幾五郎	切紙	1通	1紙	23.0×37.3	楮紙(朝鮮紙)		41-3
史料11	書簡	1797	丁巳4月11日	土正朴僉知(印)	小田幾五郎	綴紙	1通	3紙	25.2×91.9	楮紙(朝鮮紙)		41-1
史料12	書簡	1797	丁巳閏6月28日	土正朴僉知(印)	土正朴僉知(印)	切紙	1通	1紙	25.1×47.6	楮紙(朝鮮紙)	(端裏書)「土正分」	1123-143
史料13	書簡	1798	戊午5月初5日	土正朴僉知(印)	大通官	切紙	1通	1紙	20.0×36.8	楮紙(朝鮮紙)	(端裏書)「土正之分」	54-4-3
史料14	書簡	(1798)	5月24日	土正朴僉知(印)	大通官	綴紙	1通	2紙	24.5×38.0	楮紙(朝鮮紙)		54-4-2
史料15	書簡	1798	戊午7月21日	土正朴僉知(印)	小田幾五郎	綴紙	1通	2紙	25.0×32.2	楮紙(朝鮮紙)		54-4-4
史料16	書簡	1798	戊午11月19日	土正朴僉知(印)	小田幾五郎	綴紙	1通	2紙	26.4×47.8	楮紙(朝鮮紙)	(端裏書)「土正分」	54-4-1
史料17	書簡	(1798)	30日	訓導(印)		切紙	1通	1紙	21.1×37.4	楮紙(朝鮮紙)		41-17
史料18	書簡	1798	戊午11月初吉日	泉和朴主簿(印)	小田幾五郎	切紙	1通	1紙	16.7×42.3	楮紙	(端裏書)「午十二月朔日泉和下来之 書状」	54-5-2
史料19	書簡(控)	1800	庚申9月初10日	訓導印	大通官・吉松右助	綴紙	1通	2紙	15.9×42.2	楮紙	包紙(1046-11-52-2-1)あり(包 紙)「別段秘密書」、袖に墨書「本書 館守ニ有之」	1046-11-52-2-1 1046-11-52-2-2
史料20	書簡	1800	申10月24日	伯玉崔僉正(印)	大通官	切紙	1通	2紙	(1紙) 24.7× 48.7、 (2紙) 25.4× 54.7	楮紙(朝鮮紙)		1123-159 1123-161

史料 番号	表題	西曆	年月日	發給 (発信者)	受給 (受信者)	形態	頁數	紙數	法量	料紙	備考	宗家文庫一紙物 管理番号
史料21	書簡	1800	庚申10月24日	華彦崔命知(印)	(小田幾五郎)	切紙 1通	1紙	24.8×42.4		楮紙(朝鮮紙)	封筒(1123-151-1)あり、(封筒)小田幾五郎公前入納、「応封」、 「都来状。華」は裏書、封筒に2箇所 ある封印影は崔王向のもの、受給情報 は封筒より採取	1123-151-1 1123-151-2
史料22	書簡	1801	辛酉3月初7日	訓導(印)	(大通官)	切紙 1通	1紙	22.4×39.3		楮紙(朝鮮紙)	封紙(41-12-1)あり、(封紙)「大 通官」公前入納、「應封」、包紙に 封印あり、封印の印影は誰のものか不 明、受給情報は包紙より採取	41-12-1 41-12-2
史料23	書簡	1802	壬戌11月23日	永好堂主人	大通官	切紙 1通	1紙	23.6×38.3		楮紙(朝鮮紙)	(端裏書)「用之分」	821-3
史料24	書簡	1802	壬戌12月22日	賜元玄判官(印)	大通官	縹紙 1通	2紙	23.2×25.5		楮紙(朝鮮紙)		54-2-5
史料25	書簡	(1803)	12朝	永好堂	三伝語官	切紙 1通	1紙	23.5×35.6		楮紙(朝鮮紙)	(端裏書)「正月十三日達 伯」	1123-146
史料26	書簡	1803	癸亥2月初6日	景和朴命知(印)		切紙 1通	1紙	33.5×45.6		楮紙(朝鮮紙)	(端裏書)「景和朴命知下米方不審及 運滯候ニ付/應々賞銀を兵衛別飛脚内 々遣し/都方返書相達候事」	1123-154
史料27	書簡	1803	癸亥2月18日	賜元玄判官(印)	小田幾五郎・牛田善兵衛	縹紙 1通	2紙	23.6×38.3		楮紙(朝鮮紙)	(端裏書)「正月十九日之分/賜元 お」	54-2-8
史料28	書簡	1803	癸亥2月24日	伯玉崔同知	小田幾五郎	切紙 1通	1紙	21.2×46.0		楮紙(朝鮮紙)	(端裏書)「伯求公私之事」	1123-145
史料29	書簡	1803	癸亥2月26日	賜元玄判官(印)	小田幾五郎・牛田善兵衛	切紙 1通	1紙	23.3×38.9		楮紙(朝鮮紙)	(端裏書)「閏正月廿六日達 賜元 お」	54-2-4
史料30	書簡	1803	亥12月27日	賜元玄判官(印)		切紙 1通	1紙	28.1×27.6		楮紙(朝鮮紙)		41-8
史料31	書簡	1803	癸亥2月28日	景和朴命知(印)	小田幾五郎	切紙 1通	1紙	27.5×22.2		楮紙(朝鮮紙)	(端裏書)「景和返事」	41-16
史料32	笥(控)	(1803)	年月			切紙 1通	1紙	25.2×12.4		楮紙		42-19
史料33	書簡	1804	甲子4月26日	訓導(印)	小田幾五郎・牛田善兵衛	縹紙 1通	2紙	23.4×37.6		楮紙(朝鮮紙)	(端裏書)「賜元」	54-2-7
史料34	書簡	(1804)	(甲子)5月18日	玄判官敬天(印)	小田幾五郎	切紙 1通	1紙	23.2×17.5		楮紙(朝鮮紙)		41-18
史料35	書簡	1804	甲子7月初3日	華彦崔命知(印)		切紙 1通	1紙	22.4×41.5		楮紙(朝鮮紙)	(端裏書)「華分 藍蓋官ニ付無應相 候/其尺罷登候書状」	1123-150
史料36	書簡	1804	甲子11月18日	華彦崔同知(印)	小田幾五郎	縹紙 1通	2紙	24.5×38.7		楮紙(朝鮮紙)	(端裏書)「華/取替之筋」	1123-156
史料37	書簡	1805	乙丑2月13日	華彦崔同知(印)	小田幾五郎・牛田善兵衛	切紙 1通	1紙	22.3×32.3		楮紙(朝鮮紙)		41-20
史料38	書簡	1805	乙丑3月16日	訓導	小田幾五郎・牛田善兵衛	縹紙 1通	2紙	22.9×37.2		楮紙(朝鮮紙)		48-13

史料 番号	表題	西暦	年月日	著者 (発信者)	受給 (受信者)	形態	頁数	紙数	法量	料紙	備考	宗家文庫一紙物 管理番号
史料39	書簡	(1805)	(乙丑) 3月16日	華彦(印)		切紙	1通	1紙	21.2×41.2	楮紙(朝鮮紙)	封筒(48-16-1)あり、(封筒)「西公前回上」	48-16-1 48-16-2
史料40	書簡	1805	乙丑6月22日	無名氏	小田幾五郎	綴紙	1通	1紙	24.2×32.4	楮紙(朝鮮紙)	書簡文面は「一」から「十二」と墨書のある12枚に裁断された細長い紙片に書かれており、それを順番通りに並べ1枚の台紙に貼り付ける	61
史料41	書簡	1805	乙丑9月20日	飯血藏別將外親書 (印)・李裨哥	内田茂右衛門	切紙	1通	1紙	37.5×46.7	楮紙(朝鮮紙)	書簡の袖にも印あり	1123-158
史料42	書簡	1805	乙丑12月初4日	訓導(印)	伝語官	綴紙	1通	2紙	22.7×48.8	楮紙(朝鮮紙)		48-6
史料43	書簡	1806	丙寅2月初2日	講定官	尙伝語官	切紙	1通	1紙	23.7×13.7	楮紙(朝鮮紙)		48-8
史料44	書簡	1806	丙寅2月21日	敬天玄同知(印)	伝語官	綴紙	1通	2紙	27.9×23.1	楮紙(朝鮮紙)		48-12
史料45	書簡	1806	丙寅2月21日	訓導	小田幾五郎・牛田善兵衛	切紙	1通	1紙	23.7×25.7	楮紙(朝鮮紙)		48-2
史料46	書簡	(1806)	3月初2日	訓導	伝語官	切紙	1通	1紙	23.4×16.7	楮紙(朝鮮紙)		48-7
史料47	書簡	1806	丙寅3月初4日	講定官・訓導		綴紙	1通	2紙	23.4×30.0	楮紙(朝鮮紙)		48-14
史料48	書簡	1806	丙寅3月初5日	講定官・訓導	小田幾五郎・牛田善兵衛	綴紙	1通	2紙	23.5×38.5	楮紙(朝鮮紙)		48-15
史料49	書簡	1806	丙寅3月初6日	敬天玄同知・賜元玄判 官	小田幾五郎・牛田善兵衛	綴紙	1通	2紙	27.9×38.7	楮紙(朝鮮紙)		48-5
史料50	書簡	1806	丙寅3月14日	敬天玄同知・賜元玄判 官	小田幾五郎・牛田善兵衛	綴紙	1通	2紙	27.9×48.8	楮紙(朝鮮紙)		48-3
史料51	書簡	(1806)	3月17日	敬天玄同知	小田幾五郎・牛田善兵衛	綴紙	1通	2紙	27.7×50.5	楮紙(朝鮮紙)		48-4
史料52	書簡	1806	丙寅3月17日	講定官・訓導	尙伝語	綴紙	1通	2紙	23.7×17.6	楮紙(朝鮮紙)		48-9
史料53	書簡	1806	丙寅3月23日	敬天玄同知・賜元玄判 官	小田幾五郎・牛田善兵衛	綴紙	1通	2紙	23.4×44.4	楮紙(朝鮮紙)		48-1
史料54	書簡	(1806)	3月24日	玄同知	小田幾五郎・牛田善兵衛	切紙	1通	1紙	27.7×20.9	楮紙(朝鮮紙)		48-10
史料55	書簡	(1806)	3月27日	講定官・訓導	尙公	切紙	1通	1紙	20.0×31.0	楮紙(朝鮮紙)		54-2-3
史料56	書簡	(1806)	丙3月28日	敬天玄同知	尙公	切紙	1通	1紙	27.8×29.9	楮紙(朝鮮紙)		41-2
史料57	書簡	(1806)	丙3月28日	敬天玄同知	尙公	切紙	1通	1紙	22.0×40.3	楮紙(朝鮮紙)		41-10
史料58	書簡	(1806)	4月初1日	講定官・訓導		綴紙	1通	2紙	27.7×28.2	楮紙(朝鮮紙)	(端裏書)「敬天陽元」	54-2-6
史料59	書簡	(1806)	4月初1日	講定官・訓導		綴紙	1通	2紙	29.4×37.7	楮紙(朝鮮紙)		41-19

史料 番号	表題	西曆	年月日	発給 (受信者)	受給 (受信者)	形態	員数	紙数	法量	料紙	備考	宗家文庫一紙物 管理番号
史料60	書簡	(1806)	4月初4日	敬天玄回知	阿公	切紙 1通	1紙	1紙	27.7×31.0	楮紙(朝鮮紙)	包紙(41-28)あり、(包紙)「阿公 前回納」	41-28 41-5
史料61	書簡	(1806)	4月初4日	敬天玄回知	阿公	綴紙 1通	2紙	2紙	27.7×40.7	楮紙(朝鮮紙)		54-2-2
史料62	書簡	(1806)	初4日	訓導		切紙 1通	1紙	1紙	22.1×40.5	楮紙(朝鮮紙)		54-2-1
史料63	書簡	1806	丙寅4月14日	訓導	小田幾五郎	切紙 1通	1紙	1紙	29.1×28.5	楮紙(朝鮮紙)		48-11
史料64	書簡	1806	丙寅4月21日	講定官・訓導	伝語官	切紙 1通	1紙	1紙	29.2×17.9	楮紙(朝鮮紙)	(こより)「接慰官下米方往復書状 也」	54-5-1
史料65	書簡	1806	丙寅4月25日	講定官・訓導	小田幾五郎・牛田善兵衛	切紙 1通	1紙	1紙	29.2×29.2	楮紙(朝鮮紙)		54-5-4
史料66	書簡	1806	丙寅4月28日	講定官	小田幾五郎	切紙 1通	1紙	1紙	29.2×20.3	楮紙(朝鮮紙)		54-5-3
史料67	傳言(草案)	(1806)				綴紙 1通	4紙	4紙	24.3×103.8	楮紙	(端裏書)「下書/都船主方心得二い たし居候様ニト」	1688
史料68	【傳言】(控)	1806	丙寅6月			綴紙 1通	4紙	4紙	30.7×167.2	楮紙	(端裏書)「寅六月御掛合」	1691
史料69	【傳言】(控)	(1806)				綴紙 1通	12紙	12紙	24.2×303.2	楮紙	(端裏書、朱書)「初発書立之分」	54-1-7
史料70	口陳(控)	1806	丙寅8月19日			綴紙 1通	10紙	10紙	24.1×284.0	楮紙	(端裏書)「控」、(端裏書、朱書) 「八月十九日之分」、管理番号823-28 ・819-14は一連の文書	823-28 819-14
史料71	口陳(草案)	(1806)				綴紙 1通	8紙	8紙	24.9×251.6	楮紙	朱書きで加筆修正	1684
史料72	書簡	1806	丙寅10月初8日	講定官・訓導	小田・牛田	切紙 1通	1紙	1紙	24.3×31.3	楮紙(朝鮮紙)		54-3-6
史料73	書簡	(1806)	11月初7日	講定官	小田・牛田	綴紙 1通	2紙	2紙	25.8×37.5	楮紙(朝鮮紙)		815-8-9
史料74	書簡	1806	丙寅至月21日	訓導	小田・牛田	切紙 1通	1紙	1紙	26.0×28.0	楮紙(朝鮮紙)		54-3-7
史料75	書簡	(1806)	至月24日	講定官・訓導	阿伝語官	切紙 1通	1紙	1紙	28.8×12.3	楮紙(朝鮮紙)		54-3-5
史料76	書簡	1806	丙寅11月30日	玄回知	阿伝語官	綴紙 1通	2紙	2紙	25.7×14.6	楮紙(朝鮮紙)	包紙(54-3-1)あり、(包紙)「小田 大通官公前」、「こより」 「寅十月より十二月迄之分」	54-3-1 54-3-2
史料77	書簡	1806	丙寅12月初5日	講定官・訓導	阿伝語官	切紙 1通	1紙	1紙	25.7×24.8	楮紙(朝鮮紙)		54-3-8
史料78	書簡	1806	丙寅12月初7日	講定官・訓導	阿伝語官	綴紙 1通	2紙	2紙	25.0×29.7	楮紙(朝鮮紙)		54-3-4
史料79	書簡	1806	丙寅12月18日	鶴元玄判官(印)	小田幾五郎	綴紙 1通	2紙	2紙	23.0×52.6	楮紙(朝鮮紙)		54-3-3
史料80	書簡	1807	丁卯正月27日	訓導	小田幾五郎	綴紙 1通	2紙	2紙	22.5×18.0	楮紙(朝鮮紙)		815-8-10

史料 番号	表題	西暦	年月日	発給 (発信者)	受給 (受信者)	形態	頁数	紙数	法量	料紙	備考	宗家文庫一紙物 管理番号
史料81	書簡	1807	丁卯元月29日	講定官	阿大通官	切紙	1通	2紙	22.3×19.7	楮紙(朝鮮紙)		41-9
史料82	書簡	1807	丁卯正月29日	訓導	阿大通官	綴紙	1通	2紙	22.5×32.0	楮紙(朝鮮紙)		815-8-8
史料83	書簡	1807	丁卯元月晦日	講定官	阿大通官	綴紙	1通	2紙	22.4×29.4	楮紙(朝鮮紙)		815-8-6
史料84	書簡	1807	丁卯正月30日	訓導	阿大通官	綴紙	1通	2紙	22.5×24.7	楮紙(朝鮮紙)		815-8-7
史料85	書簡	1807	丁卯2月初9日	講定官	阿大通官	綴紙	1通	2紙	22.5×22.8	楮紙(朝鮮紙)		815-8-5
史料86	書簡	1807	丁卯2月15日朝	講定官(印)	阿公	切紙	1通	1紙	22.5×20.0	楮紙(朝鮮紙)	815-8-3~8-10袋・紙縫にて一拵、 (袋815-8-1)「謄文書付入 小田幾 五郎」、(紙縫815-8-2)「卯正月よ り」	815-8-3
史料87	書簡	1807	丁卯2月15日	講定官(印)	阿公	綴紙	1通	2紙	22.5×30.7	楮紙(朝鮮紙)		815-8-4
史料88	書簡	1807	丁卯5月初1日	訓別		綴紙	1通	2紙	26.0×34.4	楮紙(朝鮮紙)	(端裏書)「敬天明遠」	1123-155
史料89	書簡	1807	丁卯5月初1日	訓導	阿大通官	切紙	1通	1紙	26.1×25.1	楮紙(朝鮮紙)	(端裏書)「外状」 「当時 入用無之 分」	41-7
史料90	書簡	1807	丁卯5月21日	別差		切紙	1通	1紙	19.5×31.5	楮紙(朝鮮紙)		41-21
史料91	書簡	(1807)	6月初1日	訓導	阿公	切紙	1通	2紙	17.5×36.3	楮紙(朝鮮紙)		41-14
史料92	書簡	(1807)		即 別差		切紙	1通	1紙	24.5×16.6	楮紙(朝鮮紙)	(端裏書)「明遠」	1123-140
史料93	[傳言] (草案)	(1807)				綴紙	1通	3紙	25.2×72.4	楮紙	(端裏書)「六月十三日御掛合」	1687
史料94	[傳言] (草案)	(1807)				綴紙	1通	4紙	28.0×110.8	楮紙	(端裏書)「御掛合之節謄文にて任言 へ為御見被成候旨之下書」	1685
史料95	書簡(控)	(1808)	2月22日	訓導	久光甲次郎	切紙	1通	1紙	25.1×18.5	楮紙		812-19-3
史料96	書簡(控)	1808	辰2月22日	訓導	小田	綴紙	1通	2紙	25.3×49.5	楮紙	(端裏書)「辰二月廿二日夕達候事」	812-19-4
史料97	書簡	年代不明	2月16日	訓導	(大通官)	切紙	1通	1紙	22.3×20.2	楮紙(朝鮮紙)	綴り封にして墨書「大通官公」あり	46-17
史料98	書簡	年代不明				切紙	1通	1紙	26.4×35.1	楮紙(朝鮮紙)		1123-162
史料99	書簡	年代不明		即旋 別差	—	切紙	1通	1紙	20.5×26.0	楮紙(朝鮮紙)		41-15
参考1	覚	1760	庚辰4月17日	訓導崔金正(印)・別 差李僉正(印)	裁判(吉村橋左衛門)	綴紙	1通	2紙	36.3×163.6	楮紙(朝鮮紙)		1096-6
参考2	覚(控)	1760	庚辰4月17日	訓導崔金正印・別差李 僉正印	裁判	綴紙	1通	4紙	27.9×138.0	楮紙	管理番号1096-6の控	1123-152
参考3	書簡	1761	辛巳2月初7日	来儀崔判官(印)		切紙	1通	1紙	34.8×52.5	楮紙(朝鮮紙)		995-33

史料 番号	表題	西曆	年月日	發給 (発信者)	受給 (受信者)	形態	頁數	紙數	法量	料紙	備考	宗家文庫一紙物 管理番号
史料21	書簡	1800	庚申10月24日	華彦崔命知(印)	(小田幾五郎)	切紙 1通	1紙	24.8×42.4		楮紙(朝鮮紙)	封筒(1123-151-1)あり、(封筒)小田幾五郎公前入納、「応封」、 「都米状」華彦は眞筆、封筒に2箇所 ある封印影は崔王向のもの、受給情報 は封筒より採取	1123-151-1 1123-151-2
史料22	書簡	1801	辛酉3月初7日	訓導(印)	(大通官)	切紙 1通	1紙	22.4×39.3		楮紙(朝鮮紙)	封紙(41-12-1)あり、(封紙)「大 通官」公前入納、「應封」、包紙に 封印あり、封印の印影は誰のものか不 明、受給情報は包紙より採取	41-12-1 41-12-2
史料23	書簡	1802	壬戌11月23日	永好堂主人	大通官	切紙 1通	1紙	23.6×38.3		楮紙(朝鮮紙)	(端裏書)「用之分」	821-3
史料24	書簡	1802	壬戌12月22日	賜元玄判官(印)	大通官	綴紙 1通	2紙	23.2×25.5		楮紙(朝鮮紙)		54-2-5
史料25	書簡	(1803)	12朝	永好堂	三伝語官	切紙 1通	1紙	23.5×35.6		楮紙(朝鮮紙)	(端裏書)「正月十三日達 伯」	1123-146
史料26	書簡	1803	癸亥2月初6日	景和朴命知(印)		切紙 1通	1紙	33.5×45.6		楮紙(朝鮮紙)	(端裏書)「景和朴命知下米方不審及 運滯候ニ付/應々賞銀を兵衛別飛脚内 々遣し/都方返書相達候事」	1123-154
史料27	書簡	1803	癸亥2月18日	賜元玄判官(印)	小田幾五郎・牛田善兵衛	綴紙 1通	2紙	23.6×38.3		楮紙(朝鮮紙)	(端裏書)「正月十九日之分/賜元 か」	54-2-8
史料28	書簡	1803	癸亥2月24日	伯玉崔同知	小田幾五郎	切紙 1通	1紙	21.2×46.0		楮紙(朝鮮紙)	(端裏書)「伯玉公私之事」	1123-145
史料29	書簡	1803	癸亥2月26日	賜元玄判官(印)	小田幾五郎・牛田善兵衛	切紙 1通	1紙	23.3×38.9		楮紙(朝鮮紙)	(端裏書)「閏正月廿六日達 賜元 か」	54-2-4
史料30	書簡	1803	亥12月27日	賜元玄判官(印)		切紙 1通	1紙	28.1×27.6		楮紙(朝鮮紙)		41-8
史料31	書簡	1803	癸亥2月28日	景和朴命知(印)	小田幾五郎	切紙 1通	1紙	27.5×22.2		楮紙(朝鮮紙)	(端裏書)「景和返事」	41-16
史料32	覽(控)	(1803)	年月			切紙 1通	1紙	25.2×12.4		楮紙		42-19
史料33	書簡	1804	甲子4月26日	訓導(印)	小田幾五郎・牛田善兵衛	綴紙 1通	2紙	23.4×37.6		楮紙(朝鮮紙)	(端裏書)「賜元」	54-2-7
史料34	書簡	(1804)	(甲子)5月18日	玄判官敬天(印)	小田幾五郎	切紙 1通	1紙	23.2×17.5		楮紙(朝鮮紙)		41-18
史料35	書簡	1804	甲子7月初3日	華彦崔命知(印)		切紙 1通	1紙	22.4×41.5		楮紙(朝鮮紙)	(端裏書)「華分 藍蓋官ニ付無應相 候/其尺罷登候書状」	1123-150
史料36	書簡	1804	甲子11月18日	華彦崔同知(印)	小田幾五郎	綴紙 1通	2紙	24.5×38.7		楮紙(朝鮮紙)	(端裏書)「華/取替之筋」	1123-156
史料37	書簡	1805	乙丑2月13日	華彦崔同知(印)	小田幾五郎・牛田善兵衛	切紙 1通	1紙	22.3×32.3		楮紙(朝鮮紙)		41-20
史料38	書簡	1805	乙丑3月16日	訓導	小田幾五郎・牛田善兵衛	綴紙 1通	2紙	22.9×37.2		楮紙(朝鮮紙)		48-13

---

게이오 연간의 이정암윤번제의 폐지와  
조일간 외교문서왕복체제의 재편

慶応年間における以酏庵輪番制の廃止と  
日朝間外交文書往復体制の再編

---

발표 : 후지모토 켄타로

(藤本健太郎, 長崎市役所 長崎学研究所)



# 게이오 연간의 이정암윤번제의 폐지와 조일간 외교문서왕복체제의 재편

후지모토 켄타로 (藤本健太郎, 長崎市役所 長崎学研究所)

## 1. 머리말

이정암윤번제(以正菴輪番制)란 에도시대의 조일외교에서 교토 오산(京都五山)의 선승이 막부의 명을 받아 교대로 쓰시마[對馬]의 이정암(以正菴)에 머물면서 조일 간에 오고 가는 외교문서의 작성과 번각(飜刻), 기록을 담당했던 제도를 가리킵니다. 이 이정암윤번제를 통해 간에이[寛永] 12(1635)년에 동복사(東福寺)의 옥봉(玉峯) 광린(光璘)이 착임한 이래 230년 이상에 걸쳐 총 126명의 승려가 쓰시마로 건너와 위 업무에 종사했습니다.

허나 게이오[慶応] 2(1866)년 12월의 막부의 통달로 이정암윤번제의 폐지가 결정되자, 조일 간을 왕복하는 외교문서의 작성과 번각, 기록을 담당하는 이정암윤번승이 사라진 상태에서 조일 간은 외교문서를 주고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은 선행연구가 서술한 “막부가 임명한 오산 승을 쓰시마에 파견함으로써 그 뜻을 외교문서와 외교 절충에 반영시키는(田中健夫「前近代の国際交流と外交文書」吉川弘文館, 1996년, 142쪽)” 시스템이 에도 막부 스스로의 손으로 해체된 것을 뜻합니다.

즉 이정암윤번제의 폐지라는 사건 자체는 이 시기(그리고 그 이후)의 조일 관계 전개를 고찰하는데 큰 전환점 중 하나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본고에서는 게이오 연간(1865~1868)에 실시된 이정암윤번제의 폐지 이후, 조일 간을 오고 가는 외교문서의 교환 방법이 어떻게 변화해 가는가라는 문제에 대해 쓰시마섬과 조선의 초량왜관(草梁倭館)에서 대조선외교의 최전선에서 교섭을 담당했던 쓰시마번의 움직임을 중심으로 고찰해 보겠습니다.

## 2. 연구사의 정리

게이오 연간의 이정암윤번제의 폐지와 그 후 쓰시마번이 어떻게 대응했는가의 문제를 고찰할 때 (1)근세 후기 이후 이정암윤번제의 폐지에 관한 개별적 연구, 그리고 (2)게이오 연간 전후의 조일관계사에 관한 종합적 연구라는 두 가지 시각에서 각각 관련 선행연구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 1) 근세 후기 이후의 이정암윤번제에 관한 연구

심기재 씨는 저서 『막말 유신 조일외교사 연구(幕末維新日朝外交史の研究)』(臨川書店, 1997년)에서 이정암윤번제를 폐지하는 대신 막부의 관리를 직접 쓰시마에 파견하는 통달, 즉 막부가 쓰시마번에 내린 게이오2년의 통달에 착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정암윤번제의 폐지를 “막부의 조선사절 파견책의 첫 걸음(심기재 앞의 책, 56쪽)”이라 평가하고, 막부의 대조선정책의 개입 강화를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서 이정암윤번제의 폐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케우치 사토시[池内敏] 씨는 『근세 일본과 조선표류민(近世日本と朝鮮漂流民)』(臨川書店, 1998년)에서 이정암윤번제의 폐지와 관련해, 그 후 외교문서에 사용하는 자구의 선정에서 초안 작성, 조선에 보내는 외교문서의 봉인, 조선에서 보내온 외교문서의 개봉 등, 그 전까지 이정암윤번승이 담당했던 직무를 쓰시마번의 朝鮮方(朝鮮方)이 대행했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게재한 「이정암윤번제폐지논의(以酌庵輪番制 廢止論議)」(『名古屋大学文学部 연구論集』史学58, 2012년)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안에이[安永] 9(1780)년에서 덴메이[天明] 2(1782)년 사이에 교토 오산이 막부에 대해 이정암윤번제의 폐지를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한 사건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케우치 씨는 쓰시마번이 막부로부터 위임 받은 ‘朝鮮押’이라는 역할의 수행을 목적으로 이정암윤번제의 존속을 막부에 주장했다는 이유를 들면서, 막부가 파견한 이정암승을 매개로 외교문서를 수수하는 형식인 “이정암윤번제도의 존속은 쓰시마번에야말로 필요한(池内 앞의 책, 199쪽)” 시스템이었다고 쓰고 있습니다.

게이오 연간의 이정암윤번제의 폐지에 관해서는 이를 막부시스템의 개편으로 이해한 심기재 씨와 폐지 후 쓰시마번의 대응이나 조일 간 외교문서왕복에 관여하는 제반 업무 담당자의 변화에 대해 검토한 이케우치 씨의 연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은 모두 이정암윤번제의 폐지 자체를 중점적으로 다룬 연구가 아니며, 개설적인 논평에 그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본고에서는 쓰시마번 측의 사료를 사용해 이정암윤번제 폐지 후, 조일 간의 외교문서 왕복 체제가 어떻게 재편되어 근대 조일관계로 이어졌는지를 밝혀 보겠습니다.

## 2) 게이오 연간(1865~1868) 전후의 조일관계사에 관한 연구

계속해서 게이오 연간 전후의 조일관계사 자체를 주제로 한 선행연구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아라노 야스노리[荒野泰典] 씨는 저작『근세 일본과 동아시아(近世日本と東アジア)』(東京大学出版会, 1988년)에서 게이오3(1867)년부터 메이지2년까지의 시기를 메이지정부의 중앙집권적 외교권이 확립되기까지의 과도기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메이지정부의 “외교권 접수=외교 ‘일원화’(荒野 앞의 책, 250쪽)” 과정에서 외교권 장악 주체가 막부에서 메이지정부로 이행한 후에도 메이지2(1869)년 무렵까지 쓰시마번은 “조일관계에서 기존의 역할과 권익을 기본적으로 용인 받았다(荒野 앞의 책, 253쪽)”고 논했습니다.

이어서 앞서 소개해 드린 심기재 씨는 『막말 유신 조일외교사 연구』(臨川書店, 1997년)에서 게이오 연간, 막부가 병인양요<sup>1)</sup>의 조정을 명목으로 조선에 사절을 파견하려 했던 계획이나 이정암윤번제의 폐지 등의 시책은 막부가 기존의 조일외교관계를 개편할 요량으로 시행한 것이었다고 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막부의 움직임은 쓰시마번도 당시, 무역 부진을 해소하고 조선에 대한 외교 및 무역관계의 개편을 원하고도 있었기 때문에 막부·쓰시마번의 이해관계는 기본적으로 일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시카와 히로시[石川寛] 씨는 논문 「조일관계의 근대적 개편과 쓰시마번(朝日關係の近代的改編と対馬藩)」(『日本史研究』480호, 2002년)에서 분큐[文久] 연간(1861~1864) 이후, 쓰시마번이 막부에 청원한 다른 영지로의 이봉운동(移封運動)이나, 재정적 원조 요구 운동에 대해 쓰시마번이 “스스로 역사적 관계를 부정하고 조선에 기대지 않는 자립적 재정 기반의 확립을 목표로 실제로 행동에 옮기기 시작했다”는 증거라고 논했습니다.

여기까지 게이오 연간(1865~1868) 전후 조일관계사에 관한 연구를 몇 가지 소개했습니다만, 이를 이정암윤번제의 폐지 문제와 함께 고찰해 보면 아라노 씨가 기술한 중앙집권적 흐름으로 외교권이 접수되어 가는 과정에서 이정암윤번제의 폐지가 어떠한 역사적 의의를 가지는

1) 게이오2년 정월 이후 조선 국내의 천주교(가톨릭) 탄압에 대한 보복으로, 같은 해 9월, 佛 전함인 강화도에 상륙, 수도 한성을 제압하고자 기도했으나, 조선 측의 반격으로 다음 달에 철수한 사건 그리고 같은 해 7월에 통상을 요구하면서 평양 근교에 상륙한 美 상선이 조선 측에 의해 불탄 사건의 총칭.

지에 대해 토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심기재 씨가 논한 막부와 쓰시마번의 이해 관계의 일치라는 것이 이정암윤번제의 폐지를 고찰할 때 꼭 일치한 상태로 큰 혼란 없이 이루어졌는가도 고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본고의 과제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 제1장 조일간 외교문서의 왕복 흐름과 이정암윤번승의 역할

간에이12년에 이정암윤번제가 시작된 이후, 朝鮮御用支配나 朝鮮方과 같은 쓰시마번 내 조선 외교를 담당하는 부서가 조직된 교호 연간(1716~1736) 무렵까지 쓰시마번에서는 조선과의 외교문서를 주고받을 때의 규칙이 만들어집니다.

그에 본론에 들어가기 전 도입 부분으로서 이 장에서는 에도시대(주로 18세기 전기 이후), 일본과 조선이 외교문서를 주고 받는 과정에서 이정암윤번승이 어떠한 역할을 담당했는지에 대해 그림을 이용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림1】은 에도시대, 일본과 조선 사이에 오고 간 외교문서의 흐름을 나타낸 것입니다.

좌측이 일본이 조선에 외교문서를 보내는 경우, 우측이 조선이 일본에 외교문서를 보내는 경우의 그림입니다.

### (1) 일본(쓰시마번)에서 조선에 보내는 외교문서(御往翰)의 흐름

우선 쓰시마번에서는 조선에 정례적인 세견선과 조선인 표류민의 송환 등으로 외교 사절을 파견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 일단 쓰시마번의 가로로 朝鮮御用支配라는 관리가 그 지휘 하에 속하는 부서 朝鮮方に 외교문서의 일문 초안을 작성하도록 지시합니다.

그리고 이 朝鮮方の 관리들이 작성한 외교문서의 일문 초안을 뜻에 실수가 없도록 적절한 한문으로 번각하는 것이 이정암승의 첫 번째 역할입니다. 이정암승이 번역한 외교문서는 진문眞文, 한문)초안이라 불립니다.

이후 이정암승이 번역한 외교문서의 문면을 朝鮮方の 관리인 眞文役<sup>2)</sup>이 점검합니다. 이 점검을 통과한 진문 초안을 재차 이정암승의 입회 하에 淸書役僧이라 불리는 외교문서 정서(淸書) 담당 승려가 깨끗이 고쳐 쓴 다음에야 이윽고 조선으로 보내는 외교문서(진문서한) 한 통이 완성됩니다. 외교문서 작성 시 청서의 입회라는 것이 이정암승의 두 번째 업무입니다.

2) 이케우치 사도시 씨는 이정암윤번승과 朝鮮方 眞文役に 의한 외교문서 작성 과정에 대해 논하면서 眞文役に 대해 “장기간에 걸쳐 진문 초안 점검 경험을 쌓았다. (중략) 시스템으로나 개개인으로서나 쓰시마번 眞文役은 진문에 의한 외교문서 작성 선례를 수많은 축적하게 되었다”고 논하고 있다. (池内敏「以町菴輪番制考」『歴史の理論と教育』第129・130合併号, 2008年).

그런데 이정암승의 업무는 이것만으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외교문서라는 것은 상대방에게 보내기 전에 압인(押印)할 필요가 있습니다. 쓰시마번의 경우, 압인 담당을 朝鮮御用支配가 맡았습시다만, 그 후 이정암승이 진문서한을 봉인(上封)해야 했습니다. 이정암승이 봉인했다는 것은 에도막부에서 파견한 대리인이 그 외교문서의 정당성을 증명했다는 뜻으로 단순한 작업이 아니었는데, 이도 이정암승의 세 번째 중요한 업무였습니다. 이렇게 작성된 진문서한을 외교사절이 왜관으로 들고가 조선 측이 수령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우선 왜관에 보내진 외교문서는 관수(館守)가 맡아 개봉할 때까지 보관했습니다. 훗날 관수는 외교사절에 더해 왜관 안에 있는 선종사원인 동향사의 승려와 조선의 일본어 통역관인 훈도(訓導)와 별차(別差)를 불러 그들의 입회 하에 외교문서를 개봉합니다. 개봉 자체는 동향사 승이 맡았던 듯 합니다.

단, 개봉된 외교문서를 곧바로 조선 측에 전달하지는 않았습니다. 당연하지만 조선 측에서도 외교사절이 들고 온 외교문서를 수령해도 좋은지 판단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에 이 경우에는 훈도와 별차가 외교문서의 복사본을 만들어 일단 가지고 돌아가 예조나 동래부와 같은 조선 관청에서 문면을 검토해 수령해도 좋다는 판단을 한 경우에는 무사히 외교문서의 교환 의례가 거행되었습니다. 허나 조선 측의 점검 결과, 일본 측의 외교사절이 지참한 외교문서를 수령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개찬(改撰)이라고 하여 왜관을 경유해 외교문서를 되돌려 보내기도 했습니다.

## (2) 조선이 일본(쓰시마번)에 보내는 외교문서(御返翰)의 흐름

(1)에서는 일본이 조선에 보낸 외교문서 교환에 관한 흐름을 개관했습니다만, 한편 조선이 일본에 외교문서를 전달하는 경우, 어떠한 과정을 거쳤을까요. 우선 예조와 동래부 등에서 작성, 발급한 진문서한은 왜관으로 보내진 후 동향사 승이 복사본을 만들어 서면에 문제가 없는지를 점검합니다. 동향사 승이 내용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진문서한을 왜관이 수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쓰시마에 조선의 진문서한이 도착하면, 이번에는 이정암승이 개봉하게 됩니다. 개봉 후, 그대로 이정암승은 서면을 음미하고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진문서한을 일문으로 번각하고 최종적으로 쓰시마번 측의 외교문서 작성 책임자인 朝鮮御用支配가 진문과 일문서한을 수령했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볼 때, 조일 간 외교문서의 왕복 과정에서 이정암윤번승이 담당할 역할은

- ① 진문 초안 작성으로 대표되는 외교문서의 번각 업무

② 대조선외교문서의 청서 입회

③ 외교문서의 상봉 및 개봉

이상의 3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정암승이 재임 중에 다룬 조일왕복 외교문서의 문면을 기록한 「본방조선왕복서(本邦朝鮮往復書)」의 작성 등까지 포함하면, 그들의 업무는 다방면에 걸쳐 있었습니다. 특히 외교 문서의 초안 작성은 고도의 전문 지식이 필요한 업무였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제2장 이정암윤번제의 폐지와 조선사절 파견 계획

다소 서론이 길어졌습니다만, 지금부터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2장에서는 이정암윤번제가 폐지되기까지의 과정과 그와 관련한 에도막부의 조선 사절 파견 계획에 대해 논하겠습니다.

우선 老中 이타쿠라 가쓰키요[板倉勝靜]가 이정암윤번제의 폐지를 쓰시마번으로 통달한 때는 게이오2년 12월 20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게이오3년 정월에는 쓰시마에도 이정암윤번제의 폐지 정보가 전해지기에 이릅니다. 【자료1】

본고 말미에 실은 【자료1】에는 「이정암윤번제가 폐지되었으므로, (이정암윤번승과는) 별도로 막부가 관리를 파견한다. (以酌菴輪番御廢止相成, 別段御役人可被差遣候)」고 되어 있어, 막부가 이정암윤번승을 대체하는 “別段御役人”를 쓰시마에 파견해 이정암윤번승의 대역을 담당하게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막부의 “別段御役人”란 과연 누구를 가리키며 막부는 어떠한 형태로 이정암윤번제 폐지 후 대조선정책을 운영해 나가려 했던 것일까요.

그를 고찰할 때 중요한 실마리가 되는 것이 막부가 대조선정책에서 가장 관심을 보인 사항 중 하나인 조선에 대한 사절 파견 계획입니다. 【자료2】

조선에 대한 외교사절 파견 계획이란 게이오3년에 막부가 병인양요의 조정을 명목으로 외국봉행(外國奉行)인 히라야마 즈쇼노카미[平山図書頭] 및 오메쓰케[御目付] 고가 긴이치로[古賀謹一郎] 등, 막부 관리로 구성된 외교사절을 조선에 파견하려 한 계획을 가리킵니다. 막부의 속내는 조선-프랑스·미국 간의 관계를 조정해 조선의 대외 정책을 기존의 해금정책에서 교역 개항으로 전환하도록 설득함으로써, 일본의 외교적 역량을 국내외에 과시해 막부의 권위 선양이라는 성과를 올리는데 있었습니다(沈箕載 앞의 책, 58쪽).

하지만 같은 해 7월에 조선 측이 ‘흉작·악역(惡疫) 유행·양요’ 등을 이유로 외교사절의

수용을 거절하면서 교섭은 지지부진해집니다. 막부는 계속해서 사절 파견 방침을 견지하고 11월에 히라야마 등을 교토까지 파견하나, 12월에는 일본 국내에서 보신전쟁(戊辰戦争)이 발발해 결과적으로 계획은 좌절하고 만 사건입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히라야마 등의 외교사절은 조선까지 도착할 수 없었던 셈입니다만, 이 중 부사인 고가 긴이치로(호: 謹堂)라는 인물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막부의 유학 교육시설인 쇼헤이코[昌平黌]의 유학자였습니다. 또한 안세이 2(1855)년에는 막부의 양학소인 번서조서(蕃書調所)의 장을 맡았으며, 가에이[嘉永] 6(1853)년에 푸타틴(Jevfimij Vasil'jevich Putjatin)이 내항했을 때에는 러시아 응접 담당[露西亜応接掛]으로서 러시아 측이 가지고 온 국서 중 진문서한의 번각 및 답번서한의 기초를 작성하는 등, 외교문서를 다루는데 통달한 인물이었습니다(眞壁仁『徳川後期の学問と政治—昌平坂学問所儒者と幕末外交変容—』名古屋大学出版会, 449~459쪽).

즉 에도막부가 진문서한의 번각 경험을 가진 고가를 “別段御役人”으로 ‘쓰시마[対州表]’에 파견해 일시적으로 이정암윤변승을 대신하는 역할을 맡게 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 고가를 비롯한 외교사절 멤버들은 조선은커녕 쓰시마에도 도착하지 못했고 파견 계획은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이정암윤변제만 폐지된 채 “別段御役人”은 쓰시마번에 도착하지도 못했던 셈입니다.

### 제3장 이정암윤변승의 쓰시마 퇴거와 쓰시마번의 동향

이 장에서는 막부가 쓰시마번 앞으로 이정암윤변제의 폐지를 통달한 이후, 마지막 이정암승인 옥간 슈순[守俊]이 쓰시마번을 퇴거할 때까지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정암윤변제의 폐지에 대해 쓰시마의 朝鮮方과 이정암윤변승이 최초로 협의한 때는 게이오 3년 1월 27일이었습니다. 【사료3】

【사료3】의 기술에서, 이정암 측은 “(이정암윤변제의 폐지가 결정된 이상) 외교문서와 관련한 사항은 무리하게 이러쿵저러쿵 (이정암윤변승)이 개입할 수 없다. (御書契辺之儀, 強而彼是申様無之候)”고 말하면서도 이정암 폐지의 통달 전에 “외교문서의 번각 등에 착수한 것도 있다(取調置申分も有之)”는 이유를 들어 쓰시마번 측의 상담에 응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료3】 이후, 다음 달인 2월 1일, 쓰시마번은 이정암의 폐지가 통달되기 이전인 1월자 대조선외교문서에 더해 통달 이후의 2월자 정례 송사선에 의한 대조선외교문서에 대해서도 ‘御用便’이라는 이유로 이정암 측에 그 취급을 의뢰해, 승낙을 받고 있습니다. 【사료4】

쓰시마번은 이정암윤번제의 폐지 통달 후에도 이정암승에게 계속해서 대조선외교 실무에 관여해 줄 것을 의뢰했습니다. 그 이유로 【사료5】의 “쓰시마번 朝鮮方으로서도 금번 (이정암윤번제의 폐지라는) 개혁을 막부가 내리신 뒤, 아직 (이정암윤번승을 대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할) 의지처가 없다. (於屋敷も当節御改革被仰出, 未々抛所を得兼罷在)”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즉 3월 중순 시점에서는 이정암윤번제라는 막부가 공적 성격을 보장한 기관을 잃게 된 쓰시마번이 대체할 만한 ‘의지처’를 확보할 때까지의 방책으로 퇴거 직전의 이정암승에게 외교 실무 수행을 의뢰하는 상황이 이어졌던 셈입니다.

그리고 쓰시마번은 2월 16일, 새로이 발생한 표류민의 송환 사절 파견 시, 이정암승에게 쓰시마번이 막부의 老中 앞으로 제출하는 표류민 구상서(漂流民口上書)의 작성을 의뢰했습니다【사료5】. 그러나 이정암은 “이정암윤번제의 폐지 통달을 막부가 내린 이상, … 서둘러 번 각 등을 할 필요가 있는 외교문서는 업무를 보겠으나 이 이상 조선으로 보내는 외교문서에 관한 업무를 막부에 대해 송구한 일이라며 (파견처인 교토 오산의 승려들로부터) 들었다. (御廢止之儀相達候上ハ…差向候御書契ハ取整候得共, 最早此上右体御用承候而ハ对公邊, 恐入被申候趣被申聞)”며 쓰시마번의 요청을 거절했던 듯합니다.

이처럼 폐지가 통달된 후에는 이정암 측도 처음에는 쓰시마번으로부터의 외교 실무 수행 의뢰에 대해 관용적인 자세로 응했으나, 교토 오산의 석학들로부터 “(이정암윤번제)의 폐지라는 통달이 있는 이상, (쓰시마에 있는 옥각 슈슌은) 서둘러 주변을 정리해 교토로 돌아오라는 시달이 있었다. (御廢止之儀相達候上ハ, 早々取形付引取候様との御達)”라는 막부의 방침을 전해 들은 뒤에는 쓰시마번의 의뢰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습니다. 【사료5】

그 후 게이오 3년 3월 9일에 옥각 슈슌은 쓰시마를 퇴거하고 자신의 출신 사원으로 교토의 선종사원인 동복사로 돌아갔습니다. 이로써 230년 이상에 걸쳐 조선과의 외교 실무에 종사해 온 이정암윤번제는 종언을 맞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경위에서 쓰시마번에는 게이오 연간에 에도막부 주도 아래 이루어진 이정암윤번제의 폐지가 적어도 별로 환영할 만한 일이 아니지 않았나 하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정암윤번승의 쓰시마 퇴거 전에는 폐지 통달이 내려진 후임에도 불구하고 쓰시마번 측이 수 차례 이정암윤번승에게 외교문서의 번각과 청서 입회를 청하는 등, 혼란스러운 상황을 볼 수 있으며, 막부로서도 일단 파견하겠다고 결정한 조선에 대한 파견 사절이 결과적으로 흐지부지되어 버려 “別段御役人”을 파견하지 못하고 마는 등, 양측의 대응에서도 혼란이 보입니다.

그런 까닭에 이정암윤번제의 폐지를 생각할 때, 쓰시마번과 막부의 이해관계가 반드시 일

치했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다음 장에서는 쓰시마번이 이정암윤변승의 부재라는 사태에 어떻게 대응하고자 했는지를 살펴 보겠습니다.

#### 제4장 이정암윤변제 폐지 후의 조일간 외교문서 왕복체제의 재편

앞서도 설명했듯이 이정암윤변제의 폐지가 결정된 이후, 막부의 “別段御役人”의 파견도 조선에 대한 외교사절 파견(계획)도 지지부진해지면서 실행에 이르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에 본장에서는 쓰시마번의 대책에 대해 검토해 보겠습니다. 게이오 3년 2월 22일, 쓰시마번의 朝鮮御用支配는 에도의 루스이[留守居役]를 통해 막부에 「당면 외교문서 취급에 관한 규정(差当御書契之規則)」에 대한 품의를 올립니다. 【사료6】

【사료6】에는 “진문 초안에 대해서는 眞文役이, (진문서한의) 청서와 상봉은 야쿠가타[役方: 문관]이 실시한다. (草稿之儀ハ眞文役, 清書方且上ヲ封之儀者役方ニ於て取調)”고 되어 있어, 지금까지 이정암승이 담당하던 업무 중 진문초안 작성은 眞文役이, 외교문서의 청서 및 상봉(봉인)은 ‘야쿠가타[役方]’가 실시하기로 한다. 이 ‘야쿠가타’가 어떤 이였는지는 【사료7】을 참고하길 바랍니다. 이 사료를 보면, 게이오 3년 4월 5일에 ‘야쿠가타’가 실시하기로 한 업무 중 외교문서의 청서를 朝鮮方에서 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정암윤변제의 폐지 후 쓰시마번의 움직임 중 획기적인 것이 4월 12일, 朝鮮方の 우두머리인 아사오카[朝岡讓之助]와 가와모토 구자에몬(川本九左衛門) 그리고 眞文役 3명에 대해 「外国御書翰草稿之御用」라는 명을 내린 부분입니다. 【사료8】 이 이후 사료를 볼 때 그들은 御書翰草稿方라 불리며 위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정암윤변승이 담당하던 업무 중, 남은 상봉 업무도 御書翰草稿方の 업무 기록으로 쓰시마역사민속자료관이 소장 중인 「어서한초고방각서(御書翰草稿方覺書)」 4월 21일조에서 가와모토 구자에몬이 대조선외교문서의 상봉을 실시한 기술을 찾아볼 수 있어 이정암윤변승이 담당하던 업무 중 대부분이 御書翰草稿方の 업무로 인계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특기할 만한 점으로 이케우치 사토시 씨의 선행연구에서도 소개된 바와 같이, 이정암윤변제의 폐지 및 御書翰草稿方の 설립으로 일본 측 외교문서의 왕복 실무를 쓰시마가 전담하게 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즉 고가 긴이치로와 같이 막부에 고용된 유학자를 쓰시마에 파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정암윤변승의 대역을 맡을 수 있었던 이들은 쓰시마번에서 외교문서의 초안 작성과 음미에 종사하던 朝鮮方の 眞文役 말고는 없었기에 이러한 직무를 대행하게 된 셈입니다. 대부분의 御書翰草稿方가 眞文役 혹은 그 경험자로 구성되었다는

점은 그 증거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 후 御書翰草稿方은 메이지로 연호가 바뀐 후 적어도 메이지 3(1870)년 4월경까지 업무를 수행한 것을 사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당초 “別段御役人”가 쓰시마에 파견될 때까지 일시적인 대응책으로서 상정된 御書翰草稿方에 의한 이정암윤번승의 외교 실무 대리 수행이라는 운영 방식이 “別段御役人”이 파견되지 않으면서 철회되지 않고 메이지를 맞이하고 메이지 3년경에 이르기까지 그 틀이 유지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 3. 맺음말

게이오 연간, 막부의 이정암윤번제 폐지는 심기재 씨의 선행연구에서도 지적되고 있듯이, 당초 막부가 조선사절 파견 계획을 목적으로 대조선정책에 대한 개입 강화를 꾀한 것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허나 사절파견계획의 지지부진, 좌절로 인하여 대조선정책에 대한 개입 강화를 꾀한다는 당초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이정암윤번승을 대신하는 “別段御役人”의 쓰시마파견도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그 까닭에 대조선외교 실무를 수행하는 쓰시마번은 “御書契之規則不相立” 상황에 빠져 쓰시마를 퇴거하기 직전의 정암윤번승까지 끌어들이는 일시적인 혼란에 빠집니다.

그 후 쓰시마번이 청하여 이정암윤번승이 담당하던 업무를 일시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조직으로 설치된 御書翰草稿方이 쓰시마번 朝鮮方의 우두머리와 眞文役으로 구성되면서 쓰시마번이 조선과의 외교 실무를 대부분 운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정암윤번제의 폐지는 결과적으로 대조선정책에 대한 개입 강화를 꾀한다는 막부의 당초 속셈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와 오히려 쓰시마번이 담당하던 조선외교실무의 장악 범위의 확대에 이어졌습니다.

결국 이는 이 시기의 외교관계사 전반적인 경향으로 아라노 야스노리 씨가 제기한 중앙집권적 외교권 접수의 흐름에 대해 당초 막부가 외교권 접수를 꾀하려 했으나, 좌절되고 만 특별한 사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정암윤번제의 폐지를 계기로 게이오 연간의 조일 간 외교문서왕복실무에 관한 체제 재편은 메이지 이후에도 쓰시마번이 기존의 역할과 권익을 기본적으로 메이지정부로부터 용인 받으면서 메이지 초엽, 메이지정부의 대조선정책의 기본 부분들을 규정했던 것입니다.

【史料1】 对馬歴史民俗資料館所蔵「御書翰  
草稿方尊書」慶応三年正月廿九日条

今般以町輪番御廃止被仰出御書付左之通

御名

朝鮮国御取扱筋之儀二付而者、兼而御規則茂  
有之候处、以来夫々御参事可相成候間得其意  
当今之御時勢厚相弁、諸事不拘古格外国御交  
際之儀合三基、益御信義相立候様可被取候、  
就而者以前庵輪番御廃止相成、別段御役人可  
被差遣候間、可被得其意候

【史料2】 平山図書頭

古賀筑後守渡邊奉命二件」(『經道信全覽』  
三所収、二二六頁) 四月七日条

対州表江為御用外国奉行平山図書頭・御目付  
古賀謹一郎被差遣、時宜二寄為使節朝鮮国へ  
も御差遣相成候者、畢竟彼国旧來之交誼を深  
く被思召、其国之禍乱近きニ在るを転じて安  
寧ニ帰せしめ、人民業を安んじ唇齒相保たし  
めんかため、彼国王への御書翰前向人江御渡  
被遣、委曲之談判筋御委任相成候二付、前  
以彼国へ申通、事態二応し候様斟酌を加へ、  
いつれにも御信義之程相撤、使節款待いたし  
候様取扱、尚彼国挨拶振并委曲之情状可被申  
聞候、使節対州着帆之上者、速ニ手續相運候  
様可致候事、

【史料3】 对馬歴史民俗資料館所蔵「以町庵

応対控」慶応三年正月廿七日条

同廿七日夕一老方讓之助・文吾連名ニ而差掛  
面談いたし度儀有之候間、内一人罷越候様  
申来候处、文吾一人罷出居末夕御供中二付、  
采女殿江右之趣申上候处、此筋輪番御廃止之  
儀申来、未夕彼方へ為相知無之、明日ニも各  
中内罷越、委細申入挨拶ニ及候筈ながら、金  
地院方彼方江之書状持参一ト通及挨拶置候様  
被仰達、右者我々ニ不相關訳之様相心得候得

共、最早御廃止之儀、相知居可申相考全く不  
相心得も却而如何哉と存候故、書状御預り申  
上罷越候处、果して右之様子五山且留院方申  
来候处、御屋敷之方未夕々々御様子も無之哉  
と被申聞候間、相心得合右書状相渡、夫二付  
一老方被申候者、此筋御廃止ニ至候上ハ御書  
契辺之儀、強而彼是申様無之候得共、御達前  
取調置申分も有之候へハ、只今之内御屋敷御  
評議ニ依り候て、何しとも可応御談との趣被  
申聞、又被申候へ、当節之儀二付山中と近々  
役僮下向ニ相成候と相聞、着岸之上ハ何角駈  
引も有之、取調兼々都合も可有之候間、早々  
被及内談候との趣申聞候付、御心情之次第回  
役ハ素り、家老共へも申聞、御頼談申上候儀  
可有之旨申述罷歸ル、

【史料4】 对馬歴史民俗資料館所蔵「以町庵  
応対控」慶応三年二月初日条

右応話二付、差当飛船吹嘘・年条滞吹嘘拵本  
計ツ、且当年第一船・二船・三船之儀、正  
月之月付、輪番御廃止御達前ニ相立候ハ勿論  
二月付以町送使、第四船方十七船迄之分も前  
月未夕清書ニ相成居候与相立候得者、御用便  
之儀与評議いたし、其段采女殿江申上置候处、  
其意を以頼談ニ及候との御事故、翌朝文吾罷  
越一老応対いたし候处、則承諾有之、

【史料5】 对馬歴史民俗資料館所蔵「以町庵

応対控」慶応三年二月二六日条

今朝一老方讓之助・文吾両人内一人来庵之儀  
申来、文吾罷越候处、昨日蘆浦太郎殿方当所  
漂民有之段為相知有之、是迄之通勘帳をも被  
致候へハ、其趣書留ハ素り、公邊江御届申上  
候例格も候处、当節御廃止蒙仰候上ハ、当庵  
ニをゐて難相聞、御屋敷之方如何御心得候哉  
と相尋、昨日御告知御手前被差出候節、御内  
評之趣相心得居候間相答候へ、於屋敷も当節  
御改革被仰出、未夕拠所を得兼罷在、御庵思

召之程如何ニ候得共、先以是迄之形を以、為御知被申候との趣申入候處、当節御達ニ付、輪番在番申御用向如何相心得可申哉と願字中と相伺候處、御廃止之儀相達候上へ、早々取形付引取候様との御達ニ相成段申来居、差向候御書契ハ取整候得共、最早此上右体御用承候而ハ対、公邊恐入被申候趣被申聞被仰聞候趣、乍懼御心ニ奉存も強而難申上様奉存候へ共、一已ニ可申上様無御座御咄之趣、同役ハ素り家老共江も申候様相仕旨相登罷歸、今日御加役御不参故御月番益城殿へ申上、翌日蘆浦太郎殿・采女殿江委細申上置

【史料6】対馬歴史民俗資料館所蔵「御書翰草稿方覚書」慶応三年二月廿二日条

丹下殿・采女殿方被成御達候者、今度以訂輪番御廃止ニ付、御書契刃之儀ニ付被申出候次第、御役儀被入御念儀、尤之儀ニ付此節扇(儀)源衛門上京ニ付、彼地ニ於て被及御伺候様可相成、又者今般御伺済も可相成、近々御役入下向之上、右之辺り時々評議之上御治定可有之候へ共、差当御書契之規則不相立してハ、御用席ニ相成候間、先以当分者此方におゐて御整被成候ニ致決評候間、草稿之儀ハ真文役・清書方且上リ封之儀若役方ニ於て取調至当ニ可有之候哉、衆議之上申出候様頭役へ御達有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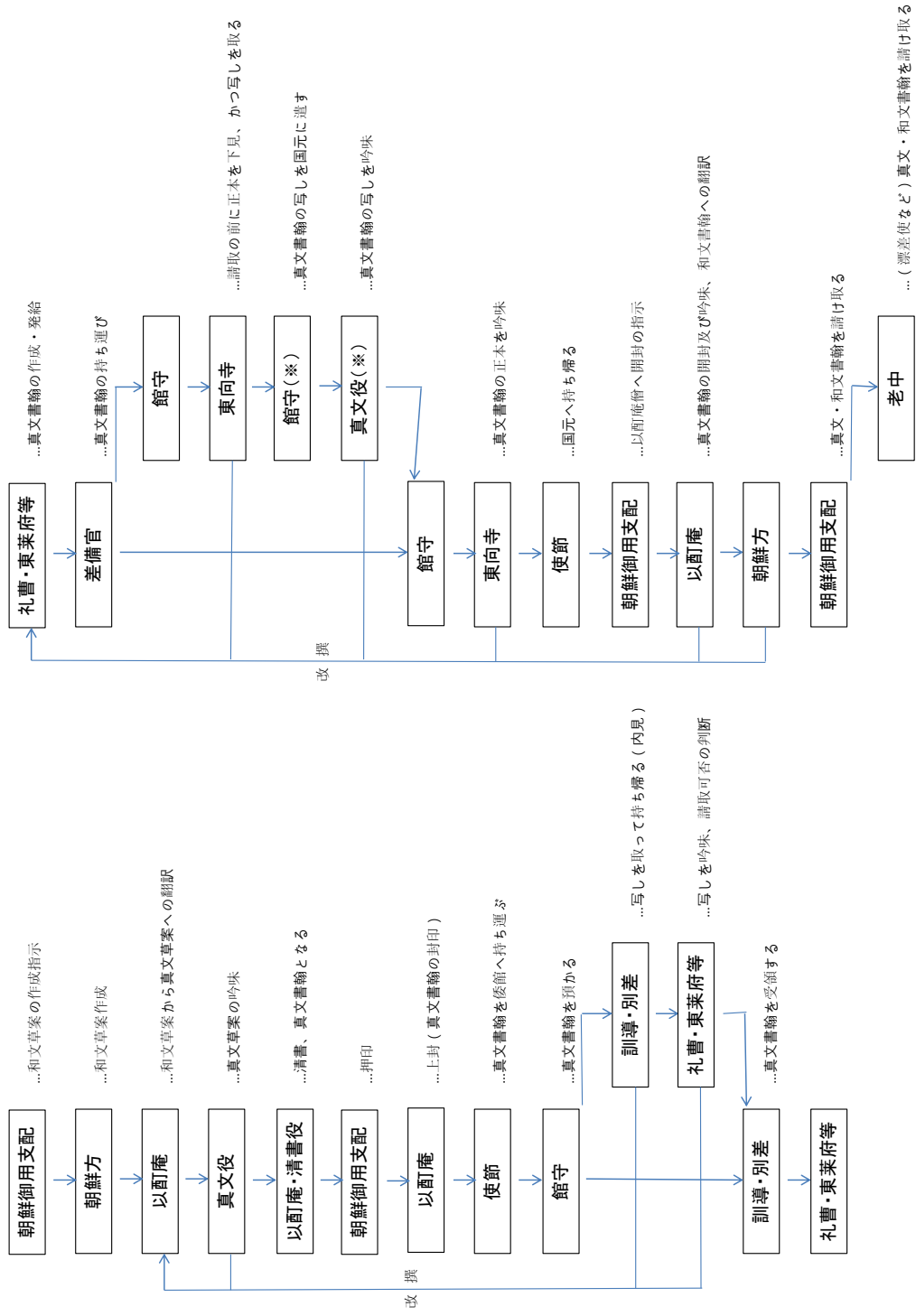
【史料7】対馬歴史民俗資料館所蔵「御書翰草稿方覚書」慶応三年四月五日条

御書稿之儀、別段一役所御設之儀者、当時御取扱被成兼て御様子柄有之、当分朝鮮方ニおゐて取計候様与之儀也、今度手狭ニ有之、清書迄之手都合不相成押詰先ハ朝鮮方ニ而清書仕候様、夫付手狭之方者東御張出候ニ而清書方御評議へ被成候事、

【史料8】対馬歴史民俗資料館所蔵「御書翰草稿方覚書」慶応三年四月二日条

護之助・九左衛門義、此節以訂廢御廃止ニ付、外国御書翰草稿之御用被仰付、  
 〃右御書契草稿之御用向人而已被仰付候儀ニ而者大切之御用筋、殊向人多病ニ有之御用滞之程、思念之訳を以、真文役一体ニ草稿之御用被仰付被下度段申出  
 〃真文役永瀬三七郎・阿比留通、松浦賛治御書翰取調御用ニ付、日勤方之儀小文切を以護之助・九左衛門より申出

【図1】近世日朝間外交書往復の流れ





# 慶応年間における以酌庵輪番制の廃止と 日朝間外交文書往復体制の再編

藤本 健太郎（長崎市長崎学研究所 学芸員）

## 1. はじめに

以酌庵輪番制とは、江戸時代の日朝外交において京都五山の禅僧が幕命を受け、交代で対馬の以酌庵に駐在して、日朝間を往復する外交文書の作成や翻刻、記録を行った制度のことを指します。この以酌庵輪番制を通じて、寛永12（1635）年の東福寺玉峰光麟の着任以来、230年以上にわたって、のべ126名の僧侶が対馬に渡航し、上記の業務に従事していました。

しかしながら、慶応2（1866）年12月に幕府からの通達によって、以酌庵輪番制の廃止が決定すると、日朝間を往復する外交文書の作成や翻刻、記録を行った以酌庵輪番僧が存在しない状態で、日朝間の外交文書がやり取りされることになりました。

この出来事は先行研究が述べる「幕府が任命した五山僧を対馬に送りこむことにより、その意向を外交文書や外交折衝に反映させる（田中健夫「前近代の国際交流と外交文書」吉川弘文館、1996年、142頁）」という枠組みが、江戸幕府自身の手によって解体されたことを意味しています。

つまり、以酌庵輪番制の廃止という出来事そのものが、この時期（そしてそれ以降）の日朝関係への展開を考える上で、大きな転換点の一つとして評価することができます。

本報告では、慶応年間（1865～1868）に実施された、以酌庵輪番制の廃止後に、日

朝間を往復した外交文書のやり取りの方法がどのようなようになってゆくのかわかるという問題について、対馬島や朝鮮の草梁倭館において、朝鮮との外交関係の最前線で交渉を行っていた、対馬藩の動きを中心に考えたいと思います。

## 2. 研究史の整理

慶応年間における以酏庵輪番制の廃止と、その後の対馬藩がどのような対応を取ったのかという問題を考える上で、(1) 近世後期以降の以酏庵輪番制の廃止に関する個別的な研究と、(2) 慶応年間前後の日朝関係史に関する総合的な研究という、2つの視点から、それぞれ関連する先行研究の整理をしてみたいと思います。

### 1) 近世後期以降の以酏庵輪番制に関する研究

沈箕載氏は『幕末維新日朝外交史の研究』(臨川書店、1997年)という著書の中で、以酏庵輪番制を廃止する代わりに、幕府の役人を直接対馬に派遣するという、慶応2年の幕府から対馬藩へ渡された通達に着目しました。そして、以酏庵輪番制の廃止を「幕府による朝鮮使節派遣策への取組の第一歩(沈箕載前掲、56頁)」と評価し、幕府による対朝鮮政策介入強化のための施策の一環として、以酏庵輪番制の廃止を位置づけました。

次に、池内敏氏の『近世日本と朝鮮漂流民』(臨川書店、1998年)では、以酏庵輪番制の廃止について、その後、外交文書に用いる字句の選定から起草、朝鮮へ送る外交文書の封印、朝鮮からもたらされた外交文書の開封など、それまで、以酏庵輪番僧が担っていた職務が対馬藩の朝鮮方により、代行されたことを述べました。

そして、池内氏は近年掲載された「以酏庵輪番制廃止論議」(『名古屋大学文学部研究論集』史学58、2012年)という論文で、安永9(1780)年から天明2(1782)年の間に、京都五山から幕府に対して、以酏庵輪番制廃止を求める願書が提出され

た事件について検討されました。その中で、対馬藩が幕府から託されたとする「朝鮮押（ちょうせんおさえ）」という役割の遂行を目的として、以酏庵輪番制が存続するよう幕府に主張したこと理由に、幕府によって派遣された以酏庵僧を介し、外交文書の授受を行う形式を取る「以酏庵輪番制度の存続は対馬藩にとってこそ必要（池内前掲、199頁）」な仕組みであったとしています。

慶応年間の以酏庵輪番制の廃止については、これを幕府機構上の改編と捉えた沈箕載氏と、廃止後の対馬藩の対応や、日朝間外交文書往復に関わる、諸業務の担い手の変化について検討を行った池内敏氏による研究が存在しています。

しかしながら、これらはいずれも以酏庵輪番制の廃止そのものを中心に扱った研究ではないことから、概説的な論評にとどまっている傾向があります。

本報告では、対馬藩側からの史料を用いつつ、以酏庵輪番制廃止後、日朝間における外交文書の往復体制がどのように再編され、近代日朝関係に引き継がれてゆくのかを明らかにしたいと思います。

## 2) 慶応年間（1865～1868）前後の日朝関係史に関する研究

続いて、慶応年間前後の日朝関係史そのものについて研究した、先行研究を見てみたいと思います。まず、荒野泰典氏の『近世日本と東アジア』（東京大学出版会、1988年）という著作では、慶応3（1867）年から明治2年までの時期を、明治政府による中央集権的な外交権が確立されるまでの過渡期として位置付けました。その上で、明治政府による「外交権接收＝外交「一元化」（荒野前掲、250頁）」の過程にあって、外交権の掌握主体が幕府から明治政府へと移行した後においても、明治2（1869）年ごろまで、対馬藩は「日朝関係において、従来の役割と権益を基本的には容認された（荒野前掲、253頁）」と論じました。

次に先ほどもご紹介した沈箕載氏の『幕末維新日朝外交史の研究』（臨川書店、1997年）では、慶応年間の幕府による、丙寅洋擾<sup>1)</sup>の調停を名目とした朝鮮への使節派遣計画や、以酏庵輪番制の廃止などの施策が、幕府が従来の日朝外交関係を改編することを目的として行ったものであったと論じました。そしてこのような幕府の動きは、対馬藩

1) 慶応2年正月以降の朝鮮国内における天主教（カトリック）弾圧に対する報復として、同年9月、仏戦艦が江華島に上陸、首都漢城を制圧しようと企図したが、朝鮮側の反撃を受け翌月に撤退した事件及び同年7月に通商要求のため平壤近郊に上陸した米商船が朝鮮側によって焼打ちされた事件の総称。

としても現状の貿易不振を解消し、朝鮮に対する外交・貿易関係の改編を希求していたこともあり、幕府・対馬藩の利害関係は基本的に一致していたとされています。

最後に、石川寛氏の「日朝関係の近代的改編と対馬藩」（『日本史研究』480号、2002年）という論文では、文久年間（1861～1864）以降、対馬藩が幕府に対して願い出を行った他の領地への移封運動や、財政的な援助要求運動について、対馬藩が「自らその歴史的な関係を否定して、朝鮮に依存しない自立的な財政基盤の確立を目指して実際に行動を取りはじめた」ことの表れと論じました。

ここまで、慶応年間（1865～1868）前後の日朝関係史に関する研究をいくつか紹介しましたが、これを以酏庵輪番制の廃止問題とあわせて考えてみると、荒野氏が述べるような、中央集権的な流れへと外交権が接収されてゆく過程にあつて、以酏庵輪番制の廃止というものは、どのような歴史的意義を持つものとして考えられるのか、検討する必要があると思います。また、沈箕載氏が述べられたような、幕府と対馬藩との利害関係の一致というものが、以酏庵輪番制の廃止を考えた場合、必ずしも一致した状態で、大きな混乱もなく進められていったのか考える必要があると思っています。これは本報告の課題点の一つでもあります。

## 第1章 日朝間における外交文書の往復の流れと以酏庵輪番制の役割

寛永12年に以酏庵輪番制が始まった後、朝鮮御用支配や朝鮮方といった、対馬藩内の朝鮮外交に関係する部署が組織された享保年間（1716～1736）頃までには、対馬藩として、朝鮮との外交文書を遣り取りする上での規則が出来上がるようになりました。

そこで本論に入る前の導入部分として、この章では、江戸時代（主に18世紀前期以降）において、日本と朝鮮が外交文書を取り交わす過程の中で、以酏庵輪番制がどのような役割を担っていたのかという点について、図を用いながら見てみたいと思います。

【図1】は江戸時代の日本と朝鮮との間を往復した外交文書の流れを示したものです。

左側のまとまりが日本から朝鮮に対して外交文書を送る場合、右側のまとまりが朝鮮から日本に対して外交文書を送る場合の図になります。

### (1) 日本（対馬藩）から朝鮮までの外交文書（御往翰）の流れ

まず、対馬藩では、朝鮮に対して、定例の歳遣船や朝鮮人漂流民の送還などで、外

交使節を派遣する必要がある場合、はじめに対馬藩の家老である、朝鮮語用支配という役人が、その指揮下に属する朝鮮方という部署に対して、外交文書の和文（日本語）草案を作成するよう指示します。

そして、この朝鮮方の役人が作成した外交文書の和文草案を、文意の誤りがなく、適切な漢文に翻刻するのが一番目の以酌庵僧の役割です。以酌庵僧が翻訳した外交文書は、真文（漢文）草案と呼ばれます。

この後に、以酌庵僧が翻訳した外交文書の文面を、朝鮮方の真文役<sup>2)</sup>という役職の人が点検します。この点検を通過した真文草案を、再度以酌庵僧の立会いのもと、清書役僧と呼ばれる外交文書の浄書を行う担当の僧侶が清書し、ようやく朝鮮に向けて遣わされる外交文書（真文書翰）が一通出来上がります。外交文書を作成する上での清書の立会いというのが、二番目の以酌庵僧にとっての仕事です。

ところが、以酌庵僧の仕事はこれだけでは終わりません。外交文書というものは相手に向けて送られる前に、押印をする必要があります。対馬藩の場合は、押印の係を朝鮮御用支配が行うことになっているのですが、その後、以酌庵僧が真文書翰の封印（上封）を行わなければなりません。以酌庵僧が封印をしたということは、江戸幕府から派遣された代理人が、その外交文書の正当性を証明したということであり、単純な作業ではありますが、これも重要な三番目の以酌庵僧の業務でした。こうして作成された真文書翰を、外交使節が倭館へ持ち運んで、朝鮮側に受け取ってもらう手続きが取られるようになります。

まず、倭館にもたらされた外交文書は館守が預かり、開封まで保管することになります。後日、館守は外交使節に加えて、倭館の中にいる東向寺という禅宗寺院の僧侶と、朝鮮の日本語通訳官である訓導と別差を招き、彼らの立会いのもと、外交文書の開封を行います。開封そのものは東向寺僧が行っていたようです。

ただし、開封された外交文書をすぐに朝鮮側へ渡してしまうということはしません。当然ですが、朝鮮側でも外交使節が持ってきた外交文書を受け取ってよいか判断をする必要があるからです。そこでこの場合は訓導と別差が外交文書の写しを取って一旦持ち帰り、礼曹や東萊府といった朝鮮の官庁で文面の検討をして、受け取ってよいという判断をした場合に、無事、外交文書の受け渡しの儀礼が行なわれることにな

2) 池内敏氏は、以酌庵輪番僧や朝鮮方真文役による外交文書の作成過程について論じる中で、真文役について「長期にわたって真文草案点検の経験を積んだ。（中略）機構としても個人々人としても対馬藩真文役は真文による外交文書作成の先例を数多く蓄積してゆくこととなった」と論じている（池内敏「以酌庵輪番制考」『歴史の理論と教育』第129・130合併号、2008年）。

ります。とはいえ、朝鮮側による点検の結果、日本側の外交使節が持参した外交文書を受け取ることができないと判断された場合については、改撰といって倭館を経由して外交文書が突き返されたりすることもありました。

## (2) 朝鮮から日本（対馬藩）までの外交文書（御返翰）の流れ

(1) では、日本から朝鮮への外交文書受け渡しに関する流れを概観しましたが、一方で、朝鮮から日本へと外交文書が渡される場合、どのような経過をたどったのでしょうか。初めに礼曹・東萊府等で作成・発給された真文書翰は、倭館に持ち込まれた後、東向寺僧が写しを取り、書面に問題がないか点検を行います。東向寺僧によって内容に問題がないと判断された真文書翰は、倭館において受け取りがなされます。

そして、対馬に朝鮮からの真文書翰が到着すると、今度は以酌庵僧がその開封を行うこととなります。開封後、そのまま以酌庵僧は書面の吟味を行い、問題がない場合は、真文書翰を和文に翻刻して、対馬藩側の外交文書作成の責任者である朝鮮御用支配が、最終的に真文・和文書翰受け取るということとなります。

このようにしてみると、日朝間外交文書の往復過程にあって、以酌庵輪番僧が果たした役割としては、

- ① 真文草案の作成に代表される外交文書の翻刻業務
- ② 対朝鮮外交文書清書の立会い
- ③ 外交文書の上封・開封

以上の3つに大別することができるかと思います。

これに、以酌庵僧が在任中に取り扱った日朝往復外交文書の文面を記録した「本邦朝鮮往復書」の作成なども含めると、彼らの業務は多岐にわたるものでした。とりわけ外交文書の草案作成については、高度な専門知識が必要な業務であったといえるのではないかと思います。

## 第2章 以酌庵輪番制の廃止と朝鮮使節派遣計画

やや前置きが長くなってしまいましたが、本論に入りたいと思います。

第2章では以酌庵輪番制が廃止されるまでの経過と、それに関連する江戸幕府による朝鮮への使節派遣計画について論じてまいりたいと思います。

はじめに以酹庵輪番制の廃止が老中の板倉勝静から対馬藩へ通達されたのは、慶応2年12月20日のことでした。そして、慶応3年正月には、国元にも以酹庵輪番制の廃止に関する情報が伝えられることとなりました。【史料1】

レジュメ末尾に掲載している【史料1】では「以酹庵輪番御廃止相成、別段御役人可被差遣候（以酹庵輪番制が廃止になったので、（以酹庵輪番僧とは）別に幕府から役人を派遣する）」とあり、幕府が以酹庵輪番僧に代わる「別段御役人」という者、対馬に派遣して以酹庵輪番僧の代役を果たさせようとしていることがわかります。

それでは、幕府による「別段御役人」とは、一体誰のことを指し、幕府はどのような形で以酹庵輪番制廃止後の対朝鮮政策を運営してゆこうとしていたのでしょうか。

そのことを考える上で重要な要素となりますのが、幕府が対朝鮮政策において、最も関心を有していた事項の一つである、朝鮮への使節派遣計画になります。【史料2】

朝鮮への外交使節派遣計画とは、慶応3年に幕府が丙寅洋擾の調停を名目に、外国奉行平山凶書頭・御目付古賀謹一郎ら、幕府役人によって構成された外交使節を朝鮮へ派遣しようとした計画のことを指します。幕府の狙いは朝鮮一仏・米間の関係を調停し、朝鮮の対外政策を従来の海禁政策から交易開港へと転換するように説得することで、日本の外交的力を国内外に誇示し、幕府の権威浮揚につなげることにありました（沈箕載前掲、58頁）。

しかしながら、同年7月に朝鮮側が「凶作・悪疫流行・洋擾」などを理由に、外交使節の受け入れを拒絶したことから交渉は停滞した。幕府はなおも使節派遣の方針を堅持し、11月に平山らを京都まで派遣するものの、12月には日本国内で戊辰戦争が勃発し、結果的に計画は頓挫したという出来事になります。

そのため、基本的には平山たちの外交使節は朝鮮まで到着することはなかった訳ですが、このうち、注目すべきなのは、副使の古賀謹一郎（謹堂）という人物です。彼は幕府の儒学教育施設である昌平黌（しょうへいこう）の儒者でした。また、安政2（1855）年には幕府の洋学所である蕃書調所の頭取を勤め、彼は嘉永6（1853）年のプチャーチン来航時には、露西亜応接掛として、ロシア側が持参した国書のうち、真文書翰の翻刻及び返答書翰の起草を行うなど外交文書の取扱いに精通した人物でした（真壁仁『徳川後期の学問と政治—昌平坂学問所儒者と幕末外交変容—』名古屋大学出版会、449～459頁）。

つまり、江戸幕府が真文書翰の翻刻の経験を有する古賀を「別段御役人」として

「対州表」へ派遣し、一時的に以酌庵輪番僧に代わるような役割を担わせようとしたとも考えられるのです。とはいえ、古賀をはじめとする外交使節の面々は、朝鮮どころか対馬にも到着することなく、派遣計画は挫折してしまいました。以酌庵輪番制のみ廃止される一方で「別段御役人」は対馬藩にやってくることはなかったのです。

### 第3章 以酌庵輪番僧の対馬退去と対馬藩の動向

この章では、幕府が対馬藩あてに以酌庵輪番制の廃止を通達してから、最後の以酌庵僧である、玉潤守俊（ぎょつかんしゅしゅん）が対馬藩を退去するまでを分析してまいりたいと思います。以酌庵輪番制の廃止について、国元の朝鮮方と以酌庵輪番僧が初めて協議を行ったのは、慶応3年1月27日のことでした。【史料3】

【史料3】の記述の中で、以酌庵側は「御書契辺之儀、強而彼是申様無之候（（以酌庵輪番制の廃止が決まった以上）外交文書に関連する事項については、無理にあれこれと（以酌庵輪番僧）が口を挟むことはできない）」と述べながらも、以酌庵廃止の通達よりも前に「取調置申分も有之（外交文書の翻刻等に着手していた分もある）」との理由から、対馬藩側からの相談に応じる姿勢を示しています。

【史料3】を受けて、翌2月1日、対馬藩は以酌庵に対し、以酌庵の廃止が通達される以前の1月付の対朝鮮外交文書に加えて、通達以後の2月付の定例送使船による対朝鮮外交文書についても「御用便」との理由から以酌庵側にその取扱いを依頼、その承諾を得ています。【史料4】

対馬藩は以酌庵輪番制の廃止通達後においても、対馬藩は以酌庵僧に対して引続き、対朝鮮外交実務への関与を依頼していました。このような理由としては、【史料5】の「於屋敷も当節御改革被仰出、未夕抛所を得兼罷在（対馬藩朝鮮方としても、このたび（以酌庵輪番制の廃止という）改革を幕府がおっしゃられたのち、未だに（以酌庵輪番僧の代わりにその職務を代行する）抛り所を得ていない）」ということが挙げられます。つまり3月中旬の時点では、以酌庵輪番制という幕府によりその公的性格を保障された機関を喪失することになった対馬藩が、代替となる「抛所」を得るまでの方策として、退去直前の以酌庵僧に外交実務の遂行を依頼する状況が続いていたのです。

さらに対馬藩は2月16日、新たに発生した漂流民の送還使節の派遣にあたって、以

酌庵に対馬藩が幕府の老中宛に提出する漂流民口上書の作成を依頼しました【史料5】。ところが、以酌庵は「御廃止之儀相達候上ハ…差向候御書契ハ取整候得共、最早此上右体御用承候而ハ対公邊、恐入被申候趣被申聞（以酌庵輪番制の廃止という通達が幕府から行われた以上は…取り急ぎ、翻刻などを行う必要のある外交文書については業務を進めておいたけれども、これ以上、朝鮮への外交文書に関わる業務を以酌庵輪番僧が引き受けることは、幕府に対して恐れ多いことであると（派遣元の京都五山の僧侶たちから）申し聞かされている）」として、対馬藩の要請を拒否するようになります。

このように、廃止が通達された後の以酌庵側としても、当初こそ対馬藩からの外交実務の遂行依頼に対し、寛容な姿勢で応じる構えを見せていたものの、京都五山の碩学中から「御廃止之儀相達候上ハ、早々取形付引取候様との御達（（以酌庵輪番制）が廃止という通達があった以上、（対馬にいる玉潤守俊は）早々に身辺を整理して京都に戻ってくるようにとのお達しがあつた）」という、幕府の方針を伝え聞いてのちは、対馬藩の依頼に対し消極的な態度を示すようになりました。【史料5】

その後、慶応3年3月9日に玉潤守俊は対馬を退去し、自らの出身寺院である東福寺という京都の禅宗寺院に戻りました。こうして230年以上にわたり、朝鮮との外交実務に従事してきた以酌庵輪番制が終焉を迎えることとなったのです。

これら一連の経緯を通して見えてくることとしては、対馬藩にとって、慶応年間に江戸幕府主導のもと行われた以酌庵輪番制の廃止というものは、少なくともあまり喜ばしいことではなかったのではないかと考えています。以酌庵輪番僧の対馬退去前においては、廃止の通達がなされた後にもかかわらず、対馬藩側が何度も以酌庵輪番僧に外交文書の翻刻や清書立会いを求めるなど、混乱が見られ、幕府としても一度派遣すると決めた朝鮮への派遣使節が結果的に沙汰やみとなってしまう「別段御役人」が派遣できなくなってしまうなど、双方の対応には錯綜が見られます。

そのため、以酌庵輪番制の廃止を考える場合においては、対馬藩と幕府の利害関係は必ずしも一致していなかったのではないかと考えています。それでは、次の章では対馬藩が以酌庵輪番僧の不在という事態に対し、どのように対応しようとしたのか、見てゆきたいと思います。

#### 第4章 以酌庵輪番制廃止後の日朝間外交文書往復体制の再編

先ほども述べましたが、以酌庵輪番制の廃止が決定した後、幕府による「別段御役人」の派遣も、朝鮮への外交使節派遣の停滞により実施されない状況下にありました。そこで、本章では、対馬藩の対処策について検討してまいりたいと思います。慶応3年2月22日、対馬藩の朝鮮御用支配は江戸の留守居役を介して、幕府に対し「差当御書契之規則（当面の外交文書の取扱いに関する規定）」について伺いを立てました。【史料6】

【史料6】では「草稿之儀ハ真文役、清書方且上ワ封之儀者役方ニ於て取調（真文草案のことについては真文役、（真文書翰の）清書と上封のことは役方で行う）」とあり、これまで以酌庵僧が担ってきた業務のうち、真文草案の作成については真文役が、外交文書の清書及び上封（封印）については「役方」にて行うとする。この「役方」が何者なのかといいますと、【史料7】をご覧ください。ここでは慶応3年4月5日に「役方」で行うとされていた業務のうち、外交文書の清書が朝鮮方において行われることが確認されます。

そして以酌庵輪番制の廃止後の対馬藩の動きとして画期となるのが、4月12日、朝鮮方頭役であった朝岡讓之助と川本九左衛門、さらに真文役3名に対し「外国御書翰草稿之御用」が命じられたことです。【史料8】これ以降、史料上において彼らは御書翰草稿方と呼ばれ、上記の業務にあたることとなりました。

以酌庵輪番僧が担っていた業務のうち、残る上封の業務についても、御書翰草稿方の業務記録である、対馬歴史民俗資料館所蔵「御書翰草稿方覚書」4月21日条からは、川本九左衛門が対朝鮮外交文書の上封を実施した記述があり、以酌庵輪番僧が担っていた業務の多くが、御書翰草稿方の業務として引き継がれたことがわかります。

ここで特筆すべきは、池内敏氏による先行研究でもご紹介したとおり、以酌庵輪番制の廃止及び御書翰草稿方の設立によって、日本側の外交文書の往復にかかる実務が、すべて対馬藩によって担われるようになった点が挙げられます。つまり、古賀謹一郎のような幕府召し抱えの儒者を、対馬に派遣することができない状況下にあつて、以酌庵輪番僧の代役を果たすことができたのは、対馬藩で外交文書の草案作成や吟味に携っていた、朝鮮方の真文役をにおいて、他に存在しなかったために、このような職務の代行が行われたのです。御書翰草稿方のほとんどが真文役もしくはその経験

者によって構成されていたことはその証左ともいえるかと思えます。

その後、御書翰草稿方は明治の改元後、少なくとも明治3（1870）年4月頃までは、業務を遂行していることが史料上からは確認されます。ここから、当初「別段御役人」が対馬に派遣されるまでの、当座の対応策として想定されていた、御書翰草稿方による、以酌庵輪番僧が担っていた外交実務の代理遂行という運用方式が、「別段御役人」が派遣されなかったために、撤回されることなく明治を迎え、明治3年頃に至るまで、それらの枠組みが維持されていたことがわかります。

### 3. おわりに

慶応年間の幕府による以酌庵輪番制廃止は、沈箕載氏の先行研究でも述べられているとおり、当初、幕府が朝鮮への使節派遣計画を目的として、対朝鮮政策への介入強化を図ったことがその動機として挙げられます。

しかしながら、使節派遣計画の停滞・頓挫により、対朝鮮政策への介入強化を図るという当初の目的は達成されず、以酌庵輪番僧に代わる「別段御役人」の対馬派遣も実現されませんでした。そのため、対朝鮮外交実務を遂行する対馬藩は「御書契之規則不相立」状況となり、対馬退去直前の以酌庵輪番僧を巻き込んで、一時的に混乱することとなりました。

その後、対馬藩からの申出によって、以酌庵輪番僧が担っていた業務を一時的に執行するための組織として設けられた御書翰草稿方は、対馬藩の朝鮮方頭役や真文役によって構成されたことから、朝鮮との外交実務は、その多くが対馬藩によって運用されることとなりました。つまり、以酌庵輪番制の廃止は、結果的に対朝鮮政策への介入強化を図るという、幕府の当初の狙いとは逆的作用をもたらすこととなり、却って対馬藩が担っていた対朝鮮外交実務の職掌の範囲が拡大されることとなったのです。

結果的に、この時期の外交関係史全般の傾向として、荒野泰典氏が提起しておられる中央集権的な外交権接収の流れに対して、当初は幕府が外交権接収をはかろうとするものの、頓挫するという、特別な事例として考えることができるかと思えます。

このように、以酹庵輪番制の廃止を契機とした、慶応年間における日朝間の外交文書往復実務にかかる体制の再編は、明治以降も対馬藩が従来の役割と権益を基本的には明治政府から容認されたこととあいまって、明治初頭の明治政府の対朝鮮政策の基本的な部分を規定していったのでありました。

【史料1】対馬歴史民俗資料館所蔵「御書翰草  
稿方掌書」慶応三年正月廿九日条

今般以町輪番御廢止被仰出御書付左之通、

御名

朝鮮国御取扱筋之儀二付而者、兼而御規則茂有  
之候処、以来夫々御変革可相成候間得其意、当  
今之御時勢厚相弁、諸事不拘古格外国御交際之  
振合二基、益御信義相立候様可被取計候、就而  
者以町輪番御廢止相成、別段御役人可被差遣  
候間、可被得其意候、

【史料2】平山図書頭・古賀筑後守渡韓奉命一  
件「続通信全覽」三所収、二二六頁、四月七  
日条

対州表江為御用外国奉行平山図書頭・御目付古  
賀謹一郎被差遣、時宜二寄為使節朝鮮国へも御  
差渡相成候者、畢竟彼国旧來之交誼を深く被思  
召、其国之禍乱近きニ在るを転して安寧ニ帰せ  
しめ、人民業を安んじ唇齒相保たしめんかため、  
彼国王へ之御書簡前向人江御渡被遣、委曲之談  
判筋者御委任相成候二付、前以彼国へ申出、事  
態二応じ候様斟酌を加へ、いつれにも御信義之  
程相撤、使節款待いたし候様取扱、尚彼国挨拶  
振并委曲之情状可被申聞候、使節対州着帆之上  
者、速ニ手續相運候様可致候事、

【史料3】対馬歴史民俗資料館所蔵「以町輪番  
対控」慶応三年正月廿七日条

同廿七日夕一老方讓之助・文吾連名二而差掛面  
談いたし儀有之候間、内一人罷越兵候様申来  
候処、文吾一人罷出居未夕御供中二付、采女殿  
江右之趣申上候処、此節輪番御廢止之儀申来、  
未夕彼方へ為相知無之、明日ニも各中内罷越、  
委細申入挨拶二及候筈ながら、金地院方彼方江  
之書状持参一ト通及挨拶置候様被仰達、右者  
我々ニ不相關談之様相心得候得共、最早御廢止  
之儀、相知居可申相考全之不相心得も却而如何

哉と存候故、書状御預り申上罷越候処、果して  
右之様子五山且留院方申来候処、御屋敷之方未  
夕役々御様子も無之哉と被申聞候間、相応取合  
右書状相渡、夫二付一老方被申候者、此節御廢  
止ニ至候上ハ御書契辺之儀、強而彼是申様無之  
候得共、御達前取調置申分も有之候へハ、只今  
之内御屋敷御評議ニ依り候て、何しとも可心御  
談との趣被申聞、又被申候へ、当節之儀二付山  
中より近々役槽下向ニ相成候と相聞、着岸之上ハ  
何角駈引も有之、取調兼々都合も可有之候間、  
早々被及内談候との趣申聞候付、御心遣之次第  
同役ハ素り、家老共へも申聞、御頼談申上候儀  
可有之旨申述罷歸ル、

【史料4】対馬歴史民俗資料館所蔵「以町輪番  
対控」慶応三年二月朔日条

右處話二付、差当飛船吹嘘・年余滞吹嘘控本計  
シ、且当年第一船・二船・三船之儀、正月之  
月付、輪番御廢止御達前ニ相立候へ勿論、二月  
付以町送使、第四船方十七船迄之分も前月未々  
清書二相成居候与相立候得者、御用便之儀与評  
議いたし、其段采女殿江申上置候処、其意を以  
頼談ニ及候との御事故、翌朝文吾罷越一老方対  
いたし候処、則承諾有之、

【史料5】対馬歴史民俗資料館所蔵「以町輪番  
対控」慶応三年二月一六日条

今朝一老方讓之助・文吾向人内一人來庵之儀申  
来、文吾罷越候処、昨日盧清太郎殿方当所票民  
有之段為相知有之、是迄之通勘檢をも被致候へ  
ハ、其趣書留ハ素り、公邊江御届申上候例格も  
候処、当節御廢止蒙仰候上ハ、当庵ニをゐて難  
相聞、御屋敷之方如何御心得候哉と相尋、昨日  
御告知御手前被差出候節、御内評之趣相心得居  
候間相答候へ、於屋敷も当節御改革被仰出、未  
夕拠所を得兼罷在、御庵居召之程如何ニ候得共、  
先ツ是迄之形を以、為御知被申候との趣申入候  
処、当節御達二付、輪番在番中御用向如何相心

得可申哉と碩学中と相同候處、御廃止之儀相違候上ハ、早々取形付引取候様との御違ニ相成段申来居、差向候御書契ハ取整候得共、最早此上右体御用承候而ハ対公邊恐入被申候趣被申聞被仰聞候趣、乍揮御心ニ奉存も強而難申上様奉存候へ共、一已ニ可申上様無御座御咄之趣、同役ハ素の家老共江も申聞候様相仕旨相答罷景、今日御加役御不參故御月番益城殿へ申上、翌日蘆浦太郎殿・采女殿江委細申上置、

【史料6】対馬歴史民俗資料館所蔵「御書翰草稿方覺書」慶応三年二月廿二日条

丹下殿・采女殿方被成御違候者、今度以可輪番御廃止ニ付、御書契刃之儀ニ付被申出候次第、

御役儀被入御念儀、尤之儀ニ付此節(御書契)屬源衛門上京ニ付、彼地ニ於て被及御向候様可相成、又者今般御伺済も可相成、近々御役人下向之上、右之辺り時々評議之上御治定可有之候へ共、差当御書契之規則不相立してハ、御用滞ニ相成候間、先ツ当分若此方におゐて御整被成候ニ致決評議間、草稿之儀ハ真文役・清書方且上ノ封之儀者役方ニ於て取調至当ニ可有之候哉、衆議之上申出候様頭役へ御違有之、

【史料7】対馬歴史民俗資料館所蔵「御書翰草稿方覺書」慶応三年四月五日条

御書稿之儀、別段一役所御設之儀者、当時御取扱被成兼て御様子柄有之、当分朝鮮方ニおゐて取計候様与之儀也、今度手狭ニ有之、清書迄之手都合不相成押詰先ハ朝鮮方ニ而清書仕候様、夫付手狭之方者東御張出候ニ而清書方御評議へ被成候事、

【史料8】対馬歴史民俗資料館所蔵「御書翰草稿方覺書」慶応三年四月二二日条

讓之助、九左衛門義、此節以可應御廃止ニ付、

外国御書翰草稿之御用被仰付、

〃右御書契草稿之御用向人而已被仰付候儀ニ而者大切之御用筋、殊向人多病ニ有之御用滞之程、思念之詔を以、真文役一体ニ草稿之御用被仰付被下度段申出、

〃真文役永瀬二七郎・阿比留通・松浦養治御書翰取調御用ニ付、日勤方之儀小文切を以讓之助・九左衛門より申出、





---

대마도인 퇴거 이전 조일교섭  
對馬島人退去以前の日朝交渉

---

발표 : 김강일 (강원대학)



# 대마도인 퇴거 이전 조일교섭

김강일 (강원대학)

1. 머리말
  - 1) 大修參判使의 파견
    - (1) 새로운 圖書의 구조
    - (2) 왜관 교섭과 서계 문제
  - 2) 八送使와 差倭
    - (1) 팔송사의 도서 문제
    - (2) 팔송사의 서계 문제
  - 3) 요시오카(岡吉) 사절단과 大修參判使
2. 결론

## 1. 머리말

임진왜란 이후 250여년 동안 조선과 대마변은 갖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나름대로 평화관계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1868년의 메이지유신(明治維新) 이후부터는 양국 관계가 흔들리기 시작하였다. 메이지유신은 일본에서 도쿠가와 막부가 무너지고 천황을 정점으로 하는 정치체제를 탄생시켰으며, 이에 수반하여 정치·경제·사회적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대마변을 매개로 하는 조일관계 역시 대마변이 외교 일선에서 물러나고, 메이지 정부가 직접 조선과 통교관계를 맺으려고 시도하는 등 큰 변화를 보이게 된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조선과 메이지 정부, 그리고 대마변은 각자의 이해관계를 계산하면서 복잡한 양상을 띄게 되었다.

이 시기의 조선과 대마변의 관계, 메이지 정부와 대마변의 관계, 그리고 조선과 메이지 정

부에 관한 연구는 주로 일본 학자들이 주도해 왔으며,<sup>1)</sup> 국내에서도 몇몇 연구자들의 선도적인 연구가 있다.<sup>2)</sup> 이들 연구에서는 물론 메이지 유신을 전후한 시기에 대마번이 주도했던 조일관계의 개편 시도, 메이지 정부의 외교일원화 방침, 조선 정부의 주체적인 노력에 대하여 망라적으로 분석하였다.<sup>3)</sup> 다만 이 시기에 생산된 사료가 일본에 편중되어 있다는 사실 때문인지 기존의 연구에서는 주로 일본 사료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조선측 사료로는 『고종실록』과 『승정일기』에 단편적으로 보이는 약간의 기록과 『東萊府啓錄』이 중요한 사료가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일단 기존의 연구성과를 정리해 보고, 1868년 9월에 왕정복고 통고 사절이 조선에 파견되면서부터 시작된 서계 개편 논의와 조선의 대응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자칫하면 기존 연구의 재판이 될 수도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기존의 교린체제를 유지하려던 조선의 대응에 초점을 맞추어 교섭의 전말을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서 왕정복고 이후 조일관계의 개혁을 지향했던 대마번의 행동을 규명하는 작업으로 대수참판사의 파견 과정과, 이들이 왜관에서 벌였던 교섭 과정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은 지금까지의 통설적인 견해를 다시 한 번 고찰해 본다는 의미도 있을 것이다.

## 1) 大修參判使의 파견

### (1) 새로운 圖書의 주조

1868년(고종5, 慶應4) 3월, 도쿠가와 막부(德川幕府)가 무너지면서 성립한 메이지 정부(明

- 
- 1) 가장 대표적인 연구로는 田保橋潔의 연구를 들 수 있다(田保橋潔, 1940, 『近代日鮮關係史の研究』, 上·下, 朝鮮總督府). 이 연구는 메이지유신 이전 시기부터 강화도조약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빠짐없이 다루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를 이용할 때는 사실의 누락과 왜곡이 많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荒野泰典은 家役을 중심으로 조선과 대마번의 관계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조일통교 업무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家役은 조선 무역에서 파생하는 각종 이익을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선 무역상의 이윤을 藩의 존립기반으로 삼고 있던 대마번이 메이지 정부의 家役 환수 조치에 대하여 저항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荒野泰典, 1988, 『近世日本と東アジア』, 東京大學出版會; 石川寬, 1998, 『明治維新时期における對馬藩の動向-日朝外交一元化と朝鮮・對馬關係』, 『歷史學研究』, 709號, 歷史學研究會; 石川寬, 2001, 『明治維新と朝鮮・對馬關係』, 明治維新史學會編『明治維新とアジア』, 吉川弘文館; 石川寬, 2002, 『日朝關係の近代的改編と對馬藩』, 『日本史研究』, 480號; 石川寬, 2002, 『明治維新时期の對馬藩政と日朝關係』, 『朝鮮學報』, 183號, 朝鮮學會; 石川寬, 2003, 『明治期の大修參判使と對馬藩』, 『歷史學研究』, 775號, 歷史學研究會; 石川寬, 2004, 『倭館接收後の日朝關係と對馬』, 『九州史學』, 139號, 九州史學研究會 등이 있다.
- 2) 김홍수의 연구는 메이지 유신을 전후한 시기부터 강화도조약에 이르는 교섭과정을 모두 다루고 있다. 특히 그동안의 연구에서 잘 다루지 않았던 국사편찬위원회 소장 宗家文書를 소개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김홍수, 2009, 『한일관계의 근대적 개편과정』,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손승철, 1994, 『1872년 일본의 倭館占領과 朝鮮侵略』, 『軍史』, 28호, 국방군사연구소; 沈箕載, 1997, 『幕末維新 日朝外交史の研究』, 臨川書店; 현명철, 2003, 『19세기 후반의 對馬州와 韓日關係』, 국학연구원; 현명철, 2010, 『幕末・明治 초기 對馬州 정치사 개관』, 『부산과 대마도의 2천년』, 부경대학교 대마도연구소; 현명철, 2011, 『한·일 역사 갈등의 뿌리를 찾아서』, 『한일관계사연구』, 46집, 한일관계사학회; 현명철, 2013, 『對馬藩 소멸과정과 한일관계사』, 『동북아역사논총』, 41호; 장순순, 2004, 『초랑왜관의 폐쇄와 일본 租界化 과정』, 『일본사상』, 7집, 일본사상사학회 등이 있다.
- 3) 현명철은 최근의 연구에서 일본 사료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하여 비판하였다. 즉 총독부가 만든 역사교과서 『보충교재』와 『교수참고서』를 분석하고, 자신들에게 불리한 자료는 신뢰도에 의문을 제기하고 폐기했으며, 유리한 자료는 과대하게 부풀렸다고 분석하였다. 그리고 일본이 만든 왜곡된 역사인식이 아직도 남아 있다고 보았다(현명철, 2011, 『한·일 역사 갈등의 뿌리를 찾아서』, 『한일관계사연구』, 46집).

治新政府)는 아직은 조일간의 외교를 관리할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모든 외국과의 교제는 원칙상 조정에서 취급하지만, 조선은 예로부터 왕래하던 나라이므로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대마번주 소 요시아키[宗義達]에게 조일간의 통교를 「家役」으로 인정한다는 지시를 내렸다.<sup>4)</sup> 대마번에서는 이 기회를 이용하여 오시마 도모노조[大島友之允] 등을 중심으로 메이지 정부와 교섭해서 조일 외교체제를 혁신하고, 신정부로부터 재정 원조를 얻을 수 있도록 계책을 꾸몄다. 윤4월에 대마번은 번주 명의로 조일외교의 쇄신을 요구하는 上書を 메이지 정부에 제출했다.<sup>5)</sup> 상서에서는 종래의 조일 외교무역 체제를 비판하면서, 대마번은 식량을 韓土에서 받아먹으며, 조선에 대하여 藩臣의 禮를 취한다고 하였고, 조선측은 쓰시마에 公作米 등 물화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킨다는 점, 그 외에도 조선에서 도서를 받는 것 등 굴욕적인 형식을 취한다는 점, 조일 무역의 쇠퇴로 대마번의 재정이 궁핍해져 방위능력이 결여되고 있다는 점, 종래의 제도를 개혁하여 일본의 국위를 세우고, 조일관계를 대마번에만 맡기지 말고 전국적으로 대처해 갈 것을 주장하였다. 건의 내용의 핵심은, 대마번이 조선에 경제를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藩臣의 禮」를 취해 왔고, 이것은 조선과 대마번의 통교관계가 「對州의 私交」가 되어 국가의 치욕이 된다고 비판하고 그 개혁을 원한다는 것이었다. 이와 함께 경제적으로 자립이 가능할 정도의 재정 원조를 요구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이미 1862년 이래 대마번이 취해 왔던 조선에 대한 일관된 노선이며, 1864년에 있었던 오시마 토모노조의 建白書와도 일맥상통한다. 자신의 건백서를 관철하려 했던 오시마는 메이지 정부와 교섭을 진행하여 번주 소 요시아키의 관위를 승진시키고, 조선정부가 교부한 도서를 폐지하며, 신정부에서 지급한 新印을 서계에 찍고, 더욱이 조선에서 淸만을 상대로 사용하는 「皇」, 「勅」 등의 문자를 써서 일본 천황을 지칭하도록 하였다.<sup>6)</sup> 그리고 이미 『朝鮮進出建白書』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조일 통교체제의 변혁에 대하여 조선측이 강하게 반발할 것을 예상하고, 서계가 조선에 전달되기도 전인 1868년 10월 대마번주로 하여금 왜관에서의 撤供撤市 등 조선측의 조치에 미리 대비하도록 대마번에 시달하고 있다.<sup>7)</sup>

大修參判使란 王政復古를 알리기 위하여 조선 정부에 파견했던 사절단을 말한다. 대수참판사에 관해서는 다보하시 키요시[田保橋潔]의 『近代日鮮關係の研究』(上卷) 이후 많은 연구에서 이 저서를 언급했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日本外交文書』와 『朝鮮事務書』 등 外務省史料

4) 『日本外交文書(韓國篇)』 245, 宗義達へノ御沙汰書, 朝鮮トノ通交取扱ノ件(明治元年 3月 3日).

원문은 다음과 같다. 「今般王政御一身總テ外國交際之儀於朝廷御取扱被爲在候ニ付テハ、朝鮮國ノ儀者古ヨリ來往ノ國柄、益御誠信ヲ被爲立候御旨趣ニ付、是迄ノ通兩國交通ヲ掌候様家役ニ被命候…(이하 略)」.

5) 『日本外交文書(韓國篇)』 288, 宗義達ヨリノ上書(閏4月 6日).

6) 田保橋潔, 『近代日鮮關係の研究』 上, 138~143쪽.

7) 田保橋潔, 앞의 책, 152~153쪽.

에 의거해 왔기 때문에 대수참판사와 관련된 대마번의 동향에 대하여 파악할 수 없었다. 대마번은 건의활동 중 왕정복고 통고 사절이 지참한 서계에 대하여 다음의 세 가지 점을 제기했다.

첫째, 왕정복고를 알리는 서계의 문안, 둘째는 서식인데, 소 요시아키가 「左近衛少將從四位上」으로 승진함에 따라 「日本國左近衛少將對馬守平朝臣義達呈書, 朝鮮國禮曹參判姓公閣下」로 정했다. 세 번째가 圖書를 바꾼 일이다. 도서는 통교의 증빙으로 삼기 위하여 조선이 통교사에게 만들어 준 구리도장을 말하는데, 서계라든가 文引에 반드시 찍어야 하는 것이 조선정부와 대마번 사이에 약속한 통교규정이었다. 대마번은 조선에서 만들어 준 도서[義達印] 대신 일본 조정에 새로운 인장을 청원하였다. 조선에 대하여 「藩臣의 禮」를 올리는 몇 차례의 의례에서 대마번이 가장 「國辱」으로 인식했던 것이 도서였기 때문이다. 조선이 만들어 준 도서의 사용을 중지함으로써 조선에게 「藩臣」으로 취급되는 입장을 부정하고, 일본 조정이 만들어 준 새로운 인장을 사용함으로써 소씨가 일본 조정의 신하라는 점을 보여주려던 것이었다. 그 결과 「平朝臣義達章」이라는 새로운 인장을 주조할 수 있도록 허가가 내렸다.<sup>8)</sup> 그러나 도서의 변경은 조일 통교가 시작된 이래 가장 중대한 사안이었으며, 조선이 아무런 조건 없이 도서 변경을 수락한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웠다.<sup>9)</sup>

왕정복고를 알리는 일본측의 서계는 두 차례에 걸쳐 전달되었다. 우선 왕정복고와 도서를 변경한다는 사실, 그리고 이 사실을 정식으로 통보하기 위한 大差使를 가까운 시일 안에 파견한다는 내용을 알리는 서신과 이를 정식으로 알리는 대수참판사가 휴대하고 온 서계 등이다. 이들 서계는 모두 左近衛少將對馬守平朝臣義達の 명의로 되어 있는데, 왕정복고와 도서변경을 알리는 서계는 禮曹大人, 東萊釜山兩令公 앞으로 한 통씩, 그리고 大修大差書契는 예조참판, 예조참의 앞으로 한 통씩 전부 4통으로 되어 있다.<sup>10)</sup>

이중 왕정복고와 도서 변경을 알리는 서계를 예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日本國左近衛少將對馬守平朝臣義達

奉書朝鮮國禮曹大人閣下 季秋遙惟 文候介寧 瞻依良深 告者本邦頃時勢一交邊政  
權歸一皇室 在貴國隣誼固厚 豈不欣然哉 近差別使 具陳顛末 不贅于茲 不佞嚮奉勅朝  
京師 朝廷特褒舊勳 加爵進官左近衛少將 更命交隣職 永傳不朽 又賜證明印記 要之兩

8) 石川寬, 2003.5, 「日朝關係の近代的改編と對馬藩」, 『歴史學研究』 第775号에서 인용함.

9) 현명철은 일본의 도서 변경 통고에 대하여 '조선의 출입국 권리를 무시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하였다(현명철, 2011, 「한·일 역사 갈등의 뿌리를 찾아서」, 『한일관계사연구』 46집, 11쪽).

10) 田保橋潔, 앞의 책, 151~156쪽에 원문이 제시되어 있음.

國交際益厚 誠信永遠罔渝 叡慮所在感佩曷極 今般別使書翰押新印 以表朝廷誠意 貴國亦宜領可 舊來受圖書事 其原由全出厚誼所存 則有不可容易改者 雖然即是係朝廷特命 豈有以私害公之理耶 不佞情實至此 貴國幸垂體諒 所深望也 餘冀順序保蓄 肅此不備  
慶應四年戊辰九月 左近衛少將對馬守平朝臣義達

그 해 12월 18일 초량왜관에서 이 서계의 등본을 받은 왜학훈도 安東峻은 서계 중에 ‘皇室奉勅’등의 자구를 사용한 점과, 조선이 만들어 준 島主圖書를 폐지하고 마음대로 新印을 찍은 格外의 서계임을 들어 즉시 철회할 것을 주장했다. 그러나 다음날 다시 대수참판사가 도착했고, 안동준은 왜관에서 대수참판사 正官 히구찌 데쓰지로(樋口鐵四郎)를 만났다. 정판은 앞서와 마찬가지로 왕정복고의 개요를 설명하고, 新印을 만든 이유를 설명하면서 선례에 의한 접위관의 접대를 요구했하였다. 그러나 안동준은 대수참판사는 格外일 뿐만 아니라, 서계 중에 규정 외의 문자가 많은 것을 지적하고 즉시 귀환할 것을 요구했다. 이후 훈도는 이 사실을 동래부사에게 보고하였고, 동래부사는 이를 중앙에 보고했다. 이에 조정에서는 1년여의 협의 끝에 의정부를 통해 대마도주의 직함이 바뀌고 朝臣이라고 쓴 것, 格例에 특히 위배되는 것 등을 개수해서 다시 바치도록 책유하고, 3백년 약조의 본뜻을 지키도록 개유하고 일본의 서계를 거부하도록 지시했다.<sup>11)</sup>

조선의 입장에서 대마번의 이와 같은 요구는 들어줄 수 없는 문제였다. 일본 천황이 이런 종류의 문자를 사용하도록 용인한다는 것은 중국 황제와 일본 천황의 대등성을 승인하는 것이 된다. 아울러서 조선국왕보다 상위의 존재로서 일본 천황이 있다는 것을 조선측이 인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때문이다. 이것은 조선 국왕과 일본국 대군의 대등성을 기초로 유지되어 온 17세기 이래의 「교린관계」에 중지부를 찍는 결과가 된다.

조선에서 서계 접수를 거부할 것이라는 점은 대마번에서도 미리 예견하고 있었다. 외교문서의 형식이 400년의 역사를 가진 조일간의 외교 관행에 어긋난다는 사실은 대마번도 잘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수참판사 파견을 감행했던 것이다. 사절 파견 직전에 대마번주가 「조일 외교체제에서 새로운 방식의 도입은 종래의 방식을 일신하고, 대마번과 조선 정부 사이에 유지되어 오던 외교관계를 파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조선측은 대마번과의 관계 단절, 무역 정지 조치로 응수할 지도 모른다. 설령 그렇다 해도 번내 일동이 일치 협력하여 난국을 타개해야 하며, 끝까지 初志를 관철하도록 노력하라」<sup>12)</sup>는 취지의 포고를

11) 「日省錄」 高宗 己巳年(1869) 12월 13일.

12) 「藩廳每日記」 明治1.10.8.

영내에 발령한 것을 보아도 명백하다.

당시 훈도 안준경 명의로 전달된 두 통의 각서에는 조선에서 문제로 삼았던 자구에 대한 상세한 이유와 함께 조선측의 입장이 잘 드러나 있다.

覺

一. 左近衛少將

功에 따라서 혹 붙이고 떼일 수는 있으나 본국에서 행해야 한다. 교린의 법에는 講定이 있어 바꿀 수 없는 것인데, 어찌 이와 같이 몇 자씩을 더 넣는가. 우리나라의 禮曹參議인 경우 원래 右侍郎이고, … 전부터 쓰지 않았는데, 귀국에서 어찌 마음대로 증감을 하는가. 전례를 준수하지 않는 것이다.

一. 平朝臣

지난 서첩을 보면 비록 고관대직에 있는 자라도 성명의 중간에 관직의 군더더기를 붙인 적이 없다. 이는 格外의 일이다.

一. 書翰押新印

귀국은 封疆之臣으로 원래 인장이 있어 본국에서 행했다. 그러므로 귀국에서는 반드시 아국에서 준 印章을 서계에 써서 憑信의 뜻을 보이려고 법규를 바꾸지 않았으나, 이제 다른 印으로 바꾸고자 하니 결코 받을 수 없다.

一. 禮曹大人公

公이란 君公의 칭호이며 五等侯伯의 爵으로 대인에 비교해 낮추는 것은 아니지만, 대개 서계의 칭호로는 大人을 삼백년이나 써왔는데 지금 갑자기 공을 칭하는 것은 格外이니 역시 전례를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

一. 皇室

皇은 천하를 통일하여 온 땅을 다스리는 칭호이다. 비록 귀국에서 쓴다고 하나 귀국과 아국간에 왕래한 서계 중에는 교린 이래로 없던 일이다. 이같은 字句는 결코 받을 수 없다.

一. 奉勅

勅은 天子의 詔令으로 비록 귀국에서 높여 쓴다고 하나 교린 이래로 쓰지 않은 문자이니 다시 논하지 않겠다.

一. 厚誼所存有不可容易改者

貴州에서 대대로 我印을 받음은 交誼가 있음인데, 이에 이르름은 私로써 公을 훔치는 문구이니 어찌 사사로이 서계에 찍을 수 있겠는가. 이는 귀국의 典州之官이 사사

로이 隣國에서 인장을 받는 것과 같은 바, 귀국의 일이 어찌 이와 다르겠는가.

一. 무릇 양국의 약조는 변할 수 없는 문자이므로, 왕복 서계에는 방만한 문자가 아니더라도 한 마디라도 규격에 틀리고 한 자라도 거슬러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 비록 백년을 기다리더라도 단지 隣好를 해칠 뿐이니 어찌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약할 수 있겠는가. 귀국 역시 일의 도리를 잘 아는 사람이 있겠지만 끝내 깨닫지 못하니 진실로 개탄할 뿐이다.

기사 11월

이상의 내용을 통해 볼 때 당시 조선의 입장은, 양국의 우호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교린체제를 원칙으로 삼아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에는 교섭할 수 없다는 기본 입장을 취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일본이 종전과 마찬가지로의 교린관계를 원한다면, 양국간의 약조에 따라 수백년 동안 지속되어 온 종래의 형식을 취하라는 것이 조선의 입장이었다. 일본의 國制가 변했다고 해도 그것은 일본의 사정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대마번을 배제한 외무성 관리와의 직접 교섭은 허락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인 것이다.<sup>13)</sup>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 일본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감과 서구에 대한 위기의식이 고조되었고, 일본과 구미 세력이 통모하여 조선을 침략할지도 모른다는 의구심이 깊어지게 되었다.<sup>14)</sup> 따라서 교린체제 아래에서 전례를 무시한 메이지 정부의 일방적인 통보는 조선측의 강한 반발을 야기했고, 종전의 교린체제를 지키지 않는 이상 타협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다. 한편 이러한 사실이 일본에 전해지자 侵韓의 구실을 찾던 메이지 정부의 대한정책은 강경파의 征韓論이 득세하게 되었고, 이미 변질되기 시작한 교린체제는 메이지 정부의 일방적인 서계 양식 변경과 그 수락 여부를 둘러싼 논란으로 더욱 붕괴되어 갔다.

대마번은 도쿠가와 요시노부(德川慶喜)의 장군 취임을 조선에 알리는 사위참판사[嗣位參判使] 正官으로 히구찌 데쓰지로(樋口鉄四郎)를 내정해 두고 있었다. 그러나 1868년 윤4월 26일 사위참판사의 조선 파견을 중지하고, 그 대신 히구찌를 왕정복고를 알리는 ‘參判使’에 임명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와 동시에 오우라 토모노스케(大浦友之介)를 封進으로, 조선 관련 업무에 특별히 공로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 가와모토 규자에몬(川本九左衛門)을 都船主로 임명하였다.

13) 손승철은, 이와 같은 조선정부의 입장에 대하여, '종래부터 행해 온 교린체제의 형식에 의해서만, 두 나라 사이는 물론 동아시아의 전통적인 국제관계가 유지될 수 있다는 대외정책의 기본 입장을 나타낸 것'이라고 평가하였다(『朝鮮時代 韓日關係史研究 - 交隣關係의 허와 실-』, 2006, 경인문화사, 284쪽).

14) 荒野泰典, 1989, 「明治維新期の日朝外交體制一元化」問題, 『近世日本と東アジア』, 東京大學出版會, 280쪽.

에도에 올라가 있던 번주 요시아키가 대마번으로 돌아온 것은 8월 20일이다. 9월 7일에는 다시 인사를 개편하여 왕정복고를 알리는 사절단의 명칭을 「大修使」로 정하고, 전례에 따라 이 사실을 조선에 알리는 先問使를 먼저 보내기로 하였다. 선문사는 새로운 도서를 주조했다는 사실과 그 사용을 알리고, 이에 대한 조선정부의 허락을 얻으려는 임시 사절이었다. 이어서 대수사의 도선주로 임명하였던 가와모토를 다시 幹事官[幹事裁判]으로 재임명하여 선문사 자격으로 조선에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당초에 선문사 가와모토 규자에몬은 9월 29일 조선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번 내의 사정이 평온하지 못한데다가 이번의 교섭 문제로 인심이 동요할 우려가 있어서 파견이 연기되었다.<sup>15)</sup>

선문사는 10월 24일 왜관에 도착해서 왕정복고를 알리기 위한 대수참판사가 조만간 파견될 것이며, 이때 새로운 도서를 지참한 간사관도 동행한다는 사실을 전했다. 26일에는 선문사와 조선의 任官(訓導와 別差를 말함)이 만나 대수참판사가 파견될 예정임을 알렸고,<sup>16)</sup> 11월 朔日에 귀국길에 올랐다.<sup>17)</sup> 간사관과 대수참판사가 지참한 서계는 10월 하순부터 11월 사이에 작성되었고, 이와 동시에 새로운 도서도 주조하였다. 간사관이 지참하는 서계는 6매를 작성했는데, 1매는 상자에 넣어 조선으로 보내고, 나머지는 관수에게 맡기기로 했다. 이어서 대수참판사의 서계에는 새로운 인장[平朝臣義達章]을 찍었지만, 간사관이 지참한 서계에는 旧印(義達印)을 사용하였다. 간사관이 지참하는 서계는 예조와 동래부사·부산첨사 앞으로 보내는 서계 2통, 대수참판사는 예조참판, 예조참의, 동래부사·부산첨사에게 보내는 서계 3통과 각 別幅 4통을 준비하였다.

대수참판사 일행은 12월 11일 쓰시마를 출발하여 12월 19일 왜관에 도착했다.<sup>18)</sup> 히구찌는 도착 후 동관과 서관의 관리들을 모두 불러 모았다. 관수까지 참석한 자리에서 이번에 대수사가 가지고 온 朝命을 조선에 알리려 하는데, 이는 국가에 매우 중요한 일임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宿弊」를 일소하고 초량왜관을 일신하는 일에 동·서관 모두가 분투해 달라고 전했다.<sup>19)</sup>

## (2) 왜관 교섭과 서계 문제

조선으로 파견되는 각종 사절에게는 동래부에서 사절의 격에 상응하는 접대를 베푸는 것이 항례이다. 선례에 따르면 접대는 대체로 조선측 兩譯[훈도와 별차]과의 첫대면, 동래부사

15) 田保橋潔, 『近代日鮮關係の研究』上卷, 1940, 朝鮮總督府中樞院, 152쪽.

16) 『館守每日記』, 明治1.10.26

17) 『館守每日記』, 明治1.11.1

18) 『館守每日記』, 明治1.12.19

19) 『館守每日記』, 明治1.12.24

와 부산첨사가 참석하는 宴享儀(茶禮儀라고도 하며, 이때 書契를 전달한다), 封進宴(진상품과 하사품 교환), 서계에 대한 조선의 답서 전달, 출범의 순서가 된다.

가와모토 간사관 역시 12월 18일에 입관한 훈도 安東峻과 별차 李周鉉에게 서계등본을 제출하고 서계 접수를 요청하였다.<sup>20)</sup> 대수참판사 정관 히구찌 역시 이듬해 정월 4일에 훈도·별차와 첫대면을 했고, 도선주 코모다[薦田]로 하여금 이번의 사절은 전례에 없는 사절이지만, 구례에 얽메이지 말고 접대를 받을 수 있도록 주선해 달라고 전했다. 하지만 조선측은 가와모토가 지참한 서계[裁判書契]의 違式을 이유로 접수를 거부하였다. 서계가 위식이라고 판단한 점은 세 가지였다. 첫째로 소씨의 직명이「左近衛少將」으로 바뀌었고, 성 아래「朝臣」이라는 두 글자가 있는 점, 둘째로 문장 중에「皇」이라든가「以私害公」등 부적절한 용어를 사용한 점, 셋째로 조선에서 만들어 준 도서가 아니라 새로운 도서를 사용하겠다는 통지였다.

새로운 도서의 사용에 대하여「偏二天朝を被重、公私之御弁別を被爲正候御主意」라고 했던 대마번은 이것이「是係朝廷特命、豈有以私害公之理耶」라고 조선측에 알렸다. 그러나 조선측의 입장은 달랐다. 조일간의 통교에서 대마번은 대대로 조선에서 만들어 준 인장을 사용해 왔는데, 이것은 공이며 내가 아니었다. 새로운 인장을 사용하는 것이 공이라는 대마번의 주장은 조선의 입장에서 볼 때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다. 이와 같은 서한을 받은 훈도 안동준은 ‘심지어는 以私害公이라는 말, 도서 반납의 說에 이르러서는 불각 중에 입이 열려서 다물어지지 않고 혀가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는다’(2월 29일)고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sup>21)</sup> 대마번의 주장은 요컨대 메이지 정부가 외국과의 교제를 주관하는데, 조정으로부터「家役」으로 조일 통교권을 위임받은 현재의 입장이「公」이며,「藩臣의 禮」를 올려야 하는 과거의 통교관계는 개혁되어야 하는 대마번의「私交」라는 것이었다.<sup>22)</sup> 임진왜란 이후 지속되었던 평화적인 교린관계를 ‘사사로운 관계’였다고 부정하고 새로운 관계를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은 260여 년간 유지되었던 기유약조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조선에 대하여 복속을 요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아울러서 조선이 서계 접수를 거부하면 무력으로 응징하겠다는 의도 아래 서계 접수를 강요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대한 조선측의 반응은 ‘지금 일본과 和를 잃는 것은 長策이 아니나…… 일본이 참지 못하여 전쟁을 일으키면 죄는 일본에 있다. 그러면 국력을 다 하여 싸울 뿐이다’(3월 13일)라는 각오를 보이고 있다. 조선 정부는 기존의 우호관계와 기유약조의 준수를 강조하고 서계 수정만을 요구할 뿐 전쟁의 구실을 주지 않았다. 또한 조선은 왜관에 체제 중인 쓰시마 관리들을 설득하였고, 부산진을 중심으로 수군을 훈련시키고 이를 보여줌으로써 선부

20) 田保橋潔, 昭和15年(1940), 『近世日鮮關係史の研究』上卷 156쪽, 朝鮮總督府中樞院.

21) 현명철, 2003, 『19세기 후반의 대마주와 한일관계』, 국학연구원, 188~189쪽에서 인용함.

22) 石川寛, 주 1)의 논문 『明治期の大修參判使と對馬藩』에서 인용함.

른 도발을 억제하였다.

裁判書契(先問書契)를 둘러싼 교섭이 교착상태에 빠지자 왜관측은 방침을 바꾸었는데, 먼저 왕정복고를 알려야 하는 대수참판사의 서계를 접수하도록 요청하고,<sup>23)</sup> 이와 동시에 관수의 다례의도 요청하였다.<sup>24)</sup> 1867년 3년 4월에 부임한 관수 반 누이노스케[番縫殿介]<sup>25)</sup>는 서계 문제가 해결을 보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다례의가 계속 연기되고 있었다. 여기서 다례의를 요구했던 이유는, 다례의에 참석하는 동래부사와 부산첨사 면전에서 대수참판사의 서계를 접수해 달라고 답판을 짓기 위한 것이었다.

신임 관수를 위한 다례의는 6월 15일에 열렸고,<sup>26)</sup> 반 누이노스케는 이 자리에서 동래부사 鄭顯德에게 대수참판사의 서계를 접수하도록 의정부에 계문을 올려달라고 요청하였다. 동래부사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지만, 다례의 거행 사실을 의정부에 보고할 때 이 요청을 함께 보고하겠다고 약속했다. 6월 28일에 동래부사는 약속대로 관수의 요청을 의정부에 보고했는데,<sup>27)</sup> 의정부의 답신은 늦어지기만 했다. 왜관측은 훈도와 별차에게도 회답서를 재촉하였고, 특히 9월 29일에는 다시 동래부사와 부산첨사를 만나 논의할 것을 요청하면서 두 사람이 왜관으로 오든지, 아니면 왜관측에서 동래부까지 찾아가 답판을 벌이겠다고 하였다.<sup>28)</sup>

의정부의 답서는 10월 하순이 되어서야 겨우 도착했고, 동래부사는 의정부의 방침에 따라 훈도에게 傳書書를 써 주었다. 훈도는 24일에 입관하여 왜관측에 전령서를 제시하면서, 서계 속의 몇몇 글자와 인장을 바꾼 문제 때문에 설령 왜관에 10년을 머문다 해도 접대는 허락할 수 없으니 사절은 속히 돌아가라고 전했다.<sup>29)</sup> 이 회답서에 대하여 왜관측은 25일에 다시 훈도를 불러 別宴을 열고 논의를 거듭했다. 이 자리에서 훈도 안동준은, 서계의 문장과 새로운 도서는 결코 허용할 수 없으니까 「變通(서계 개찬)」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즉 대수참판사 서계 중의 「皇」자를 「朝廷」으로 바꾸고, 舊印과 舊式에 따르면 신속히 서계를 수리할 수 있으며, 재판서계 역시 불필요하게 된다는 의견이었다.

왜관측은 이에 대하여 이번의 문제는 모두 「조정의 명령」이기 때문에 대마번이 스스로 서계를 바꿀 수는 없다고 대답했다. 이에 대하여 훈도는 「서계의 접수 여부는 왜관이 서계를 바

23) 조선과 대마번의 교섭이 난항에 빠진 이유에 대하여 沈箕載교수는, 기본적으로 일본측의 일방적인 書契 達式에 기인하는 것이 主因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東萊府와 倭館 모두 중앙정부와 대마번의 방침에 크게 규제를 받고 있어서 先問書契 및 大修使書契 受理 교섭이 난관에 봉착한 점도 있다고 분석하였다(沈箕載, 平成9年, 『日朝外交史の研究』, 臨川書店, 90쪽 참조).

24) 『館守每日記』, 明治2.3.14

25) 番縫殿介는 104대 관수로 慶尙 3년(고종 4) 4월 朔日 부임했고, 再任이었다. 初任은 文久 3년(1863, 철종 14) 4월 17일이다.

26) 『館守每日記』, 明治2.6.15

27) 『館守每日記』, 明治2.6.29

28) 『館守每日記』, 明治2.10.9

29) 『館守每日記』, 明治2.10.24, 동 11.20, 28일

꾸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하며 거듭 설득하였다.<sup>30)</sup> 이후 왜관측은 모든 관원이 모여 논의를 거듭했고, 11월 5일에 다시 훈도를 불러 사절을 거부하는 이유를 자세히 적어서 문서로 만들어 줄 것을 요구하였다.<sup>31)</sup> 훈도는 9일에 사절 거부 이유를 적은 2통의 문서를 건네주었다 [任官覺書]. 「임관각서」에는 조선측이 「左近衛少將」, 「平朝臣」, 「서계에 찍은 新印」, 「禮曹參判公」, 「皇室」, 「奉勅」이라는 말을 違式으로 판단하는 이유와 「以私害公」에 대한 반박 논리가 정리되어 있었다. 사태가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게 되자 왜관측은 도선주 코모다가 일시 귀국하여 앞으로의 조치에 대하여 번의 지시를 받기로 결정했다.<sup>32)</sup>

당시 대마번에서는 모두가 초조해하는 상황이었다. 그 까닭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 수 있다. 첫째, 대수참판사는 1609년의 기유약조와 비교될 만큼 그 사명이 매우 중대하다는 점이다. 그런데도 단지 구례에 어긋난다는 이유만으로 서계를 접수하지 않는다면 대마번은 메이지 정부에 대하여 위신을 잃게 되는데, 이것은 대마번의 중대한 실책이 되는 셈이다. 둘째, 대마번은 구 막부 이래의 관례에 따라 대조선 외교를 家役으로 인정받았고, 이와 동시에 외교 쇄신안을 상신하여 이번에 대수참판사가 그것을 실행하겠다고 공약하였다. 대마번이 메이지 정부에 재정 원조를 요구할 때도 표면상으로는 조일국교 쇄신을 이유로 들고 있었다. 따라서 만일 대수참판사의 교섭이 실패하여 대조선 외교를 쇄신하겠다는 공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면 家役인 조일통교권도 상실하고, 그 결과 재정 원조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되므로 초조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대마번이 가장 우려했던 점은 일전에 훈도 安東駿이 비밀리에 우라세 사이스케[浦瀬最助]에게 말했던 것처럼, 조선정부가 規外的 사절이라는 이유로 대수참판사의 서계를 받아주지 않고, 관례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公作米·公木の 지급을 거절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되면 대마번은 식량을 조달할 수 있는 길이 끊어지고 만다. 이와 함께 메이지 정부로부터 대조선 외교 쇄신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정 원조마저 거부당하면 경제적으로 파탄에 이를 것이라는 위기감이었다.<sup>33)</sup>

30) 石川寛는 서계 개찬을 요구한 훈도의 의견을 私見으로 보고, 대수참판사 일행이 철수하지 않고 서계 개찬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훈도의 의견은 이후 대마번의 방침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고 한다(『明治期の大修参判使と対馬藩』, 4쪽). 그러나 훈도의 의견을 사건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書契가 무엇인지, 그리고 書契의 改撰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훈도가 이처럼 중요한 외교문제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해결 방법을 제시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사료에 기록이 없어서 확실한 내막은 알 수 없다. 그러나 大修大差使의 書契 改撰 문제에 관하여 한양에서 모종의 처리 지침을 받은 것이 아닌지 추측할 수는 있다.

31) 『館守毎日記』, 明治2.11.20.

32) 『館守毎日記』, 明治2.11.18.

33) 田保橋潔, 昭和15年(1940), 『近世日鮮關係史の研究』, 上卷, 朝鮮總督府中樞院, 167쪽.

## 2) 팔송사와 차왜

도서와 서계를 바꾸는 문제는 대수참판사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대마번에서는 정기 사절인 팔송사와 임시 사절인 차왜를 조선에 파견하고 있었는데, 이와 같은 각종 사절들도 도서를 찍은 서계를 지참하고 조선으로 갔다. 대수참판사에서 시작된 도서와 서계 문제는 팔송사와 차왜를 포함한 사절 전체의 문제였다.

### (1) 팔송사의 도서 문제

대조선 무역은 대마번에서 파견하는 각종 송사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다. 즉 송사가 왜관에서 거행하는 의례에는 「進上」(1635년 이후부터는 封進으로 개칭)과 「回賜」가 있었고, 여기에 부수하여 공사 무역이 행해졌다. 이와 같은 의례 절차는 대마번이 조선의 「藩臣」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형식적인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다. 때문에 대마번은 세견선(歲遣船, 팔송사) 파견에 대하여 「藩臣의 禮」를 올리는 「大州의 私交」로 인식하고 폐지를 주장했던 것이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조선 무역상의 이익을 대신하는 재원의 확보(財政援助)가 필요했다. 하지만 메이지 정부에서는 1868년에 대마번이 요청했던 원조 요구를 보류한 상태였다. 따라서 원조가 실현되기까지는 팔송사를 통한 무역, 즉 조선에서 들어오는 물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현실 때문에 대마번의 고민이 있었다.

당초 대마번 내부에서는 대수참판사가 「公命」을 전달하는 사절이기 때문에 新印을 사용하고, 「御私交之八送使」에게는 旧印을 사용하자는 의견이 있었다고 한다.<sup>34)</sup> 이것은 “公命은 新印, 私交는 旧印”으로 일단 공사의 구분을 명확히 하자는 의미가 포함된 듯하지만, 실제로 결정된 방침은 모두 新印을 사용한다는 것이었다. 新印을 사용하는 이상 팔송사의 파견은 新印 사용을 알리는 幹事裁判과 마찬가지로의 결과를 초래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런 까닭에 1869년의 팔송사 파견이 늦어질 수 밖에 없었다. 재정 원조가 실현되었다면 몰라도, 무역 이윤을 대신할 수 있는 자원 확보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팔송사 파견이 정지되자 대마번은 즉시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다. 조선산 쌀[公作米]의 수입이 중지되자 대마번 내에서는 물가가 등귀하고 시중의 양곡 재고도 바닥을 드러냈다. 번이 위기에 빠지자 번사들 중에는 상경 중인 번주에게 기근 문제에 대하여 직소를 올리는 자도 나왔다. 번주가 부재중인 가운데 1868년의 대마번은 매우 심각한 기근에 시달리고 있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일단 旧印으로 팔송사를 파견하려는 움직임이 자연스럽게 생겨났

34) 石川寛, 2003.5, 「日朝關係の近代的改編と對馬藩」, 5쪽, 『歴史學研究』, 第775号.

다. 결국 대마번에서는 평결을 거쳐 일단 旧印을 사용한 세견선 파견을 결정하고, 특사를 에도에 올려보내 상경 중인 번주의 의향을 묻기로 했다.<sup>35)</sup> 번주 소 요시아키는 10월 19일 자신의 의향을 밝혔는데, 「대수사 교섭에 대한 허가 여부의 회답이 없는 중에, 인장 때문에 비례를 보이는 것은 시의에 맞지 않으므로 팔송사와 吹嘘 등에 우선 旧印을 사용하도록 지시함。」이라는 통달이 대마번에 전달되었다.<sup>36)</sup> 요컨대 시의에 맞게 文引[吹嘘] 등은 일단 旧印을 사용하여 팔송사를 파견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었다. 다만 번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지금까지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국가의 치욕을 설욕함」에 있다는 다짐을 두었다.<sup>37)</sup> 이리하여 10월 21일에 무역은 일본 조정과 관계 없는 大州만의 문제이므로, 서계와 吹嘘에 旧印을 찍어 사절을 보내니 잘 조치해 주기 바란다라는 의미로 諭知使 아비루 도오루[阿比留通]를 파견하게 되었다. 아비루는 11월 18일 왜관으로 건너가 임관[훈도·별차]에게 諭知文을 전달했다.<sup>38)</sup> 이에 대하여 훈도는 서계에 旧印을 찍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대수사 서계도 속히 구약대로 고치라고 답했다.

우여곡절 끝에 諭知使를 파견함으로써 지체되고 있던 1869년도분 팔송사의 파견 환경이 갖추어졌다. 세견 제1, 2, 3선은 12월 朔日에, 이점암송사와 세견 제4선은 이듬해 정월 11일에 조선으로 건너갈 수 있었다. 하지만 이들이 정식 사절로 인정되어 접대를 받기까지는 다시 반년의 시간이 더 필요했다.<sup>39)</sup>

## (2) 팔송사의 서계 문제

차왜 역시 서계를 지참해야 하고, 정식 사절로 인정된 다음에야 접대를 받는다는 점에서는 팔송사와 마찬가지로였다. 入送 재개를 위해서는 신속히 조선정부와 타협점을 찾아야 했다. 관수 반 누이스케가 훈도와 타협한 결과, 대마번측이 「朝臣」이라는 두 글자를 삭제하면 「左近衛所藏」의 사용에 대하여 훈도가 주선해 보겠다는 합의점을 도출하였다.<sup>40)</sup> 이 문제를 번과 협의하기 위하여 아비루는 1870년(고종 7, 明治 3) 2월 14일 일시 귀국하게 되었다.<sup>41)</sup> 아비루의 보고를 들은 대마번은 「朝臣」이라는 문자를 삭제하기로 결정하고, 3월 13일까지 1869년도

35) 『藩廳每日記』 明治2,7,25

36) “大修之御用諸否不及返答中, 御印章之故を以是より非礼を御開被成候段, 時宜不可然義二付, 八送使吹嘘等二至, 先御旧印倒用被成候段尊慮被仰出候.” 원문은 田保橋潔, 昭和15年(1940), 『近世日鮮關係史の研究』 上卷, 朝鮮總督府中樞院, 117쪽에서 재인용하였다.

37) 원문은 「舊來之謬例ヲ被正, 御國辱被雪候.」이며, 주 29)의 사료에서 인용함.

38) 『館守每日記』 明治2,11,18. 「歲遣船之義者元ト对州限貿易ニ依被差渡候使者柄…」.

39) 石川寛, 2003.5, 「日朝關係の近代的改編と対馬藩」, 『歴史學研究』 第775号, 11쪽.

40) 김흥수는 이 합의를 '대수참판사의 서계'와 '朝臣'의 거부를 통해서 대마번을 메이지 정부와 분리하고, 그대신 대마도주의 승진은 인정하여 조선에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출한 것이라고 분석하였다(김흥수, 『한일관계의 근대적 개편과정』, 2009,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한국문화연구총서 34, 175쪽.)

41) 『館守每日記』 明治3,2,14.

제1선 서계부터 제17선 서계, 이정암송사 副書, 告還書契 등의 개찬을 끝냈다.<sup>42)</sup> 이들 개찬된 서계는 고쿠부 다테미(國分建見)가 지참하고 4월 7일에 왜관으로 건너갔다.<sup>43)</sup> 왜관에서는 훈도와 신속히 논의한 결과 4월 15일에 동래부사가 의정부에 장계를 올렸다.<sup>44)</sup>

이때 대마번에서는 漂差使 역시 旧印을 사용하여 파견한다는 방침을 왜관에 전달했다.<sup>45)</sup> 반 누이노스케는 대수사 문제는 조정이 어떤 지시를 내릴지 우리가 답변하기는 어렵지만, 원래 팔송사는 대마번의 무역이니 각 송사만큼은 신속히 접대를 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런데 이때 대마번에 대한 조선 정부의 불신감을 더욱 높이는 두 사건이 일어났다. 하나는 5월 3일에 독일 군함 헤르타(Hertha)호가 부산항에 입항했는데, 대마번의 통역 나카노 교타로(中野許太郎)가 이 배에 승선한 것이 문제가 되었다. 헤르타호는 일본 외무성으로부터 허가를 받고 주고쿠(中國), 시고쿠(四國), 규슈(九州) 지방의 연안 시찰을 목적으로 향해 중이었다. 부산항에 입항할 목적은 조선과 해난구조조약을 체결하기 위해서였다.<sup>46)</sup> 이 요청에 대하여 5월 4일 아침 훈도와 별차는 관수에게 조선의 攘夷 방침 알리고, 대마도인이 탑승한 사실을 따지는 동래부사의 서한을 전하면서 헤르타호의 즉시 퇴각을 요구하였다. 헤르타호는 시위삼아 공포를 쏘면서 오후 2시경 물러갔다.<sup>47)</sup> 조선 조정은 이 사건을 일본이 洋夷와 공모한 사건으로 여기고 대마번주에게 엄중히 항의하는 한편,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서계를 보내기로 결정하였다.<sup>48)</sup>

다른 하나는, 서계 접수 문제로 훈도와 우라세 사이스케가 회담을 하던 중, 조선 정부가 계속 서계 접수를 거부하면 메이지 정부에서 군대를 보낼 지도 모른다고 언급한 우라세의 발언이 문제가 되었다. 우라세는 5월 13일 훈도의 任所에서 ‘이후에도 대수참판사의 교섭이 타결될 전망이 없으면 대마번주의 사직과 待罪는 물론이고, 國使가 직접 군대를 이끌고 와서 조선 국왕과 면담을 시도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훈도를 압박하였다.<sup>49)</sup>

두 사건이 서로 연관이 있다고 판단한 조선 정부는 대마번에 대한 불신감이 더욱 증폭되었

42) 石川寬, 2003.5. 「日朝關係の近代的改編と對馬藩」, 『歴史學研究』 第775号, 12쪽.

43) 『館守每日記』 明治3.4.7.

44) 『館守每日記』 明治3.4.17.

45) 『館守每日記』 明治3.4.7.

46) 『東萊府啓錄』 1870.5.5.

47) 『東萊府啓錄』 1870.5.5.

48) 『承政院日記』 1870.5.12 (국사편찬위원회, <http://sjw.history.go.kr/main/main.jsp>)

議政府啓曰, 倭館所泊異樣船, 聞既退去矣, 此夷之倭往倭來, 已是叵測之甚, 而第其五倭之同騎一船, 現有紹介之跡, 且中野爲名者, 以曾任和館之人, 句引洋船, 肆然來泊者, 究其情, 極爲痛惋, 館守倭處, 雖有任譯之責論, 日後之慮, 難保其必無, 將此顛末, 修書契下送萊府, 仍令轉致對州, 以爲嚴辭詰責之地, 凡於倭情, 奏聞上國, 卽定例也, 以此意撰咨, 入送, 何如? 傳曰, 允.

49) 훈도와 대마번 통역 우라세 사이스케의 회담 내용은 김흥수, 전계서에서 상세히 소개하였다.

고, 팔송사에 대한 접대를 허락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다.<sup>50)</sup> 그러나 군대를 파견할 지도 모른다는 압력이 효과가 있었는지, 왜관의 거둬들인 설득이 효과를 보았는지 조선 정부는 7월 4일에 필송사 및 표차사의 다례의를 열고, 공작미 지급을 재개하겠다는 취지의 답서를 왜관에 보냈다.<sup>51)</sup> 이렇게 해서 1869년분의 세견 제1선부터 제4선송사, 이정암송사의 다례의가 열렸고, 8월 이후에는 1870년분의 팔송사와 표차사가 차례로 건너오게 되었다.<sup>52)</sup> 이들이 지참하고 온 서계의 서식은 「日本國左近衛少將對馬守平義達奉書 朝鮮國禮曹大人閣下」로 통일되어 있었고, 답서는 「日本國左近衛少將對馬守平公閣下」였다. 간사재판과 대수참판사를 제외한 팔송사와 각종 차왜의 서계문제는 이렇게 일단락되었다.

### 3) 요시오카(吉岡) 사절단과 大修參判使

대수참판사 서계의 접수 거부 이후 조일간의 교섭은 매우 혼미한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이 무렵부터 메이지 정부 외무성은 소씨가 관장하고 있던 대조선 외교와는 별도로 조선에 독자적으로 사절 파견을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그 배경에는 구미 열강의 조선 진출에 대한 불안감과 소씨에 대한 불신감이 작용한 결과였다.<sup>53)</sup> 그리하여 외무성은 1870년 5월에 대마번 주 소씨의 직임을 회수하고, 9월에 사다 하쿠보(佐田白茅), 모리아마 시게루(森山茂), 요시오카 고키(吉岡弘毅) 등 외무성 관리를 파견하여 직접 대조선 교섭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요시오카 사절단의 파견은 대마번의 의도와는 다른 정책이었다. 대마번의 구상은 먼저 대수참판사가 개찬서계로 왕정복고를 알리는 것이었으며, 외무성 관리가 갑자기 조선으로 건너가도 조선은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다. 즉 외무성 관리가 조선과 직접 교섭에 나서려면 사전에 조선측의 의향을 타진하고 교섭을 시작하던지, 아니면 대수참판사를 철수시켜서 대마번의 대조선 교섭을 중지한 뒤에 외무성 관리가 교섭에 나서지 않으면 안된다고 판단했던 것이다.<sup>54)</sup> 결과는 대마번의 판단이 옳았으며, 조선은 외무성 관리의 접대를 거부하였다.

외무성 관리의 조선 파견 소식을 알게 된 대마번에서는 3개조의 伺書を 외무성에 제출하고 번으로서의 대응을 질문하였다.<sup>55)</sup>

조선과 직접 교섭에 나선 외무성은 외무경 사와 요시노부(澤宣嘉)를 통해서 당시 왜관

50) 『館守毎日記』 明治3.6.21.

51) 『館守毎日記』 明治3.7.4.

52) 상세한 내용은 石川寛, 2003.5, 「日朝關係の近代的改編と對馬藩」, 『歴史學研究』 第775号 6~9의 表1과 表2에 잘 정리되어 있다.

53) 石川寛는 외무성이 관원을 파견하여 직접 교섭에 나섬으로써 대마번(소씨)은 「家役」의 사직과 대수참판사의 철수를 고려하게 되었다고 한다. 요컨대 조일 관계에서 「公」의 입장에서 물러서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평가하였다(『日朝關係の近代的改編と對馬藩』, 『歴史學研究』 第775호 12쪽).

54) 石川寛, 2003, 「日朝關係の近代的改編と對馬藩」, 『歴史學研究』 第775호, 15쪽에서 인용함.

55) 田保橋潔, 앞의 책, 244쪽.

에 주재하고 있던 대수참판사 히구치 데쓰지로에게 다음과 같은 대조선 교섭 지침을 하달했다.<sup>56)</sup>

- 一. 조선은 접양구교의 나라이므로 관원을 파견하여 친교를 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그 나라에 사정이 있다 하니 잠시 방책을 강구하며 그 나라의 위급함을 염려하는 뜻을 표시하고, 그 해를 피하는 일을 권함으로써 인접국의 親情을 나타내야 한다.
- 一. 미국과 구교는 없었다 해도 이미 정부와 공공연히 우호를 맺고 있다. 그러나 조선은 정부와 아직 우호를 맺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본의 공적인 입장은 미국을 돕는 일에는 義가 있고, 조선을 돕는 일은 이치가 맞지 않는다. 그러므로 조선과 일본이 우호를 맺기에 앞서 일이 일어나면 미국이 하는 일을 감히 방해할 수는 없다. 미국과 우호를 저버리는 일은 합당치 않다.
- 一. 조선은 접양구교를 맺고 있으니 더욱 교역을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미국도 공적인 友國이니 필요한 것은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다. 일본에 있어 양국의 관계는 이와 같다. 따라서 만일 어느 한 나라가 우리에게 청원해 오면 즉시 우호를 나타내어 그 청한 바를 충족시켜야 한다. 따라서 지금의 형세에 잘 통해 차질이 없게 해야 한다.
- 一. 조선의 뜻은 지금 미국과 상반되나 우리는 지금 미국과 뜻을 동일하게 해야 한다. 그러나 갑자기 개국의 뜻을 나타내면 혐의를 면치 못해 위기에 이르게 되니 해가 될 것이다. 삼가 미국에는 신의를 지키고, 조선에서는 혐의를 받아 위기를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 一. 지금의 형세는 조선이 거부하지만 오래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개국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니 장래를 잘 판단해야 한다. 이상이 미국과 조선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니 함부로 조치해서 뒤에 우환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명치 4년 신미 3월 외무경

이 방침이 의미하는 것은, 조선과는 이미 수백년에 걸쳐 교린체제에 의한 우호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나라 사이에 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으므로 수호통상조약을 맺은 미국과의 관계가 우선한다는 것이다. 또한 가까운 장래에 조선이 개국할 것을 예상

56) 원문은 三宅英利著 손승철역, 1991, 『近世韓日關係史研究』, 이론과 실천, 310쪽에서 재인용함.

하고, 그때에 일본이 불리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대비하라는 것이다. 이것은 메이지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이미 서구 근대국가의 외교 원리에 입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종래의 교린체제를 명백히 부정하는 입장에 섰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교섭을 진행해도 조선 정부의 입장은 변함없이 부정적이었다. 의정부로부터는 서계를 고치라는 지시가 내려올 뿐이었으며, 신미양요로 인하여 양국의 교섭은 다시 중단되기에 이르렀다.<sup>57)</sup>

1872년 1월 메이지 정부는 대마도주 소 요시아키를 외무대승으로 임명하고 조선에 파견할 계획을 세웠다. 이어서 대수대차사 히구찌 데쓰지로를 귀국시키고, 모리야마 시게루 및 히로즈 히로노부로 하여금 대마도주가 廢藩置縣으로 해직되었다는 사실과, 그 임무를 메이지 정부에서 행한다는 사실을 알리며 교섭을 진행시켰다. 그러나 동래부사 鄭顯德은 이 사신이 구례에도 없으며, 倭使가 기선에 탑승하는 것은 이양선으로 오해받기 쉬우므로 접대할 수 없다고 거절했다. 조일간의 교섭이 조선측의 거부로 교착상태에 빠지자 외무성 관리였던 사가라 마사키(相良正樹)는 1872년 5월 26일 관수 후카미 마사카게(深見正景)와 관원들을 이끌고 왜관을 뛰쳐나와 동래부사에게 직접 교섭을 요청했다.<sup>58)</sup> 그러나 동래부사는 이같은 倭館闖出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관수의 직무를 정지시켰고, 8월에는 一代官으로 하여금 관수의 일을 대행하도록 문서로 정식 통보했다.<sup>59)</sup> 이렇게 왜관과 통래부 사이의 관계가 악화되어 갈 무렵, 메이지 정부에서는 그동안 추진해 왔던 이른바 외무성의 ‘왜관접수’를 단행하기에 이르렀다. 5월 28일에는 太政官 지시로 초량왜관의 사무를 외무성 소관으로 이관하고, 왜관에 재근 중이던 인원 중 외무성 직원이 아닌 구 대마번사들의 귀국을 결정했다. 표류민 처리도 나가사키현으로 이관하였다.

이미 1871년 7월에 소씨가 관장해 왔던 家役으로서의 조일외교를 정지시켰던 메이지 정부는 조일외교에 관한 모든 권한을 장악하게 되었고, 1872년 정월부터는 그 기능이 정지된 상태였다.<sup>60)</sup> 당시 왜관에 새로이 파견되어 교섭을 관장하던 외무성 관리 모리야마와 히로즈는 왜관의 대마번 관리들을 모두 소환하고, 외무성에서 직접 관리를 파견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그리고 1872년 정월부터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면서 6월에 다음의 세 가지 항목을 메이지 정부에 상신했다.<sup>61)</sup>

첫째, 왜관에서 구 대마번 관리들을 모두 소환하고 외무성 직원으로 대치할 경우, 양국 관

57) 『承政院日記』 1869.12.13.

58) 木村直也, 2004. 『慶応3年の闖出について』, 『8~17世紀東アジア地域における人・物・情報の交流』 平成12年度~15年度科學研究費補助金研究成果報告書, 363쪽.

59) 현명철은 이 난출사건에 대하여 “한일관계에서 대마도의 지위가 급속히 상실되어 가는 시점에 일어난 대마도의 마지막 행동”이라고 평가했다(현명철, 2003, 『19세기 후반의 對馬州와 韓日關係』, 국학연구원).

60) 『朝鮮外交事務書』3, 757쪽.

61) 田保橋潔, 앞의 책, 215~216쪽.

계가 극도로 악화될 것이 우려된다. 따라서 실제로 왜관 접수를 단행하더라도 이 사실을 비밀에 부쳐서 외관상으로는 대마번 소관의 옛 모습을 그대로 보일 것. 둘째, 문인은 옛 도서를 그대로 사용할 것. 셋째, 구 대마번의 부채를 청산해 줄 것 등이었다. 이에 외무성은 첫째와 둘째 조항은 그대로 허가하고, 셋째 항은 대장성과 협의하도록 했다. 그리하여 메이지 정부는 8월 18일 천황 무쓰히토가 칙서로 외무대승 하나부사에게 다음 사항과 함께 ‘왜관접수’를 지시했다.<sup>62)</sup>

- 一. 초량 공관의 館舍와 代官所는 종전과 같이 그대로 둘 것
- 一. 쓸데없는 士官과 잡인 등은 모두 귀국시킬 것
- 一. 상인들은 스스로 판단해서 하게 할 것
- 一. 勘合印은 옛 것을 그대로 사용할 것
- 一. 세견선은 폐지할 것
- 一. 세견선 물품 지체분(1872년 당해년분)은 宗家의 부채가 되고 있으므로 지급해 줄 것
- 一. 대마번에 체류중인 (조선)표류민들을 전부 송환할 것
- 一. 위 사항을 조선에 출장할 외무대승 하나부사 요시모토[花房義質]에게 전할 것

1872년 9월 왜관접수 권한을 위임받은 외무대승 하나부사 요시모토는 히로세 나오유키[廣瀨直行], 히로즈 히로노부[廣津弘信], 모리야마 시게루[森山茂] 등과 함께 군함 가스카호(春日号)와 기선 유코마루(有功丸) 편에 보병 2개 소대를 승선시키고 왜관에 상륙했다. 하나부사는 기존의 1대관 가이즈 모타로[海津茂太郎]와 우에노 케이스케[上野敬助], 나카야마 키베[中山喜兵衛] 등을 외무성 지침에 따르지 않고 조선의 의도에 따랐다는 이유로 문책 귀국시키고 왜관 정리에 들어갔다. 관수 후카미[深見六郎-正景]는 외무성 9등출사로 임명하여 신임 관수로 보임하고, 11등출사 히로세를 제1대관으로, 外務少錄 오쿠 요시노리[奥義制]를 학사 겸 감찰로, 14등출사 스미나가 유스케[住永友輔]를 제2대관 겸 대통사로, 나머지 구 대마번의 관리들은 모두 귀국시켰다. 이어서 초량왜관에 「大日本公館」이라는 간판을 달았다. 이때부터 외무성은 표류민 송환에서 迎來差倭와 서계를 생략하였다. 이에 따라 동래부사 역시 차왜도 없고 서계도 없으므로 표류민 송환에 대해서는 연회를 할 필요도 없고 예단과 잡물을 마련할 필요도 없어지게 되었다. 하나부사는 9월 25일 대마도로 돌아갔고, 동년 11월에 귀국하여 활동 내용을 복명하였다. 9월 28일에는 마지막 세견선이 초량항에서 대마도를 향하여 출

62) 『朝鮮外交文書』 403쪽.

발했다.

왜관 난출사건으로 동래부와 왜관 사이의 관계가 긴장하고 있던 시기에 하나부사가 승선한 일본 군함이 갑작스럽게 출현하자 사태는 더욱 악화되었다. 하나부사는 관수 후카미 마사카게를 새로이 외무성 직속 館司라는 직함을 주고 교섭을 요청했다. 그러나 10월에 훈도 안동준과 별차 현풍서는 館司 후카미 마사카게 이하 왜관원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왜관에 대한 식량 지급과 교역을 중지하는 撤供撤市를 단행하면서 모든 잠상행위를 엄금한다는 포고문을 왜관의 守門에 내걸었다. 포고문의 내용은 倭夷와 洋夷를 동일하게 보고 爲政斥邪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이었다.<sup>63)</sup>

본래 왜관은 건립할 당시부터 조선정부가 ‘倭’를 회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립한 것이다. 기본적인 성격은 외국 사절이 임시로 머무는 ‘客館’이며, 부수적으로 ‘商館’으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는 특수 거주구역이었다. 따라서 건축비와 왜관 관원의 체재비 등 모든 비용을 조선에서 부담했고, 대마도주의 책임 아래 사용을 허가한데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메이지 정부가 왜관을 마치 자신들의 대외공관인 것처럼 강제로 차지한 것은 1609년 기유약조 이래 유지되어 오던 조일간의 외교 관례를 무시한 행위였다. 1872년 9월 메이지 정부의 왜관 강제 점령은 분명히 조선에 대한 최초의 침략행위라고 볼 수 있으며, 일본측의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서계 변경 사건 이후 흔들리기 시작하던 교린체제도 조선측의 철공철시로 종말을 고했다고 볼 수 있다.

메이지 정부의 기만된 왜관 점령으로 임란 이후 재개된 조일간의 교린체제도 막을 내리게 되고, 이후 양국관계는 교린체제 하에서의 교섭 형태가 아닌 메이지 정부의 외무성 관리와 직접 교섭하는 단계로 접어들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침략행위는 이후 메이지 정부의 대조선 정책을 주도해 갔던 기도 다카요시[木戶孝允]와 사이고 다카모리[西郷隆盛] 등에 의하여 더욱 구체적인 무력도발 행위로 이어졌다. 사이고 다카모리 등의 征韓論은 1873년 10월 시기상조론으로 일단 가라앉았지만, 그 본질은 이와쿠라 도모미[岩倉具視]와 오쿠보 도시미치[大久保利通] 등에게 그대로 이어졌다. 메이지 정부가 직접 사절을 파견하여 조선이 새로운 외교체제를 받아들일도록 교섭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무력행사를 감행한다는 조선침략의 도식<sup>64)</sup>에 따라 마침내 1875년 雲揚號事件을 도발하였다. 이로써 본격적인 조선침략 행위가 구체화되면서 이후의 한일관계를 돌이킬 수 없는 수렁으로 몰아 갔다. 임진왜란 이후 지속되어 왔던 교린체제는 이렇게 붕괴되고 말았다.

63) 田保橋潔, 앞의 책, 295쪽에서 인용한 원문 중 “近聞來接館中 其形貌衣服 多非日本人 彼之變形易俗 非我所管 … 猝有洋船洋服之至者 不可謂日本人也.”

64) 荒野泰典, 1988, 「明治維新期の日朝外交體制一元化問題」, 『近世日本と東アジア』, 東京大學出版會, 260쪽.

## 2. 결론

근세 후기 조일관계에 대한 대마번의 시각은, 조선에 대한 우월감과 멸시 의식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며, 대마번이 조선에 대하여 「藩臣의 禮」를 취하는 「對州私交」는 皇國 日本의 권위를 손상시키는 것으로서 개혁되어야 할 대상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의 이면에는 진정한 외교관계의 개혁을 의도했다기보다는 당면한 재정난을 타개하려는 숨겨진 목적이 있었음을 간과할 수 없다.

대마번이 조선에 제출한 서계에는 단순히 왕정복고 사실을 알리는 내용 뿐만 아니라, ‘황(皇)’, ‘봉칙(奉勅)’, ‘좌근위소장(左近衛少將)’ 등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던 문자를 사용했고, 날인한 인장도 조선이 지급한 것(舊印)이 아니라 메이지 정부에서 허락한 신인(新印)이었다. 이에 대하여 조선정부는 외교적 관례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대마번이 요구하는 서계 접수를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나 조선이 대마도번 요구를 무조건 거절한 것은 아니며, 舊例를 들어 논리적으로 반박하면서 서계 수정을 요구하였다.

외교적 관례(舊例)의 준수를 요구하는 조선정부의 입장은 대마번을 교린체제(交隣體制)의 틀 안에 예속시키려는 것이었다. 대마번은 조선 초부터 수직인(受職人)의 입장에서 매년 조선에 조공(朝貢)을 했고, 현실적으로 조선에 의지해 왔다. 이러한 대마번이 일방적으로 교린체제에서 벗어나겠다고 통고하는 것은 양국의 외교관례에 어긋나는 행위였다. 조선은 대마번의 태도를 이해하기 어려웠으며, 구례에 따른 외교의례를 지킬 것을 강조하면서 거듭 서계 수정을 요구했다. 그 결과 재정 문제로 곤란을 겪던 대마번은 서계에 新印 사용을 중단하고 舊印을 사용할 수 밖에 없었다.

1871년 7월 14일 천황은 폐번치현(廢藩治縣)을 단행하였다. 대마번주 소 요시아키는 외무성 관리인 외무대승에 임명되었다. 외무대승 소 요시아키는 조선에 서한을 보내 폐번치현으로 자신이 외무대승에 임명되었다는 사실과, 앞으로 대조선 외교는 외무성에서 관장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리려고 하였다. 그러나 조선측은 전례가 없으므로 면접할 수 없다고 거절하고, 구례에 입각한 교섭을 주장하였다.

서계접수 문제가 타결되지 않자 왜관에서는 1872년 5월 26일부터 10여일간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난출을 감행하였다. 난출 후 차사와 관수는 차비관 한인진을 통해 동래부사와 회견을 주선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난출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1872년 9월에 무단으로 감행된 메이지 정부의 왜관 점령으로 임란 이후 재개된 조일간의

교린체제도 막을 내리게 되었고, 이후 양국관계는 교린체제 하에서의 교섭형태가 아닌 메이지 정부의 외무성 관리와 직접 교섭하는 단계로 접어들게 되었다.

## 【참고문헌】

『承政院日記』

『東萊府啓錄』

『館守每日記』

한국일본문제연구회, 1971, 『朝鮮外交事務書』 1-4, 成進文化社

泰東文化社 편집부, 1981, 『日本外交文書』(한국편), 제1책, 泰東文化社

김홍수, 2009, 『한일관계의 근대적 개편과정』,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沈箕載, 1997, 『幕末維新 日朝外交史の研究』, 臨川書店

현명철, 2003, 『19세기 후반의 對馬州와 韓日關係』, 국학연구원

田保橋潔, 1940, 『近代日鮮關係史の研究』 上, 朝鮮總督府

石川寬, 2007, 『近代移行期における日朝關係刷新交渉の研究』, 早稲田大學大學院政治學研究科  
博士學位論文

沈箕載, 2004, 「明治政府의 對朝 外交·貿易 一元化 科程의 一考察」, 『日語日文學研究』 49輯, 日語日文學會,

현명철, 2011, 「한·일 역사 갈등의 뿌리를 찾아서」, 『한일관계사연구』 46집, 한일관계사학회

-----, 2013, 「對馬藩 소멸과정과 한일관계사」, 『동북아역사논총』 41호, 동북아역사재단

石川寬, 1998, 「明治維新时期における對馬藩の動向 - 日朝外交一元化と朝鮮·對馬關係」, 『歷史學研究』 709號, 歷史學研究會

-----, 2002, 「日朝關係の近代的改編と對馬藩」, 『日本史研究』 480號

-----, 2003, 「明治期の大修參判使と對馬藩」, 『歷史學研究』 775號, 歷史學研究會



# 對馬島人退去以前の日朝交渉

金剛一（江原大学校講師）

1. はじめに
  - 1) 大修参判使の派遣
    - (1)新しい図書の鑄造
    - (2)倭館交渉と書契問題
  - 2) 八送使と差倭
    - (1)八送使の図書問題
    - (2)八送使の書契問題
  - 3) 吉岡使節団と大修参判使
3. おわりに

## 1. はじめに

文禄・慶長の役以降の約200年間、朝鮮と対馬藩の間には様々な紆余曲折があったものの、わりと平和関係を維持してきていた。ところが、1868年の明治維新の後、両国関係はぎくしゃくし始める。明治維新は日本で徳川幕府が崩壊し、天皇を頂点においた政治システムをもたらした。これに伴い政治・経済・社会的に多くの変化がもたらされた。対馬藩を介する日朝関係もまた、対馬藩が外交の一線から退き、明治政府が自ら朝鮮との通交関係を結ぼうとするなど、大きな変化を示した。こうした過程において朝鮮と明治政府、そして対馬藩はそれぞれの利害関係を想定しながら複雑な様相を呈するようになる。

同時期における朝鮮と対馬藩の関係、明治政府と対馬藩の関係、そして朝鮮と明治政府に関する研究は、主に日本の研究者によって主導されてきており<sup>1)</sup>、韓国でも数人の研究者による先行研究がある<sup>2)</sup>。これらの研究は当然、明治維新前後の時期に対馬藩が主導していた日朝関係の改編の試み、明治政府による外交一元化の方針、朝鮮政府による主体的な取り組みについて網羅的に分析している<sup>3)</sup>。但し、同時期に生み出された史料が日本に偏っているためか、従来の研究では主に日本の史料に頼る傾向があると思われる。朝鮮側の史料については、『高宗実録』と『承政院日記』には数少ない断片的な記録しかなく、『東萊府啓録』が重要な史料となる。

本研究ではとりあえず、従来の研究成果を整理し、1868年9月に王政復古通告の使節の派遣に端を発した書契の改ざん論議と朝鮮の対応について検討を行うこととした。ともすれば、従来の研究に対する裁判になりかねないが、なるべく従来の交隣体制を維持しようとした朝鮮の対応に焦点をあて、交渉の始終を検討する。さらに王政復古後、日朝関係の改革を目指していた対馬藩の動きを明らかにする作業として、大修参判使の派遣過程と、彼らが倭館で繰り広げた交渉過程についても検討を行うこととした。このような作業は、これまでの通説を改めて考察することで意義があると考えられる。

- 
- 1) 最も代表的な研究としては、田保橋潔の研究をあげられる(田保橋潔, 1940, 『近代日鮮関係史の研究』上・下, 朝鮮総督府)。同研究は、明治維新の前時期から江華島条約(日朝修好条規)に至るまでの過程を詳細にとりあげている。しかし、同研究の利用に当たっては、史実に漏れと歪曲が多いことを看過してはならない。荒野泰典は家役を中心に朝鮮と対馬藩の関係を把握していると考えられる。つまり、日朝通交の業務を主な内容とする家役は、朝鮮貿易により生み出される利益を保証するものであるため、朝鮮貿易商の利益を藩の存立基盤としていた対馬藩が明治政府による家役の回収措置に対し抵抗したと述べている(荒野泰典, 1988, 『近世日本と東アジア』, 東京大学出版会; 石川寛, 1998, 「明治維新时期における対馬藩の動向-日朝外交一元化と朝鮮対馬関係」, 『歴史学研究』709号, 歴史学研究会; 石川寛, 2001, 「明治維新と朝鮮・対馬関係」, 明治維新史学会編『明治維新とアジア』, 吉川弘文館); 石川寛, 2002, 「日朝関係の近代的改編と対馬藩」, 『日本史研究』480号; 石川寛, 2002, 「明治維新时期の対馬藩政と日朝関係」, 『朝鮮学報』183号, 朝鮮学会; 石川寛, 2003, 「明治期の大修参判使と対馬藩」, 『歴史学研究』775号, 歴史学研究会; 石川寛, 2004, 「倭館接收後の日朝関係と対馬」, 『九州史学』139号, 九州史学研究会などがある。
  - 2) 金・フランスの研究は、明治維新前後の時期から江華島条約(日朝修好条規)に至るまでの交渉過程を全部とりあげている。特にそれまでにあまり研究されてない国史編纂委員会所蔵の宗家文書を紹介している点が注目される(김홍수, 2009, 『한일관계의 근대적 개편과정』,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손승철, 1994, 「1872년 일본의 倭館占領과 朝鮮侵略」, 『軍史』28호, 국방군사연구소; 沈箕載, 1997, 『幕末維新 日朝外交史の研究』, 臨川書店; 현명철, 2003, 『19세기 후반의 對馬州와 韓日關係』, 국학연구원; 현명철, 2010, 『幕末・明治 초기 對馬州 정치사 개관』, 『부산과 대마도의 2천년』, 부경대학교 대마도연구소; 현명철, 2011, 「한·일 역사 갈등의 뿌리를 찾아서」, 『한일관계사연구』46집, 한일관계사학회; 현명철, 2013, 「對馬藩 소멸과정과 한일 관계사」, 『동북아역사논총』41호; 장순수, 2004, 「草梁倭館의 폐쇄와 일본 租界化 과정」, 『일본사상』7집, 日本사상사학회などがある。
  - 3) 玄明詰は最近の研究において、日本の史料の信憑性について疑問を提起し、日本による歴史歪曲を批判した。つまり、総督府発行の歴史教科書『補充教材』及び『教授参考書』を分析し、日本にとって不利な資料は、信頼性に疑問を提起し廃棄されたのに対し、有利な資料は大いに誇張されたと分析した。そして、日本による歪曲した歴史認識が未だ残っていると述べている(현명철, 2011, 「한·일 역사 갈등의 뿌리를 찾아서」, 『한일관계사연구』46집)。

## 1) 大修参判使の派遣

### (I) 新しい図書の鑄造

1868年（高宗5・慶応4）3月、徳川幕府の崩壊により成立した明治政府には未だ、日朝間の外交を管理する能力がなかった。そのため、外国との交際に関連する事務は全部、原則として朝廷で取り扱うものの、朝鮮は昔より往来していた国であるためこれまでと同様に、対馬藩主・宗義達に対し日朝間の通交を「家役」として認めるといふ指示を出した<sup>4)</sup>。対馬藩では、この機会を利用し、大島友之允などを中心に明治政府と交渉し、日朝間の外交体制を改革し、新政府から財政援助を得るために計略をめぐらした。閏4月に対馬藩は、藩主の名義で日朝外交の刷新を求める上申書を明治政府に提出した<sup>5)</sup>。上申書には従来の日朝外交貿易体制を批判した上で、対馬藩は食糧を韓土からもらっており、朝鮮に対し藩臣の礼を尽くすとし、朝鮮側は対馬に対し公作米などをわざと遅らせていること、その他にも朝鮮から図書を受けるなど、屈辱的な形式をとっていること、日朝貿易の衰退により対馬藩が財政難に陥り、防衛力が不足していること、従来の制度を改革し、日本の国威を宣揚し、日朝関係を対馬藩のみにゆだねず全国的に対処してゆくことを主張した。提案の中核は、対馬藩が朝鮮に経済的に頼っているためこれまで「藩臣の礼」を取ってきたし、これは朝鮮と対馬藩の通交関係が「対州の私交」となり、国に恥をかかせることになると批判し、その改革を求めることだった。これとともに経済的に自立できる財政援助を求めた。

こうした主張はすでに1862年以降、対馬藩が取ってきた対朝鮮政策の一貫した立場であり、1864年に大島友之允により提出された建白書と一脈通ずるところがある。自分の建白書を貫徹しようとした大島は、明治政府と交渉を進め、藩主・宗義達の官位を昇進させ、朝鮮政府から発給された図書を廃止し、新政府から与えられた新印を書契に押し、さらに朝鮮において清にしか使わない「皇」、「勅」などの文字を使い、日本の天皇を称そうとした<sup>6)</sup>。さらにすでに『朝鮮進出建白書』でも述べたように、日朝通交体制の変革に対し朝鮮側が強く反発することを予想し、書契が朝鮮に渡される前の1868年10月に対馬藩主をして倭館における撤供撤市など、朝鮮側の措置にあらかじ

4) 『日本外交文書（韓国篇）』245, 宗義達へノ御沙汰書, 朝鮮トノ通交取扱ノ件（明治元年3月3日）。

原文は次の通りである。「今般王政御一身、總テ外國交際之儀於朝廷御取扱被爲在候ニ付テハ、朝鮮國ノ儀者古ヨリ来往ノ國柄、益御誠信ヲ被爲立候御旨趣ニ付、是迄ノ通兩國交通ヲ掌候様家役ニ被命候…（以下、省略）」。

5) 『日本外交文書（韓国篇）』288, 宗義達ヨリノ上書（閏4月6日）。

6) 田保橋潔、『近代日鮮関係の研究』上, 138~143頁。

め備えるようにとお達しがあつた<sup>7)</sup>。

大修参判使とは、王政復古を通告するために朝鮮政府に派遣した使節団を指す。大修参判使については、田保橋潔の『近代日鮮関係の研究』(上巻)の後、多くの研究で同著作がとりあげられている。ところが、これらの研究は『日本外交文書』と『朝鮮事務書』など、外務省史料に依拠していたため、大修参判使に係る対馬藩の行動については把握できなかつた。対馬藩はこのような建白を行う中、王政復古の通告使節の持参した書契について次の三つの点を提起した。

一つは王政復古を通告する書契の文案であり、もう一つは書式であるが、宗義達が「左近衛少将従四位上」に昇進されたことに伴い、「日本国左近衛少将对馬守平朝臣義達呈書、朝鮮国礼曹参判姓公閣下」と定めた。第三に、図書を変更したことである。図書は通交の証として、朝鮮が造り通交者に与えた銅印をいうが、書契とか文引に必ず押すことが朝鮮政府と対馬藩の間に締結された通交の規定だった。対馬藩は朝鮮から発給される図書〔義達印〕の代わりに、日本の朝廷に対し新しい印章を請願した。朝鮮に対し「藩臣の礼」を尽くす数回の儀礼において、対馬藩が最も「国辱」と受け止めていたのが、図書だったためである。朝鮮から発給された図書の使用を中止することで、朝鮮から「藩臣」扱いされる立場を否定し、日本の朝廷から与えられた新印を使用することで、宗氏が日本の朝廷の臣下であることを示そうとしたのだ。その結果、「平朝臣義達章」という新印の鑄造が許可された<sup>8)</sup>。しかし、図書の変更は日朝通交が始まって以来の最大の懸案事項であり、朝鮮が無条件に図書の変更を受け入れることは期待できなかつた<sup>9)</sup>。

王政復古を通告する日本側の書契は二回にわたり送られた。まず、王政復古と図書を変更すること、そしてこの事実を正式に通告するために近いうちに大差使を派遣するという内容を知らせる書簡、並びにこれを正式に知らせる大修参判使が持参してきた書契などである。これら書契は全て左近衛少将对馬守平朝臣義達の名義になっているが、王政復古と図書の変更を知らせる書契は、礼曹大人、東萊釜山両令公宛てに一通ずつ、そして大修大差書契は礼曹参判、礼曹参議宛てに一通ずつ、計4通からなっている<sup>10)</sup>。

7) 田保橋潔, 前掲書, 152~153頁。

8) 石川寛, 2003.5, 「日朝関係の近代的改編と対馬藩」, 『歴史学研究』第775号より引用。

9) 玄明詰は日本による図書変更の通告について「朝鮮の出入国権利を無視する内容」と説明した(현명철, 2011, 「한일 역사 갈등의 뿌리를 찾아서」, 『한일관계사연구』46집, 11頁)。

10) 田保橋潔, 前掲書, 151~156頁に原文が載っている。

このうち、王政復古と図書の変更を通告する書契を例示すると、次の通りである。

日本國左近衛少將對馬守平調臣義達

奉書朝鮮國禮曹大人閣下 季秋遙惟 文候介寧 瞻依良深 告者本邦頃時勢一交邊政  
權歸一皇室 在貴國隣誼固厚 豈不欣然哉 近差別使 具陳顛末 不贅于茲 不佞嚮奉  
勅朝京師 朝廷特褒舊勳 加爵進官左近衛少將 更命交隣職 永傳不朽 又賜證明印  
記 要之兩國交際益厚 誠信永遠罔渝 叡慮所在感佩曷極 今般別使書翰押新印 以  
表朝廷誠意 貴國亦宜領可 舊來受図書事 其原由全出厚誼所存 則有不可容易改者  
雖然即是係朝廷特命 豈有以私害公之理耶 不佞情實至此 貴國幸垂體諒 所深望也  
餘冀順序保裔 肅此不備

慶應四年戊辰九月 左近衛少將對馬守平朝臣義達

同年12月18日、草梁倭館でこの書契の謄本を受け取った倭学訓導・安東峻は、書契で「皇室奉勅」などの語句を使用していること、そして朝鮮が与えた島主図書を廃止し、勝手に新印を押した格別の書契であることを理由に、直ちに斥退（書契受け取りの拒否）することを主張した。しかし、翌日に大修参判使が到着すると、安東峻は倭館で大修参判使正官・樋口鉄四郎と会う。正官は以前と同様に王政復古の概要を説明し、新印を造った理由を説明した上で、先例により使節に対する接慰官の接待を要求した。しかし安東峻は、大修参判使は格外であるだけではなく、書契文中に規定外の文字が多いことを指摘し、直ちに帰還することを求めた。その後、訓導はこの事実を東萊府使に報告し、東萊府使は中央に報告する。これを受け、朝鮮の朝廷では1年余の議論の末、議政府を介して対馬島主の職名を変更し、朝臣と書いたこと、特に格例に反していることなどを改書して呈納するよう責諭し、300年余の約束の本意を守るように開諭し、日本の書契を拒否するように指示した<sup>11)</sup>。

朝鮮としてはこのような対馬藩の要求は受け入れかたい問題だった。日本の天皇がこの類の文字を使用するのを容認することは、中国の皇帝と日本の天皇との対等性を承認することである。その上、朝鮮の国王より上位の存在として日本の天皇があることを朝鮮側が認めるに等しいからである。これは朝鮮の国王と日本国の大軍の対等性の上に維持されてきた17世紀以来の「交隣関係」に終止符を打つ結果につながった。

11) 『日省録』高宗 己巳年（1869）12月13日。

朝鮮が書契の受け取りを拒否することを、対馬藩もすでに認識していた。外交文書の形式が400年の歴史を有する日朝間の外交慣行に違反していることを対馬藩も良くわかっていたものの、それにもかかわらず敢えて大修参判使の派遣に乗り出したのだ。使節派遣直前に対馬藩主が「日朝外交体制における新方式の導入は、従来の方式を一新し、対馬藩と朝鮮政府の間に維持されてきた外交関係を破棄するに等しいことだ。したがって、朝鮮側は対馬藩との関係断絶、貿易停止の措置をもって応酬するかもしれぬ。たとえそうであっても、藩内一同一致協力して難局に立ち向かい、あくまでも初志貫徹につとめるように<sup>12)</sup>」との趣旨の布告を領内に出したことから明らかである。

当時、訓導・安俊卿の名義で送られた2通の覚書には、朝鮮で問題になった語句に対する詳細な理由とともに朝鮮側の姿勢がよく表れている。

## 覚書

### 一. 左近衛少将

功により、瘤をつけたりも消したりもできるが、本国で行わなければならない。交隣関係には不易之規があるので変えてはならないのにもかからわず、このように数文字を加えることは到底許されない。わが国の礼曹参議はもともと右侍郎であり、……以前より用いたことがないが、貴国で勝手に増減をすることはできない。前例に反する。

### 一. 平朝臣

これまでの書牒を見ると、たとえ高位の官職にある者とも官職名が姓と名の間にあるのを見たことはない。これは格外である。

### 一. 書翰押新印

貴国は封疆之臣で、もともと印章は、本国において行ってきた。したがって、貴国では必ず我が国が与えた印章を書契に用い、憑信の意を示そうと法規を変えたことはないが、今更他の印章を用いることは決して受け入れられない。

### 一. 礼曹大人公

公とは、君公の称号であり、五等侯伯の爵として大人よりも格が下ではないが、大概書契の称号としては大人を三百年間使ってきたが、今更いきなり公を

12) 『藩庁毎日記』 明治1.10.8.

称することは格外であるので、当然のことながら前例に従うべきである。

#### 一. 皇室

皇は天下を統一し、全世界を統治する称号である。たとえ貴国でこの語が使われていようとも貴国と我国間に往来した書契の中では交隣以来、見たことのないのだ。このような字句を用いることは決して許されない。

#### 一. 奉勅

勅は天子の詔令であり、たとえ貴国でこの語が使われていようとも交隣以来、用いたことのない文字であるので、又論ずる必要もない。

#### 一. 厚誼所存有不可容易改者

貴州で代々に我印を受けたことは交誼によるものであるが、これは私を以て公を害する語句であるので、私的に書契に押しはならない。これは貴国の典州之官が私的に隣国から印章を与えられることに等しいところ、貴国のこととまったく同じだ。

一. 大抵両国の約条は変えられない文字であるだけに、書契の往復は漫然と行っているものではなく、一言一字規格と異なれば受け入れられる。百年待っても徒に隣好を傷つけるだけで、ものごとの実現は到底期待できない。貴国にもまた、道理をわきまえている者がいるとはいえ、結局気づかないことは実に慨嘆の至りだ。

記事11月

以上の内容から見ると、当時、朝鮮としては両国の友好を継続するには、従来と同様に交隣体制を原則とし、これに違反する場合には、交渉できないという基本姿勢を貫いてきたとみられる。つまり、日本が以前と同様に交隣関係を望めば、両国間の約条に従い数百年間も続いてきた従来形式を取るべきだということが朝鮮の対場だった。たとえ日本の国制が変わったとしても、それはあくまでも日本の事情に過ぎないという姿勢を貫き、対馬藩抜きで外務省の官吏と交渉することは、許可できないという姿勢を示したのだ<sup>13)</sup>。そして、このことは、日本に対する根強い不信感と西洋に対する危機感をもたらし、日本と欧米勢力とが通謀し、朝鮮を侵略するかもしれないとい

13) 孫承詒はこのような朝鮮政府の立場について「従来から行われてきた交隣体制の形式による時こそ、両国は勿論のこと、東アジアの伝統的な国際関係が維持できるという対外政策の基本的な考え方を示したもの」と評価した（『朝鮮時代 韓日関係史研究-交隣関係의 허와 실』, 2006, 경인문화사, 284頁）.

う不安感の増大につながった<sup>14)</sup>。そのため、交隣体制のもとに前例を無視した明治政府の一方的な通告は、朝鮮側の強い反発を招き、従来の交隣体制を守らない以上、妥協もできない状況に陥った。一方、このような事実が日本に伝わると侵韓の口実を探していた明治政府の対韓政策は、強硬派の征韓論の勢いを強めることになり、すでに変質し始めた交隣体制は、明治政府による一方的な書契書式の変更とその受け取りをめぐる議論により、ますます崩壊していく。

対馬藩は徳川慶喜が将軍についてたことを朝鮮に伝える嗣位参判使正官として樋口鉄四郎を内定していた。しかし1868年閏4月26日に嗣位参判使の朝鮮への派遣を中止し、その代わりに樋口を王政復古を通告する「参判使」に任命することを決定する。それと同時に大浦友之介を封進に、朝鮮関係の業務において特に功労があると評価された川本九左衛門を都船主に任じた。

上京中であった藩主・宗義達が対馬藩へ帰藩してきたのは、8月20日のことだった。9月7日には、再び人事を改編し、王政復古を通告する使節団の名称を「大修使」と決め、前例に則ってこの事実を朝鮮に伝える先問使を先に派遣するで決定する。先問使は新しい図書を鑄造したこととその内容を知らせ、これに対する朝鮮政府の承認を得るための臨時使節であった。引き続き、大修使の都船主に任命していた川本を幹事官〔幹事裁判〕に再任命し、先問使の資格として朝鮮に派遣することを決めた。当初、先問使・川本九左衛門は9月29日に朝鮮に向けて出発する予定だった。ところが藩内の状況が平穏でない上に、今回の交渉問題により人心が動揺する恐れがあるため、派遣が延期された<sup>15)</sup>。

先問使は10月2日に倭館に到着し、王政復古を知らせるための大修参判使が近々派遣され、この時に新しい図書を持参した幹事官も同行すると伝えた。26日には、先問使と朝鮮の任官（訓導と別差を言う）が会い、大修参判使が派遣される予定である旨を告げ<sup>16)</sup>、11月朔日に帰国の途に就いた<sup>17)</sup>。幹事官と大修参判使の持参した書契は、10月下旬から11月の間に作成されたもので、これと同時に図書も鑄造された。幹事官の持参する書契は計6枚が作成されたが、1枚は箱に入れて朝鮮に送り、残りのものは館守に預けることにした。次いで大修参判使の書契には新しい印章〔平朝臣義達章〕が

14) 荒野泰典, 1989, 「明治維新期の日朝外交体制一元化問題」, 『近世日本と東アジア』, 東京大学出版会, 280頁.

15) 田保橋潔, 『近代日鮮関係の研究』上巻, 1940, 朝鮮総督府中枢院, 152頁.

16) 『館守毎日記』 明治1.10.26

17) 『館守毎日記』 明治1.11.1

押されたが、幹事官の持参した書契には旧印（義達印）が使用されていた。幹事官の持参する書契としては、礼曹と東萊府使・釜山僉使宛ての書契2通が、大修参判使は礼曹参判、礼曹参議、東萊府使・釜山僉使宛ての書契3通と各別幅4通が用意された。

大修参判使一行は12月11日に対馬を発ち、12月19日に倭館に到着した<sup>18)</sup>。樋口は到着後、東館と西館の館員全員を集めた。館守まで出席する、この席上で今度は大修使が持ってきた朝命を朝鮮に伝えようとしているが、これは国にとって非常に大事であると説明した。そしてこれまでの「宿弊」を一掃し、草梁倭館を一新するなどするために東・西館全員が奮闘してくれるようにと要請した<sup>19)</sup>。

## (2) 倭館交渉と書契問題

朝鮮に派遣された各種使節に対しては、東萊府で使節の格に応じて接待するのが恒例となっていた。先例によると、概ね朝鮮側の両訳〔訓導と別差〕との初対面、東萊府使と釜山僉使の出席する宴享儀（茶礼儀とも言い、この時に書契が伝えられる）、封進宴（進上品と下賜品の交換）、書契に対する朝鮮の回答書契の伝達、帰国の手順をとっていた。

川本幹事官もまた、12月18日に入館した訓導・安東峻と別差・李周鉉に書契の謄本を渡し、書契の受け取りを要請した<sup>20)</sup>。大修参判使正官・樋口も同じく翌年の正月4日に訓導・別差と初対面をし、都船主・薦田をして今回の使節は前例にない使節であるが、旧例にとらわれず接待を受けられるように尽力するよう求めた。しかし、朝鮮側は、川本がもたらした書契〔裁判書契〕の違式を理由に受け取りを拒否した。書契が違式だと判断した3つ点は、次の通りである。第一に、宗氏の職称が「左近衛少将」に変わったこと、姓の下に「朝臣」という2文字があること、第二に、文中に「皇」とか「以私害公」など不適切な用語が使用されていること、第三に朝鮮が与えた図書ではなく新しい図書を使用したという通知だった。

新しい図書の使用について「偏二天朝を被重、公私之御弁別を被爲正候御主意」としていた対馬藩は、これが「是係朝廷特命、豈有以私害公之理耶」だと朝鮮側に知らせた。しかし、朝鮮側の立場は違っていた。日朝間の通交において対馬藩は代々に朝鮮が与えた印章を用いてきたが、これは公によるものであり、私によるものではなか

18) 『館守毎日記』 明治1.12.19

19) 『館守毎日記』 明治1.12.24

20) 田保橋潔, 昭和15年(1940), 『近世日鮮関係史の研究』 上巻156頁, 朝鮮総督府中枢院。

った。新印の使用は公であるという対馬藩の主張は、朝鮮にとって全く驚かざるを得ないという主張だった。このような書簡を受け取った訓導・安東峻は、「以私害公という用語、図書の返却の説に至っては、不覚にも開いた口が塞がらず、舌が上がったまま下がらない」（2月29日）と強く反発している<sup>21)</sup>。対馬藩の主張は、明治政府が外国との交際を主管するが、朝廷から「家役」として日朝通交権の委任を受けた現在の立場が「公」によるものであり、「藩臣の礼を取る」という過去の通交関係のあり方は改革せねばならない対馬藩の「私交」によるものあるということだった<sup>22)</sup>。文禄・慶長の役以降、続いてきた平和的な交隣関係を「私的な関係」だったと否定し、新しい関係を一方的に強いることは、260余年間維持されてきた己酉約条を一方的に破棄し、朝鮮に対し服属を要求することに他ならなかった。さらに、朝鮮が書契の受け取りを拒否すると、武力を以て膺懲する意図のもとに、書契の受け取りを強いていた。これに対する朝鮮側の反応は、「今、日本との間で和を失うことは長策ではないが……日本が耐えられず戦争を引き起こせば、罪は日本にある。すると、国力の限りを尽くして戦うしかない」（3月13日）との覚悟を示している。朝鮮政府は従来友好関係と己酉約条の遵守を強調し、書契の修正だけを求めており、戦争の口実を与えていない。また、朝鮮は倭館に滞留していた対馬の官吏らを説得するとともに、釜山鎮を中心に水軍の訓練を行い、これを見せることで下手な挑発を抑制した。

裁判書契（先問書契）をめぐる交渉が膠着状態に陥ると、倭館側は方針を変える。まず、王政復古を通告する大修参判使の書契の受け取りを要請し<sup>23)</sup>、これと同時に館守の茶礼儀も要請した<sup>24)</sup>。1867年3年4月に館守・番縫殿介<sup>25)</sup>が着任したものの、書契問題の解決の目処が立たない中、茶礼儀は延々と延期されていた。この時点で茶礼儀を求めたのは、茶礼儀に出席する東萊府使と釜山僉使に、大修参判使の書契の受け取りを談判するためであった。

新任館守のための茶礼儀は、6月15日に開かれ<sup>26)</sup>、番縫殿介は、その席で東萊府使の鄭顯徳に対して大修参判使の書契を受け取るよう議政府に上申してほしいと要請し

21) 현명철, 2003, 『19세기 후반의 대마주와 한일관계』, 국학연구원, 188~189頁より引用。

22) 石川寛, 註1) の論文『明治期の大修参判使と対馬藩』より引用。

23) 朝鮮と対馬藩間の交渉が難航した理由について沈箕載氏は、基本的に日本側の一方的な書契違式に起因すると見ている。さらに、東萊府と倭館いずれも中央政府と対馬藩の方針により大きく規制されていたため、先問書契及び大修使書契の受理交渉が壁にぶつかったと分析した（沈箕載, 平成9年, 『日朝外交史の研究』, 臨川書店, 90頁参考）。

24) 『館守毎日記』 明治2.3.14

25) 番縫殿介は104代館守で、慶応3年（高宗4）4月朔日に赴任したが、この時は二度目の赴任だった。初任は文久3年（1863・哲宗14）4月17日。

26) 『館守毎日記』 明治2年6月15日

た。東萊府使は、大変困惑したものの、茶礼の執り行い事実を議政府に報告する際、この要請も報告すると約束した。6月28日に東萊府使は、約束どおり、館守の要請を議政府に報告したが<sup>27)</sup>、議政府の答申はなかなか得られなかった。倭館側は、訓導と別差に対しても返答書を催促し、特に、9月29日には、再び東萊府使と釜山僉使に会って議論するよう要請するとともに、お二方が倭館に来られるか、それとも、倭館側から東萊府まで訪ねていき談判するまでだと話した<sup>28)</sup>。

議政府の返書は、10月下旬になって届き、東萊府使は、議政府の方針に従って、訓導に対し伝令書を書いてくれた。訓導は、24日に入館し、倭館側に伝令書を提示するとともに、書契に記される幾つかの字句と印章を変更した問題によって、たとえ、倭館に10年滞在したとしても、接待することは許諾できないため、使節は急ぎ帰還するように伝えた<sup>29)</sup>。この返答書について倭館側は、25日に再び訓導を呼び、別宴を開いて議論を繰り返した。この席で訓導・安東峻は、書契の文章と新しい図書は決して許容することができないので、「変通（書契の改ざん）」が必要であるという意見を明らかにした。すなわち、大修参判使の書契に記された「皇」の字を、「朝廷」に変え、旧印と旧式に従うのであれば、迅速に書契を受理することができ、かつ、裁判書契も不必要になるという意見であった。

倭館側は、これに対し、今回の問題は、すべて「朝廷の命令」であるため、対馬藩が自ら書契を変えることはできないと申し答えた。これに対し訓導は、「書契の受け取りに関しては、倭館が書契を変更するか否かにかかっている」とし、再度説得を行った<sup>30)</sup>。その後、倭館側は、館員全員を集めて議論を繰り返し、11月5日に再度訓導を呼び、使節を拒否する理由につき、詳細に書かれた文書を作成してくれるよう要求した<sup>31)</sup>。訓導は9日に、使節拒否の理由を書いた2通の文書を伝達した〔任官覚書〕。「任官覚書」には、朝鮮側が「左近衛少将」、「平朝臣」、「書契に押された新印」、「礼曹参判公」、「皇室」、「奉勅」という言葉を違式と判断する理由と、「以私害公」に対す

27) 『館守毎日記』明治2年6月29日

28) 『館守毎日記』明治2年10月9日

29) 『館守毎日記』明治2年10月24日, 同年11月20日, 28日

30) 石川寛は、書契の改ざんを求めた訓導の意見を私見とみなし、大修参判使一行が撤収せずに、書契の改ざんを通じて問題を解決しようとしていた訓導の意見は、その後、対馬藩の方針に甚大な影響を与えたという（『明治期の大修参判使と対馬藩』4頁）。しかし、訓導の意見を私見とみるには無理があった。書契が何であるか、そして、書契の改ざんが何を意味するのか、誰よりも熟知していた訓導が、このように重要な外交問題に対し、個人的に解決の方法を提示したとは見難いためである。史料に記録がなく、確実な内幕については分からない。しかしながら、大修大差使の書契改ざんの問題に関して、漢陽から一種の処理指針を得たのではないかと推測することはできる。

31) 『館守毎日記』明治2年11月20日

る反駁の理論に関して纏められていた。事態を解決する目処がたたなくなると、倭館側は、都船主・薦田が一時帰国し、今後の措置について藩の指示を得ることで決定した<sup>32)</sup>。

当時、対馬藩では、皆あせりを隠せない状況であった。その理由には、次の事柄が挙げられる。一つ目に、大修参判使は、1609年の己酉約条と比較されるほどに、その使命が非常に重大であったという点である。それにもかかわらず、単に旧例に反するという理由だけで、書契の受け取りを拒否するのであれば、対馬藩は、明治政府に対しての威信を失ってしまうことになるが、これは、対馬藩における重大な失策に当たるといえる。二つ目に、対馬藩は、旧幕府以来の慣例に則って対朝鮮外交を家役として認められ、これと同時に、外交の刷新案を上申し、今回大修参判使がその実行を公約していた。対馬藩が明治政府に財政の援助を求める際にも、表面上は、日朝国交の刷新を理由に挙げていた。これにより、万が一、大修参判使の交渉が失敗に終り、対朝鮮外交を刷新するという公約の履行ができなくなれば、家役である日朝通交権も失い、その結果、財政援助も期待できない状況になるため、気を揉まずにはいられなかったのである。

対馬藩が最も懸念していたことは、以前、訓導の安東暎が秘密裏に浦瀬最助に話していたように、朝鮮政府が規定外の使節という理由で、大修参判使の書契を受け取らずに、慣例的な手段を用いて公作米・公木（上質の朝鮮木綿）の支給を拒絶するものであった。こうなると、対馬藩は、食糧調達の道が閉ざされてしまう。これとともに、明治政府から対朝鮮外交の刷新を進めないという理由により、財政の援助さえも拒否されてしまえば、経済的に破綻に至るであろうという危機感であった<sup>33)</sup>。

## 2) 八送使と差倭

図書と書契を変更する問題は、大修参判使が単独で決定することのできる問題ではない。対馬藩では、定期の使節である八送使と臨時の使節である差倭を朝鮮に派遣していたものの、このような様々な使節らも図書を押しした書契を持参し、朝鮮へと向った。大修参判使からはじまった図書と書契の問題は、八送使と差倭を含む使節全体の問題であった。

32) 『館守毎日記』明治2年11月18日

33) 田保橋潔, 昭和15年(1940), 『近世日鮮関係史の研究』上巻, 朝鮮総督府中枢院, 167頁.

## (1) 八送使の図書問題

対朝鮮貿易は、対馬藩から派遣される各種送使と不可分の関係にあった。すなわち、送使が倭館において執り行った儀礼には、「進上」（1635年以降からは封進へと改称）と「回賜」があり、これに付随して公私の貿易が行われた。このような儀礼の手順は、対馬藩が朝鮮の「藩臣」という事実を確認する形式的な過程であったとみることができる。そのため、対馬藩は、歳遣船（八送使）の派遣について、「藩臣の礼」を尽くす「大州の私交」として認識し、廃止を主張していたのである。勿論、このためには、朝鮮貿易商の利益に代わる財源の確保〔財政援助〕が必要であった。しかし、明治政府では、1868年に対馬藩が要請していた援助の要求を保留している状態であった。このため、援助が実現するまでは、八送使を通じた貿易、つまり、朝鮮から得られる物資が必要不可欠であったという現実において、対馬藩の悩みの種であった。

当初、対馬藩の内部では、大修参判使が「公命」を伝達する使節であるため、新印を使用し、「御私交之八送使」には旧印を使用しようという意見があったという<sup>34)</sup>。これは、『公命は新印、私交は旧印』とし、一旦公私の区別を明確にしようという意味が含まれているように思われるが、実際に決定となった方針は、すべて新印を使用するというものであった。新印を使用する以上、八送使の派遣は、新印使用を知らせる幹事裁判と同様の結果をもたらすほかなかった。そのようなわけで、1869年の八送使の派遣が遅延せざるを得なかった。財政援助が実現したのであれば、話は別だが、貿易の利潤に代わる財源の確保が不透明な状況において、八送使派遣が中断されると、対馬藩は、すぐさま経済的な困難に直面することとなった。朝鮮産の米〔公作米〕の輸入が中止されると、対馬藩においては、物価が下落し、市中の食糧在庫も底をついた。藩が危機に直面すると、藩士らの中には、上京中であった藩主に対し、飢饉問題について直訴をする者も出てきた。藩主が不在の中、1868年の対馬藩は、非常に深刻な飢饉に見舞われていた。

このような状況において、一旦旧印で八送使を派遣しようという動きが自然に起こった。結局、対馬藩では、評決を経て、一旦旧印を使用した歳遣船派遣を決定し、特使を江戸に向わせ、上京中の藩主の意向を確認することにした<sup>35)</sup>。藩主の宋義達は、

34) 石川寛, 2003年5月, 「日朝関係の近代的改編と対馬藩」5頁, 『歴史学研究』第775号.

35) 『藩庁毎日記』明治2年7月25日

10月19日に自らの意向を明らかにしたが、「大修使の交渉に対する許可の有無の返答がない中、印章のために礼儀に背くことは、時宜にそぐわないため、八送使と吹嘘等にまず先に旧印を使用するよう指示する。」という通達が対馬藩へと伝達された<sup>36)</sup>。要するに、時宜にかなった文引〔吹嘘〕等は、一旦旧印を用いて八送使を派遣するのが良いという意見であった。但し、藩の目標としては、あくまでも「これまでの間違った慣行を正し、国家の恥辱をそそぐこと」にあるという確約を定めた<sup>37)</sup>。こうして、10月21日に、貿易は日本朝廷と無関係な大州での問題であるため、書契と吹嘘に旧印を押して使節を派遣するので、良き計らいをして欲しいという意味で、諭知使の阿比留通を派遣することとなった。阿比留は、11月18日に倭館へと渡り、任官〔訓導・別差〕に対して諭知文を伝達した<sup>38)</sup>。これに対して訓導は、書契に旧印を押すことは当然のことであり、大修使の書契についても、急ぎ旧約どおりに修正せよと返答した。

紆余曲折を経て、諭知使を派遣することにより、滞っていた1869年度分の八送使の派遣環境が整った。歳遣第1、2、3船は、12月一日に、以酌庵送使と歳遣第4船は、翌年の睦月11日に朝鮮に渡ることができた。ところが、彼らは正式な使節として認められ接待を受けるには、半年の期間を要した<sup>39)</sup>。

## (2) 八送使の書契問題

差倭もまた、書契を持参しなければならず、正式な使節として認められた後に、接待を受けられるという点では、八送使と同様であった。入送の再開のためには、迅速に朝鮮政府と妥協点を見出す必要があった。館守の番縫殿介が、訓導と妥協した結果、対馬藩側が「朝臣」という二文字を削除すれば、「左近衛所蔵」の使用について、訓導が斡旋してみるという合意点を導き出した<sup>40)</sup>。この問題を藩と協議するため、阿比留は、1870年(高宗7・明治3)2月14日に一時帰国することとなった<sup>41)</sup>。阿比留の報告を

36) “大修之御用諾否不及返答中、御印章之故を以是より非礼を御開被成候段、時宜不可然義二付、八送使吹嘘等二至、先御旧印倒用被成候段尊慮被仰出候”の原文は、田保橋潔、昭和15年(1940)、『近世日鮮関係史の研究』上巻、朝鮮総督府中枢院、117頁より再引用した。

37) 原文は、「舊來之謬例ヲ被正、御國辱被雪候」であり、注29)の史料より引用する。

38) 『館守毎日記』明治2年11月18日「歳遣船之義者元ト対州限貿易ニ依被差渡候使者柄…」。

39) 石川寛、2003年5月、「日朝関係の近代的改編と対馬藩」、『歴史学研究』第775号、11頁。

40) 金・フンスは、この合意を「大修参判使の書契」と「朝臣」の拒否を通じて、対馬藩を明治政府と分離し、その代わりに、対馬島主の昇進は認め、朝鮮から離脱することを防ぐために導き出したものであると分析した(김흥수, 『한일관계의 근대적 재편과정』, 2009,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한국문화연구총서 34, 175頁.)。

41) 『館守毎日記』明治3年2月14日

受けた対馬藩は、「朝臣」という文字を削除することを決定し、3月13日まで、1869年度第1船の書契から第17船の書契、以耐庵送使の副書、告還書契等の改ざんを終えた<sup>42)</sup>。これら改ざんのなされた書契は、国分建見が持参し、4月7日に倭館へ渡った<sup>43)</sup>。倭館では、訓導と迅速に議論を行った結果、4月15日に東萊府使が議政府に状啓を啓上した<sup>44)</sup>。

この時、対馬藩主においては、漂差使に関しても、旧印を用いて派遣するという方針を倭館に伝えた<sup>45)</sup>。番縫殿介は、大修使の問題は、朝廷がいかなる指示を下すのか、小生には答弁しがたいものの、そもそも八送使は対馬藩の貿易であるので、各送使に関しては、迅速な接待を求めると要請した。

ところが、この時、対馬藩に対する朝鮮政府の不信感をさらに増大させる二つの事件が起こった。一つは、5月3日に、独逸（ドイツ）の軍艦ヘルタ（Hertha）号が釜山港に入港したが、対馬藩の通訳、中野許太郎が、この船に乗船していたことが問題となった。ヘルタ号は、日本の外務省から許可を得て中国、四国、九州地方の沿岸の視察を目的として航海している最中であつた。釜山港に入港した目的は、朝鮮と海難救助条約を締結するためであつた<sup>46)</sup>。この要請に対し、5月4日早朝に、訓導と別差は、館守に朝鮮における攘夷の方針について知らせ、対馬島人が踏襲した事実について問う東萊府使の書簡を伝達しながら、ヘルタ号の即時退却を求めた。ヘルタ号は、抗議する意味で空砲を発射しながら、午後2時頃に撤退した<sup>47)</sup>。朝鮮朝廷は、この事件を日本が西洋人と共謀した事件と考え、対馬藩主に対して嚴重に抗議する一方、再発防止を要求する書契を送ることに決定した<sup>48)</sup>。

もう一つの事件は、書契の受け取り問題として、訓導と浦瀬最助が会談をしていた中、朝鮮政府が引き続き書契の受け取りを拒否すれば、明治政府が軍隊を送るかも知れない、と言及した浦瀬の発言が問題となった。浦瀬は、5月13日に、訓導の任所において「今後も大修参判使の交渉において妥結の見込みがなければ、対馬藩主の辞職と

42) 石川寛, 2003年5月, 「日朝関係の近代的改編と対馬藩」, 『歴史学研究』第775号, 12頁.

43) 『館守毎日記』明治3年4月7日

44) 『館守毎日記』明治3年4月17日

45) 『館守毎日記』明治3年4月7日

46) 『東萊府啓録』1870年5月5日

47) 『東萊府啓録』1870年5月5日

48) 『承政院日記』1870年5月12日 (国史編纂委員会, <http://sjw.history.go.kr/main/main.jsp>)

議政府啓曰, 倭館所泊異樣船, 聞即退去矣, 此夷之倏往倏來, 已是叵測之甚, 而第其五倭之同騎一船, 現有紹介之跡, 且中野爲名者, 以會住和館之人, 句引洋船, 肆然來泊者, 究其情, 極爲痛惋, 館守倭處, 雖有任譯之責論, 日後之慮, 難保其必無, 將此顛末, 修書契下送萊府, 仍令轉致對州, 以爲嚴辭詰責之地, 凡於倭情, 奏聞上國, 即定例也, 以此意撰咨, 入送, 何如? 傳曰, 允。

処罰を受けることは勿論のこと、国使が直接軍隊を率いて朝鮮国王との面談を試みるであろう。そうなれば、戦争になることもあり得る。」と訓導に圧力をかけた<sup>49)</sup>。

二つの事件には相互関連性があると判断した朝鮮政府は、対馬藩に対する不信感をさらに募らせることとなり、八送使に対する接待を許すことはできないと考えるようになった<sup>50)</sup>。しかし、軍隊を派遣するかも知れないという圧力が功を奏したのか、倭館での度重なる説得が効果があったのか、朝鮮政府は、7月4日に八送使及び漂差使の茶礼儀を開き、公作米の支給を再開するという旨の返答書を倭館に送った<sup>51)</sup>。こうして、1869年分の歳遣第1船から第4船送使、以酏庵送使の茶礼儀が催され、8月以降には、1870年分の八送使と漂差使が順次来朝することとなった<sup>52)</sup>。彼らが持参していた書契の書式は、「日本国左近衛少将对馬守平義達奉書 朝鮮国礼曹大人閣下」で統一されており、返答書は、「日本国左近衛少将对馬守平公閣下」となっていた。幹事裁判と大修参判使を除く八送使と各種差倭の書契問題は、こうして一段落することとなった。

### 3) 吉岡使節団と大修参判使

大修参判使書契の受け取り拒否の後、日朝間の交渉は、非常に混迷した状態に陥った。この頃から、明治政府の外務省は、宋氏が管掌していた対朝鮮外交とは別に、朝鮮への独自使節派遣を検討し始める。その背景には、欧米列強による朝鮮進出への不安感と、宋氏に対する不信感が作用した結果であった<sup>53)</sup>。そうして、外務省は、1870年5月に、対馬藩主の宋氏の職任を解き、9月に佐田白茅、森山茂、吉岡弘毅等の外務省官吏を派遣して、直接対朝鮮交渉を担当させることにした。しかし、吉岡使節団の派遣は、対馬藩の意図とは異なった政策であった。対馬藩の構想は、まず、大修参判使が改ざんされた書契により、王政復古を知らせるものであり、外務省の官吏が突然朝鮮に来訪したとしても、朝鮮はそれに応じないというものであるとみた。すなわち、外務省の官吏が、朝鮮と直接交渉に乗り出すためには、事前に、朝鮮側の意向を打診し、交渉を始めるか、若しくは、大修参判使を撤回させ、対馬藩の対朝鮮交渉を

49) 訓導と対馬藩の通訳浦瀬最助の会談内容は、金フンスの前掲書を通じて詳細に紹介されている。

50) 『館守毎日記』明治3年6月21日

51) 『館守毎日記』明治3年7月4日

52) 詳細は、石川寛 2003年5月、「日朝関係の近代的改編と対馬藩」、『歴史学研究』第775号6~9の表1と表2に整理されている。

53) 石川寛は、外務省が館員を派遣して直接交渉に乗り出すことにより、対馬藩（宋氏）は、「家役」の辞職と大修参判使の撤回を考慮することになったという。要するに、日朝関係において「公」の立場では退く意思をみせたものであると評価した。〔日朝関係の近代的改編と対馬藩〕、『歴史学研究』第775号12頁〕。

重視した後に、外務省官吏が交渉に臨まなければならないと判断したものである<sup>54)</sup>。結果は、対馬藩の判断が正しく、朝鮮は、外務省官吏の接待を拒否した。

外務省官吏における朝鮮派遣の知らせを知った対馬藩では、3箇条の伺い書を外務省に提出し、藩としての対応について質疑した<sup>55)</sup>。

朝鮮と直接交渉に臨んだ外務省は、外務卿の澤宣嘉を通して、当時倭館に駐在していた大修参判使・樋口鉄四郎に対し、次のような対朝鮮交渉の指針を下達した<sup>56)</sup>。

一、朝鮮は、接洋旧教の国であるため、官員を派遣して親交を求めることは当然である。しかし、その国に事情があるとするため、暫し方策を講じ、かつ、その国の危急さを懸念する意を表明し、その害から逃れることを勧めることにより、隣接国の親情を表すべきである。

一、米国とは長らく国交がなかったとしても、すでに政府と公然たる友好を結んでいる。しかし、朝鮮は、政府と未だに友好を結んでいないため、日本の公的な立場は、米国を援助することには義があり、朝鮮を援助することは道理に反する。そのため、朝鮮と日本が友好を結ぶに先立ち、事が生じることとなれば、米国が行う事を、敢えて妨害することはできない。米国との友好を絶つことは適切ではない。

一、朝鮮は、接洋旧教を結んでいるため、さらに交易を推進すべきである。しかし、米国も公的な友国であるので、必要なことは、我々と共に行うことができる。日本において、両国の関係はこの通りである。よって、万が一、某国が我々に請願してくるのであれば、直ちに、友好を表し、その請願するところを充足すべきである。よって、今の形勢に乗じ、支障のないようにするべきである。

一、朝鮮の意は、今の米国と相反するものの、我々は、今の米国と意を共にしななければならない。しかし、突如、開国の意を表せば、嫌疑から逃れることができず危機に陥ることになり害となり得るであろう。慎んで、米国には信義を守り、朝鮮においては、嫌疑を持たれ危機をもたらす事がないようにするべきである。

54) 石川寛, 2003, 「日朝関係の近代的改編と対馬藩」, 『歴史学研究』第775号, 15頁より引用。

55) 田保橋潔, 前掲書, 244頁。

56) 原文は、三宅英利著 孫承喆訳, 1991, 『近世韓日関係史研究』, 理論と実践, 310頁より再引用。

一. 今の形勢は、朝鮮が拒否するものの、長くは続かないであろう。必ず、開国せざるを得なくなるため、将来良き判断を下すべきである。以上が米国と朝鮮に対する我々の立場であるので、軽はずみは措置を講じ、後に憂いを招来することがないようにするべきである。

明治4年辛未3月外務卿

この方針が意味するのは、朝鮮とはすでに数百年に亘り交隣体制による友好関係を維持してきた。それにもかかわらず、両国の間に条約が締結されていなかったため、米朝修好通商条約を結ぶ米国との関係が優先するというものである。また、近い将来に、朝鮮が開国することを予想し、その際に、日本が不利な状況に置かれないよう備えよ、というものである。これは、明治政府の公式的な立場が、すでに西欧の近代国家の外交原理に則っていることを示すものとして、従来の交隣体制を明白に否定する立場に立っていたことが伺える。交渉を進めても、朝鮮政府の立場に変化はなく否定的であった。議政府からは、書契を修正せよ、という指示が下されただけで、辛未洋擾によって両国の交渉は再び中断するに至った<sup>57)</sup>。

1872年1月、明治政府は、対馬島主の宋義達を外務大丞に任命し、朝鮮へ派遣する計画を立てた。次いで、大修大差使の樋口鉄四郎を帰国させ、守山茂と広津弘信をもって対馬島主が廢藩置県により解職されたという事実と、その任務を明治政府において行うという事実を知らせ、かつ、交渉を進めた。しかし、東萊府使の鄭顯徳は、この使臣が旧例にも存在せず、かつ、倭使が蒸気船に搭乗することは、外国船舶（異様船）として誤解され易いため、接待することができないと拒絶した。日朝間における交渉が、朝鮮側の拒否により膠着状態に陥ると、外務省の官吏であった相良正樹は、1872年5月26日、館守の深見正景と館員らを率いて、倭館を抜け出し、東萊府使に対して直接交渉するよう要請した<sup>58)</sup>。しかし、東萊府使は、このような倭館からの欄出（逸脱）行為に対する責任を問い、館守の職務を停止させ、8月には、一代官をもって館守の仕事を代行させるよう、文書を通じて正式に通知した<sup>59)</sup>。このように、倭館と東萊府との間の関

57) 原文は、三宅英利著 孫承喆記 1991、『近世韓日関係史研究』,理論と実践,310頁より再引用。

58) 木村直也,2004,「慶応3年の欄出について」,『8~17世紀東アジア地域における人・物・情報の交流』,平成12年度~15年度科学研究費補助金研究成果報告書,363頁。

59) 玄明喆は、この逸脱事件について、「韓日関係において対馬島の地位が急速に失われていく時点に起こった対馬島の最後の行動」であると評価した(현명철,2003,『19세기 후반의 对馬州와 韓日關係』,국학연구원)。

係が悪化の一途を辿っていた頃、明治政府では、その間推進してきた、所謂、外務省の「倭館接收」に踏み切るに至る。5月28日には、太政官の指示により、草梁倭館の事務を外務省の所管へと移管し、倭館に在勤していた者のうち、外務省職員ではない旧対馬藩士らの帰国を決定した。漂流民の処理についても、長崎県へと移管した。

すでに、1871年7月に、宋氏が管掌してきた家役としての日朝外交を中断させていた明治政府は、日朝外交に関するあらゆる権限を掌握することとなり、1872年一月からは、その機能が停止している状態であった<sup>60)</sup>。当時、倭館に新たに派遣され交渉を管掌していた外務省官吏の守山と廣津は、倭館の対馬藩館員をすべて召還し、外務省において直接役人を派遣するという方針を伝えた。そして、1872年一月からは、具体的な方案を模索しながら、6月に、次の三つの項目を明治政府に対して上申した<sup>61)</sup>。

一つ目は、倭館において、旧対馬藩の館員を全員召還し、外務省職員に置き換える場合、両国の関係が極度に悪化することが懸念される。このため、実際に、倭館接收に踏み切るとしても、この事実は秘密裏に推し進め、概観上は、対馬藩所管の昔の姿そのままのものに映るようにすること。二つ目は、文引は既存の図書をそのまま用いること。三つ目は、旧対馬藩の負債を清算することなどであった。これに対し、外務省は、一つ目と二つ目の条項は、そのまま許可し、三つ目の条項に関して、大蔵省と協議することとした。こうして、明治政府は8月18日に明治天皇（睦仁）の勅書をもって、外務大丞・花房に対して、次の事項と共に「倭館接收」を指示した<sup>62)</sup>。

- 一．草梁公館の館舎と代官所は、従前のとおり据え置くこと
- 一．不必要な士官と部外者等は、全員帰国させること
- 一．商人らは、自ら判断させること
- 一．勘合印は、旧式のをそのまま使用すること
- 一．歳遣船は、廃止すること
- 一．歳遣船の物品遅滞分（1872年当該年分）は、宗家の負債となっているため、支給すること
- 一．対馬藩に滞在中の（朝鮮）漂流民らを全員送還すること
- 一．上記事項を朝鮮へ出張する外務大丞の花房義質に伝えること

60) 『朝鮮外交事務書』 3,757頁.

61) 田保橋潔, 前掲書, 215~216頁.

62) 『朝鮮外交文書』 403頁.

1872年9月、倭館接収の権限を委任を受けた外務大丞の花房義質は、廣瀬直行、広津弘信、守山茂らと共に、軍艦春日号と蒸気船有功丸に歩兵2小隊を乗船させ、倭館に上陸した。花房は、従前の1代官海津茂太郎と上野敬助、中山喜兵衛らを外務省の指針に従わず、朝鮮の意図に従ったという理由で責任を問われ帰国させ、倭館の整理に入った。館守・深見〔深見六郎一正景〕は、外務省9等出仕に任命して新任館守として赴任し、11等出仕の廣瀬を第1代官に、外務少録の奥義制を学士兼監察として、14等出仕の住永友輔を第2代官兼大通事（通訳）に、残りの旧対馬藩の館員らは全員帰国させた。次いで、草梁倭館に「大日本公館」という看板を掲げた。このときから、外務省は、漂流民の送還から迎來差倭と書契を省略した。これにより、東萊府使もまた、差倭もなく書契もないため、漂流民の送還については、宴会を催す必要もなく、進物と雑物を用意する必要もなくなった。花房は、9月25日に対馬島に戻り、同年11月に帰国して活動の内容に関して復命した。9月28日には最後の歳遣船が草梁港から対馬島を目指して出航した。

倭館からの欄出（逸脱）事件により、東萊府と倭館における関係に緊張感が漂う時期に、花房が乗船していた日本の軍艦が突如現れると、事態はますます悪化の一途を辿った。花房は、館守の深見正景を新たに外務省直属の館司という役職を与え、交渉を要請した。しかし、10月に訓導の安東暎と別差の玄プンソは、館司の深見正景を含め彼の率いる倭館員を認めることはなく、かつ、倭館への食料配給と交易を重視する撤供撤市に乗り出し、あらゆる闇市行為を厳禁するというお触書（布告文）を倭館の守門に掲げた。お触書の内容は、倭夷と洋夷を同一のものとみなし、衛正斥邪の対象にするというものであった<sup>63)</sup>。

本来、倭館は、建設する当時から、朝鮮政府が「倭」を懐柔するための目的で建てられたものである。基本的な性格としては、外国使節が臨時で滞在する「客館」であり、かつ、付随的には「商館」としての性格も持っている特殊な居住区域であった。このため、建築費と倭館の館員の滞在費等のあらゆる費用を朝鮮が負担し、対馬島主の責任の下で使用を許可するに過ぎなかった。しかし、明治政府が倭館をまるで自分たちの対外公館のようにして、強制的に占領したことは、1609年の己酉約条以来、維持されてきた日朝間における外交慣例を無視する行為であった。1872年9月、明治政府の倭館に対する強制占領は、明らかに朝鮮への最初の侵略行為としてみることで

63) 田保橋潔 前掲書, 295頁より引用した原文の、"近聞來接館中 其形貌衣服 多非日本人 彼之變形易俗 非我所管……猝有洋船洋服之至者 不可謂日本人也"

き、かつ、日本側のこのような行為によって、書契の変更事件以降、停頓し出した交隣体制も、朝鮮側の行った撤供撤市政策により終わりを告げたものとみることができる。

明治政府の欺瞞による倭館占領によって、文禄・慶長の役以降に再開された日朝間の交隣体制は幕を下すこととなり、今後、両国の関係は、交隣体制の下における交渉の形態ではない、明治政府の外務省官吏と直接交渉する段階へと移り変わった。それだけでなく、このような侵略行為は、後の明治政府における対朝鮮政策を主導していく木戸孝允と西郷隆盛らによって、より具体的な武力挑発行為へと繋がっていった。西郷隆盛らの征韓論は、1873年10月に、一旦は時期尚早であるという論から収まったものの、その本質は、岩倉具視と大久保利通らに対してそのまま受け継がれた。明治政府が直接使節団を派遣し、朝鮮が新たな外交体制を受け入れるよう交渉を行い、それが合意に至らなければ、武力行使を辞さないという朝鮮侵略の図式<sup>64)</sup>に基づき、遂には1875年の江華島事件の勃発に至った。これにより、本格的な朝鮮侵略の行為が表面化するとともに、その後の韓日関係を悪化させる事態へと導いた。文禄・慶長の役以降、続いてきた交隣体制は、こうして崩壊することとなる。

## 2. おわりに

近代後期の日朝関係に対する対馬藩の見方は、朝鮮に対する優越感と蔑視の意識に基づいたものであり、かつ、対馬藩が挑戦に対して「藩臣の礼」をなす「対州の私交」は、皇国日本の権威を傷つけるものとして、改革すべき対象であるとみなした。しかしながら、このような認識の裏には、真の外交関係の改革を意図していたというよりも、当面の財政難を打開しようとする隠れた目的があったことは看過することができない。

対馬藩が朝鮮に持参した書契には、単純に王政復古の事実を伝える内容だけでなく、「皇」、「奉勅」、「左近衛少将」等のこれまで使用されていなかった字句を用い、

---

64) 荒野泰典, 1988, 「明治維新期の日朝外交体制一元化問題」, 『近世日本と東アジア』, 東京大学出版会, 260頁.

押印した印章も、朝鮮が支給した物（旧印）ではなく、明治政府から許諾された新印であった。これに対して、朝鮮政府は、外交的な慣例に反することを理由に、対馬藩の求める書契の受け取りを拒んだ。しかし、朝鮮が対馬島藩の要求を無条件に拒否したわけではなく、旧例を挙げて論理的に反駁するとともに、書契の修正を求めた。

外交的な慣例の遵守を要求する朝鮮政府の立場は、対馬藩を交隣体制の枠に収めようとするものであった。対馬藩は、朝鮮初期のころから受職人の立場から、毎年朝鮮に対する貢物の上納を行い、現実的に朝鮮に依存する関係であった。このような対馬藩が、一方的に交隣体制から脱しようと通告することは、両国の外交慣例を無視した行為であった。朝鮮は、対馬藩の態度を理解するのは難しく、旧例に則った外交儀礼を遵守するよう強調しながら、何度も書契の修正を求めた。その結果、財政問題によって困窮していた対馬藩は、書契に新印の使用を中断し、旧印を使用せざるを得なかった。

1871年7月14日、天皇は、廃藩置県に踏み切った。対馬藩主の宋義達は、外務省官吏である外務大丞に任命された。外務大丞となった宋義達は、朝鮮に書簡を送り、廃藩置県によって自身が外務大丞に任命されたという事実と、今後の対朝鮮外交については、外務省において管掌することになったという事実を知らせようとした。しかし、朝鮮側は、前例がないため、面接はできないと拒絶し、旧例に則った交渉を主張した。

書契受け取りの問題が妥結の目処が立たない中、倭館においては、1872年5月26日から約10日間に亘り、自身らの要求を貫くため、居住区域からの逸脱を図った。欄出の後、差使と館守は、差備官・韓寅鎮を介して、東萊府使と会見を行えるよう斡旋してほしいと要求したが、これは受入れられなかった。結局、欄出は失敗に終わってしまう。1872年9月に、無断で決行した明治政府の倭館占領によって、文禄・慶長の役以降に再開されていた日朝間における交隣体制も、幕を下すこととなり、後の両国関係は、交隣体制の下での交渉形態ではなく、明治政府の外務省官吏と直接交渉をする段階へと移っていった。

## 【参考文献】

『承政院日記』

『東萊府啓録』

『館守每日記』

한국일본문제연구회, 1971, 『朝鮮外交事務書』1-4, 成進文化社

泰東文化社 편집부, 1981, 『日本外交文書』(한국편), 제1책, 泰東文化社

김홍수, 2009, 『한일관계의 근대적 개편과정』,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沈箕載, 1997, 『幕末維新 日朝外交史の研究』, 臨川書店

현명철, 2003, 『19세기 후반의 對馬州와 韓日關係』, 국학연구원

田保橋潔, 1940, 『近代日鮮關係史の研究』上, 朝鮮總督府

石川寬, 2007, 『近代移行期における日朝關係刷新交渉の研究』, 早稲田大學大學院政治學研究科  
博士學位論文

沈箕載, 2004, 「明治政府의 對朝 外交·貿易 一元化 科程의 一考察」, 『日語日文學研究』49輯, 日語日文學會,

현명철, 2011, 「한·일 역사 갈등의 뿌리를 찾아서」, 『한일관계사연구』46집, 한일관계사학회

-----, 2013, 「對馬藩 소멸과정과 한일관계사」, 『동북아역사논총』41호, 동북아역사재단

石川寬, 1998, 「明治維新时期における對馬藩の動向 - 日朝外交一元化と朝鮮·對馬關係」, 『歷史學研究』709號, 歷史學研究會

-----, 2002, 「日朝關係の近代的改編と對馬藩」, 『日本史研究』480號

-----, 2003, 「明治期の大修參判使と對馬藩」, 『歷史學研究』775號, 歷史學研究會



---

고종의 親政과 조일 교린관계의 재개 노력  
高宗の親政と日朝交隣關係の再開に向けた取り組み

---

발표 : 장순순 (가천대)



# 고종의 親政과 조일 교린관계의 재개 노력

장순순 (가천대)

1. 머리말
2. 明治政府의 ‘對馬人 퇴거’조치
3. 고종의 親政과 대일정책의 변화
  - 1) 고종의 친정선포와 대일정책의 전환
  - 2) 1874년 조일교섭과 교린관계의 재개 시도
4. 1872년~1874년의 왜관 상황
5. 맺음말

## 1. 머리말

1868년 메이지[明治] 유신으로 일컬어지는 정치적 변혁의 결과 일본에서는 무가정권인 도쿠가와 막부[德川幕府]가 무너지고, 12세기 말 이후 정치활동에서 배제되어 온 천황을 행정부의 수반으로 하는 메이지 신정권이 창출되었다. 이러한 일본의 정치적 변동은 조선과의 관계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과거 도쿠가와 막부를 대리하여 對조선통교를 담당하고 조선과의 무역을 독점하였던 對馬島主가 외교일선에서 물러나는 대신, 메이지 정부가 직접 조선과의 통교 교섭 및 개편을 시도하게 되었다. 메이지 정부의 ‘외교의 일원화’<sup>1)</sup>로 명명되고 있는 이러한 역사적 과정에서 조선과 일본 두 나라가 부딪치게 되는 가장 큰 문제는 일본 내 정치적 변화, 즉 왕정복고 사실의 조선통고와 통교관계의 개편이었다.

1) ‘외교의 근대적 개편’ 혹은 ‘외교체제의 일원화’라는 용어는 일본 메이지 신정권의 창출과 관련하여 조일간의 관계에서 일어난 변화에 주목한 것으로 일본사적 관점에서 나온 표현이다. 따라서 조일 양국의 상황을 잘 대변할 수 있는 양국사적 관점의 새로운 용어의 성립이 필요한 상황이다.

1868년 12월 19일 大修大差使 히구치 테쓰시로[樋口鐵四郎-平和節]가 부산에 도착하였다. 그리고 1월 25일 왕정복고 사실을 왜관에 알리고 막부의 표찰을 걷어내고 있다.<sup>2)</sup> 대수대차사를 대면한 훈도는 1월 29일 정부에 서계 등본을 보고하였다. 그러나 서계의 내용은 단순히 왕정복고 사실의 통보가 아니었고, 오히려 조선으로부터 무례하다는 평가를 받게 되면서, 서계의 접수 및 수리는 조일간의 갈등의 씨앗이 되었다. 그리하여 이러한 갈등은 이후 한 동안 조일간의 국교재개의 중요한 쟁점으로 작동하였다.

주요 쟁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측이 조선에 보내는 서계 서식에서 수신인을 ‘朝鮮國禮曹參判大人 閣下’에서 ‘朝鮮國禮曹參判公 閣下’로, 발송인인 대마도주를 ‘日本國臣從四位侍從對馬州太守平某’에서 ‘日本國左近衛少將對馬守平朝臣’으로 적어 왔다. 둘째, 서계 내용 가운데 ‘皇室’·‘奉勅’등 교린관계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격외의 단어가 많다. 셋째, 대마는 조선이 만들어준 도서 ‘義達印’를 폐지하고 대신 ‘平調臣義達章’이라는 新印을 사용할 것을 통보해 왔으며, 특히 조일간의 전통적인 도서수직제도를 ‘以私害公’으로 표현하며 사사로운 교제로 폄하하여 조선과의 관계 속에서 기존에 유지되어 왔던 외교적 관례를 무시하는 내용이 있었다. 이는 조일간에 양속관계에 놓여 있던 대마가 현실적으로는 조선에 의지해 왔으면서 일방적으로 탈피를 통고하는 태도가 조선의 입장에서는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이었다. 그로부터 한 달 후인 2월 29일 조정에서는 대수대차사의 서계를 수리하지 말라는 지시가 내려왔고, 훈도는 조정의 명령에 따라 서계의 개찬을 요구하면서 이를 물리쳤다.<sup>3)</sup> 결국 몇 차례의 교섭에서도 사정이 용이하지 않자 조선은 설령 사신이 10년 동안 체류하며 온갖 주장을 하더라도 시행될 수 없으니, 모름지기 이 뜻을 모두 曉諭하여 곧 바로 사절이 퇴거하도록 하라는 강경한 방침을 왜관에 전하였다.<sup>4)</sup> 이로써 메이지 정부의 왕정복고 통고과정에서 야기된 서계의 서식 문제와 도서 반환을 둘러싼 조일교섭은 결렬되었고, 결국 양국의 교섭도 교착 상태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렇게 시작된 조선과 메이지정부간에 있었던 서계의 서식 문제와 도서 반환에 관한 문제는 1875년 훈도 玄昔運과 모리야마 시게루[森山茂] 이사관과의 교섭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논의가 되었으나 근본적인 해결에는 이르지 못하였고, 결국은 1876년 조일수호조규에 가서야 일단의 조정을 보게 된다.

이 시기의 조일 관계에 대한 기존 연구는 주로 조선의 일본측 서계의 퇴각 및 메이지정부

2) 『館守日記』 1869년 1월 25일조

3) 田保橋潔 『近代日鮮關係の研究』 上卷, 1940년, 原書房, 171-172쪽; 『朝鮮外交事務書』, 217-220쪽; 『日本外交文書』(韓國篇) 제1책, 93-94쪽  
당시 훈도 안준경(안동준) 명의로 전달된 두 통의 각서에는 일본측 서계에서 조선이 문제로 삼았던 자구에 대한 상세한 이유와 조선측의 입장이 잘 드러나 있다.

4) 『朝鮮外交事務書』, 217-220쪽; 『日本外交文書』(韓國篇) 제1책, 93-94쪽

의 '왜관 침탈'로 인한 교린체제의 붕괴라는 관점에서 검토되어 일본 메이지정부의 주도성이 부각되고, 교린체제의 유지를 위한 조선측의 노력은 소홀히 다루어진 감이 있다.<sup>5)</sup> 그것은 대부분의 연구가 1872년 9월에 있었던 일본 메이지 정부의 '대마인 퇴거조치'즉, 대조선 교섭의 일원화 조치를 곧바로 조일관계의 단절로 보는 경향으로 보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1872년 메이지 정부의 '대마인 퇴거조치'를 일본 국내문제로 한정해 보지 않고 조일 교린체제의 단절 내지 붕괴로 볼 경우, 조일간의 통교가 근대의 초입에서 메이지정부의 침탈적 성격으로 단절되었고, 결국 조선은 운요호 사건 등武威를 앞세운 일본의 강요로 무기력하게 1876년 조일수호조규를 체결하고 말았다고 해석될 소지가 있다. 그 결과 1872년 이후 왜관은 일본의 주권이 미치는 지역으로 간주됨으로써 이후 1876년 조일수호조규 체결에 이르기까지 조일간의 교린관계 재개에 노력하였던 조선 정부의 주체적인 노력들이 간과되어버리는 위험을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시각은 이시기 조선의 대일관계에 대해서 다보하시 기요시[田保橋潔] 등이 주장하는 조선외교의 완고함 내지 무기력함, 전근대성을 수궁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sup>6)</sup>

이에 본 연구에서는 1872년에 있었던 메이지정부의 '대마인 퇴거조치'이후부터 1874년까지 왜관의 상황을 조선의 시각에서 재검토하여 조선정부가 조일 교린외교를 단절 내지 방치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상화시키기 위해 노력한 시도들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왔음을 추적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시도는 1872년 왜관에서 있었던 '대마인 퇴거 조치'내지 메이지 정부의 對조선 외교의 일원화 조치가 교린관계의 종말이 아니며, 따라서 '왜관접수', '왜관처분', '왜관침탈' 또는 '왜관점령', '왜관점거' 등으로 표현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이후에도 왜관은 여전히 조선의 주권이 미치는 공간이었음을 밝힐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5) 이 시기 일본 내 정치적 변화의 조일 통교관계의 개편 논의과정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논저를 들 수 있다.

田保橋潔, 1940, 『近代日鮮關係史の研究』上, 朝鮮總督府; 荒野泰典, 1987, 『明治維新期の日朝外交體制「一元化」問題』(田中健夫編, 『日本前近代の國家と對外關係』, 吉川弘文館); 연갑수, 1992, 「대원군 執政의 성격과 權力構造의 변화」, 『韓國史論』27; ———, 1993, 「개항기 권력집단의 정세인식과 정책」, 『1894년 농민전쟁연구』3, 한국역사연구회; 송승철, 1994, 「1872년 일본의 倭館占領과 朝鮮侵略」, 『군사』28, 국방군사연구소; 諸洪一, 1997, 『明治初期 朝日交渉の放棄와 朝鮮政策』, 『건대사학』9, 건대사학회; 沈箕載, 1897, 『幕末維新 日朝外交史の研究』, 臨川書店; 현명철, 2003, 「19세기 후반의 對馬州와 韓日關係」, 국학연구원; 현명철, 2010, 『幕末・明治 초기 對馬州 정치사 개관』, 『부산과 대마도의 2천년』, 부경대학교 대마도연구소; ———, 2013, 「對馬藩 소명과정과 한일관계사」, 『동북아역사논총』41, 동북아역사재단; 장순순, 2004, 「조랑왜관의 폐쇄와 일본 租界化 과정」, 『일본사상』7, 일본사상사학회; 김홍수, 2009, 「한일관계의 근대적 개편과정」,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石川寛, 1998, 『明治維新时期における對馬藩の動向-日朝外交一元化と朝鮮・對馬關係』, 『歴史學研究』709, 歴史學研究會; 石川寛, 2001, 『明治維新と朝鮮・對馬關係』(明治維新史學會編, 『明治維新とアジア』, 吉川弘文館); ———, 2002, 『日朝關係の近代的改編と對馬藩』, 『日本史研究』480; ———, 2002, 『明治維新期の對馬藩政と日朝關係』, 『朝鮮學報』183, 朝鮮學會; ———, 2003, 『明治期の大修參判使と對馬藩』, 『歴史學研究』775, 歴史學研究會; 石川寛, ———, 『明治維新期の日朝關係と對馬藩』, 名古屋大學 博士學位論文; ———, 2004, 「倭館接收後の日朝關係と對馬」, 『九州史學』139, 九州史學研究會

6) 田保橋潔의 조일관계에 관한 시각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현명철, 2015, 「田保橋潔의 『近代日鮮關係史の研究』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韓日關係史研究』51, 한일관계사연구회

## 2. 明治政府의 ‘대마인 퇴거’조치

1871년 7월 14일 廢藩置縣의 칙령으로 對馬藩은 폐지되어 伊萬里縣에 병합되었다. 외무성은 宗氏의 가역을 파면하고, 도주 소 시게마사[宗重正]은 7월 29일 외무관원으로 편입되어 外務大丞에 임명되었다. 8월 관수는 외무성 관원이 소씨의 서한을 가지고 올 것이라고 훈도에게 알렸고, 훈도와 동래부는 바로 예조에 보고하였다.<sup>7)</sup> 8월에 예고되었던 외무관원은 다음 해인 1872년 1월에 差使를 대동하고 화륜선으로 왜관에 도착하여 입항하였다.<sup>8)</sup> 이들은 대마도주가 廢藩置縣으로 해직되었다는 사실과 앞으로의 조일교섭 업무는 대마가 아니라 메이지 정부에서 행한다는 사실을 알려 왔다. 이들은 왜관에 머물러 있던 대수대차사 히구치 테쓰시로[樋口鐵四郎]를 귀국시키고, 이전에 왜관에 들어와 체류하고 있던 외무소기 요시오카 고기[吉岡弘毅]를 필두로 7인 위원회를 조직하여 대마 사족을 배제하고 자신들만이 조선과 회담에 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이는 외무성이 조선과의 외교를 장악하는 과정에서 대마 상인들과 조선의 任譯들이 연대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의도였다. 조선의 임역들은 대마를 변병으로 유지하고자 하였고, 대마 상인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였기 때문이었다.<sup>9)</sup>

差使 사가라는 관례대로 접대를 받았으며, 6차에 걸친 회담 끝에 외무관원이 폐번치현과 청일수호조규의 체결을 알리는 종씨의 서한을 제출하자 3월 20일 훈도와 동래부는 이를 받아들이고 예조에 보고하였다.<sup>10)</sup> 조정에서는 막부의 멸망과 메이지 정부의 성립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청일수호조규의 체결과 폐번치현으로 대마도주가 지위를 상실했다는 것은 중대한 정보였다.

조정에서는 喪中에 있던 훈도 安東暎에게 除服을 명하고, 왜관업무로의 복귀를 명하였다.

7) 『東萊府啓錄』 권8, 1871년 8월 24일

宗重正은 외무대승 자격으로 조선에 서한을 보냈는데, 이 서한은 8월 24일 왜관 관수와 훈도와 별차를 통해 예조에 전달되었다.

8) 이날 화륜선은 신미초[특송사 1호선과 2호선(경대2·3특송사)과 표류민영래차왜선, 표민 借騎船, 飛船, 표민본선 등과 함께 왜관으로 향하였던 것으로 총7척의 배에 220명의 왜인과 37명의 표류민이 함께 탄 큰 규모의 선단이었다. 1872년 화륜선의 입항과정에 대해서는 현명철, 2015, 『1872년 일본 화륜선의 왜관 입항』, 『동북아역사논총』 49, 동북아역사재단 참조.

1872년 1월 13일, 모리아마 시게루[森山茂]·히로츠 히로노부[廣津弘信], 사가라 마사키[相良正樹-10등]·히로세 나오유키[廣瀬直行-

11등]·우라세[浦瀬裕, 最助-12등] 등 외무성 관원 일행은 화륜선 滿珠丸을 타고 왜관에 들어왔다. 이들은 외무대승 소 시게마사[宗重正]의 서신을 가지고 왜관에 도착하였다. 모리아마는 大和國 출생 호고재판소 출신이었고, 히로츠는 筑後국의 久留米藩 출신으로 나가사키에서 의사를 하다가 외무성에 들어온 사람이었다. 그리고 사가라는 대마 출신이었다(『朝鮮外交事務書』3, 757쪽; 『日本外交文書(韓國篇)』 제1책, 355쪽).

9) 현명철, 2015, 『1872년 일본 화륜선의 왜관 입항』, 『동북아역사논총』 49, 동북아역사재단, 204~205쪽

당시 왜관에는 200여 명의 대마인이 상주하고 있었는데, 1868년 12월 이후 약 3년 3개월 동안 왜관에 머물러 있던 大修大差使 正官 히구치 테쓰시로[樋口鐵四郎]는 왜관에 체류 중이던 대마의 途使 30여명과 함께 1월 16일 대마로 돌아갔다(『朝鮮外交事務書』4, 51쪽)

10) 현명철, 2015, 『1872년 일본 화륜선의 왜관 입항』, 『동북아역사논총』 49, 동북아역사재단, 205쪽

동래부사 정현덕의 명을 받은 훈도 안동준은 일본 외무성 관원과 직접 만나는 것이나 서계 포納과 화륜선을 타고 온 것은 규정 외라고 하여 허락하지 않고 서계 접수를 지연시키면서 신중한 입장을 취하였다.<sup>11)</sup> 그러나 동래부의 입장은 새로운 조약이 체결되기 전까지는 대마를 통한 외교와 무역, 표류민 송환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조일교섭이 메이지정부의 의도대로 전개되지 않고 교착상태에 빠지자 외무성 관리였던 사가라는 1872년 5월 26일 관수[館司] 후카미 마사카게[深見正景]와 관원들을 이끌고 무단으로 왜관을 나와 동래부사와 직접 교섭을 요구하며 동래부에 압력을 넣는 왜관난출을 감행하였다. 그러나 동래부사는 闌出에 대한 책임을 물어 관수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8월에는 一代官으로 하여금 관수의 일을 대행하도록 문서로 정식 통보했다. 결국 이 난출은 동래부사와의 직접교섭도 실현되지 못한 채 실패로 돌아갔고, 요시오카 등은 ‘대마인 퇴거 조치’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게 된다.<sup>12)</sup> 이 난출사건에 대한 조선측의 처리방법은 대원군 집권기 조선의 대일정책이 근본적으로 변화가 없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조선의 대일교섭에 있어서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를 시사한다. 조선측의 대일외교 방식은 서구식의 조약이라는 방법 보다 교린체제라는 전통적인 구례의 준수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었다.

한편, 일본 太政官은 5월 7일자 외무성의 上申을 받아들여 5월 28일 부산 초량공관사무를 외무성의 소관으로 하고, 재근 인원 중 외무성 직원이 아닌 구 對馬藩士들의 퇴거 귀국을 결정하였다. 아울러 세견선의 폐지를 명하고 왜관 유지비용으로 對馬藩에 5천원의 지출을 명하고, 표류민 문제도 長崎縣에 이관하였다.<sup>13)</sup> 그리고 외무대승 소씨를 대표하여 히로세 나오유키를 도간전관, 우라세와 히로세를 간전관에 임명하고, 관수 후카미 이하 員役으로 하여금 동래부와 교섭하도록 하였으나 교섭에는 진전이 없었다.<sup>14)</sup>

난출이 실패한 후, 6월 16일 요시오카, 모리야마, 히로츠 등 외무성 관리들과 差使 사가라는 관수 후카미를 왜관에 잔류시키고 구대마 상인들을 이끌고 귀국하였다.<sup>15)</sup> 이때 소 시게마사는 당해년분(1872년)의 공무역품 배상으로 외무성에 2만4천181냥을 요구하였다.<sup>16)</sup>

11) 『承政院日記』, 고종 9년 4월 2일(을묘); 『비변사등록』, 고종 9년 4월 2일(을묘)

12) 『日省錄』, 고종 9년 6월 7일; 『승정원일기』, 고종 9년 6월 11일; 『日本外交文書(韓國篇)』, 제1책, 389-390쪽.

1872년 5월 26일부터 6월 6일까지 10여일 동안 진행된 난출은 외무성 관리인 사가라와 관수 후카미의 주도 하에 도간전관 히로세, 간전관 우라세 등 왜관에 있던 일본인 56명이 참여하였다.

1872년 5월에 있었던 왜관난출에 대해서는 심기재, 2004, 「明治政府의 對朝鮮 외교·무역 一元化 과정의 일고찰-代官 처리를 중심으로-」, 『日語日文學研究』 참조.

한편 현명철은 이 난출에 대해서 “한일관계에 있어서 대마의 지위가 급속히 상실되어가는 시점에서 일어난 대마의 마지막 행동이기도 하였다.”고 해석하였다(현명철, 2003, 『19세기 후반의 對馬州와 韓日關係』, 국학연구원, 213쪽).

13) 『日本外交文書(韓國篇)』, 제1, 378~382쪽; 『朝鮮外交事務書』4, 247~267쪽

14) 『日本外交文書(韓國篇)』, 제1책, 357-358쪽

15) 『日本外交文書(韓國篇)』, 제1책, 387-389쪽

16) 『日本外交文書(韓國篇)』, 제1책, 393-396쪽; 『朝鮮外交事務書』4, 287-289쪽

일본으로 돌아간 히로츠는 관수 후카미를 통하여 왜관에서 무역업무를 담당한 대관소 세력이 조선측과 내통하고 외무성의 방침에 따르지 않고 있음을 파악하게 되었다. 당시 대관소는 一代官 海津茂太郎, 二代官 春田長十郎, 3,4代官에 上野敬助와 中山喜兵衛라고 하는 구성으로, 이 가운데 海津·上野·中山이 조선과 내통하고 있었던 것이다. 관수 후카미는 당시 왜관상황에 대해서 ① 조선측이 ‘왜관난출’에 참가한 深見을 관사로 인정하지 않고, 이미 관사는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지금까지 지급하고 있던 관사로의 쌀, 시탄, 콩 등을 정지하고, 소통사들에게도 응대하지 말 것을 엄중히 전달하고 있다. ② 조선은 신관수의 취임까지는 대관소의 역원들을 상대로 하고 있으며, ③ ‘무역만에 주목’하고 있는 대관소의 ‘간사한 무리’도 대관소가 존재한다면 결국은 세견선공무역이 종전대로 부활할 것이라고 보고, 조선측과 관계를 유지하며 佐賀縣 出張所(對馬嚴原)로부터의 철수명령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지연시키는 계책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므로 왜관내 모든 구성원의 완전한 철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廣津에게 전하고 있다.<sup>17)</sup>

실제로 8월 말에 동래에 내려온 별차 玄大有는 신관수 후카미를 배제하고, 1대관을 관수로 간주하고, 재관왜인의 고관참배의 허가도 대관과 교섭함으로써 결국 메이지정부의 바람과 달리 왜관의 상황은 대관소 세력과 동래부 임역이 대마와의 통교관계의 지속이라는 기존의 대일정책을 고수하고 있었다.<sup>18)</sup>

그 과정에서 8월 외무경 소에지마 다네오미[副島種臣]는 왜관에서의 현안 해결을 위하여 높은 관직의 관원을 파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sup>19)</sup> 외무대승 하나부사 요시토모[花房義質]의 파견을 결정하였다. 동시에 森山茂(外務少記), 廣津弘信(外務少記), 齋藤榮(外務權大録)에게는 수행 명령이, 外務少録 오쿠 요시노리[奥義制]에게 ‘조선국 초량 재근’이 명해졌다.<sup>20)</sup>

하나부사와 모리야마는 가스가[春日艦]편으로 히로츠 히로노부와 사이토 사카에[齋藤榮],

17) 『朝鮮事務書』 13권 479~489쪽, 동 445~454쪽, 동 497~508쪽, 동 509~513쪽

강석범은 廣津의 보고는 “서로 대응하는 韓對 兩間 속에 고립하는 왜관의 외무성 관원과 對州, 동래부의 대립 도식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다. 왜관의 對州勢는 府中 嚴原으로부터의 긴밀한 지령에 따른 것이었음은 말할 필요도 없다.”(『征韓論政變』, サイマル出版會, 1990년, 32쪽; 石川寬, 2004, 『倭館接收後の日朝交渉と對馬』, 『九州史學』 139, 九州史學研究會, 주3)에서 재인용)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石川寬은 ‘府中嚴原에서의 긴밀한 지령’의 존재에 대해서는 실증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억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았다(石川寬, 위의 논문(2004년)).

18) 『朝鮮事務書』 14권, 19~29쪽, 동 31~38쪽

19) 『日本外交文書(韓國篇)』, 제1책, 399~400쪽

20) 『日本外交文書(韓國篇)』, 제1책, 400~403쪽; 『朝鮮外交事務書』 6, 241~250쪽.

외무성은 왜관 문제에 대하여 천황의 勅旨의 형태로 초량왜관의 관수와 代官所의 존치, 조선에서 지급한 路人의 사용은 종전대로 둘 것, 왜관에 필요 인원을 제외한 士官과 雜人들은 귀국시키되 상인들은 스스로 판단해서 귀국을 정하도록 할 것, 세견선은 폐지할 것이며, 대마에 체류하고 있는 조선 표류민들을 전부 송환하도록 하라는 내용을 외무경 副島種臣에게 보냈다. 이는 메이지정부가 조선과 대마를 왕래하는 세견선은 중단하되, 조선정부가 지급한 도서를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중단없이 조선과의 무역을 직접 관장하겠다는 것을 선언한 것으로, 외무성에 의한 대조선 외교·무역 관계의 일원화라는 幕末 이래 메이지 정부의 입장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었다.

하나부사의 일행의 조선파견에 대해서는 심기재, 2003, 『明治 5년 하나부사(花房) 일행의 조선 파견』, 『동양학』 35,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참조

오쿠 요시노리[奥義制]를 태우고, 유코마루[有功丸]는 조선 표민을 태운 만슈마루를 예인하여 왜관에 도착하였다<sup>21)</sup> 곧바로 관수 후카미를 불러들여 왜관 상황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였다. 조사 내용은 대관소 세력의 조선측과의 내통 여부에 관한 것이었다. 조사 결과 대관소 세력이 조선측과 내통하여 외무성의 정책에 비협력적인 태도를 취하였던 것은 대마가 舊來의 무역을 계속하려는 행동이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sup>22)</sup>

당시 일본 외무성은 조선과 대마의 유착관계가 조일교섭의 저해 요인이라고 판단하고 있었기 때문에 외무대승 하나부사 일행에게 주어진 임무는 왜관에 있는 대마 세력을 일소하고 조선과 대마의 관계를 단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었다. 하나부사는 1대관 카이즈 시게타로[海津茂太郎]와 우에노 케이스케[上野敬助], 나카야마 키베[中山喜兵衛] 등을 외무성의 지침에 따르지 않고 조선의 지시에 따랐다는 이유로 문책·귀국시키고,<sup>23)</sup> 왜관 정리에 나섰다. 폐번치현과 宗氏의 해임으로 세견선의 파견은 계속할 수 없다고 조선에 통고하고, 왜관 난출을 주도한 관수 후카미를 외무성 9등출사로 임명하여 신임 관수[館司]에 임명하고, 11등 출사 히로세[廣瀬直行]를 1代官으로, 外務少錄 오쿠 요시노리[奥義制]를 학사 겸 監察로, 14등 출사 스미나가[住永友輔]를 제2대관 겸 大通詞로 삼고 나머지 舊對馬藩 무사들은 모두 귀국시켰다.<sup>24)</sup>

이러한 조치는 첫째, 관수·대관 등의 명칭은 그대로 두고, 오쿠[奥義制]를 제외하고는 종래 대마출신자를 등용하여 외무성 관원으로 재임명한 것으로 왜관을 외무성의 직접 管轄 하에 둔 것이다. 둘째, ‘조선과 대마간의 事情’의 배제를 목적으로, 조선측과 내통하고 있었던 대관소 세력을 일소하는 한편, 외무성에 협력적인 멤버로 왜관 관리를 재구성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sup>25)</sup>

대관 경질 소식을 접한 별차 玄大有는 9월 18일 왜관에 서한을 보내 이러한 조치는 대관소를 폐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하면서 기존 宗氏의 무역부채를 상환해 줄 것을 요구하고, 1869년부터 1871년까지 대마로부터의 미수품 목록을 제시하였다. 이때 미수품 처리를 둘러싸고 양자간에 논쟁이 있었으나, 9월 20일 동래부사가 화륜선 정박 중에는 검수에 응하지 않

21) 『日本外交文書(韓國篇)』 제1책, 406쪽

한편, 김홍수는 하나부사 일행의 파견은 조선과의 외교교섭을 위한 파견이 아님에도 그때까지 파견된 사절 중에서 최고위직인 외무대승이 파견된 것은 일본이 ‘왜관점거’를 얼마나 중시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며, 더욱이 하나부사 파견에 병력을 대동한 것은 이들 파견의 주목적인 대마의 대조선 외교권 접수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하였다(김홍수, 2009, 『한일관계의 근대적 개편 과정』, 서울대학교출판원, 308-309쪽).

22) 『朝鮮事務書』 18권, 299~356쪽, 『日本外交文書』 6권, 103호·付屬書.

23) 이때의 왜관난출 및 밀사 왕복 경위에 대해서는 심기재, 2004, 『明治政府의 對朝 외교·무역 일원화 과정의 일고찰 -代官 처리를 중심으로-』, 『日語日文學研究』 48, 한국일어일문학회 참조

24) 『日本外交文書(韓國篇)』 제1책, 13-415쪽

25) 石川寛, 위의 논문(2003년)

는다는 통고가 있었기 때문에<sup>26)</sup> 하나부사 일행의 왜관 체류 중에는 무역 부채의 상환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하나부사는 지체품의 인도를 관수에게 위임하고 9월 24일 왜관을 떠난다. 대마인 왜관 종사자들에게는 귀국 명령이 내려졌고, 왜관 상인들의 거취는 자율에 맡겨져 당시 왜관 재류자는 83명이었다.<sup>27)</sup>

10월이 되어 왜관 난출 사건으로 견책처분을 받았던 훈도 안동준이 복직하였다. 신임 1대 관 히로세는 지체품의 검수를 독촉하였으나 훈도 안동준은 陪小通事 崔在守를 통하여 메이지 정부에 의한 宗氏의 무역품 변제를 거부하고, 宗氏의 변재능력 회복을 기다려 미납품을 받아들여겠다고 회답하였다.<sup>28)</sup> 이는 조선정부의 대일정책의 기본방침이 여전히 대마와의 통교관계의 지속에 있었고, 외무성을 승인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후 왜관과 관련된 일은 배소통사 최재수에게 맡겨지고, 훈도는 왜관의 외무성 관원과의 접촉을 갖지 않게 되었다.

조선정부가 일본 외무성의 왜관관할을 승인하지 않은 상태가 되면서 왜관에서는 두 나라 간의 공적인 접촉이 중단되게 되었다. 이때부터 표류민을 송환하면서 일본 외무성은 漂民領來差倭와 書契를 생략하였다. 따라서 표류민 송환을 둘러싼 동래부사의 접대도, 예단과 잡물을 마련할 필요도 없어지게 되었다.<sup>29)</sup> 이로써 1872년 10월 이후에는 세견선이 왜관에 더 이상 입항하지 않게 됨에 따라 조일교섭에 있어서 대마의 역할은 소멸되게 되었다.<sup>30)</sup> 이후부터는 메이지정부가 직접 조선과의 교섭을 주관하게 되었으며, 己酉約條에 의한 전통적인 한일 관계는 붕괴되었다. 1873년 1월 15일 외무성은 7등 출사 히로츠[廣津弘信]에게 조선근무를 명하였고, 이에 3월 4일 히로츠가 왜관에 도착하였다. 그는 왜관업무를 완전 장악하고, 대마 출신 관수 후카미를 면직시키고, 왜관을 조선의 허가없이 자의적으로 ‘大日本國公館’으로 명칭을 바꿈으로써 외교교섭에 있어서 대마의 색깔은 완전히 없어지게 되었다.<sup>31)</sup>

그러나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왜관에서의 ‘대마인 퇴거 조치’는 일본 국체 변화에 따라 대조선 외교와 무역이 메이지 정부로 일원화되었음을 의미한 것이지, 근세 조일관계의 외교교섭 공간으로서의 왜관의 폐지를 의미한 것은 아니었다는 점이다. 메이지정부의 ‘대일본공국관’ 명칭 변경은 메이지정부의 일방적인 조치였고, 세견선 왕래의 중단으로 기존의 조일간의

26) 『朝鮮外交事務書』 6권, 255-257쪽

27) 『花房大丞朝鮮行日涉』 明治 5년 9월 24일조, 石川寛, 위의 논문(2003년)에서 재인용

28) 『朝鮮外交事務書』 15권, 337-339쪽

29) 현명철, 위의 논문(2015년), 208쪽

30) 『東萊府啓錄』에 의하면 조일간의 마지막 세견선은 1872년 9월 28일에 출항하였다.

31) 『釜山府史原稿』 4, 276-279쪽

하나부사 귀국 후 왜관업무는 히로츠가 총괄하게 되었으나 그는 질병 요양을 이유로 1873년 5월 이후에는 대마의 이즈하라[嚴原]에 머물면서 왜관업무에 관여하였다. 따라서 히로츠가 이즈하라에 체재하던 동안이나 이임한 이후에는 典義制가 책임자로 왜관을 관리하였다. 히로츠와 오쿠는 다른 왜관 구성원들과 달리 대마 출신이 아니었다(石川寛, 위의 논문(2004년), 7쪽).

공적인 외교 절차들이 일단 중지되었지만 이후에도 왜관의 기능은 최소한이나마 유지되었으며, 조선정부의 대일정책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1872년 왜관에서 이뤄진 일본 외무성의 일방적인 ‘대마인 퇴거’조치는 교린체제라는 기존의 조일관계에 근본적인 변화는 가져오지는 못하였다.

### 3. 고종의 親政과 대일정책의 변화

#### 1) 고종의 친정선포와 대일정책의 전환

고종 집권 초기 정권을 장악하였던 흥선대원군은 斥邪·斥洋의 기치 아래 쇄국정책을 고수하며 내정에 관심을 기울였다. 흥선대원군은 집정 초기부터 자신의 심복인 金世鎬를 경상도 관찰사로, 鄭顯德을 동래부사로 임명하고, 왜학훈도에는 안동준을 임용함으로써 대일관계를 직접 주관해 왔다.<sup>32)</sup> 고종은 즉위초기 8년간은 대원군과 동일한 대외관을 가졌으나, 1872년 4월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었던 청 황제가 숙부 恭親王의 섭정에서 벗어나 親政하리라는 정보를 접하게 되면서 자신의 처지를 객관적으로 인식하게 되었고, 나아가 친정 가능성을 모색하게 된다.<sup>33)</sup>

1873년 10월 崔益鉉이 대원군을 탄핵하는 상소가 올라왔다. 다수의 고위 관료들은 지지하지 않았지만, 고종은 최익현을 두둔하면서 친정을 결행하였다.<sup>34)</sup> 고종의 친정은 1873년(고종 10) 12월[음 11월 3일]부터 시작되었다. 고종의 친정은 조선의 대외관계 나아가서 대일정책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그러나 이러한 고종의 대일정책 변화는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었다. 고종 초기 10년 간, 즉 대원군 집정기(1864-1873)에는 국내 정책의 결정과정에서 고종이 대원군과 다른 독자적인 인식영역을 가질 수 없었겠지만, 대외정책 부분에 있어서는 청에 다녀온 사신들과의 대화를

32) 田保橋潔은 “공관에 재근하는 對州藩吏 및 외무성 파견원은 서계 수리와 기타 사안에 관한 훈도 안동준의 頑冥한 태도로 미루어 그가 중간에서 壟蔽하는 것으로 의심했지만, 실은 훈도는 대소사를 불문하고 직접 대원군에게 보고하고 그의 지휘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고 하였다(田保橋潔, 위의 책, 331-332쪽).

33) 안외순, 1996, 「高宗의 初期(1864-1873) 對外認識 變化와 親政」, 『한국정치학회보』 30, 한국정치학회; ———, 1994, 「大院君執政期 高宗의 對外認識 遣清 回還使 召見을 中心으로」, 『東洋古典研究』 3, 東洋古典學會

34) 위와 같음

통해 대원군과 다른 자신만의 인식영역을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sup>35)</sup> 실제로 고종은 즉위 초부터 친정 전까지 10여 년 간 1,300여회에 달하는 경연을 통해서 군주 수업을 착실히 해왔으며,<sup>36)</sup> 16회에 걸친 遣淸使節團과의 접촉을 통해서 대외인식의 폭을 확대해 나갔다.<sup>37)</sup> 특히 신미양요를 겪은 후인 1872년부터는 燕行使의 출발 전에 사행 중 조사사항을 직접 지령하고, 사행 후 복명시에는 이를 확인하는 등 대외관계에 매우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sup>38)</sup>

고종이 일본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게 되 것은 1871년 9월 청일수호조약 체결을 전후한 시기부터이다.<sup>39)</sup> 1871년 10월부터 1872년 3월까지 동지겸사은사의 정사로 청에 다녀온 閔致庠이 복명하는 자리[음 4월 4일]에서 고종은 청과 일본이 대등하게 조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고종은 이때 ‘서양의 요구가 무엇인지’, 또한 ‘서양화된 일본을 淸이 어떻게 접대하는지’등에 대해서 물었다. 이때 민치상은 서양이 일본인들을 피어 이미 청과 통상조약을 맺고 중국과 교역을 요구하여 이미 約書까지 만들었으며, 앞으로 교역하게 될 것이라고들 한다고 전했다. 그리고 일본은 이미 청의 藩國이 아니므로 일본인들도 청에 대해서 신하로 칭하지 않는다고 보고하였다.<sup>40)</sup> 그리고 사행단에 참여했다가 뒤늦게 도착한 書狀官 朴鳳彬과 있었던 4월 30일 대화에서도 고종은 일본은 본래 청의 臣服이 아닌데 어찌하여 청이 禁制하지 못하고 일본과 通貨를 약속했는지에 대해서도 묻는 등 정사 민치상의 보고 내용에 더하여 일본에 관한 정보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이에 朴鳳彬은 “작년 7,8월 사이에 洋夷가 일본과 함께 와서 교역을 청하였으므로 부득이하게 청이 허락한 것”이라고 답하면서, 일본은 이전부터 중국의 正朔을 받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sup>41)</sup> 이렇듯 고종이 일본에 관한 정보에 관심을 보이게 된 배경에는 조일 교린관계 하에 왜관↔대마 간에 이루어졌던 기존의 외교교섭 통로가

35) 안외순은 고종의 친정은 이미 예견된 것으로 최익현의 상소는 고종의 친정을 결행하도록 하는 도화선이었을 뿐이었으며, 친정 이후 취했던 고종의 개화 정책 추진도 이미 1872년부터 키워온 고종 자신의 대외인식 변화에 따른 능동적인 것으로 보아야한다고 주장하였다(안외순, 위의 논문(1996년), 248쪽).

36) 金世銀, 2000, 『고종초기(1864년-1873년)의 經筵』, 『農壇學報』, 89, 진단학회

37) 안외순, 앞의 논문(1996년), 249쪽, 〈표 1〉 遣淸使行的 種類와 人的構成, 時期 참조: 구선희, 2011, 『고종의 서구 근대 국제법적 대외관계 수용 과정 분석』, 『동북아역사논총』, 32, 동북아역사재단, 107-108쪽  
안외순은 고종 초기 10년간 견청사절 소견에서 나타난 고종의 대외인식을 세 시기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제1기(1864-1865)는 주로 청 황제에 대한 충성심을 내포한 황제 개인의 안부에 집중하는 시기, 제2기(1866-1871)는 미약하나마 청의 內政과 藩國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는 시기, 제 3시기(1872-1873)는 객관적이고도 현실적인 인식이 분명하게 드러남과 동시에 청만이 아니라 국제정세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파악하려고 노력하는 시기였다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제1시기와 제 2시기를 ‘전통적 대외관계관 고수기’로 제 3시기를 ‘현실적인 대외인식과 親淸의식 형성기’로 규정하였다.

38) 김흥수, 위의 책, 339쪽

39) 구선희, 위의 논문(2011), 114-115쪽

1870년 가을 일본은 청으로부터 구미열강들의 특권을 얻고, 청과의 대등관계 실현을 목적으로 청에 청일조약을 요구했다. 청 정부는 북양대신 이홍장을 전권대표로 임명하고 일본과의 조약 초안을 작성하게 했다. 1871년 7월 청일조약은 청의 초안대로 체결되었다. 청의 초안에서 중심내용은 최혜국 조관의 제거, 일본과 구미제국의 동맹 방지, 외교관과 영사의 파견 및 일본 상인의 청국 내지 통상금지였다. 당시 일본과의 조약체결에 대해 청 내부에 반대이견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이홍장은 자강을 추진하고 있는 일본을 청의 적으로 만들 수 없다는 판단으로 일본과의 조약을 성사시킨 것이다.

40) 『승정원일기』, 고종 8년 10월 22일(기묘), 고종 9년 4월 4일(정사); 『일성록』, 고종 9년 4월 4일(정사)

41) 『일성록』, 고종 9년 4월 30일(계미); 『승정원일기』, 고종 9년 4월 30일(계미)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상황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다른 한편으로 동지사겸사은사를 통해서 전해진 청일간의 조약 체결 소식이 고종으로 하여금 조선과 청의 관계, 그리고 조선과 일본의 관계를 다시 생각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1872년 5월에 差使 사가라 마사키 일행이 주도하였던 왜관 난출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이 처리과정에서 조정 내에서 대일정책의 변화 움직임이 감지되기 시작하였다. 일반적으로 왜관에서 난출이 일어나면 동래부사를 비롯하여 왜관을 관리하는 任譯들에게 책임을 묻는 처벌이 뒤따르기 마련인데, 고종은 왜관난출을 막지 못한 책임을 물어야 하는 동래부사와 훈도, 군관 등에게 待罪하지 말 것을 지시하였다.<sup>42)</sup> 아울러 그해 9월 일본 외무성이 왜관을 임의대로 초량공관으로 명명하여 왜관업무를 ‘접수’하면서 조일교린외교가 중단된 이후에도 고종은 일본에 대한 정보와 왜관에서의 동태를 예의 주시하였다.

이듬해인 1873년 윤6월 10일에는 경상도 지역의 극심한 수재 피해실태 조사와 대책 마련을 위하여 형조참의 金奎軾을 慰諭使로 삼아 그 지역에 파견하였다.<sup>43)</sup> 수재 피해 실태를 둘러보고 돌아온 慰諭使 金奎軾은 10월 23일[음 9월 3일] 고종에게 전반적인 피해상황을 보고하였는데, 그 자리에서 고종은 金奎軾에게 동래의 상황과 왜관 내 일본인들의 동향을 물어 파악하였다. 그리고 遣淸使節로부터 들었던 일본에 내란이 일어났다는 소식에 대해서도 그 진의를 물었다. 이때 김규식은 전해지는 말은 있지만 대마에서 送使가 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므로 확실히 알지 못한다고 하였다.<sup>44)</sup> 고종이 말한 일본의 내란 여부는 메이지유신 이후 체제개혁에 따른 갈등을 밖으로 돌려 해결하고자 하는 조선침략론[征韓論]을 둘러싼 의견 대립이 첨예하였던 일본의 국내 사정에서 나온 소문이었다.

遣淸使節과 경상도지역에 파견된 관리들을 통해서 일본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는 선에 있었던 고종이 친정과 함께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된다. 고종은 1873년 12월 24일[음 11월 5일] 친정을 선언하고, 대원군 집권기를 주도해왔던 기존의 삼정승, 즉 영의정 洪淳穆, 좌의정 姜滌, 우의정 韓啓源을 파면시키고, 새롭게 영의정에는 李裕元, 우의정에는 朴珪壽를 발탁하여 친정체제를 구축해 나가기 시작하였다.<sup>45)</sup> 그리고 이듬해인 1874년 2월[음 12월 30일]에는 대일외교의 실무라인을 대원군 세력에서 자신의 세력으로 재편하였다. 경상감사 金世鎬를 해임하고 俞致善을 임명하였으며, 동래부사는 鄭顯德을 해임하고 朴齊寬으로

42) 『일성록』 고종 9년 6월 7일(경신), 8일(신유), 10월 3일(갑인); 『승정원일기』 고종9년 6월 7일(경신), 8일(신유)

43) 『승정원일기』 고종 10년 윤6월 10일(병술)

44) 『承政院日記』 고종 10년 9월 3일(무신)

45) 『高宗實錄』 고종 10년 11월 11일(병진), 13일(무오); 12월 2일(병자)

구선희는 고종이 친정 선포 후 일본과의 관계에서 대외정책에 변화를 보인 것은 단절되었던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도모하면서 이를 친정 기반으로 다지는데 활용하였다고 보았다(구선희, 앞의 논문(2011년), 114쪽).

교체하였으며, 훈도에는 玄昔運을 임명하였다.<sup>46)</sup>

## 2) 1874년 조일교섭과 교린관계의 재개 시도

고종의 대일정책에 변화가 있다는 사실은 2월경에 왜관에 전해졌고, 일본에 전해진 것은 1873년 3월경이었다. 외무성 관료로 왜관에 머물고 있던 오쿠[奧義制]의 보고를 통하여 일본 외무성에 전해졌다.<sup>47)</sup> 메이지정부는 조선 내 정세변화의 파악과 외무대승 소 시게마사[宗重正]의 조선 파견여부[宗氏渡韓]를 결정하기 위해 5월 15일 외무성 6등출사 모리야마 시게루[森山茂]의 조선 파견을 결정하였다.<sup>48)</sup> 太政大臣 산조 사네토미[三條實美]는 모리야마 일행에게 기선이 아닌 소형 일본선 3척을 타고 가서 1척은 왜관으로 들여보내 왜관 동정을 탐문하게 하고, 다른 2척은 거제와 울산의 해안으로 표류시켜서 조선의 접대 여부를 시험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리고 조선의 국내 상황이 소 외무대승이 조선에 건너갈 만한 형세가 아니라고 판단된다면 그 상황을 자세히 보고하여 왜관 유지의 방법을 마련하고, 만약 유지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그 내용을 급히 알려 왜관 내 인원의 진퇴는 지령을 기다리도록 하였다.<sup>49)</sup>

당시 고종의 왜관에 대한 관심은 대단히 높았다. 1874년 2월 26일[음 1월 10일] 동래부사 부임을 앞두고 있던 朴齊寬을 접견하는 자리에서 동래는 일본과 접경 지역이므로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줄 것을 지시하였다. 그리고 동래지역의 폐해와 조일관계의 경색으로 동래부에서 원래 왜관에 지급해야 할 쌀과 목면 등이 적체되어 있다는 사실을 빌미로 任譯들이 농간을 부리는 폐단이 있으므로 이를 조치하여 바로잡되, 훈도 이하 명령을 따르지 않은 자가 있거든 먼저 처형하고 나서 계문해도 된다고<sup>50)</sup> 지시함으로써 왜관을 둘러싸고 발생한 문제점에 대해서 ‘선처벌 후보고’라는 이례적이고도 강력한 조치를 주문하기까지 하였다.

5월에 있었던 조정 논의에서도 고종은 동래의 사정과 함께 왜관에 대해서도 물었다. 질문은 왜관에 일본 상인들이 많이 오는지, ‘館守倭[왜관 일본인]’와 ‘商賈倭[왜관 상인]’의 차이는 무엇인지로 질문이 확대되었다. 그리고 훈도의 선발과 파견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이에 영의정 李裕元은 왜관에 공급하기 위해 준비해 둔 물품 가운데 손상된 것을 많이 바꿔야 한다고 저간의 사정에 대해서 답변하고, 왜관에는 일본 상인들이 많이 와 있지만 대마인으로 왜관 관원으로 남아 있는 사람은 많이 남아 있지 않다고 ‘대마인 퇴거’이후의 왜관 상황을 전하고 있

46) 『고종실록』 고종 10년 12월 30일(갑진), 고종 11년 1월 10일(갑술)

47) 『日本外交文書』(韓國篇), 제1책, 529-531쪽

48) 『釜山府史原稿』 권4, 499-500쪽

49) 『朝鮮交際始末』 권3

50) 『承政院日記』 고종 10년 1월 10일(갑술); 『고종실록』 고종 11년 1월 10일(갑술)

다. 또한 왜관에 있는 일본 관원과 장사하는 일본인[倭商]은 구별되며, 훈도의 파견에 대해서는 논의를 거쳐서 합당한 자를 선발하여 파견하겠다고 답하였다.<sup>51)</sup>

또한 고종은 1874년 5~6월에 전국에 암행어사를 파견하면서 경상좌도 암행어사 朴定陽에게 동래부의 왜관에 관한 동향을 파악하라는 별도의 특지를 부여함으로써,<sup>52)</sup> 세견선이 단절된 원인의 규명과 譯官使[문위역관]의 파견을 타진하기도 하였다.<sup>53)</sup> 이러한 고종의 태도는 조선정부가 '대마인 퇴거' 조치 이후 왜관 내지 대일관계에 대해 방관하고 있지 않았으며, 오히려 조일교섭 재개를 위한 노력을 강구하고 있었음을 시사해준다.

고종의 대일외교 개선 노력은 6월부터 구체화되기 시작하였다. 동래부사 朴齊寬은 기존에 동래부사가 막았던 왜관 내 서양 목면의 거래를 금지할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밝히고, 이를 단속하는 병사에게 杖刑을 내릴 것을 명하는 등 조일간의 교섭이 宗씨의 주선에 따라 舊例대로 이루어진다면 조정할 뜻이 있음을 밝혔다.<sup>54)</sup> 이는 막혀있던 조일관계를 개선해보고자 하는 고종의 적극적인 의지가 왜관정책에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조선의 조치에 대해 일본은 고종 친정 이전에는 조선이 일본을 경멸하는 태도가 보였는데, 이후에는 일본인을 온화하게 대하고 조선이 일본과 교제를 끊으려는 것이 아니라 단지 盟約을 강구하고 있지 않고 있을 뿐이라고 평가하면서<sup>55)</sup> 고종 친정 이후 조선 조정이 대일교섭을 재개하려는 움직임에 감지하고 있었다. 이때 왜관에 있던 모리야마는 외무성에 조선정부의 國論이 一變했다고 보고하면서 소씨의 渡韓을 건의하였다.<sup>56)</sup>

8월에는 고종의 特旨를 받은 동래부사 朴齊寬과 암행어사 朴定陽은 동래부에서 훈도 안동준 이하 관계 하급관원을 조사하여 심문하고, 동래부 상인들을 통해 왜관 정보를 수집하였다.<sup>57)</sup> 왜관에 체류 중이던 모리야마는 배소통사 林三伊(林基弘)를 왜관으로 불러 조일관계가 중단된 이유를 설명하고, 간전관 우라세의 명의로 소통사 金福珠에게 문서를 주면서 일본측

51) 『承政院日記』 고종11 3월 20일(임술)

52) 『承政院日記』 고종 11년 12월 13일

암행어사 박정양은 동래부와 경상좌도의 상황을 보고하면서 훈도 安東峻이 공작미와 공목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취했다는 장문의 보고서를 고종에게 제출하였다. 고종은 왜관상황에 대해서도 묻고 있는데, 박정양은 동래에서 30리 떨어진 곳에 설문이 있고, 그 안에 훈도청이 있다. 그 앞에는 守門이 있으며 그 안에 왜관이 있다. 대개 설문 안에는 잡인들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어서 가서 볼 수 없었다. 그리고 9월에 동래에 가서 들었을 때 왜관에 있는 사람이 5~6명에 지나지 않고 商賈倭는 많이 있다고 들었다. 또한 높은 곳에 올라가 보면 입항하는 선박을 볼 수 있는지와 배의 모양에 대해서 묻자, 박정양은 배는 왜관 앞에 있어서 가까이 가서 볼 수 없어서 그 모양을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동래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火輪船이 왕래한다고 들었다고 보고하였다.

53) 『高宗實錄』 고종11년 6월 29일; 『朝鮮外交事務書』 9책, 191-195쪽

54) 『日本外交文書』(韓國篇), 제1책, 363-366쪽

55) 『朝鮮事務書』 27책, 明治 7년 6월 2일

56) 『朝鮮事務書』 27책, 明治 7년 6월 21일

57) 7월 17일에 이미 舊 소통사 林三伊(林基弘)로 개명)와 간전관 浦瀨裕 사이에 만남이 있었다. 이 만남은 임삼이의 요청에 의해 이뤄진 것이었는데, 임삼이는 먼저 대원군측의 인사로 기존에 대일정책을 수행해왔던 배통사 최재수와 관련한 왜관상황에 관하여 묻고 암행어사가 동래근처에 와서 '양국교제의 일을 探偵'하기 위해서 와 있다는 사실을 알렸다(『朝鮮事務書』 27책, 明治 7년 7월 21일).

이 타협할 수 있는 조건을 설명하고 그것을 암행어사와 동래부사에게 전달해 주도록 하였다. 그 내용은 국서 형식을 피하여 외무성과 예조 간에 서계를 왕복하고, 옛 대마도주 외무대승 宗氏에게 조선관계 사무를 관장하도록 한다는 내용이였다.<sup>58)</sup>

박제관과 박정양은 안동준이 훈도 재직 중에 조일교섭을 방해한 죄상이 분명하고, 경상도 관찰사 金世鎬와 동래부사 鄭顯德도 감독관으로서 중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조정에 보고하였다. 이에 영의정 이유원은 고종에게 조일교섭이 교착상태에 빠지게 된 데에는 대원군이 “일개 훈도의 말만 믿고 그가 하는 대로 내버려두고 있어서”였다고 설명하고, 1872년 봄에 취임한 경상감사와 동래부사에게 공목을 마련하도록 하여 왜관 공무역에 필요한 公木도 대기하도록 하였는데, 倭債가 아직도 여전한 이유를 잘 모르겠다고 하면서, 훈도 안동준을 의금부로 잡아와서 엄격히 조사하게 하고 필요하다면 渡海譯官을 파견하여 일본 내 사정을 잘 파악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함으로써<sup>59)</sup> 1868년 서계문제 이후 교착되어 있던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공식화하였다.

우의정 박규수는 조일교섭 장애의 단초가 되었던 서계의 내용에 대해서 “倭主가 관백을 축출하고 국정을 총괄한다는 것은 그들이 과장하는 것이며, 對馬島主가 ‘皇帝’, ‘勅書’등을 표기한 것은 그들 자신이 높여서 부른 것이지 조선에 ‘황제’, ‘칙서’를 불러달라는 요구는 아니며, 대마도주의 爵位를 이전과 달리 부르는 것은 그가 점임으로 벼슬을 더 받을 수도 있는 만큼 문제될 것은 없다는 입장을 내놓음으로써, ‘皇’, ‘勅’의 문자가 쓰인 서계의 수용을 주장하였다.<sup>60)</sup> 이는 조정에서 나온 서계 수용에 관한 최초의 주장이었다.

고종의 대일정책의 변화는 먼저 기존 대일관계를 주도했던 실무자들의 인적청산으로 구체화된다. 고종은 8월 14일[음 7월 3일]에 경상감사 김세호를 파직하고, 동래부사 정현덕은 함경도 문천군으로 유배되었으며, 훈도 안동준은 의금부로 압송되었고, 배소통사 최재수는 동래 감옥에 갇혔으며, 휘하의 관련자들 또한 捕縛되었다.<sup>61)</sup> 의금부로 압송된 훈도 안동준은 公米와 公木을 유용하고 이자놀음을 하며 농간을 부렸다는 죄목으로 이듬해인 1875년 4월16일 동래부에서 효수형에 처해졌다. 안동준이 의금부에서 심한 고문에도 自服하지 않았던 사실로 미루어 안동준에 대한 처벌은 대원군의 대일정책에 대한 재검토와 1873년 고종이 친정을 시작한 이후 서계문제로 교착된 대일관계를 타개하기 위해 취해진 일종의 상징적 조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경상감사 김세호와 동래부사 정현덕, 배소통사 최재수에 대한 처벌도 마찬

58) 『日本外交文書』(韓國篇), 제1책, 387-393쪽

59) 『承政院日記』 고종 11년 6월 29일(경자); 『일성록』 고종 11년 6월 29일(경자)

60) 『朴珪壽全集』上, 772-773쪽; 김홍수, 위의 책 344쪽 주 45)에서 재인용

61) 『日省錄』 고종 11년 7월 3일(계묘), 4일(갑진); 『朝鮮事務書』, 27권 明治 7년 8월 19일

가지이다.

마침내 그해 8월 16일 동래주 裨將 南孝源이 부사 박제관의 밀명을 가지고 왜관을 방문하였다.<sup>62)</sup> 이때 남효원은 간전관 우라세와 館長 모리야마 시게루[森山茂]와 함께 조일관계 정상화를 위한 타개 방법으로 서계 문제, 쌍방간의 교섭 상대와 감함인 등에 대한 협의를 시작하였다.<sup>63)</sup> 당시 동래부사가 제안한 타협안은 ①서계에 대하여 ‘皇’·‘勅’ 등의 문자를 문제삼지는 않겠지만 가능한 한 朝廷·朝命 등으로 바꾸어 줄 것, ② 양국간의 서계는 일본 외무경과 조선 예조판서, 그리고 외무대승과 예조참판 사이에서 왕복하도록 하며, ③圖書는 서계 내에는 일본에서 만든 印章을 사용하되 바깥 封印은 조선에서 주조한 것을 사용해줄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모리야마는 조일간의 서계는 일본 외무경↔조선 예조판서, 그리고 외무대승↔예조참판 사이에서 왕복하며, ‘皇’, ‘勅’ 등의 자구를 일본 서계에서는 사용하겠지만 조선의 회답서계에서 ‘皇’, ‘勅’ 등의 사용 여부는 조선측의 뜻대로 하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에 남효원은 조만간 호의적으로 회답하겠다는 말을 남기고 떠났다.

이튿날인 17일에는 부산첨사가 왜관에 帶率軍官을 보내 신임훈도가 곧 부임할 것이라는 소식을 전하고 전례대로 왜관에 柴炭의 支供을 재개하고, 우선 숯 30把를 지급하였다. 柴炭은 館長, 1대관, 別禁徒, 幹傳官, 3代官을 비롯하여 의원·仕丁·小使·大工 등 12명에게 지급되었다.<sup>64)</sup>

신임 훈도 玄昔運은 모리야마와 교섭재개 및 현안에 대한 답판을 위해 9월 3일 신임 별차 玄濟舜과 함께 왜관을 방문하였다.<sup>65)</sup> 현석운과 모리야마의 만남은 1868년 이후 조선관리가 일본 관리를 공식적으로 접견한 최초의 사례였다.<sup>66)</sup> 그 자리에서 양측은 심의 마지막 단계에서 모리야마가 제시한 세 조건 가운데 한 가지를 양국 교섭 재개의 기초 안으로 삼을 것을 제안하였다. 세 조건은 ① 임신년(1872) 3월 ‘差使’사가라 마사키가 전달한 예조참판 및 동래부사와 부산첨사 앞으로 보낸 외무대승 소 시게마사의 신미년(1871) 서계를 수리하고, 회답서계를 발송해 줄 것, ② 서계를 새롭게 작성한다면 외무경↔예조판서, 외무대승↔예조참판에게 보내는 것으로 작성하고, 별도의 使員을 임명해서 서계와 함께 동래부로 보내서 동래부사와 그 접대형식에 관해 상의할 것, ③ 제1조와 제2조의 실행이 곤란하다면 조선에서 통신사 또는 별견도해역관 형식으로 도교에 사절을 보내서 외무성과 직접 節目을 협의하게 할 것 등

62) 『朝鮮交際始末』 권3

63) 『日本外交文書』(韓國篇) 제1책, 374-383

64) 『日本外交文書』(韓國篇) 제1책, 590쪽; 『朝鮮事務書』 27책, 明治 7년 8월 20일, 21일

65) 『日本外交文書』(韓國篇) 제1책, 576쪽

66) 田保橋潔, 위의 책, 344쪽

이었다.<sup>67)</sup>

그 사이 훈도 현석운이 왜관을 방문하기 며칠 전인 8월 28일에는 동래부 안핵사·대솔군 관·太凡谷 등 세 명이 관광을 핑계로 왜관을 방문했다. 모리야마는 그들에게 일본 정부가 조선과의 교섭 재개를 바라고 있다고 설명하고, 일본 정부의 관직표를 전달했다. 이에 大凡谷은 상경하여 조정에 알리겠다고 하였는데,<sup>68)</sup> 9월 24일 다시 왜관을 방문해서 금위대장 趙寧夏의 私書를 모리야마에게 전하였다.<sup>69)</sup>

당시 조정의 분위기는 朴珪壽와 李裕元의 의견대로 대마에서 서계를 개찬해 오면 받아들이자는 입장이었다.<sup>70)</sup> 9월 10일[음 7월 30일]에 있었던 영의정 이유원은 1873년 겨울에 경상감영과 동래부로 하여금 왜관에 지급할 공목과 공작미를 보고하도록 하였는데 보고에는 축난 것이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요즈음 쌀과 무명을 돈이나 標로 받아두면서 허위보고를 일삼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새롭게 임명된 경상감사와 동래부사에게 엄격히 타일러 “(공목과 공작미를) 잘 쌓아두고 쓰게 될 때를 기다리게 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고종은 각별히 嚴飭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sup>71)</sup> 이는 조선정부가 언제든지 일본과 관계를 개선할 의지가 있으며 그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며, 조선정부가 대마와의 통교관계를 전제로 한 대일정책을 기본으로 삼고 있었던 기존의 시각에서 벗어나 “기유약조에 기초하여 대마와의 통교관계복구의 불가능성과 對馬의 존재를 전제로 한 對日政略에 대한 재조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하였고, 그에 따라 대일정책의 일대 전환이 가시화되었음을 의미한다.<sup>72)</sup>

이를 계기로 도 현석운, 별차 玄濟舜은 모리야마 등과 공식적인 접촉을 하게 되었다.<sup>73)</sup> 모리야마는 이튿날인 9월 25일에 太凡谷을 통하여 趙寧夏에게 회신을 보냈는데, 여기서 그는

67) 『日本外交文書』(韓國篇) 제1책, 582쪽

68) 암행어사 박정양의 3명의 수행원과 함께 훈도 현석운이 모리야마와의 협의를 위해 왜관을 방문하기 며칠 전인 8월 28일 관광을 핑계로 왜관을 방문했다. 당시 세 명의 수행원은 우리세[浦瀨裕]의 거처를 방문하고 모리야마[森山茂]를 만나 종일토록 應答을 했다. 이들은 조일간에 교섭이 수년 동안 중단된 것은 중간에 陰蔽의 간사함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고, 그 책임을 물어 전 동래부사 정현덕과 훈도 안동준, 배통사 최재수 등 관련자들을 처벌했다는 사실을 왜관 측에 전하고 있다. 모리야마는 그들을 불러 일본 정부가 조선과 교섭하고자 한다고 알리고, 일본 관제를 상세히 기록한 문서를 전달했다. 당시 太凡谷은 상경해서 정부 인사에게 설명하겠다고 하면서 떠났었다(『朝鮮事務書』, 27책 明治 8월 28일).

69) 田保橋潔, 위의 책, 348-349쪽

私書의 내용은 1868년과 1871년 이래로 서계격식이 규정을 위반하고 왜관에서 연례공작미 등을 수령해가지 않는 등 양국간에 문제가 발생했는데도 그 원인을 밝히지 않았다. 이에 조선 조정에서는 일본측에 도해역관을 파견해서 그 원인을 밝히기 전에 암행어사(박정양)를 파견하여 동래와 부산의 실정을 조사한 결과 훈도와 통사 무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더불어 이전에 大凡谷을 통하여 일본측의 대조선교섭 재개의 바람을 들었고, 일본 정부의 고관직표를 보내줬으니 이는 귀국의 선린우의의 의지가 진실함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70) 『일성록』, 고종 11년 8월 9일

71) 『비변사등록』, 고종 11년 7월 30일; 『승정원일기』, 고종 11년 7월 30일

72) 宋安鍾, 『1874年の朝鮮政府の日朝交渉再開要因-日朝修好條規締結の研究(-)』, 『阪大法學』 45-6, 1996년; 石川寬, 『倭館接收後の日朝關係と對馬』, 2-3쪽 재인용

73) 『日省錄』, 고종 11년[1874] 8월 9일; 『日本外交文書』(韓國篇), 제1책, 578-579쪽

훈도 현석운과 3개 조건을 협정한 사실을 알리고 그 주선을 의뢰하였다.<sup>74)</sup> 그리고 이 사실을 본국에 보고하였다.<sup>75)</sup>

조선 조정에서는 1874년 9월 19일 모리야마가 제시한 세 가지 안 가운데서 신미년(1871) 서계는 당시에 이미 불허한 것이므로 다시 논할 수 없으며 통신사의 파견은 선례가 있으므로 거부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서계를 다시 작성해 오겠다고 한 이상 받아들이고, 개찬된 서계가 타당하지 않으면 다시 배척한다는 조건으로 제 2안을 채택하였다. 당시 조선에서는 이전의 서계 문제에 대해서 만약 다시 고쳐서 가지고 온다면 이전의 교린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던 것이다.<sup>76)</sup>

9월 28일 왜관에서 모리야마와 회견을 갖은 훈도 玄昔運은 “정부의 回下는 제2조를 승인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는데, 서계 중에 ‘皇上’은 ‘天子’로 고쳤으면 좋겠다”는 조선의 입장을 전달하였다. 그러나 모리야마가 조선에 건너온 것은 조선 국내사정을 조사하기 위한 것이지 조선 관리와의 교섭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모리야마는 히로츠를 통하여 자신에게 교섭권한 등을 내려줄 것을 외무성에 요청하였다.<sup>77)</sup> 그리고 동래부사와 교섭을 갖고 조일 국교재개를 위한 조건을 협정했다.<sup>78)</sup> 결국 훈도 현석운과 모리야마의 타협안을 계기로 宗氏의 渡韓은 필요가 없게 되었다.

결국 귀국하게 된 모리야마는 10월 1일 밤 훈도에게 口演書를 전달하고 자신의 귀국 계획을 통보했다. 그리고 50일 이내로 협정 조건에 따라 외무경과 외무대승의 서계를 가져오겠다고 하고, 소씨 문인을 대체할 외무경 표기 초안을 제시했다. 또한 공관장 대리 오쿠를 지명하고, 이러한 사항을 동래부사에게 전달할 것을 요구하였다.<sup>79)</sup>

口演書의 내용은 왜관에 영사관 또는 館長, 屬官을 두는 것은 오직 사무를 판별하여 처리하고, 인민을 단속하고 관리하기 위함이다. 두 나라 간에 금지된 물품 이외에 여러 가지 상품의 무역은 백성의 뜻에 맡기며, 관에는 都賈를 두거나 별도의 법을 만들어서 무역을 금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리고 양국의 공식적인 사무를 처리하는 관원과 屬員이 무역에 참여하는 것을 금하며, 표류민의 경우는 전례대로 구호할 것이며, 양국 백성의 호송 및 인도 절차는 영사관 또는 관장이 동래부사와 문서를 교환하여 시행할 것 등의 규정이었다. 결국 표류민 송환을 비롯한 모든 외교적 절차는 대마↔조선(동래)과의 관계에서 외무성↔조선(예조)로

74) 『朝鮮交際始末』 권3

75) 『日本外交文書』(韓國篇), 제1책, 589쪽

76) 『高宗時代史』 고종 11년 8월 9일

77) 『朝鮮講信錄』 3, 김흥수, 위의 책, 357쪽에서 재인용

78) 『日本外交文書』(韓國篇), 제1책, 578-580쪽. 김흥수는 이것을 박-모리야마 협정이라고 명명하였다(김흥수, 위의 책, 356-364쪽).

79) 위의 같음.

설정하고, 대마↔조선과의 공무역을 폐지함으로써 대마는 무역조차도 관장할 수 없게 되었다.<sup>80)</sup> 이는 1861년 에도막부[江戸幕府] 내부에서부터 조선과의 외교·무역을 직접 지배하고자 하였던 것이 메이지정부에 의해 실현된 것으로 이로써 메이지 정부는 조선과의 외교관계 및 무역까지도 장악하게 된 것이다. 드디어 10월 2일에, 동래부사가 별차 玄濟舜을 통하여 왜관에 있는 모리야마에게 短簡을 전달하였는데, 이것은 조선관리가 외무성 파견원에게 보낸 최초의 공문이었다.<sup>81)</sup> 모리야마는 1874년 10월 도쿄에 상경해서 이 사실을 復命하였다.<sup>82)</sup>

그러나 이러한 조선정부의 대일정책 전환과 조일교섭 재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혼도 현석운과 모리야마의 합의내용은 그대로 이행되지 못하였다. 1875년 2월 24일 이사관으로 승진한 모리야마는 예조판서와 예조참판앞 外務卿의 서계와 外務大丞의 서계, 그리고 외무경의 위임장과 訓諭을 지참하고 부산에 도착하였다. 이 서계에는 도서의 반납과 新印을 사용하겠다는 내용이 들었다. 동래부사 黃正淵의 보고를 받은 조정에서는 3월 16일, 1874년 9월 3일의 합의와 차이가 있고, 도서를 반납하고 외무성이 노인을 작성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으므로, 이사관의 영접은 거행하되 서계는 수정을 요구하라는 回下를 내려보냈다. 더욱이 모리야마가 연향시에 연향대청의 정문 출입과 도서 개편 외에도 大禮服 착용을 주장하게 되면서 5월 18일 회담은 결렬되면서 고종정권의 교린외교 재개의 노력은 교착상태에 봉착하게 되고 말았다. 이후 조정에서는 선후책에 관한 논의를 하면서 왜관을 폐쇄하지 않고 조일교섭을 복원해보고자 하였으나 일본 메이지정부의 답은 10월 3일 군함 가스카[春日丸]의 부산 입항과 10월 27일 일본 해군 소장 나카무다 쿠라노스케[中牟田倉之助]가 군함 모순[孟春]의 부산에 입항, 그리고 무력을 과시하는 함포 발사였다. 이로써 조선의 교린체제의 복구라는 대일정책의 방향은 더욱 요원해지게 되었다.

80) 『日本外交文書』(韓國篇), 제1책, 592쪽

81) 田保橋潔, 위의 책, 353쪽

82) 『日本外交文書』(韓國篇), 제1책, 595-597쪽

## 4. 1872년~1874년의 왜관 상황

### 1) 동래부의 왜관 관리와 대규모 군사훈련

#### (1) 동래부의 왜관 관리

왜관에서 대마인이 퇴거하고 세견선이 폐지된 1872년 9월 이후 동래부는 외무성 관리의 주재를 묵인하면서 왜관에 대한 통제와 관리를 강화하였다. 동래부와 경상좌수영의 관리들은 해안 경비와 입항을 요청하는 왜인들에 대해 여전히 路引을 요구하였다. 왜관에는 적게는 8-9명, 많게는 18-19명을 태운 소형선박인 飛船의 출입이 잦았다. 모든 비선은 노인을 소지하지 않은 채 도항해 경우 불법으로 취급되었으며, 대마로 귀환할 때는 반드시 부산진에서 발급한 路文을 수령하였다. 또한 왜관에는 표류민을 태운 선박도 들어왔고, 화륜선도 입항했다. 그럴 때마다 조선측에서는 모든 선박에 노인 소지 여부를 확인했고, 표민선의 경우는 서계의 지참 여부를 확인했다. 서계를 지참하지 않은 표민선의 경우 관수왜를 통해서 반드시 문제를 삼으면서 그들의 출입을 통제하였다.<sup>83)</sup>

‘대마인 퇴거 조치’이후에도 동래부의 출입국 관리는 변함이 없다. 즉, 일본에서 배가 영해로 들어오는 것을 발견한 황령산 봉군이 부산진과 동래부에 알리면 두모포만호가 전선을 이끌고 나가 인솔하여 왜관에 입항시키고, 훈도는 이들을 문정하고 이들이 지참한 路引을 첨부하여 예조에 보고한다. 이들이 떠날 때에는 부산진에서 路文을 발급하여 출발시키며, 이들이 떠난 사실은 부산진과 구봉 봉군이 확인하여 보고하는 시스템은 더욱 엄정하게 지켜졌다.<sup>84)</sup>

그러나 大船이 飛船의 路引을 지참하여 들어오게 되었다는 점과 또한 노인의 발급 주체가 외무성으로 넘어갔다는 점에서는 큰 변화가 있다. 1872년 11월 9일 옥포에 표류하였던 大船이 노인을 지참하고 온 것이 시초이다. 그리고 11월 11일, 11월 14일에 연이어 대신이 비선 노인으로 들어와 훈도는 관수에게 즉시 퇴거 조치를 하였지만, 1873년 1월 13일(음 12월 5일) 대·중·소선 모두 노인 도항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로써 기유약조에서 규정된 선척 규정은 더 이상 의미를 상실하게 되었다.<sup>85)</sup>

한편 동래부는 왜관의 수비를 강화하는 조짐을 보인다. 우선 番船을 배치하고 왜관 수비병을 증가시켰다. 왜관측의 항의에 대해서는 동래부사의 壽命이라는 사실을 들어 거절하고, 왜관

83) 현명철, 2015, 「1872년 일본 화륜선의 왜관 입항」, 『동북아역사논총』 49, 동북아역사재단.

84) 위와 같음.

85) 현명철, 2015, 「己酉約條의 붕괴와 강화도조약의 체결」, 2015년 12월 12일 한일관계사학회 주최 왜관 워크숍 발표문

에는 館直 30명 정도가 매일 왜관에 들어가 순찰을 하는 등 왜관 감독에 보다 철저함을 기하였다.<sup>86)</sup>

왜관 건물의 점검과 修理도 변함없이 이루어졌다. 훈도와 별차가 왜관에 들어가 왜관 건물을 점검하고 동래부에서는 왜관 수리를 命하였다. 1873년 1월 1일(양 1월 29일) 새해가 되자 훈도 안동준과 별차 玄豊瑞는 왜관에 들어가 왜관 건물의 파손 상태를 점검하였으며,<sup>87)</sup> 4월에는 왜관측의 요청으로 왜관의 선창을 수리하였다. 왜관 책임자 오쿠가 왜관 앞 선창이 겨울에 파손되었다고 하면서 동래부에 수리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소통사 朴琪淙이 任所에서 처리할 사항이라고 전달하겠다고만 말하고 수리를 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오쿠가 4월 7일(음력 3월 11일) 배통사 최재수에게 왜관의 비용, 즉 일본측의 비용으로 선창을 수리를 하겠다고 제안하자, 4월 19일(음 3월 23일) 최재수가 왜관에 들어와 동래부에서 선창 수리를 해주라는 명이 내려왔다고 알려왔다.

당시 훈도는 동래부가 왜관 난출과 대관소의 폐지 등으로 원만한 조일교섭이 진행될 수 없는 상황에서 기존의 선창 수리의 절차[관수를 통하여 任所에 하달하여 인부를 차출하고 동래부와 왜관 인원이 입회하여 처리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지만 “(왜관은) 우리나라의 토지요, 우리나라의 선창이므로 원래 막대한 인원을 들여서 축조한 것이므로, 대관소가 철수하였고 해서 그대로 방치하기 어렵다. 하물며 풍파에 의해 파손이 더 심해지는 상황이므로 너희들이 분주하게 수복하지 못한 뜻을 듣고 수리하기로 하였다.”라고 하면서 선창 수리에 임하게 된 배경을 전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오쿠는 일본이 수리를 하게 되면 후에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해 준 것으로 이해하였다.<sup>88)</sup>

5월 7일(음 4월 11일)에도 軍官頭 별군관을 거느리고 동래부사의 지시에 따라 선창 및 관내 담장을 살펴보기 위해 왜관에 들어와 살피고 돌아갔으며,<sup>89)</sup> 10월 28일(음 9월 8일)에는 초량객사가 수리된 지 오래되어 훼손이 심하기 때문에 絶影島와 松田에서 재료를 마련하여 공사하기 위해 객사의 殿牌를 부산 영가대로 옮겨졌다. 객사의 수리는 10월 20일 완료되었다.<sup>90)</sup> 이후에도 왜관 건물이나 선창 수리에 대한 요구는 계속되었다. 이렇듯 조일간의 공식적인 관계가 중단된 상황에서도 동래부가 전례에 준하여 왜관측의 요구에 응한 것은 일본과의 외교교섭의 중단을 원하지 않았고, 왜관이 조선이 통제하고 관리하는 공간이라는 생각에 변화가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86) 위와 같음

87) 『동래부계록』 1873년 1월 1일조

88) 『日本外交文書』(韓國篇), 제1책, 446-447쪽

89) 『朝鮮外交事務書』 6, 265쪽

90) 『동래부계록』 1873년 9월 1일조; 『조선외교사무서』 3, 309쪽

## (2) 군사훈련

왜관 무역권을 박탈당한 구대관소 상인들을 통해서 일본이 조선이나 타이완을 상대로 전쟁을 할 것이라는 소문이 전해지면서 3월 15~16일에는 東萊大調練이라는 대규모의 육군 훈련이 시행되고, 4월 15일경에는 水軍의 대규모 훈련이 있었다. 이러한 동래부의 군사훈련은 이즈하라[嚴原]에 머물면서 대조선교섭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히로츠를 통하여 1873년 4월 25일 외무대승 하나부사와 7층 출사 모리야마에게 전해졌다. 그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873년 3월 16일 경에 조선측에서 대규모훈련을 했다는 소식이 있었고, 3월 20일에는 동래에서 대규모 훈련이 있었다. 그리고 4월 15일에는 훈련군대가 부산성 아래로 이어진 開雲鎭 해변가, 즉 초량왜관에서 바닷가로 직경 40丁 되는 곳까지 밀고 들어와서 오전 10시 경부터 진을 치고 발포하였으며, 붉은색, 푸른색, 흰색 옷을 입은 군사가 모두 2천 5~백명 정도였는데, 세로 1칸 반, 폭 2칸 반이 넘는 백기에 帥라는 커다란 문자가 쓰인 깃발과 크고 작은 깃발을 나부끼며 野陣을 친 모습으로 대오를 지어 진퇴의 움직임이 없었다는 것이다. 이 훈련은 저녁 10시 넘어서까지 이루어졌는데, 동래부사와 부산첨사는 물론 근처의 수영·병영·첨절제사도 참여하였으며, 모처에서 600인, 僧作隊에서 300인, 부산에서 700인, 多一浦에서 500인이 동원되었다고 하였다. 나중에 왜관에 들어온 배소통사 최재수에 따르면, 동래·금정산성·부산·다일포·서생진·두모진·개운진에서 각각 출병하였으며, 그 수가 수만인에 달하고, 당시 사용한 대포는 조선에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하였다.<sup>91)</sup>

5월 7일(음 4월 11)과 5월 14일에도 왜관에서 조선 수군의 훈련 모습이 포착된다. 다대포 첨사가 수군을 진두지휘하여 왜관 앞바다를 서서히 행진하여 부산진 앞바다에서 정박하였는데, 이 수군의 훈련 또한 왜관에 힘을 과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수군 훈련 시에 혼도 안동준도 200인의 장수가 되어 최재수도 그 부대에 속하고 붉은 甲冑를 입고 작은 배의 선장이 되었다. 또 대포 1정을 받아 관리하기까지 하였다.<sup>92)</sup> 히로츠는 이와같은 동래부의 군사훈련은 일본이 조만간 군함을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하여 그에 대한 대비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조선이 있을지도 모르는 일본으로부터의 무력적인 위협에 대해서 막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왜관측에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고 이해하였다.<sup>93)</sup>

91) 『日本外交文書(韓國篇)』 제1책, 444-446쪽

92) 『일본외교문서』(한국편), 제1책, 472-474쪽

93) 『日本外交文書(韓國篇)』 제1책, 444-446쪽

## 2) 일본 상인들의 교역활동과 배통사 崔在守의 2萬貫文 대부사건

### (1) 일본 상인들의 교역활동

‘대마인 퇴거’당시 일본 외무성은 왜관 상인들을 철수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하였으나 최종적으로는 왜관에서 상인들의 교역은 ‘양국에 긴요한 일’로 규정하여 왜관에서의 교역활동을 대마인에 한정하지 않고, 여타 일본인에게도 허용하였다. 그러나 왜관무역은 私貿易[開市]도 세견선의 왕래에 동반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동래부에서는 사무역을 정지하고 朝市만을 묵인하였다. 이에 外務省은 상인의 자유로운 무역활동으로 잠상[密貿易]을 활성화하는 방침을 취하게 된다. 모리야마는 왜관에 있는 오쿠에게 “잠시 내외의 암묵적인 허가의 지위를 얻도록”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sup>94)</sup> 그 결과 1873년 2월에는 “현재 상황은 潛商도 더욱 성하게 되어 모두 서로 장애가 되는 일은 없게 되었다”라는 모리야마의 보고가 있을 정도로 왜관내 교역은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5월에 들어가면서 동래부는 갑자기 잠상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였다. 5월 2일(음 4월 5일) 동래부 소속 군관이 왜관에 들어가 왜관을 감시하던 4곳의 복병장 등을 포박하고 태형에 처하였다. 그리고 동래부에서 銃隊 100여명은 남쪽 해변과 여러 곳의 장소에 보내어 순시를 강화하고, 番船을 배치하는 등 잠상을 감시하였다. 그날부터 단속은 더욱 엄격해져서 왜관에서는 잠상이 전혀 들어오지 못하여 ‘一品一物의 상거래’도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고, 조시에서 조차 면포·비단·엿·생선·계란 등이 守門에서 압수되는 등 왜관으로의 상품 반입이 차단되기까지 하였다.<sup>95)</sup>

이러한 배경에는 도쿄상인인 미쓰코시 노리베[三越則兵衛]의 데다이[手代]인 가토 가쓰조[加藤勝藏], 우에무라 가쿠조[上村角藏]가 대마 상인 미키야[三木屋]의 명의로 1873년 4월 21일 왜관에 건너와 동래상인과 무역을 시도한 사건이 있었다.<sup>96)</sup> 히로츠가 왜관에 부임한 직후 발생한 이 사건은 조선의 왜관정책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었다. 조선은 왜관 무역은 대마인에게만 허락한 것으로 대마 이외의 일본인이 왜관에서 교역하는 것은 결코 허락할 수 없는 것이며, 이는 밀무역에 해당된다는 입장이었다. 즉, 도쿄 상인이 왜관에서 조선인과 무역을 시도한 행위는 ‘無法之國’에 해당하는 것으로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것이었으므로, 동래부사는 5월 28일 왜관 수문에 잠상을 금하는 傳令書를 붙이고, 守門將과 소통사에게 단속을 엄하게

94) 『朝鮮外交事務書』 6, 606-625쪽

95) 『日本外交文書』(韓國篇), 제1책, 461-465쪽, 472-475쪽

96) 『日本外交文書』(韓國篇), 제1책, 441-442쪽.

하도록 명하였다.<sup>97)</sup> 그러나 이들 도쿄상인과 히로츠가 왜관에서 돌아간 뒤에는 밤마다 잠상들이 옛날처럼 성행하게 되었다.<sup>98)</sup> 이렇듯 동래부사가 대마 출신이 아닌 타지역 일본인의 왜관내 상거래를 엄하게 단속한 것은 대마와의 지속적인 교섭을 조일관계의 기본으로 여기는 조선의 대일방침이 잘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2) 배통사 崔在守의 2萬貫文 대부사건

1874년 1월 23일 배통사 최재수는 소통사 일행(朴思源, 朴琪淙, 金采吉)을 데리고 왜관에 들어가 당시 왜관에 머물러 있던 80여명의 대마 상인 가운데 20인<sup>99)</sup>을 뽑아 2萬貫文[일본돈 2만 7천엔]을 대부해 주었다. 최재수는 상인 미츠이 센에몬[三井善右衛門]을 방문하여 왜관을 출입하면서 신세를 지었기 때문에 보답의 차원에서 낮은 이율로 2만관문을 대부해 줄 것을 제안하였다. 결국 왜관 상인들은 2만관문의 차입을 결정하고 계약서를 교환했지만 당시 왜관을 책임지고 있던 오쿠[奥義制]가 알게 되면서 2월 8일에 오쿠는 계약을 파기시켰다.<sup>100)</sup>

계약을 파기당한 최재수는 2월 9일 오쿠와 스카다 이라[東田伊良], 왜관 상인 豊武七을 방문하여 왜관 내 교역을 모두 중지하고 임소를 철수할 것이며, 지난 날 받았던 布海苔의 매입금을 돌려준다고 전해왔다.<sup>101)</sup> 당시 최재수는 2만관문을 왜관 상인들에게 빌려줬던 의도는 상인간의 교역만으로 양국의 ‘隣誼’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었다고 설명하였다.<sup>102)</sup> 그러나 오쿠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최재수와 왜관 상인들은 명목을 바꿔 은밀하게 2만관문 차입을 재계약 하였다. 그 때문에 “왜관 상인들은 한쪽은 윤택하고, 다른 한쪽은 어려워져서 내심 나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sup>103)</sup>

이 사실이 오쿠에게 알려지면서 재계약에 관한 증거를 찾고 있던 중인 3월 15일, 한밤중에 화약을 적재한 조선 배가 실화로 폭발하여 세 척의 배가 파괴되고, 10여 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한 대참사가 일어났다.<sup>104)</sup> 조사 결과 이 화약은 최재수의 잠상품으로, 화약을 의뢰한 상대는 왜관 상인 豊武七과 阿比留福治로 판명되었다. 결국 오쿠는 최재수의 2만관문 대역사

97) 『日本外交文書』(韓國篇), 제1책, 478쪽

12월 18일에도 동래부사는 대마인 이외의 일본인들의 왜관 무역을 금하는 명령을 내리고 설문 門將을 단속하는 형식의 고시문을 공시하였다(『朝鮮外交事務書』 9, 129-132쪽).

98) 『조선외교사무서』, 7, 355쪽

99) 20인의 성명은 다음과 같다. 後藤嘉衛·豊武七·三井善右衛門·古谷豊次郎·櫻井覺兵衛·安藤善作·馬場豊作·原田善作·山田安兵衛·高木政太郎·宮田伊兵衛·北崎良助·總島和作·秦孫右衛門·保家初治·浦崎荒治·阿比留福治·伊藤清次郎·西村友助·福田増兵衛. 후에 久賀良助가 더해진다.

100) 『朝鮮外交事務書』, 8, 287-288쪽

101) 『日本外交文書』(韓國篇), 제1책, 526-529쪽

102) 『朝鮮外交事務書』, 8, 319-320쪽

103) 『日本外交文書』(韓國篇), 제1책, 529-531쪽

104) 『朝鮮外交事務書』, 8, 453-455쪽, 458쪽, 559-561쪽

건과 화약폭발 사건이 연관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豊武七과 阿比留福治에게 왜관 퇴관을 명하였다. 그리고 20일에는 桜井角兵衛의 자백으로 2만관문의 차입을 재계약한 사실을 밝혀내고,<sup>105)</sup> 이 사건에 관련된 중심인물을 나가사키현 지청에 통지하는 한편, 외무성에 왜관 상인의 엄중한 단속을 요청하였다.<sup>106)</sup>

사건이 마무리되자 오쿠는 왜관에 장문의 ‘諭告館內商民’을 고시하였다.<sup>107)</sup> 이제까지의 조선과 대마와의 관계를 부정하는 것으로,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 조선과 깊이 연결되어 있던 대마인에게 ‘皇國’의 일원임을 자각시키는 내용이었다.<sup>108)</sup>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 사건은 1873년에 있었던 도쿄상인의 잠상 사건과 함께 조선이 대마를 교섭대상으로 하여 근세적 대일관계를 끊임없이 지향했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대마인 퇴거 조치’는 그 후 전개된 왜관 내 상황으로 미루어볼 때 조일외교와 무역의 장으로서 왜관의 폐지를 의미한 것이 아니었음을 주목해야할 것이다. 비록 메이지정부가 왜관을 일방적으로 ‘大日本國公館’으로 명명했지만, 조선은 인정하지 않았다. 비록 세견선의 중단으로 기존에 진행되었던 조일간의 외교와 무역적인 절차는 다소 중단되거나 축소되었다고 하더라도, 1876년 강화도조약 체결 때까지 왜관의 기능은 유지되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따라서 1872년 9월에 이뤄진 메이지 정부 외무성의 ‘대마인 퇴거’조치는 교린체제라는 기존의 조일관계에 근본적인 변화는 이끌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 5. 맺음말

105) 『朝鮮外交事務書』 8, 457-465쪽

106) 『日本外交文書』(韓國篇), 제1책, 531-534쪽

107) 『日本外交文書』(韓國篇), 제1책, 537-540쪽

108) 石川寛, 위의 논문(2004), 10쪽

# 高宗の親政と日朝交隣関係の再開に向けた取り組み

張舜順（全北大学校史学科講師）

1. はじめに
2. 明治政府による「対馬人退去」措置
3. 高宗の親政と対日政策の変化
  - 1) 高宗の親政宣布と対日政策の転換
  - 2) 1874年日朝交渉と交隣関係の再開に向けた取り組み
4. 1872年～1874年の倭館の状況
5. おわりに

## 1. はじめに

1868年の明治維新と呼ばれる政治的変革の結果、日本では武家政権の徳川幕府が崩壊し、12世紀末以降政治活動から排除されてきた天皇を行政府の首班とする明治新政権が創出された。このような日本の政治的変動は朝鮮との関係にも大きな変化をもたらした。過去、徳川幕府を代理して対朝鮮通交を担当し、朝鮮との貿易を独占していた対馬島主が外交の第一線から退く代わりに、明治政府が直接朝鮮との通交交渉及び改編に乗り出した。明治政府による「外交の一元化」<sup>1)</sup>と命名されているこのような歴史的過程において、朝鮮と日本の両国が直面する最大の問題は日本国内の政治的変

---

1) 「外交の近代的改編」あるいは「外交体制の一元化」という用語は、日本明治新政権の創出と関連して日朝間の関係において起こった変化に注目したものであり、日本史的観点から出てきた表現である。したがって、日朝両国の状況を十分に代弁しうる両国史的観点の新しい用語の確立が必要な状況である。

化、すなわち王政復古事実の朝鮮への通告と通交関係の改編であった。

1868年12月19日、大修大差使の樋口鉄四郎・平和節が釜山に到着した。そして1月25日に王政復古の事実を倭館に知らせ、幕府の標札を取り払っている<sup>2)</sup>。大修大差使と対面した訓導は1月29日、政府に書契の謄本を報告した。しかし、書契の内容は単純に王政復古の事実の通知ではなく、むしろ朝鮮から無礼だとの評価を受けることになり、書契の受け取り及び受理は日朝間の葛藤の種となった。そして、このような葛藤は、その後しばらく日朝間における国交再開の重要な争点として作用した。

主な争点をまとめると次の通りである。第一に、日本側が朝鮮に送る書契の書式において宛先を「朝鮮国礼曹参判大人閣下」から「朝鮮国礼曹参判公閣下」とし、差出人の対馬島主を「日本国臣従四位侍従対馬州太守平某」から「日本国左近衛少将対馬守平朝臣」とした。第二に、書契の内容に「皇室」、「奉勅」など交隣関係では用いない格別の単語が多い。第三に、対馬は朝鮮が作成した図書「義達印」を廃止し、代わりに「平調臣義達章」という新印を用いることを知らせ、特に日朝間における伝統的な図書受職制度を「以私害公」と表現して私的な交際に貶め、朝鮮との関係において従来維持されてきた外交的慣例を無視する内容があった。これは日朝間において両属関係に置かれていた対馬が現実的には朝鮮に依存してきたにもかかわらず、一方的に脱却を通告する態度が朝鮮の立場では納得できないことであった。それから1ヵ月後の2月29日、朝廷からは大修大差使の書契を受理しないようにとの指示が伝えられ、訓導は朝廷の命令に従って書契の改撰を要求し、この受け取りを拒否した<sup>3)</sup>。結局、何度もの交渉にもかかわらず事態が好転しないと、朝鮮はたとえ使臣が10年間滞留し、あらゆる主張をしたとしても施行できないので、すべからくこの旨をすべて曉諭し、直ちに使節が退去するようにせよという強硬な方針を倭館に伝えた<sup>4)</sup>。これにより明治政府の王政復古の通告過程で引き起こされた書契の書式問題と図書の返還をめぐる日朝交渉は決裂し、結局、両国の交渉も膠着状態に突入することになった。

このようにして始まった朝鮮と明治政府との間で起こった書契の書式問題と図書返還に関する問題は、1875年の訓導・玄昔運と森山茂理事官との交渉まで持続的に議論が行われたものの、根本的な解決にはつながらず、結局は1876年の日朝修好条規に至

2) 『館守毎日記』1869年1月25日条

3) 田保橋潔、『近代日鮮関係の研究』上巻、1940年、原書房、171-172頁；『朝鮮外交事務書』1,217-220頁；『日本外交文書』（韓国編）第一冊、93-94頁  
当時の訓導・安俊卿（安東峻）の名義で伝達された2通の覚書には、日本側の書契において朝鮮が問題にした字句に対する詳細な理由と朝鮮側の立場がよく表れている。

4) 『朝鮮外交事務書』1,217-220頁；『日本外交文書』（韓国編）第一冊、93-94頁

って一応の決着がつけられることになる。

この時期の日朝関係に対する既存の研究は、主に朝鮮による日本側の書契の受理拒否及び明治政府の「倭館侵奪」による交隣体制の崩壊という観点から検討がなされ、日本の明治政府の主導性が際立ち、交隣体制を維持するための朝鮮側の努力は疎かにされていたように思う<sup>5)</sup>。それは、大半の研究が1872年9月にあった日本明治政府による「対馬人退去措置」、すなわち、対朝鮮交渉の一元化措置を直ちに日朝関係の断絶として見る傾向があったためだとみられる。しかし、1872年の明治政府による「対馬人退去措置」を日本国内の問題に限定して見るのではなく、日朝交隣体制の断絶ないし崩壊と見る場合、日朝間の通交が近代の入り口で明治政府の侵奪的性格により断絶され、結局朝鮮は雲揚号事件など武力的威迫に出た日本の強要により、無気力に1876年に日朝修好条規を締結するに至ったと解釈される素地がある。その結果1872年以降、倭館は日本の主権が及ぶ地域として見なされることで、その後の1876年の日朝修好条規締結に至るまで、日朝間の交隣関係の再開に努めた朝鮮政府の主体的な取り組みが看過されてしまう危険を招くことになる。このような視角は、当時の朝鮮における対日関係に対して田保橋潔などが主張する朝鮮外交の頑固さまたは無気力さ、前近代性に納得することになる結果をもたらすだけだ<sup>6)</sup>。

そこで本稿では、1872年にあった明治政府による「対馬人退去措置」以降から1874年までの倭館の状況を朝鮮の視角から再検討し、朝鮮政府が日朝交隣外交を断絶ないし放置したわけではなく、むしろ正常化させるための取り組みを持続的に行ってきたことを追いかけてみたい。このような試みは、1872年に倭館であった「対馬人退去措置」あるいは明治政府の対朝鮮外交の一元化措置が交隣関係の終末ではなく、したが

5) 当時の日本国内の政治的变化と日朝通交関係の改編に関する議論の過程については、次のような著書があげられる。

田保橋潔, 1940, 『近代日鮮関係史の研究』上, 朝鮮総督府; 荒野泰典, 1987, 「明治維新期の日朝外交体制『一元化』問題」(田中健夫編, 「日本前近代の国家と対外関係, 吉川弘文館」); 연갑수, 1992, 「대원군 執政의 성격과 權力構造의 변화」, 『韓國史論』 27; —, 1993, 「개항기 권력집단의 정세인식과 정책」, 『1894년 농민전쟁연구』 3, 韓國歴史研究会; 손승철, 1994, 「1872년 일본의 倭館占領과 朝鮮侵略」, 『군사』 28, 國防軍事研究所; 諸洪一, 1997, 「明治初期日朝交渉の放棄와 朝鮮政策」, 『건대사학』 9, 建國大史學會; 沈箕載, 1897, 『幕末維新日朝外交史の研究』, 臨川書店; 현명철, 2003, 『19세기 후반의 對馬州와 韓日關係』, 國學研究院; 현명철, 2010, 「幕末明治 초기 對馬州 정치사 개관」, 『부산과 대마도의 2천년』, 釜慶大學對馬島研究センター; —, 2013, 「對馬藩 소명과정과 한일관계사」, 『동북아역사논총』 41, 동북아역사재단; 장순순, 2004, 「초량왜관의 폐쇄와 일본租界化 과정」, 『일본사상』 7, 日本思想史學會; 김홍수, 2009, 『한일관계의 근대적 개편과정』,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石川寛, 1998, 「明治維新期における對馬藩の動向—日朝外交一元化と朝鮮對馬關係」, 『歴史学研究』 709, 歴史学研究会; 石川寛, 2001, 「明治維新と朝鮮對馬關係」(明治維新史學會編, 『明治維新とアジア』, 吉川弘文館); —, 2002, 「日朝關係の近代的改編と對馬藩」, 『日本史研究』 480; —, 2002, 「明治維新期の對馬藩政と日朝關係」, 『朝鮮學報』 183, 朝鮮學會; —, 2003, 「明治期の大修參判使と對馬藩」, 『歴史学研究』 775, 歴史学研究会; 石川寛, —, 『明治維新期の日朝關係と對馬藩』, 名古屋大學博士學位論文; —, 2004, 「倭館接收後の日朝關係と對馬」, 『九州史學』 139, 九州史學研究会

6) 田保橋潔の日朝關係に関する視角の問題点については, 현명철, 2015, 「田保橋潔의 『近代日鮮關係史の研究』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韓日關係史研究』 51, 韓日關係史研究会

って「倭館接收」、「倭館処分」、「倭館侵奪」または「倭館占領」、「倭館占拠」などとも表現し得ないだけでなく、その後も倭館は依然として朝鮮の主権が及ぶ空間であったことを明らかにできると考える。

## 2. 明治政府による「対馬人退去」措置

1871年7月14日、廢藩置県の勅令により対馬藩は廢止され、伊万里県に併合された。外務省は宗氏の家役を罷免し、島主宗重正は7月29日外務官員に編入され、外務大丞に任命された。8月、館司は外務省官員が宋氏の書簡を持ってくると訓導に知らせ、訓導と東萊府は直ちに礼曹判書に報告した<sup>7)</sup>。8月に予告されていた外務官員は翌年の1872年1月、差使を同行して汽船で倭館に到着し、入港した<sup>8)</sup>。彼らは、対馬島主が廢藩置県により解職された旨と今後の日朝交渉業務は対馬ではなく明治政府で行う旨を知らせた。一行は、倭館に滞留していた大修大差使・樋口鉄四郎を帰国させ、前もって倭館入りし滞留していた外務少記・吉岡弘毅を筆頭に7人の委員会を組織し、対馬の士族を排除して自分たちのみが朝鮮との会談に臨むことができると規定した。これは外務省が朝鮮との外交を掌握する過程で、対馬の商人と朝鮮の任訳が連帯できないようにしようとの意図であった。朝鮮の任訳は対馬を藩屏として維持しようとし、対馬の商人は自らの既得権を守ろうとしたためである<sup>9)</sup>。

差使の相良は慣例通り接待を受け、6次に渡る会談の末に外務官員が廢藩置県と日清修好条規の締結を知らせる宗氏の書簡を提出すると、3月20日訓導と東萊府はこれを受

7) 『東萊府啓録』巻8, 1871年8月24日

宗重正は外務大丞の資格で朝鮮に書簡を送ったが、この書簡は8月24日に倭館館主と訓導と別差を通じて礼曹判書に伝えられた。

8) この日の汽船は、辛未条一特送使一号船と二号船(兼帯二・三特送使)と漂流民領來差倭船、漂流民騎船、飛船、漂民本船などとともに倭館に向かったもので、計7隻の船に倭人220人と漂流民37人が一緒に乗った大規模な船団であった。1872年の汽船の入港過程については、현명철, 2015, 「1872년 일본 화륜선의 왜관 입항」, 『동북아역사논총』 49, 동북아역사재단을 参考されたい。

1872年1月13日、森山茂・広津弘信、相良正樹・十等・廣瀬直行・十一等・浦瀬裕、最助・十二等などの外務省官員一行は汽船満珠丸に乗って倭館にやってきた。彼らは外務大丞・宗重正の書契を持参して倭館に到着した。森山は大和国生まれで兵庫裁判所の出身であり、広津は筑後国の久留米藩出身であり、長崎で医師をしていた途中、外務省に入省してきた人物であった。また、相良は対馬出身であった(『朝鮮外交事務書』3, 757頁; 『日本外交文書』(韓国編), 第1冊, 355頁)。

9) 현명철, 2015, 「1872년 일본 화륜선의 왜관 입항」, 『동북아역사논총』 49, 동북아역사재단, 204-205頁

当時倭館には200人余りの対馬人が常在していたが、1868年12月以降約3年3ヶ月間倭館に滞留していた大修大差使正官・樋口鉄四郎は、倭館に滞留していた対馬の送使30人余りとともに1月16日対馬に帰った。(『朝鮮外交事務書』4, 51頁)

け入れ、礼曹判書に報告した<sup>10)</sup>。朝廷では幕府の滅亡と明治政府の成立についてはすでに承知していたが、日清修好条規の締結と廃藩置県により対馬島主が地位を喪失したというのは重大な情報であった。

朝廷では喪中にあった訓導・安東峻に除服を命じ、倭館業務への復帰を命じた。東萊府使・鄭顥徳の命を受けた訓導・安東峻は、日本の外務省官員と直接会うことや書契の呈納と汽船に乗ってきたことは規定外だとして承諾せず、書契の受け取りを引き延ばしながら慎重な立場を取った<sup>11)</sup>。しかしこれは、東萊府の立場が新しい条約が締結されるまでは対馬を介した外交と貿易、漂流民送還体制を維持することだったためであった。

日朝交渉が明治政府の意図通りに展開されず膠着状態に陥ると、外務省官吏であった相良は1872年5月26日、館司深見正景と官員らを率いて無断で倭館を出て東萊府使との直接交渉を要求し、東萊府に圧力をかける倭館闖出を敢行した。しかし、東萊府使は闖出に対する責任を追求して館司の職務を停止し、8月には一代官に館司の仕事を代行するように文書で正式に通告した。結局この闖出は東萊府使との直接交渉も実現できぬまま失敗に終わり、吉岡らは「対馬人退去措置」に本格的に取り掛かることになる<sup>12)</sup>。この闖出事件に対する朝鮮側の処理方法は、大院君執権期の朝鮮における対日政策が根本的に変化がないという意思の表現であり、朝鮮の対日交渉において相当に象徴的な意味を示唆する。朝鮮側の対日外交方式は、西歐式の条約という方法よりも交隣体制という伝統的な旧例を遵守する立場を再確認したのであった。

一方、日本の太政官は5月7日付けで外務省の上申を受け入れ、5月28日に釜山草梁公館事務を外務省の所管にし、在勤人員のうち外務省職員ではない旧対馬藩士らの退去帰国を決めた。同時に歳遣船の廃止を命じ、倭館維持費用として対馬藩に5千ウォンの支出を命じ、漂流民問題も長崎県に移管した<sup>13)</sup>。また、外務大丞の宋氏を代表して廣瀬直行を都幹伝官、浦瀬と広瀬を幹伝官に任命し、館司の深見以下の員役に東萊府と

10) 현명철, 2015, 「1872년 일본 화륜선의 왜관 입항」, 『동북아역사논총』 49, 동북아역사재단, 205頁

11) 『承政院日記』高宗9年4月2日(乙卯); 『비변사등록』高宗9年4月2日(乙卯)

12) 『日省録』高宗9年6月7日; 『승정원일기』高宗9年6月11日; 『日本外交文書』(韓国編), 第1冊, 389-390頁。

1872年5月26日から6月6日まで約10日間にかけて行われた闖出は、外務省官吏の相良と館司の深見の主導の下、都幹伝官の廣瀬、幹伝官の浦瀬など倭館にいた日本人56人が参加した。

1872年5月にあった倭館闖出については、심기재, 2004, 「明治政府의 对朝鮮 외교무역 一元化 과정의 일고찰代官 처리를 중심으로」, 『日語日文学研究』を参照されたい。

一方、玄明哲はこの闖出に対して「韓日關係において対馬の地位が急速に失われていく時点で起きた対馬の最後の行動でもあった」と解釈した(현명철, 2003, 『19세기 후반의 对馬州와 韓日關係』, 国学研究院, 213頁)。

13) 『日本外交文書』(韓国編), 第1, 378-382頁; 『朝鮮外交事務書』4, 247-267頁

の交渉に当たさせたが、交渉には進展がなかった<sup>14)</sup>。

蘭出が失敗した後、6月16日に吉岡、森山、広津ら外務省官吏と差使の相良は館司の深見を倭館に残留させ、旧対馬商人を率いて帰国した<sup>15)</sup>。このとき、宗重正は当該年分(1872年)の公貿易品の賠償として外務省に2万4千181両を要求した<sup>16)</sup>。

日本に帰った広津は館司の深見を通じて、倭館で貿易業務を担当していた代官所勢力が朝鮮側と内通し、外務省の方針に従っていないことを把握した。当時代官所は、一代官・海津茂太郎、二代官・春田長十郎、三、四代官に上野敬助と中山喜兵衛という構成で、このうち海津・上野・中山が朝鮮と内通していた。館司の深見は当時の倭館の状況について、①朝鮮側が「倭館蘭出」に参加した深見を館司として認めず、すでに館司はいないものと看做し、これまで支給していた館司への米、薪炭、豆などの支給を停止し、小通事らにも対応せぬよう厳しく伝えている。②朝鮮は、新館司の着任までは代官所の役員らを相手にしており、③「貿易のみに注目」している代官所の「悪の一味」も、代官所が存在すれば結局は歳遣船の公貿易が従来通り復活するとみて、朝鮮側との関係を維持し、佐賀県出張所(対馬厳原)からの撤収命令に対して理由を付けて引き延ばす策略に出ている状況なので、倭館内のすべての構成員の完全な撤収が行われなければならないと広津に伝えている<sup>17)</sup>。

実際に8月末に東萊にやってきた別差の玄大有は新館司の深見を排除して一代官を館司と看做し、在館倭人の高官参拜の許可も代官と交渉することで、結局明治政府の思惑とは異なって倭館の状況は代官所の勢力と東萊府の任訳が対馬との通交関係の持続という従来の対日政策を固守していた<sup>18)</sup>。

その過程で8月、外務卿の副島種臣は倭館での懸案を解決するために高位の官職の官員を派遣する必要があると考え<sup>19)</sup>、外務大丞の花房義質の派遣を決めた。同時に森山茂(外務少記)、広津弘信(外務少記)、斎藤栄(外務権大録)には随行命令が、外務少

14) 『日本外交文書』(韓国編), 第1冊, 357-358頁

15) 『日本外交文書』(韓国編), 第1冊, 387-389頁

16) 『日本外交文書』(韓国編), 第1冊, 393-396頁; 『朝鮮外交事務書』4, 287-289頁

17) 『朝鮮事務書』13巻479-489頁, 同445-454頁, 同497-508頁, 同509-513頁

カン・ソクボムは、広津の報告は「互いに内通している韓対両者間で孤立する倭館の外務省官員と対州, 東萊府の対立図式を浮き彫りにしているものだ。倭館の対州勢は、府中厳原からの緊密な指令によるものだったことは多言を要さない」(『征韓論政変』, サイマル出版会, 1990年, 32頁; 石川寛, 2004, 「倭館接收後の日朝交渉と対馬」, 『九州史学』139, 九州史学研究会, 註3)より再引用)と分析している。しかし、石川寛は「府中厳原からの緊密な指令」の存在については実証しているわけではなく、憶測に過ぎないとした(石川寛, 上掲論文(2004年))。

18) 『朝鮮事務書』14巻, 19-29頁, 同31-38頁

19) 『日本外交文書』(韓国編), 第1冊, 399-400頁

録の奥義制に「朝鮮国草梁在勤」が命じられた<sup>20)</sup>。

花房と森山は春日艦便で広津弘信と斎藤栄、奥義制を乗せ、有功丸は朝鮮漂民を乗せた満珠丸を曳行して倭館に到着した<sup>21)</sup>。そして直ちに館司の深見を呼び、倭館状況に対する調査を始めた。調査内容は代官所勢力の朝鮮側との内通の有無に関するものであった。調査の結果、代官所勢力が朝鮮側と内通して外務省の政策に非協力的な態度を取ったのは、対馬が旧来の貿易を続けようとしての行動であったという事実を突き止めた<sup>22)</sup>。

当時、日本外務省は朝鮮と対馬の癒着関係が日朝交渉の阻害要因だと判断していたため、外務大丞の花房一行に与えられた任務は、倭館にいる対馬勢力を一掃し、朝鮮と対馬の関係を断絶することを目的としていた。花房は一代官の海津茂太郎と上野敬助、中山喜兵衛らを外務省の指針に従わずに朝鮮の指示に従ったとの理由で問責・帰国させ<sup>23)</sup>、倭館の整理に乗り出した。廃藩置県と宗氏の解任により歳遣船の派遣は継続できないと朝鮮に通告し、倭館闌出を主導した館司の深見を外務省九等出仕に任命して新任館司に任命し、十一等出仕の廣瀬直行を一代官に、外務少録の奥義制を学士兼監察に、十四等出仕の住永友輔を第二代官兼大通詞に、その他の旧対馬藩の武士はすべて帰国させた<sup>24)</sup>。

このような措置は、第一に、館司・代官などの名称はそのまま置き、奥義制を除いて従来の対馬出身者を登用して外務省官員に再任命したものであり、倭館を外務省の直接管轄下に置いたものである。第二に、「朝鮮と対馬間の事情」の排除を目的に、朝鮮側と内通していた代官所勢力を一掃する一方、外務省に協力的なメンバーで倭館

20) 『日本外交文書』(韓国編), 第1冊, 400~403頁; 『朝鮮外交事務書』6, 241-250頁

外務省は倭館問題に対し、天皇の勅旨の形態で草梁倭館の館司と代官所の存置、朝鮮から支給した路引の使用は従来通りとすること、倭館に必要な人員を除いた士官と雑人は帰国させるが商人は自ら判断して帰国を決めるようにすること、歳遣船は廃止するものとし、対馬に滞留している朝鮮漂流民をすべて送還するようにせよとの内容を外務卿・副島種臣に送った。これは明治政府が朝鮮と対馬を往来する歳遣船は中断するが、朝鮮政府が支給した図書をそのまま用いることで、中断なしに朝鮮との貿易を直接管掌するとの旨を宣言したものであり、外務省による対朝鮮外交・貿易関係の一元化という幕末以来の明治政府の立場がそのまま反映されたものであった。

花房の一行の朝鮮派遣については、심기재, 2003, 「明治5년 하나부사[花房] 일행의 조선 파견」, 『동양학』35, 檀国大学校東洋学研究所参照。

21) 『日本外交文書』(韓国編), 第1冊, 406頁

一方、金・フンスは花房一行の派遣は朝鮮との外交交渉のための派遣ではないにもかかわらず、それまで派遣された使節のうち最高位職の外務大丞が派遣されたのは、日本が「倭館占拠」をどれだけ重視していたのかを示すものであり、さらに花房の派遣に兵力を同行したのは、彼らの派遣の主眼である対馬の対朝鮮外交権の接収にあったためだと解釈した(김홍수, 2009, 『한일관계의 근대적 개편 과정』, 서울대학교출판부, 308~309頁)。

22) 『朝鮮事務書』18巻, 299~356頁。『日本外交文書』6巻, 103号・付屬書。

23) このときの倭館闌出及び密使往復の経緯については、심기재, 2004, 「明治政府의 対朝 외교・무역 일원화 과정의 일고찰-代官 처리를 중심으로-」, 『日語日文学研究』48, 韓国日本語日文学会をを参照されたい。

24) 『日本外交文書』(韓国編), 第1冊, 13~415頁

官吏を再構成したという点で意味がある<sup>25)</sup>。

代官更迭の知らせを聞いた別差の玄大有は9月18日倭館に書簡を送り、このような措置は代官所を閉鎖するのと同じだと伝え、既存の宗氏の貿易負債の償還を要求し、1869年から1871年までの対馬からの未収品目録を提示した。このとき、未収品の処理を巡って両者間に論争があったが、9月20日に東萊府使が汽船の停泊中には検収に応じないとの通告があったため<sup>26)</sup>、花房一行の倭館滞留中には貿易負債の償還が不可能になった。このため、花房は遅滞品の引渡しを館司に委任し、9月24日に倭館から引き揚げた。対馬人の倭館従事者らには帰国命令が出され、倭館商人の去就については各自に任せられ、当時の倭館在留者は83人であった<sup>27)</sup>。

10月になり、倭館闖出事件で譴責処分を受けた訓導・安東峻が復職した。新任の一代官・広瀬は遅滞品の検収を督促したが、訓導・安東峻は陪小通事・崔在守を通じて明治政府による宗氏の貿易品弁済を拒否し、宗氏の弁済能力の回復を待って未納品を受け取ると回答した<sup>28)</sup>。これは朝鮮政府の対日政策の基本方針が依然として対馬との通交関係の持続にあり、外務省を承認していなかったためであった。その後、倭館に関する業務は陪小通事の崔在守に任せられ、訓導は倭館の外務省官員との接触を持たなくなった。

朝鮮政府が日本外務省の倭館管轄を承認しない状態となり、倭館では二国間の公的な接触が中断された。このときから漂流民の送還時に日本外務省は漂民領来差倭と書契を省略した。このため、漂流民送還を巡る東萊府使の接待も、進物目録と雑品を用意する必要もなくなった<sup>29)</sup>。こうして1872年10月以降は歳遣船が倭館に入港しなくなったことにより、日朝交渉において対馬の役割は消滅した<sup>30)</sup>。その後は明治政府が直接朝鮮との交渉を主管するようになり、己酉約条による伝統的な韓日関係は崩壊した。1873年1月15日、外務省は七等出仕の広津弘信に朝鮮勤務を命じ、このため3月4日に広津が倭館に到着した。彼は倭館業務を完全に掌握し、対馬出身の館司・深見を免職し、倭館を朝鮮の許可なしに恣意的に「大日本国公館」に名称を変えたことにより、外交交渉における対馬の役割は完全に消失した<sup>31)</sup>。

25) 石川寛, 上掲論文 (2003年)

26) 『朝鮮外交事務書』6巻, 255-257頁

27) 『花房大丞朝鮮行日誌』明治5年9月24日条; 石川寛, 上掲論文 (2003年) より再引用

28) 『朝鮮外交事務書』15巻, 337-339頁

29) 현명철, 上掲論文 (2015年), 208頁

30) 『東萊府啓録』によれば、日朝間の最後の歳遣船は1872年9月28日に出航した。

31) 『釜山府史原稿』4, 276-279頁

しかし、ここで注目すべきなのは、倭館からの「対馬人退去措置」は日本の国体の変化によって対朝鮮外交と貿易が明治政府に一元化されたことを意味するのであって、近世の日朝関係の外交交渉空間としての倭館の廃止を意味したわけではなかったという点だ。明治政府による「大日本国公館」への名称変更は、明治政府の一方的な措置であり、歳遣船の往来の中断によって従来の日朝間の公的な外交手続が一旦中止されたものの、その後も倭館の機能は最小限ではあったが維持され、朝鮮政府の対日政策には根本的な変化がなかったという点に注目する必要がある。したがって、1872年に倭館で行われた日本外務省による一方的な「対馬人退去」措置は、交隣体制という従来の日朝関係に根本的な変化はもたらすことはできなかった。

### 3. 高宗の親政と対日政策の変化

#### 1) 高宗の親政宣布と対日政策の転換

高宗の執権初期に政権を掌握していた興宣大院君は、斥邪・斥洋の旗幟の下、鎖国政策を固守し、内政に関心を傾けた。興宣大院君は執政初期から自らの腹心である金世鎬を慶尚道監察使に、鄭顥徳を東萊府使に任命し、倭学訓導には安東峻を任用することで対日関係を直接主管してきた<sup>32)</sup>。高宗は即位初期の8年間は大院君と同じ対外観を持っていたが、1872年4月に自分と同じ境遇にあった清の皇帝が叔父恭親王の摂政から脱却し、親政を行うという情報に接したことで、自らの境遇を客観的に認識するようになり、さらには親政の可能性を模索するようになった<sup>33)</sup>。

1873年10月、崔益鉉が大院君を弾劾する上訴を行った。多数の高位官僚は支持しな

---

花房の帰国後、倭館業務は広津が総括することになったが、彼は病気療養を理由に1873年5月以降は対馬の厳原に滞留しながら倭館業務に関与した。したがって、広津が厳原に滞在していた間や離任した後は、奥義制が責任者として倭館を管理した。広津と奥は他の倭館構成員らとは違って対馬の出身ではなかった(石川寛, 上掲論文(2004年), 7頁)。

32) 田保橋潔は「公館に在勤する対州藩吏及び外務省派遣員は、書契の受理とその他の事案に関する訓導・安東峻の頑迷な態度から推察するに、彼が中間で壅蔽していると疑ったが、実は訓導は大小事を問わず直接大院君に報告し、彼の指揮を受けていたと考えられる」とした(田保橋潔, 上掲書, 331-332頁)。

33) 안외순, 1996, 「高宗의 初期(1864-1873) 対外認識变化와 親政」, 『한국정치학회보』 30, 韓國政治学会; ----, 1994, 「大院君執政期 高宗의 対外認識遣 清回還使 召見을 中心으로」, 『東洋古典研究』 3, 東洋古典学会

かったが、高宗は崔益磯の肩を持ち、親政を執行した<sup>34)</sup>。高宗の親政は1873年（高宗10）12月（旧暦11月3日）から始まった。高宗の親政は朝鮮の対外関係、さらには対日政策にも大きな変化をもたらした。

しかし、このような高宗の対日政策の変化は突然のものではなかった。高宗初期10年間、すなわち大院君の執政期（1864～1873）には、国内政策の決定過程において高宗が大院君と異なる独自の認識領域を持つことはできなかつたであろうが、対外政策の部分においては清に行ってきた使臣らとの対話を通じて、大院君とは異なった自分ならではの認識領域を形成できる余地があったとみられる<sup>35)</sup>。実際に高宗は、即位初期から親政前までの約10年間、1,300回余りに上る経筵を通じて君主授業を十分に受けており<sup>36)</sup>、16回にわたる遣清使節団との接触を通じて対外認識の幅を拡大していった<sup>37)</sup>。特に辛未洋擾を経験した後の1872年からは、燕行使の出発前に使行中の調査事項を直接指令し、使行後復命時にはこれを確認するなど、対外関係に非常に積極的な姿勢を見せた<sup>38)</sup>。

高宗が日本に対して大きく関心を寄せるようになったのは、1871年9月の日清修好条約締結の前後の時期からである<sup>39)</sup>。1871年10月から1872年3月まで冬至兼謝恩使の正使として清に行ってきた閔致庠が復命する場（旧暦4月4日）で、高宗は清と日本が対等に条約を締結したことを知った。高宗はこのとき、「西洋の要求が何か」、または「西洋化した日本を清がどのように応待するのか」などについて訊ねた。このとき閔致庠は、西洋が日本人を唆してすでに清と通商条約を結び、中国との交易を要求し

34) 同上。

35) 安外順は、高宗の親政はすでに予見されたものであり、崔益鎡の上訴は高宗の親政を執行させる導火線であつたに過ぎず、親政以降に取つた高宗の開化政策の推進もすでに1872年から育ててきた高宗自身の対外認識の変化による能動的なものとするべきだと主張した（안외순, 上掲論文(1996年), 248頁）。

36) 金世銀, 2000, 「고종초기[1864년-1873년]의 經筵」, 『震檀學報』 89, 震檀學會

37) 안외순, 前掲論文(1996年), 249頁, <表1> 遣清使行の種類及 人的構成, 時期参照; 구선희, 2011, 「고종의 서구 근대 국제법적 대외관계 수용 과정 분석」, 『동북아역사논총』 32, 동북아역사재단, 107～108頁

安外順は、高宗初期10年間の遣清使節の召見で示された高宗の対外認識を三つの時期に分けて説明した。第1期（1864～1865）は主に清皇帝に対する忠誠心を抱えた皇帝個人の安否に集中する時期、第2期（1866～1871）は微弱ではあるが清の内政と藩国に対する関心を表明する時期、第3期（1872～1873）は客観的かつ現実的な認識がはっきりと現われると同時に、清だけではなく国際情勢に対しても積極的に把握しようとする時期だったというものだ。これに基づいて第1期と第2期を「伝統的な対外関係観の固守期」と、第3期を「現実的な対外認識と親清意識の形成期」と規定した。

38) 김흥수, 上掲書, 339頁

39) 구선희, 上掲論文(2011), 114-115頁

1870年秋、日本は清から欧米列強の特権を得て、清との対等関係の実現を目的に清に日清条約を要求した。清政府は北洋大臣・李鴻章を全權代表に任命し、日本との条約草案を作成させた。1871年7月、日清条約は清の草案のまま締結された。清の草案において中心となる内容は、最惠国条款の除去、日本と欧米諸国の同盟防止、外交官と領事の派遣及び日本商人の清国内地での通商禁止であった。当時、日本との条約締結に対して清内部に反対意見がなかったわけではなかったが、李鴻章は自強を推進している日本を清の敵としてはならないとの判断から、日本との条約を成立させた。

てすでに約書も作っており、今後交易することになるだろうと言っていたと伝えた。また、日本はすでに清の藩国ではないので、日本人も清に対して臣下と称していないと報告した<sup>40)</sup>。さらに、使行団に参加し、一足遅れて到着した書状官の朴鳳彬と交わした4月30日の対話でも高宗は、日本はもともと清の臣服ではないのにどのような理由で清が禁制できずに日本と通貨を約束したのかについても訊ねるなど、正使閔致摩の報告内容に加え、日本に関する情報に多いに関心を示した。このため朴鳳彬は「昨年7、8月の間に洋夷が日本と一緒にやってきて交易を求めたので、やむを得ず清が承諾した」と答え、日本は以前から中国の正朔を奉じていなかったと報告した<sup>41)</sup>。このように高宗が日本に関する情報に関心をよせるようになった背景には、日朝交隣関係の下に倭館⇔対馬間でなされていた従来の外交交渉ルートが膠着状態に陥っていた状況と無関係ではなかったとみられ、他方で冬至兼謝恩使を介して伝えられた日清間の条約締結の知らせが高宗に朝鮮と清の関係、さらには朝鮮と日本との関係を改めて考えさせたと思われる。

このような状況のなかで1872年5月に差使の相良正樹一行が主導した倭館闖出事件が発生したが、この処理過程で朝廷内で対日政策の変化の動きが見られ始めた。一般的に倭館で闖出が起これば、東萊府使を始め、倭館を管理する任訳らの責任を問う処罰を伴うのが通常であるが、高宗は倭館闖出を阻止できなかった責任を問うべき東萊府使と訓導、軍官等に待罪せぬよう指示した<sup>42)</sup>。また、同年9月、日本外務省が倭館を任意に草梁公館と命名し、倭館業務を「接収」しことで日朝交隣外交が中断した後も、高宗は日本に対する情報と倭館における動態を注視した。

翌年の1873年閏6月10日には、慶尚道地域の深刻な水害被害の実態調査と対策準備のために刑曹参議の金奎軾を慰諭使としてその地域に派遣した<sup>43)</sup>。水害被害の実態を見て回ってきた慰諭使・金奎軾は10月23日(旧暦9月3日)、高宗に全般的な被害状況を報告したが、その場で高宗は金奎軾に東萊の状況と倭館内の日本人の動向を聞いて把

40) 『승정원일기』 高宗8年10月22日(己卯), 高宗9年4月4日(丁巳); 『일성록』 高宗9年4月4日(丁巳)

41) 『일성록』 高宗9年4月30日(癸未); 『승정원일기』 高宗9年4月30日(癸未)

1873年(高宗10)8月13日の遣清使臣・李根弼一行との問答では特に「日本の西洋化」の原因と傾向に対して格別の関心を傾け、西洋との関係についても西洋が清に、清が西洋に対する態度及び汽船の製作を通じて清と西洋の武力を比較するなど、非常に具体的な質問にまで及んだ。ここで西洋が日本及び清とは関係を持ちながら、朝鮮との関係を断絶することに対する現実的な意味を悟り、懸念する高宗の態度が見て取れる。また、清に対する西洋帝国の朝貢の有無に関して、高宗は西洋が清と通好することは朝貢とは異なるものだとの返事を聞いた(『승정원일기』 高宗10年8月13日(己丑))。

42) 『일성록』 高宗9年6月7日(庚申), 8日(辛酉), 10月3日(甲寅); 『승정원일기』 高宗9年6月7日(庚申), 8日(甲寅)

43) 『승정원일기』 高宗10年閏6月10日(丙戌)

握した。また、遣清使節から聞いた日本で内乱が起きたという知らせについてもその真意を訊ねた。このとき金奎軾は、伝え聞いた話しはあるが、対馬から送使が来ていない状況なので、確かなことは分からないと答えた<sup>44)</sup>。高宗の言った日本の内乱の有無は、明治維新以後の体制改革による葛藤を外に向けて解決しようという征韓論を巡って意見対立が激化していた日本の国内事情から出たうわさであった。

遣清使節と慶尚道地域に派遣された役人らを通じて日本に関する情報を把握するに留まっていた高宗だが、親政とともに日本との関係改善に本格的に乗り出すことになる。高宗は1873年12月24日(旧暦11月5日)に親政を宣言し、大院君の執権期を主導してきた既存の三政丞、すなわち領議政の洪淳穆、左議政の姜口、右議政の韓啓源を罷免し、新たに領議政には李裕元、右議政には朴珪寿を抜擢して親政体制の構築に取り掛かった<sup>45)</sup>。そして翌年の1874年2月(旧暦12月30日)には、対日外交の実務ラインを大院君の勢力から自らの勢力に再編した。慶尚監司の金世鎬を解任して兪致善を任命し、東萊府使は鄭顕徳を解任して朴齊寛に替え、訓導には玄昔運を任命した<sup>46)</sup>。

## 2) 1874年日朝交渉と交隣関係の再開に向けた取り組み

高宗の対日政策に変化があるという事実は2月頃に倭館に伝わり、日本に伝わったのは1873年3月頃であった。外務省官僚で倭館に滞留していた奥義制の報告を通じて日本外務省に伝えられた<sup>47)</sup>。明治政府は朝鮮内の情勢変化の把握と外務大丞・宗重正の朝鮮派遣(宗氏渡韓)を決めるため、5月15日に外務省六等出仕の森山茂の朝鮮派遣を決めた<sup>48)</sup>。太政大臣の三條実美は森山の一行に対し、汽船ではなく小型の日本船三隻に乗っていき、一隻は倭館に送って倭館の動静を探らせ、他の二隻は巨済と蔚山の海岸に漂流させ、朝鮮の接待の有無を試すように指示した。そして朝鮮国内の状況が宋外務大丞が朝鮮に渡るに足る形勢ではないと判断されれば、その状況を詳細に報告して倭館維持の方法を用意し、もし維持が難しい状況だと判断されれば、その内容を急いで

44) 『承政院日記』高宗10年9月3日(戊申)

45) 『高宗実録』高宗10年11月11日(丙辰)、13日(戊午)；12月2日(丙子)

具仙姫は、高宗が親政の宣布後、日本との関係において対外政策に変化を見せたのは、断絶された日本との関係改善を図りつつ、これを親政の基盤固めに活用したと考えた(구선희, 前掲論文(2011年), 114頁)。

46) 『고종실록』高宗10年12月30日(甲辰)、高宗11年1月10日(甲戌)

47) 『日本外交文書』(韓国編), 第1冊, 529-531頁

48) 釜山府史原稿』巻4, 499-500頁

知らせ、倭館内の人員の進退は指令を待つようにした<sup>49)</sup>。

当時、高宗の倭館に対する関心は非常に高かった。1874年2月26日（旧暦1月10日）、東萊府使赴任を控えていた朴齊寛に接見する場で、東萊は日本と接境地域であるため、特別に注意を傾けるよう指示した。さらに、東萊地域の弊害と日朝関係の硬直により東萊府から元々倭館に支給すべきであった米や木綿などが滞積していることにかこつけ、任訳らが手練手管を弄している弊害があるので、これを処置して正すものとし、訓導以下命令に従わない者がいれば、先に処刑してから啓聞しても良いと<sup>50)</sup>指示することで、倭館を巡って発生した問題点に対し「先処罰、後報告」という異例的で力強い措置までも要求した。

5月にあった朝廷での議論でも高宗は東萊の事情とともに倭館についても訊ねた。質問は倭館に日本の商人がたくさん来るのか、「館司倭（倭館の日本人）」と「商賈倭（倭館の商人）」の差は何かにまで及んだ。さらに、訓導の選抜と派遣についても言及した。このため、領議政の李裕元は倭館に供給するために準備しておいた物品のうち損傷したものをたくさん交換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最近の事情について答え、倭館には日本の商人がたくさん来ているが、対馬人で倭館官員として残っている者はあまりいないと「対馬人退去」以降の倭館の状況を伝えている。また、倭館にいる日本官員と商売する日本人（倭商）は区別され、訓導の派遣については議論を通じて適当な者を選抜し、派遣すると答えた<sup>51)</sup>。

また高宗は、1874年5～6月に全国に暗行御史を派遣し、慶尚左道の暗行御史・朴定陽に東萊府の倭館に関する動向を把握するようという別途の特旨を付与することで<sup>52)</sup>、歳遣船が断絶した原因の糾明と訳官使（問慰訳官）の派遣を打診もした<sup>53)</sup>。このような高宗の態度は、朝鮮政府が「対馬人退去」措置以降、倭館または対日関係に対して傍観しておらず、むしろ日朝交渉再開のための努力を講じていたことを示唆し

49) 『朝鮮交際始末』 卷3

50) 『承政院日記』 高宗10年1月10日（甲戌）；『고종실록』 高宗11年1月10日（甲戌）

51) 『承政院日記』 高宗11年3月20日（壬戌）

52) 『承政院日記』 高宗11年12月13日

暗行御史・朴定陽は東萊府と慶尚左道の状況を報告し、訓導・安東陵が公作米と公木を通じて莫大な利益を取得したという長文の報告書を高宗に提出した。高宗は倭館の状況についても訊ねているが、朴定陽は東萊から30里離れた所に設門があり、その中に訓導庁がある。その前には守門があり、その中に倭館がある。たいてい設門内には雑人らの出入りが禁止されており、行ってみ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そして、9月に東萊に行ったとき、倭館にいる者は5～6人に過ぎず、商賈倭はたくさんいると聞いた。また、高い所に登れば、入港する船舶が見られるのかと船の形について訊ねると、朴定陽は船は倭館の前にあり、近くに行くと見られず、その形は詳細には分からないが、東萊の人たちの言葉によれば、汽船が往来していると聞いたと報告した。

53) 『高宗実録』 高宗11年6月29日；『朝鮮外交事務書』 9冊, 191-195頁

ている。

高宗による対日外交の改善に向けた取り組みは、6月から具体化し始めた。東萊府使の朴齊寛は、従来東萊府使が阻止していた倭館内での西洋木綿の取引を禁止する意思がない旨を明らかにし、これを取り締まる兵士に杖刑を下すように命ずるなど、日朝間の交渉が宗氏の取り計らいにそって旧例通り行われれば調停する意思があることを明らかにした<sup>54)</sup>。これは膠着していた日朝関係を改善しようとする高宗の積極的な意思が倭館政策に反映されたものと言える。

このような朝鮮の措置に対して日本は、高宗の親政前は朝鮮が日本を軽視する態度が見られたが、その後は日本人に柔和に接し、朝鮮が日本との交際を絶とうというわけではなく、ただ盟約を講じずにいるだけだと評価し<sup>55)</sup>、高宗の親政以後、朝鮮朝廷が対日交渉を再開しようとしている動きを感知していた。このとき倭館にいた森山は外務省に朝鮮政府の国論が一変したと報告し、宋氏の渡韓を建議した<sup>56)</sup>。

8月には高宗の特旨を受けた東萊府使の朴齊寛と暗行御史の朴定陽は、東萊府で訓導・安東峻以下の関係下級官員を調査して審問し、東萊府の商人を介して倭館の情報を収集した<sup>57)</sup>。倭館に滞留中だった森山は、陪小通事・林三伊（林基弘）を倭館に呼んで日朝関係が中断した理由を説明し、幹伝官・浦瀬の名義で小通事・金福珠に文書を渡しながら日本側が妥協できる条件を説明し、それを暗行御史と東萊府使に伝達するように頼んだ。その内容は国書の形式を避けて外務省と礼曹判書との間で書契を往復し、以前の対馬島主である外務大丞・宗氏に朝鮮関係の事務を管掌させるようにするという内容であった<sup>58)</sup>。

朴齊寛と朴定陽は、安東峻が訓導在職中に日朝交渉を妨害した罪状が明らかであり、慶尚道監察使の金世鎬と東萊府使の鄭顕徳も監督官として重大な責任を免れ得ないと朝廷に報告した。このため領議政の李裕元は、高宗に日朝交渉が膠着状態に陥ったのは大院君が「一訓導の言葉だけを信じ、この者のなすがままにしておいた」せいであったと説明し、1872年春に就任した慶尚監司と東萊府使に公木を用意させ、倭館の公貿易に必要な公木も待機させたが、倭債がまだそのままである理由がよく分から

54) 『日本外交文書』(韓国編), 第1冊, 363-366頁

55) 『朝鮮事務書』27冊, 明治7年6月2日

56) 『朝鮮事務書』27冊, 明治7年6月21日

57) 7月17日にすでに日小通事の林三伊（林基弘に改名）と幹伝官の浦瀬裕が対面していた。この対面は林三伊の要請で実現したものであったが、林三伊はまず、大院君側の人事で従来から対日政策を遂行してきた陪通事の崔在守に関する倭館状況について質問し、暗行御史が東萊近辺に「両国交際のことを探偵」するために来ていることを知らせた（『朝鮮事務書』27冊, 明治7年7月21日）。

58) 『日本外交文書』(韓国編), 第1冊, 387-393頁

ないとし、訓導・安東暎を義禁府に連行して厳しく調査させ、必要であれば渡海訳官を派遣し、日本国内の事情をよく把握すべきだとの意見を提示することで<sup>59)</sup>、1868年の書契問題以降、膠着していた日本との関係改善を公式化した。

右議政の朴珪寿は、日朝交渉の障害のきっかけとなった書契の内容について「倭主が関白を追放して国政を総括するというのは彼らの誇張であり、対馬島主が『皇帝』、『勅書』などを表記したのは、彼らが自らを高めて呼んだものであって、朝鮮に『皇帝』、『勅書』を付けるよう要求するものではなく、対馬島主の爵位を以前とは異なった呼び方をするのは、彼が兼任で官職をさらに受けることもできるだけに、問題視される必要がない」という立場を示すことで、「皇」「勅」の文字が用いられた書契の受け入れを主張した<sup>60)</sup>。これは朝廷から出された書契の受け入れに関する最初の主張であった。

高宗の対日政策の変化はまず、従来の対日関係を主導していた実務者らの人的清算により具体化される。高宗は8月14日（旧暦7月3日）に慶尚監司の金世鎬を罷職し、東萊府使の鄭顛徳は咸鏡道文川郡に配流され、訓導の安東暎は義禁府に押送され、陪小通事の崔在守は東萊監獄に閉じこめられ、旗下の関係者らも捕縛された<sup>61)</sup>。義禁府に押送された訓導・安東暎は公米と公木を流用して利子を儲け、手練手管を弄したとの罪目で翌年の1875年4月16日、東萊府で梟首刑に処された。安東暎が義禁府でひどい拷問にあっても自白しなかった事実から推察するに、安東暎に対する処罰は大院君の対日政策に対する再検討と1873年に高宗が親政を始めた後、書契問題により膠着していた対日関係を打開するために取られた一種の象徴的措置であったとみるべきであろう。慶尚監司・金世鎬と東萊府使・鄭顛徳、陪通事・崔在守に対する処罰も同様である。

遂に同年8月16日、東萊府裨將の南孝源が府使・朴齊寛の密命を携えて倭館に訪れた<sup>62)</sup>。このとき南孝源は幹伝官の浦瀬と館長の森山茂とともに、日朝関係正常化のための打開方法として書契問題、双方間の交渉相手と勘合印についての協議を始めた<sup>63)</sup>。当時、東萊府使の提案した妥協案は、①書契について「皇」「勅」などの文字を問題にはしないが、できるだけ朝廷・朝命などに変えること、②両国間の書契は、日本の外務

59) 『承政院日記』高宗11年6月29日（庚子）；『일성록』高宗11年6月29日（庚子）

60) 『朴珪寿全集』上, 772-773頁；김흥수, 上掲書 344頁註45) より再引用

61) 『日省録』高宗11年7月3日（癸卯）, 4日（甲辰）；『朝鮮事務書』, 27冊明治7年8月19日

62) 『朝鮮交際始末』卷3

63) 日本外交文書』（韓国編）第1冊, 374-383

卿と朝鮮の礼曹判書、さらに外務大丞と礼曹判書参判の間で往復するようにし、③図書は、書契内には日本で作った印章を使用するものの、外の封印は朝鮮で鑄造したものをを使用することを提案した。そこで森山は、日朝間の書契は日本の外務卿⇔朝鮮の礼曹判書、さらに外務大丞⇔礼曹判書参判の間で往復し、「皇」、「勅」などの字句を日本の書契では用いるが、朝鮮の回答書契において「皇」、「勅」などを使用するか否かは朝鮮側に任せるとの意見を提示した。このため、南孝源は近いうちに色よい返事をするという言葉を残して帰っていった。

翌日の17日には、釜山僉使が倭館に帯率軍官を送って新任訓導がもうすぐ赴任するとの知らせを伝え、前例通り倭館に薪炭の供給を再開し、まずは炭30把を支給した<sup>64</sup>。薪炭は館長、一代官、別禁徒、幹伝官、三代官を始め、議員・仕丁・小使・大工など12人に支給された。

新任の訓導・玄昔運は森山と交渉再開及び懸案について談判をするため、9月3日に新任別差の玄濟舜とともに倭館に訪れた<sup>65</sup>。玄昔運と森山の対面は1868年以降、朝鮮の官吏が日本の官吏と公式的に接見した最初の事例であった<sup>66</sup>。その席で両側は、審議の最後の段階で森山が提示した三つの条件のうち一つを両国交渉再開の基本案とすることを提案した。三つの条件は、①壬申年(1872)3月「差使」相良正樹が伝達した礼曹判書参判及び東萊府使と釜山僉使宛てに送った外務大丞・宗重正の辛未年(1871)書契を受理し、回答書契を発送すること、②書契を新たに作成する場合は、外務卿⇔礼曹判書、外務大丞⇔礼曹判書参判に送るように作成し、別途の使員を任命して書契とともに東萊府に送り、東萊府使とその接待の形式について相談すること、③第1条と第2条の実行が困難であれば、朝鮮から通信使または別遣渡海訳官の形式で東京に使節を送り、外務省と直接節目を協議させることなどであった<sup>67</sup>。

この間、訓導・玄昔運が倭館を訪問する数日前の8月28日には東萊府按察使・帯率軍官・太凡谷の三人が観光を口実に倭館を訪問した。森山は彼らに日本政府が朝鮮との交渉再開を望んでいると説明し、日本政府の官職表を伝達した。このため大凡谷は上京して朝廷に知らせると言ったが<sup>68</sup>、9月24日に再び倭館に訪れ、禁衛大将・趙寧夏の

64) 『日本外交文書』(韓国編)第1冊,590頁;『朝鮮事務書』27巻,明治7年8月20日,21日

65) 『日本外交文書』(韓国編)第1冊,576頁

66) 田保橋潔,上掲書,344頁

67) 『日本外交文書』(韓国編)第1冊,582頁

68) 暗行御史・朴定陽の3人の随員とともに、訓導・玄昔運が森山との協議のために倭館を訪問する数日前の8月28日に観光を口実に倭館を訪問した。当時、三人の随員は浦瀨裕の居所を訪れて森山茂に会い、一日中応答をした。彼らは、日朝間に交渉が数年間中断されたのは、中間で陰蔽の悪巧みがあったためだとし、その責任を追及して、前東萊府使の鄭頭徳と訓導の安東峻、陪通事の崔在守などの関連者を処罰したという事実

私書を森山に渡した<sup>69)</sup>。

当時朝廷の雰囲気は、朴珪寿と李裕元の意見通りに対馬が書契を改撰してくれば受け入れようとの立場であった<sup>70)</sup>。9月10日(旧暦7月30日)に領議政の李裕元は1873年冬に慶尚監營と東萊府に倭館に支給する公木と公作米を報告させたが、報告には不足がないという。しかし最近、米と木綿を金や標で受け取っておきながら虚偽報告を常としている事実を指摘しながら、新たに任命された慶尚監司と東萊府使に厳格に言い聞かせ、「(公木と公作米を)きちんと蓄え、使用するときまで待つよう」に提案し、高宗は格別に厳飭するよう注文している<sup>71)</sup>。これは朝鮮政府がいつでも日本との関係を改善する意思があり、それに対する備えをしていたという事実を具体的に示す事例であり、朝鮮政府が対馬との通交関係を前提とした対日政策を基本にしていた従来の視角から脱却し、「己酉約条に基づき、対馬との通交関係回復の不可能性と対馬の存在を前提とする対日政略に対する再調整の必要性」を認識し始め、それによって対日政策の一大転換が可視化されたことを意味する<sup>72)</sup>。

これをきっかけに訓度の玄昔運、別差の玄濟舜は森山などと公式に接触することになった<sup>73)</sup>。森山は翌日9月25日に太凡谷を介して趙寧夏に返事を送ったが、ここで彼は訓導の玄昔運と三つの条件を協定した事実を知らせ、その取り持ちを依頼した<sup>74)</sup>。そしてこの事実を本国に報告した<sup>75)</sup>。

朝鮮朝廷では1874年9月19日に森山が提示した三つの案のうち辛未年(1871)の書契は当時すでに不許可としたため、再度論ずることはできず、通信使の派遣は先例があるので拒否できないという意見を提示したが、書契を改めて作成してくると言った以上受け入れ、改撰された書契が妥当でなければまた排斥するとの条件で第二案を採

---

を倭館側に伝えている。森山は彼ら呼び、日本政府が朝鮮と交渉しようとしていると知らせ、日本の官制を詳細に記録した文書を伝達した。当時、太凡谷は上京して政府要人に説明すると言って帰っていった(『朝鮮事務書』27冊明治8月28日)。

69) 田保橋潔, 上掲書, 348-349頁

私書の内容は、1868年と1871年以来、書契のフォーマットが規定に違反し、倭館で年例公作米などを受領していかないなど、両国間に問題が生じたにもかかわらず、その原因を明らかにしなかった。このために朝鮮の朝廷では、日本側に渡海訳官を派遣してその原因を明らかにする前に、暗行御史(朴定陽)を派遣して東萊と釜山の実情を調査した結果、訓導と通事の連中に問題があることが分かった。さらに以前、大凡谷を通じて日本側が対朝鮮交渉の再開を望んでいることを聞いており、日本政府の高官職表を送ってくれたので、これは貴国の善隣友誼の意思が真であることを知ったというものであった。

70) 『일성록』高宗11年8月9日

71) 『비변사등록』高宗11年7月30日; 『승정원일기』高宗11年7月30日

72) 宋安鍾, 「1874年の朝鮮政府の日朝交渉再開要因-日朝修好条規締結の研究(一)」, 『阪大法学』45-6, 1996年; 石川寛, 「倭館接收後の日朝関係と対馬」2-3頁再引用

73) 『日省録』高宗11年(1874)8月9日; 『日本外交文書』(韓国編), 第1冊, 578-579頁

74) 『朝鮮交際始末』巻3

75) 『日本外交文書』(韓国編), 第1冊, 589頁

用した。当時朝鮮では、以前の書契問題についても修正して持ってくれば、以前の交隣関係を回復できるはずという期待もあったのだ<sup>76)</sup>。

9月28日倭館で森山と会見した訓導の玄昔運は「政府の回下は第二条を承認することに決まったが、書契中の『皇上』は『天子』に修正してほしい」という朝鮮の立場を伝達した。しかし、森山が朝鮮に渡ったのは朝鮮の国内事情を調査するためであり、朝鮮官吏との交渉ではなかった。それでも森山は、広津を通じて自分に交渉権限などを与えてくれるよう外務省に要請した<sup>77)</sup>。そして東萊府使との交渉を持ち、日朝国交再開のための条件を協定した<sup>78)</sup>。結局、訓導の玄昔運と森山の妥協案を契機に宗氏の渡韓は必要なくなった。

結局、帰国することになった森山は10月1日夜、訓導に口演書を伝達し、自らの帰国計画を知らせた。そして50日以内に協定の条件に基づいて外務卿と外務大丞の書契を持ってくるとし、宋氏の文引に代わる外務卿表記の草案を提示した。また、公館長代理に奥を指名し、かかる事項を東萊府使に伝達するよう要求した<sup>79)</sup>。

口演書の内容は、倭館に領事官または館長、属官を置くのは専ら事務を判別して処理し、人民を取り締まって管理するためであり、両国間で禁止された物品以外に各種商品の貿易は人民の意に任せ、館には都賈を置いたり、別途の法を作って貿易を禁ずることを承諾せず、両国の公式的な事務を処理する官員と属員が貿易に参加することを禁じ、漂流民の場合は前例通り救護するものとし、両国民の護送及び引渡しの手続は領事官または館長が東萊府使と文書を取り交わして施行することなどを規定したものであった。結局、漂流民の送還を始めとする一切の外交的手続は対馬⇄朝鮮（東萊）との関係から外務省⇄朝鮮（礼曹判書）に設定し、対馬⇄朝鮮との公貿易を廃止することで、対馬は貿易までも管掌できなくなった<sup>80)</sup>。これは1861年に江戸幕府内部で朝鮮との外交・貿易を直接支配しようとしたのが明治政府によって実現したものであり、これにより明治政府は朝鮮との外交関係及び貿易までも掌握することになった。ついに10月2日に、東萊府使が別差の玄濟舜を通じて倭館にいた森山に短簡を伝達したが、これは朝鮮官吏が外務省派遣員に送った最初の公文書であった<sup>81)</sup>。森山は1874年10月

76) 『高宗時代史』高宗11年8月9日

77) 『朝鮮講信録』3；김흥수, 上掲書, 357頁より再引用

78) 『日本外交文書』(韓国編), 第1冊, 578-580頁. 金・フンスはこれを朴・森山協定と名付けた (김흥수, 上掲書, 356-364頁)

79) 同上.

80) 『日本外交文書』(韓国編), 第1冊, 592頁

81) 田保橋潔, 上掲書, 353頁

東京に上京し、この事実を復命した<sup>82)</sup>。

しかし、このような朝鮮政府の対日政策の転換と日朝交渉再開の努力にもかかわらず、訓導・玄昔運と森山の合意内容はそのまま履行されなかった。1875年2月24日理事官に昇進した森山は、礼曹判書と礼曹判書参判宛ての外務卿の書契と外務大丞の書契、さらに外務卿の委任状と訓令を携えて釜山に到着した。この書契には図書の返却と新印を使用するという内容が含まれていた。東萊府使・黄正淵の報告を受けた朝廷では3月16日、1874年9月3日の合意と差があり、図書を返却し外務省が路引を作成することには同意できないので、理事官の接待は行うが書契は修正を要求するようとの回下を下した。さらには、森山が宴饗の儀の際に宴饗大庁の正門の通過と図書の改編以外にも大礼服の着用を主張したことで、5月18日に会談は決裂し、高宗政権による交隣外交再開の努力は膠着状態に直面してしまう。その後朝廷では、善後策に関する議論がなされ、倭館を閉鎖せずに日朝交渉の修復を試みたものの、日本明治政府の返事は10月3日の軍艦春日丸の釜山入港と10月27日の日本海軍少将・中牟田倉之助による軍艦孟春の釜山入港、さらに武力を誇示する艦砲の打ち上げであった。これにより、朝鮮における交隣体制の回復という対日政策の方向はさらに程遠いものとなった。

## 4. 1872年～1874年の倭館の状況

### 1) 東萊府による倭館の管理と大規模な軍事訓練

#### (1) 東萊府による倭館の管理

倭館から対馬人が退去し、歳遣船が廃止された1872年9月以降、東萊府は外務省官吏の駐在を黙認しながら倭館に対する統制と管理を強化した。東萊府と慶尙左水營の官吏らは海岸の警備と入港を要請する倭人に対して依然として路引を要求した。倭館には少ないときは8～9人、多いときは18～19人を乗せた小型船舶の飛船が頻繁に出入りしていた。すべての飛船は路引を所持せずに渡航した場合、不法として取り扱わ

82) 『日本外交文書』(韓国編), 第1冊, 595-597頁

れ、対馬に帰還する際には必ず釜山鎮で交付した路文を受領した。また倭館には漂流民を乗せた船舶も到着し、汽船も入港した。そのたびに朝鮮側ではすべての船舶に対して路引の所持の有無を確認し、漂民船の場合は書契の持参の有無を確認した。書契を持参していない漂民船の場合、館守倭を通じて必ず問題視し、彼らの出入りを制限した<sup>83)</sup>。

「対馬人退去措置」以降も東萊府の出入国管理には変わりがない。すなわち、日本から船が領海に入ってくるのを発見した荒嶺山の烽軍が釜山鎮と東萊府に知らせると、豆毛浦萬戸が軍船を率いて出向き、引率して倭館に入港させ、訓導は彼らに入港事情を聞き取り、彼らが持参した路引を添付して礼曹判書に報告する。彼らが立ち去る際には釜山鎮で路文を交付してから出発させ、彼らが立ち去った事実は釜山津と九峰の烽軍が確認して報告するシステムはより厳重に守られた<sup>84)</sup>。

しかし、大船が飛船の路引を持参して入ってくるようになったという点と路引の交付の主体が外務省に移ったという点では大きな変化がある。1872年11月9日玉浦に漂流した大船が路引を持参してきたのが始まりである。さらに11月11日、11月14日に続けて大船が飛船の路引で入ってきたため、訓導は館司に直ちに退去措置をしたが、1873年1月13日(旧暦12月5日)に大・中・小船ともに路引渡航に関する合意がなされた。これにより、己酉約条で規定されていた船隻規定は意味を失うことになった<sup>85)</sup>。

一方、東萊府は倭館の守備を強化する兆しを見せる。まず、番船を配置して倭館守備兵を増員した。倭館側の抗議に対しては東萊府使の命だという事実を盾に拒否し、倭館には館直30人程度が毎日倭館にやってきて巡察するなど、倭館の監督に一層の徹底を期した<sup>86)</sup>。

倭館建物の点検と修理も依然として行われた。訓導と別差が倭館に訪れて倭館建物を点検し、東萊府からは倭館の修理を命じた。1873年1月1日(新暦1月29日)新年になると、訓導の安東峻と別差の玄豊瑞は倭館に訪れて倭館建物の破損状態を点検し<sup>87)</sup>、4月には倭館側の要請で倭館の船着場を修理した。倭館の責任者である奥が倭館前の船着場が冬に破損したとして東萊府に修理を要請した。しかし、小通事の朴琪滄が任所で処理すべきものだとのみ伝達し、修理をせずにした。このため、奥が4月7日(旧暦3

83) 현명철, 2015, 「1872년 일본 화륜선의 왜관 입항」, 『동북아역사논총』49, 동북아역사재단.

84) 同上

85) 현명철, 2015, 「己酉約条의 붕괴와 강화도조약의 체결」, 2015년12월12日韓日關係史學會主催倭館ワークショップ發表文

86) 同上

87) 『동래부기록』 1873年1月1日条

月11日)、陪通事の崔在守に倭館の費用、すなわち日本側の費用で船着場を修理をすると提案したところ、4月19日(旧暦3月23日)に崔在守が倭館にやってきて東萊府から船着場の修理をするようにとの命が下ったと知らせてきた。

当時訓導は、東萊府が倭館闖出と代官所の廃止などで円満な日朝交渉がなされ得ない状況で、従来の船着場修理の手續(館司を通じて任所に通達して人夫を選出し、東萊府と倭館の人員が立ち会って処理する方法)に問題があるが、「(倭館は)我が国の土地である。我が国の船着場なので、もともと大量の人員を投じて築造したものであるので、代官所が撤収したからといってそのまま放置し難い。ましてや風波によって破損がさらにひどくなっている状況なので、あなた方が急いで修復できないとの旨を聞き、修理することにした」として、船着場の修理に当たることになった背景を伝えている。このような事実について奥は、日本が修理をすることになれば後に紛争が生じる恐れがあるため、修理してくれたものと理解した<sup>88)</sup>。

5月7日(旧暦4月11日)にも軍官頭の別軍官を従えて東萊府使の指示により船着場及び館内の垣根の点検のために倭館に訪れ、見回して帰り<sup>89)</sup>、10月28日(旧暦9月8日)には草梁客舎が修理されてから時間が経ち、損傷が激しいので、絶影島と松田で材料を用意して工事するために客舎の殿牌を釜山永嘉台に移した。客舎の修理は10月20日に完了した<sup>90)</sup>。その後も倭館の建物や船着場の修理に対する要求は続いた。このように、日朝間の公式的な関係が中断された状況においても、東萊府が前例に準じて倭館側の要求に応じたことは、日本との外交交渉の中断を望んでおらず、倭館は朝鮮が統制し管理する空間だという考えに変化がなかったからとみられる。

## (2) 軍事訓練

倭館の貿易権を剥奪された旧代官所の商人を介して日本が朝鮮や台湾を相手に戦争をするとのうわさが伝わり、3月15～16日には東萊大調練という大規模の陸軍訓練が行われ、4月15日頃には水軍の大規模訓練があった。このような東萊府の軍事訓練は、嚴原に滞留して対朝鮮交渉業務を担当していた広津を通じて1873年4月25日に外務大丞の花房と七等出仕の森山に伝わった。その詳細な内容は次の通りである。

1873年3月16日頃に朝鮮側で大規模訓練をしたとの知らせがあり、3月20日には東萊

88) 『日本外交文書』(韓国編), 第1冊, 446-447頁

89) 『朝鮮外交事務書』6, 265頁

90) 『동래부기록』1873年9月1日条; 『조선외교사무서』3, 309頁

で大規模訓練があった。さらに4月15日には、訓練軍隊が釜山城の下に続く開雲鎮の浜辺、すなわち草梁倭館から海辺に直径40丁になる所までやってきて、午前10時頃から陣を張って発砲し、赤、青、白の服を着た軍事が全部で2千5百人程度だったが、縦一間半、横二間半を上回る大きさの白旗に帥という大きな文字が書かれた旗と大小様々な旗をなびかせながら野陣を張った姿で隊伍を組み、進退の動きがなかったという。この訓練は夜10時過ぎまで行われたが、東萊府使と釜山僉使は勿論、近くの水營・兵營・僉節使も参加し、某所から600人、僧作隊から300人、釜山から700人、多一浦から500人が動員されたという。後に倭館にやってきた陪小通事の崔在守によれば、東萊・金井山城・釜山・多一浦・西生鎮・頭毛鎮・開雲鎮からそれぞれ出兵し、その数は数万人に達し、当時使用した大砲は朝鮮で作られたものだったという<sup>91)</sup>。

5月7日（旧暦4月11日）と5月14日にも倭館で朝鮮水軍の訓練の様子が姿が目撃されている。多大浦の僉使が水軍を陣頭指揮し、倭館の沖合をゆっくりと行進して釜山鎮の沖合で停泊したが、この水軍の訓練も倭館に力を誇示する様子を見せもした。水軍の訓練時に訓導の安東暎も200人の将帥となり、崔在守もその部隊に属して赤い甲冑を身に付け、小さな船の船長になった。また、大砲一挺を受けて管理までした<sup>92)</sup>。広津は、このような東萊府の軍事訓練は、日本が近く軍艦を派遣する可能性があると考え、それに対する備えであり、他方では朝鮮が起こるかもしれない日本からの武力的な脅威に対して阻止できるという自信を倭館側に示すためであったと理解した<sup>93)</sup>。

## 2) 日本の商人の交易活動と陪通事の崔在守による2万貫文の貸付事件

### (1) 日本の商人の交易活動

「対馬人退去」当時、日本外務省は倭館の商人を撤収対象に含めることにしたが、最終的には倭館における商人の交易は「両国に緊要なこと」と規定し、倭館での交易活動を対馬人に限定せず、その他の日本人にも許容した。しかし、倭館貿易は私貿易（開市）も歳遣船の往来に伴うものであったため、東萊府では私貿易を停止し、朝市のみを黙認した。このため、外務省は商人の自由な貿易活動により潜商（密貿易）を活性化する方針を取ることになる。森山は倭館にいる奥に「しばらく内外の暗黙的な

91) 『日本外交文書』(韓国編), 第1冊, 444-446頁

92) 『일본외교문서』(한국편), 第1冊, 472-474頁

93) 『日本外交文書』(韓国編), 第1冊, 444-446頁

許可の地位を得るように」せよとの指示を下した<sup>94)</sup>。その結果、1873年2月には「現在の状況は潜商もより盛んになり、いずれも互いに障害になることはなくなった」という森山の報告があるほど、倭館内の交易はかなり活発に行われていた。

しかし5月に入ると、東萊府は急に潜商に対する取り締まりを強化した。5月2日(旧暦4月5日)、東萊府所属軍官が倭館にやってきて倭館を監視していた四ヶ所の伏兵将たちを捕縛し、むち打ちの刑に処した。さらに、東萊府から銃隊100人余りを南側の浜辺と各所に送り、巡視を強化し、番船を配置するなど潜商を監視した。その日から取り締まりはさらに厳しくなり、倭館では潜商が全く入ってこられず、「一品一物の商取引」も不可能な状況になり、朝市さえも綿布・絹・飴・魚・卵などが守門で押収されるなど、倭館への商品の搬入が遮られるまでになった<sup>95)</sup>。

このような背景には、東京商人の三越則兵衛の手代である加藤勝蔵、上村角蔵が対馬の商人である三木屋の名義で1873年4月21日に倭館に渡り、東萊の商人と貿易を試みた事件があった<sup>96)</sup>。広津が倭館に赴任した直後に発生したこの事件は、朝鮮の倭館政策に正面から反したものであった。朝鮮は、倭館貿易は対馬人にもみ承諾したものであり、対馬以外の日本人が倭館で交易することは決して承諾できないことであり、これは密貿易に当たるという立場であった。すなわち、東京の商人が倭館で朝鮮人と貿易を試みた行為は「無法之國」にあたるもので到底容認できないことであったので、東萊府使は5月28日、倭館の守門に潜商を禁ずる伝令書を貼り、守門将と小通事に取り締まりを厳しくするように命じた<sup>97)</sup>。しかし、これらの東京商人と広津が倭館から帰った後は、夜ごとに潜商が以前のように盛んに行われた<sup>98)</sup>。このように東萊府使が対馬出身ではない他の地域の日本人による倭館内での商取引を厳しく取り締まったのは、対馬との持続的な交渉を日朝関係の基本と考える朝鮮の対日方針が色濃く反映されたものだと言える。

## (2) 陪通事の崔在守による2万貫文の貸付事件

1874年1月23日、陪通事の崔在守は小通事一行(朴思源、朴琪淙、金采吉)を連れ

94) 『朝鮮外交事務書』6, 606-625頁

95) 『日本外交文書』(韓国編), 第1冊, 461-465頁, 472-475頁

96) 『日本外交文書』(韓国編), 第1冊, 441-442頁

97) 『日本外交文書』(韓国編), 第1冊, 478頁

12月18日にも東萊府使は対馬人以外の日本人の倭館貿易を禁ずる命令を下し、設門の門将を取り締まる形式の触れ書きを公示した(『朝鮮外交事務書』9, 129-132頁)。

98) 『조선외교사문서』7, 355頁

て倭館に訪れ、当時倭館に滞留していた80人余りの対馬商人のうち20人<sup>99)</sup>を選んで2万貫文（日本円2万7千円）を貸し付けた。崔在守は商人の三井善右衛門を訪ね、倭館に出入りしながら世話になったので、その恩返しとして低い利率で2万貫文を貸し付けることを提案した。結局、倭館の商人は2万貫文の借入れを決めて契約書を取り交わしたが、当時倭館の責任を負っていた奥義制の知るところとなり、2月8日に奥は契約を破棄させた<sup>100)</sup>。

契約を破棄された崔在守は2月9日、奥と東田伊良、倭館の商人・豊武七を訪ね、倭館内の取引をすべて中止し、任所を撤収するつもりであり、先日受け取った布海苔の買入金返すと伝えて来た<sup>101)</sup>。当時、崔在守が2万貫文を倭館の商人に貸した意図は、商人間の取引のみで両国の「隣誼」を維持している状況を考慮してのことであったと説明した<sup>102)</sup>。しかし、奥の命令にもかかわらず、崔在守と倭館の商人は名目を変えて隠密に2万貫文の借入れを再契約した。そのため「倭館の商人は一方は潤沢で、他方は厳しくなり、ひそかに分けられる状況」に至った<sup>103)</sup>。

この事実が奥の知るところとなり、再契約に関する証拠を探していた最中の3月15日、真夜中に火薬を積んだ朝鮮の船が失火により爆発し、三隻の船が破壊され、10人以上の死亡者が発生する大惨事が起きた<sup>104)</sup>。調査の結果、この火薬は崔在守の潜商品であり、火薬を依頼した相手は倭館商人の豊武七と阿比留福治だと判明した。結局、奥は崔在守による2万貫文貸付事件と火薬爆発事件が関連していると判断し、豊武七と阿比留福治に倭館退官を命じた。そして20日には、井角兵衛の自白により2万貫文の借入れを再契約した事実を明らかにし<sup>105)</sup>、この事件に関連する中心人物を長崎県支庁に通知する一方、外務省に倭館商人の嚴重な取り締まりを要請した<sup>106)</sup>。

事件が収束すると、奥は倭館に長文の「諭告館内商民」を告示した<sup>107)</sup>。これまでの朝鮮と対馬との関係を否定することで、歴史的にも地理的にも朝鮮と深く関わってき

99) 20人の氏名は次の通り。後藤嘉衛・豊武七・三井善右衛門・古谷豊次郎・桜井寛兵衛・安藤善作・馬場豊作・原田善作・山田安兵衛・高木政太郎・宮田伊兵衛・北崎良助・総島和作・秦孫右衛門・保家初治・浦崎荒治・阿比留福治・伊藤清次郎・西村友助・福田増兵衛。後に久賀良助が加わる。

100) 『朝鮮外交事務書』8, 287-288頁

101) 『日本外交文書』（韓国編）第1冊, 526-529頁

102) 『朝鮮外交事務書』8, 319-320頁

103) 『日本外交文書』（韓国編）製本, 529-531頁

104) 『朝鮮外交事務書』8, 453-455頁, 458頁, 559-561頁

105) 『朝鮮外交事務書』8, 457-465頁

106) 『日本外交文書』（韓国編）第1冊, 531-534頁

107) 『日本外交文書』（韓国編）第1冊, 537-540頁

た対馬人に「皇国」の一員であることを自覚させる内容であった<sup>108)</sup>。しかし他方で、この事件は1873年にあった東京商人の潜商事件とともに、朝鮮が対馬を交渉対象として近世的な対日関係を絶えず志向していたことを示すものだと言える。

したがって「対馬人退去措置」は、その後に展開された倭館内の状況から推察するに、日朝外交と貿易の場としての倭館の廃止を意味したものではなかったことに注目すべきであろう。明治政府が倭館を一方的に「大日本国公館」と命名したが、朝鮮は認めなかった。歳遣船の中断により、従来行われていた日朝間の外交と貿易的な手続はしばし中断されたり縮小されはしたが、1876年の江華島条約締結時まで倭館の機能は維持されたことを看過してはならないはずだ。このため、1872年9月に行われた明治政府外務省による「対馬人退去」措置は、交隣体制という従来の日朝関係に根本的な変化をもたらすことができなかったと言える。

## 5. おわりに

---

108) 石川寛, 上掲論文 (2004), 10頁